

譯註 沁都紀行

초판인쇄 | 2008년 12월 26일

초판발행 | 2008년 12월 31일

저 자 | 고재형(高在亨 : 1846-1916)

역 자 | 김형우 · 강신엽

발 행 인 | 이갑영

발 행 처 | 인천학연구원(www.isi.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씨티은행빌딩 10층

전화 : 032)441-5073-4 전송 : 032)441-5075

편집 · 인쇄 | 도서출판 아진 032)883-7155

역주 심도기행

譯註 沁都紀行

고재형(高在亨) 저

김형우 · 강신엽 역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발간사

화남(華南) 고재형(高在亨 1846-1916)의 『심도기행(沁都紀行)』이 김형우 박사에 의해 완역되었다. 심도는 강화(江華)의 별칭이다. 『심도기행』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은 강화의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 그리고 강화가 길러낸 수많은 의인과 지사들의 행적에 바치는 아낌 없는 찬가(讚歌)이다. 이 기행시문은 강화도 선비 화남 선생이 지은 것으로 모두 256 수의 7언 절구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강화의 마을 유래와 풍경, 주민의 생활상을 소재로 삼고 있다.

고재형은 1846년 강화군 두운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이며 1888년(고종25년)에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은 선비였다. 그는 “평소 충의와 대의를 쫓은 인물들을 흠모하였으며 전통이 급속히 사라져가는 풍속을 개탄하였다”고 한다. 고재형은 자신이 태어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두두미 마을에서 출발하여 당시 강화군 17개면 100여 마을을 필마(匹馬)에 의지하여 빠짐없이 섭렵하였다.

저자가 “강화부 전체의 산천과 고적을 다시 탐방하기 위해” 단신으로 강화기행을 떠난 것은 1906년 봄이었는데 강화 기행을 감행한 동기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터인 강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을 터이다. 한편 그가 강화순례를 떠난 해가 서구문명이 물밀듯 밀려들어 전통과 유풍이 점차 사라져 가는 때였으며,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운명이 기울어 가던 암울한 시대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재형이 순례자가 되어 강화의 땅 구

석구석을 밟으며 걸어갈 때의 심정은 훗날 이상화 시인이 “푸른 옷
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을) 다리를 절
며 걷고 싶다”고 토로했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심도기행』은 독특한 구조와 내용을 지닌 기행시문이다. 우선 기
존의 기행문학이 출발지와 목적지라는 두 점을 잇는 선형적 구조의
플롯을 취하고 있음에 비해 이 작품은 강화도의 모든 마을을 샅샅이
탐방해가는 공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리고 『심도기행』의 문체는 시와 산문이 병치되고 서로 조응하고 있
어 전체적으로 한편의 서사시처럼 읽힌다. 256수의 7언시를 골격으
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한시 작품과 관련되는
주석이나 해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산문으로
기술된 강화의 역사적 유산이나 자연경관, 풍속과 생활상, 성씨와 인
물에 대한 서술은 그 자체로 지지(地誌)를 이룰 만큼 풍부하고 자세
하다.

한편 『심도기행』은 저자 자신이 나고 자라고 생활한 고향땅을 기
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보통의 기행문학은 주
체가 먼 이방 지대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이색적 풍물이나 감
흥을 기록한 산물이다. 자신의 삶터가 성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는 주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일 터이다. 친
숙한 장소가 낯선 공간으로 현현(顯現)했을 때 주체의 대응 방식은
낯선 공간을 다시 자신의 영토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는 것
이다. 즉 이 책은 전통사회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낯선 공간으로 떨
어진 향토를 재발견하여 전용(專有)하기 위한 주체의 대응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근대전환기 향토문학 가운데 선편에 놓을 수 있겠다.

『심도기행』의 입체적 성격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텍스트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준다. 문학적 텍스트

로, 그리고 민속지로, 지리지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 화남 선생이 100년 전에 노래하며 홀로 걸었던 강화의 땅을 밟으며, 강도(江都)가 겪어 온 기나긴 수난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고, 그 땅이 길러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新 심도 기행'을 떠나보자고 권유하고 싶다.

2008년 12월

인천학연구원장 이 갑 영

일러두기

1. 이 책은 화남(華南) 고재형(高在亨, 1846-1916)이 1906년 강화도의 각 마을 명소를 직접 방문하여 256수의 한시(漢詩)를 짓고, 그 마을의 유래와 풍광, 인물, 생활상을 설명한 산문을 곁들인 기행문집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번역한 것이다.
2. 『심도기행』은 필사본 2종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종손 고승국이 소장하고 있는 ‘고승국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구창서의 발문이 있는 ‘구창서발문본’을 부분으로 삼아 대조하며 번역하였다. 번역문 뒤에 저본으로 삼은 ‘고승국소장본’을 영인본으로 수록하였다.
3. 원문의 수록 순서대로 한시 256수와 해설문을 배열하되, 당시의 면(面) 별로 묶어서 편집하였다.
4. 제목이 없는 한시는 바로 앞의 제목을 따르거나, 내용 중에서 주제어를 뽑아 제목으로 삼고 끝에 “*”를 붙여 구별하였다.
5. 지명의 주석은 ≪강화지명지≫(강화문화원, 2002)와 ≪한국지명총람-강화군≫(한글학회, 1986) 등을 참고하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으로 보완하였다.

6. 인물의 주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의 자료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였다.
7. 이 책의 각주는 모두 역자가 단 것이며, 저자의 주는 본문 속에 포함시켰다.
8. '구창서발문본'에만 있는 구창서의 발문은 번역문 맨 뒤에 실었다.
9. 이 역주본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화역사문화연구소의 강독회 회원들의 강독이 출발점이 되었다.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발간사

■ 일러두기

■ 인정면(仁政面) 15

- | | |
|---------------|---------------|
| 1. 두두미동(斗頭尾洞) | 2. 백운동(白雲洞)① |
| 3. 백운동(白雲洞)② | 4. 삼동암동(三同岩洞) |
| 5. 서문동(西門洞) | 6. 마장동(馬場洞) |
| 7. 석성동(石城洞) | 8. 대청교(大清橋) |

■ 선원면(仙源面) 24

- | | |
|--------------|-----------------------|
| 9. 거말동(巨末洞) | 10. 연동(烟洞) |
| 11. 송공촌(宋公村) | 12. 독정촌(獨政村) |
| 13. 남산동(南山洞) | 14. 용당사(龍堂寺) |
| 15. 참경루(斬鯨樓) | 16. 가리포(加里浦) |
| 17. 신당동(神堂洞) | 18. 신지동(神智洞) |
| 19. 대문동(大門洞) | 20. 염씨산영(廉氏山塋) |
| 21. 냉정동(冷井洞) | 22. 선행동(仙杏洞) 충렬사(忠烈祠) |
| 23. 안동인 김상용 | 24. 벽진인 이상길 |
| 25. 청송인 심현 | 26. 파평인 윤전 |
| 27. 남양인 홍명형 | 28. 남양인 홍익한 |
| 29. 남원인 윤계 | 30. 창원인 황일호 |
| 31. 연안인 이시직 | 32. 은진인 송시영 |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33. 진주인 강위빙
- 34. 연안인 이돈오
- 35. 평해인 황신신
- 36. 능성인 구원일
- 37. 진주인 강홍업
- 38. 안동인 권순장
- 39. 광산인 김익겸
- 40. 김수남
- 41. 여흥인 민재
- 42. 강화수신(江華守臣)
- 43. 충의혼백(忠義魂魄)
- 44. 열녀절부(烈女節婦)
- 45. 선원사(禪源寺)
- 46. 고성인 이암(李嶽)
- 47. 경주정씨
- 48. 진주유씨
- 49. 창동(倉洞)
- 50. 이정(梨井)
- 51. 조산평(造山坪)

부내면(府內面) 77

- 52. 남산동(南山洞)
- 53. 구춘당(九春堂)
- 54. 청송심씨(靑松沈氏)
- 55. 부내12동(府內12洞)
- 56. 진보 돈대
- 57. 충신 이춘일(李春一)
- 58. 남대제월(南臺霽月)
- 59. 서문동(西門洞)
- 60. 국정동(國淨洞)
- 61. 맥현제단(麥峴祭壇)
- 62. 사직단(社稷壇)
- 63. 문묘(文廟)
- 64. 명륜당(明倫堂)
- 65. 강당(講堂) 안연재(安燕齋)
- 66. 북문(北門)
- 67. 여제단(厲祭壇)
- 68. 당주동(唐州洞)
- 69. 북장대(北將臺)
- 70. 북장춘목(北場春牧)
- 71. 기우청단(祈雨晴壇)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 | |
|-------------------|-----------------------|
| 72. 행궁 궁아제단(宮娥祭壇) | 73. 척천정(尺天亭) |
| 74. 장녕전(長寧殿) | 75. 세심재(洗心齋) |
| 76. 연초헌(燕超軒) | 77. 규장외각(奎章外閣) |
| 78. 상아(上衙) | 79. 객사(客舍) |
| 80. 민풍시(民風詩) | 81. 도과(道科) |
| 82. 공도회(公都會) | 83. 이아(貳衙) |
| 84. 중영(中營) | 85. 진무영(鎭撫營) 열무당(閱武堂) |
| 86. 선원비각(仙源碑閣) | 87. 시장(市場) |
| 88. 용흥궁(龍興宮) | 89. 육궁(六宮) |
| 90. 부내 심부윤(沈府尹) | 91. 부내 최판서(崔判書) |
| 92. 부내 김효자(金孝子) | 93. 성황단(城隍壇) |
| 94. 고려궁지(高麗宮址) | 95. 동문(東門) |
| 96. 강화부성(江華府城) | |

장령면(長嶺面) 138

- | | |
|---------------|-----------------|
| 97. 장동(長洞) | 98. 묵사동(墨寺洞) |
| 99. 갑곶동(甲串洞) | 100. 갑성열초(甲城列譙) |
| 101. 이섭정(利涉亭) | 102. 진해사(鎭海寺) |
| 103. 제승곶(濟勝串) | 104. 오종도비(吳宗道碑) |
| 105. 삼충壇(三忠壇) | 106. 용정동(龍井洞) |
| 107. 용정동 남궁공 | 108. 용정동 황공 |
| 109. 장승동(長承洞) | 110. 성정(星井) |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111. 왕림동(旺林洞)
- 112. 추포영당(秋浦影堂)
- 113. 옥포동(玉浦洞)
- 114. 옥포동 황공
- 115. 범우리(範圍里)
- 116. 월곶동(月串洞)
- 117. 연미조범(燕尾漕帆)
- 118. 대묘동(大廟洞)
- 119. 고성당동(高聖堂洞)
- 120. 양양곡(襄陽谷)
- 121. 선학곡(仙鶴谷)
- 122. 소산리동(小山里洞)

■ 송정면(松亭面) 162

- 123. 낙성동(樂城洞)
- 124. 솔정동(率亭洞)
- 125. 숙룡교(宿龍橋)
- 126. 뇌곶동(雷串洞)
- 127. 승릉동(崇陵洞)
- 128. 포촌동(浦村洞)

■ 삼해면(三海面) 166

- 129. 당산동(堂山洞)
- 130. 승천포(昇天浦)
- 131. 긍곡(矜谷)
- 132. 상도동(上道洞)
- 133. 하도동(下道洞)

■ 하음면(河陰面) 172

- 134. 하음면(河陰面)
- 135. 신촌동(新村洞)
- 136. 봉가지(奉哥池)
- 137. 부근동(富近洞)
- 138. 장정동(長井洞)
- 139. 양오리(陽五里)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북사면(北寺面)** 176

140. 산이포동(山里浦洞)	141. 철곶동(鐵串洞)
142. 덕현동(德峴洞)	143. 삼성동(三省洞)
144. 군하동(羣下洞)	145. 냉정동(冷井洞)

■ **서사면(西寺面)** 180

146. 증산동(甞山洞)	147. 교항동(橋項洞)
148. 송산동(松山洞)	149. 인화동(寅火洞)

■ **간점면(艮岾面)** 183

150. 별립산(別立山)	151. 창교동(倉橋洞)
152. 강후동(江後洞)	153. 이현동(梨峴洞)
154. 이현동 덕수이씨	155. 삼거동(三巨洞)
156. 신성동(新成洞)	

■ **외가면(外可面)** 189

157. 삼거동(三巨洞)	158. 망월동(望月洞)
---------------	---------------

■ **내가면(內可面)** 190

159. 산곶동(山串洞)	160. 고산동(孤山洞)
161. 구주동(鳩洲洞)	162. 구하동(鳩下洞)
163. 황청동(黃淸洞)	164. 구포촌동(舊浦村洞)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165. 옥계(玉溪)
- 167. 백씨산소(伯氏山所)
- 169. 동래정씨
- 166. 조계동(皂溪洞)
- 168. 창원황씨

■ 고려산(高麗山)과 매음도(媒音島) 196

- 170. 고려산(高麗山)
- 172. 백련사(白蓮寺)
- 174. 홍릉(洪陵)
- 171. 청련사(靑蓮寺)
- 173. 적련사(赤蓮寺)
- 175. 보문사(普門寺)

■ 위량면(位良面) 205

- 176. 정포동(井浦洞)
- 178. 항주동(項州洞)
- 180. 흥천동(興川洞)
- 182. 존강동(存江洞)
- 184. 장지포(長池浦)
- 186. 목장(牧場)
- 177. 외주동(外州洞)
- 179. 낙인동(樂仁洞)
- 181. 산문동(山門洞)
- 183. 건평동(乾坪洞)
- 185. 진강산(鎭江山)

■ 상도면(上道面) 213

- 187. 하일동(霞逸洞)
- 189. 묵와선생(默窩先生)
- 191. 가릉(嘉陵)
- 193. 장하동(場下洞)
- 188. 하촌(霞村)
- 190. 능내동(陵內洞)
- 192. 조산동(造山洞)
- 194. 장하동 청주한씨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195. 장하동 평해황씨
- 197. 장두동(場頭洞)
- 199. 가릉포(嘉陵浦)
- 196. 석릉(碩陵)
- 198. 추포정(秋浦亭)

■ 하도면(下道面) 222

- 200. 문산동(文山洞)
- 202. 내동(內洞)
- 204. 천재암(天齋庵)
- 206. 망도서(望島嶼)
- 208. 여차동(如此洞)
- 210. 화포지(花浦址)
- 212. 해산정(海山亭)
- 214. 사기동(沙器洞)
- 216. 선평만가(船坪晩稼)
- 201. 상방리(上坊里)
- 203. 마니산(摩尼山)
- 205. 성단청조(星壇淸眺)
- 207. 장곶동(長串洞)
- 209. 흥왕동(興旺洞)
- 211. 동막동(東幕洞)
- 213. 정수사(淨水寺)
- 215. 덕포동(德浦洞)

■ 길상면(吉祥面) 238

- 217. 선두동(船頭洞)
- 219. 산후(山後)
- 221. 삼랑성(三郎城)
- 223. 취향당(翠香堂)
- 225. 애창(艾倉)
- 227. 초지동(草芝洞)
- 218. 장흥동(長興洞)
- 220. 전등사(傳燈寺)
- 222. 장사각(藏史閣)
- 224. 양공비(梁公碑)
- 226. 온수동(溫水洞)
- 228. 초지동 대구서씨

譯註 沁都紀行

CONTENTS

- 229. 직하동(稷下洞)
- 231. 직산동(稷山洞)②
- 233. 정하동(亭下洞)
- 235. 곤릉(坤陵)
- 237. 굴곶포(屈串浦)
- 230. 직산동(稷山洞)①
- 232. 직산동 제주고씨
- 234. 정두동(亭頭洞)
- 236. 길상산(吉祥山)

■ 불은면(佛恩面) 252

- 238. 덕진동(德津洞)
- 240. 손석항(孫石項)
- 242. 광성동(廣城洞)
- 244. 신현동(新峴洞)
- 246. 둔랑촌(菴浪村)
- 248. 오두어화(鰲頭漁火)
- 250. 사복포(司僕浦)
- 252. 능촌(陵村)
- 254. 지천(芝川)
- 256. 두두미(斗頭尾)
- 239. 대모산(大母山)
- 241. 손석항 손장군(孫將軍)
- 243. 광성나루[廣城津]
- 245. 녘성동(莳城洞)
- 247. 오두동(鰲頭洞)
- 249. 오두동 평양조씨
- 251. 능촌동(陵村洞)
- 253. 고잔동(高盞洞)
- 255. 꽃내동(串內洞)

■ 沁都紀行 원문 269

인정면(仁政面¹⁾)

1. 두두미동(斗頭尾洞²⁾)

斗頭我步帶春風	봄바람 맞으며 두두미를 걷노라니,
一府山川兩眼中	은 마을의 산과 내가 한 눈에 들어오네.
明月綠楊諸具榻	밝은 달 푸른 버들 여러 구(具)씨 탁상에서,
滿杯麴味使人雄	잔 가득한 술맛이 힘을 내게 하는구나.

○ 두두미동(斗頭尾洞)은 강화부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정면(仁政面)에 속한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병오년(1906) 봄에 내가 비록 병이 있는 몸이지만 강화부 전체의 산천을 다시 관람하면서 고적을 살펴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³⁾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따라 걸음을 옮겼으니, 두두미를 출발하여 다시 두두미로 돌아오려는 계획이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 구(具) 씨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후에 서쪽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 구씨 친구는 능성(綾城)의 세족(世族)으로, 문과(文科)를 거쳐 한림 전랑과 대각을 역임한 강암공(江菴公) 구강(具綱)⁴⁾의 후손이다.

1) 인정면(仁政面)은 두두미동을 비롯하여 백운동, 삼동암동, 서문동, 마장동, 석성동 등이 속해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불은면에 통합되었다.
 2) 두두미동(斗頭尾洞)은 현재의 두운1리이다. 두두미동의 ‘두’자와 백운동의 ‘운’자를 합하여 1914년부터 두운리라 하였다. 두도미라고도 한다.
 3) 저자 고재형(高在亨 1846~1916)은 제주고씨로 1888년(고종25)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에 합격하였으며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다. 아버지 고창환(高昶煥)은 행룡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을 지냈다. 대대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두두미 마을에 살았다.

강암공은 판안동공(判安東公) 구성량(具成亮)⁵⁾의 아들이다.

2. 백운동(白雲洞⁶⁾)①

西指白雲山上橫	서쪽으로 산위에 비낀 흰 구름을 가리키며,
居人尙說李先生	마을 사람 아직도 이규보 선생 말을 하네.
漠然舊址今何辨	옛터가 막연하니 지금 어찌 알아볼까,
數谷桃花數谷櫻	이 골짜엔 복숭아꽃 저 골짜엔 앵두꽃이네.

○ 고려 고종 때의 집현전태학사 이규보(李奎報⁷⁾)의 집터가 이 동네에 있다. 그를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불렀기에 후세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백운동(白雲洞)이라 붙였는데, 그 집터를 분명히 분별하기는 어렵다.

○ 어떤 사람은 이규보의 집터가 장령(長嶺)⁸⁾ 왕림동(旺林洞)⁹⁾에 있다고도 하였다.

4) 구강(생물년 미상) : 본관은 능성(綾城). 1408년(태종 8) 식년시 동진사(同進士)를 거쳐 집의(執義),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지냈다.

5) 구성량(?~1425) : 본관은 능성(綾城). 충청도경차관·예조전서를 거쳐, 강원도병마도절제사, 충청도병마도절제사, 판안동대도호부사 등을 지냈다.

6) 백운동(白雲洞)은 현재 불은면 두운1리에 있다.

7) 이규보(1168~1241) : 고려의 문신·재상. 본관은 황려(黃驪).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만년에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한다.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문한(文翰)의 관직자였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이고, 묘는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에 있다.

8) 장령(長嶺)은 본래 1개 면(面)이었으며, 현재의 갑곡리 용정리 옥림리 월곡리 대산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1914년에 부내면에 병합되었다가 오늘날 강화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9) 현재 강화읍 옥림2리이다. 1914년 옥포동와 왕림동이 합하여 옥림리가 되었다.

○ 이규보는 본관이 여흥(驪興)인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3. 백운동(白雲洞)②

遲遲更向水南涯	천천히 다시금 남쪽 물가로 향해 가니,
具閱庭前列植花	구씨 민씨네 정원에 즐비하게 꽃이 심겼네.
文學承承猶不墜	학문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았으니,
曾年皆是上庠家	옛날에 모두가 성균관 다니던 집안이라네.

○ 강암(江菴)의 후손인 진사 구원영(具元永)¹⁰⁾의 손자·사촌·집안의 조카들이 살고 있다. 여흥 민씨 노봉(老峯)의 후손 민창현(閔昌顯)¹¹⁾의 손자·증손이 살고 있다.

4. 삼동암동(三同巖洞)

三巖同立德庄東	덕장산 동쪽에 세 바위가 나란히 섰고,
谷谷幽居與野通	골골마다 숨은 집들 들판과 통해 있네.
因遇諸君終日語	여러 사람 만나자 종일토록 하는 말,
誦傳一峴朴公風	박공(朴公)의 풍모 담긴 고개전설 전해주네.

10) 구원영(1815년 출생) 1840(헌종 6) 식년시 진사(進士) 3등 19위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11) 민창현(1801년 출생) 1855(철종 6) 식년시 생원(生員) 3등 35위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 덕장산(德庄山) 동쪽에 세 바위가 똑같이 서있다고 해서 삼동암동(三同巖洞)이라고 하였다. 박공은 언제 때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이곳에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명을 박공현(朴公峴)이라고 하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스런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 본관이 남양(南陽)인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¹²의 후손으로, 좌랑을 지낸 홍응항(洪應恒)¹³의 아들인 홍경문(洪景文)과 그 동생 홍경익(洪景翼)이 이곳에 와서 살았고, 그 후손들도 뒤를 이었다.

○ 세마 벼슬을 지낸 청성군(靑城君)의 후손인 청송 심씨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 장수 황씨인 방촌(龐村) 황희(黃喜)¹⁴의 후손으로서 진사였던 황복(黃馥)¹⁵의 아우와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다.

○ 함열 남궁씨인 송암(松菴) 남궁찬(南宮璨)¹⁶의 후손인 구춘당(九春堂) 남궁수(南宮橐)의 9대손이 거주하고 있다.

○ 능성 구씨인 강암공의 후손으로서 진사였던 구득희(具得喜)¹⁷의 아들과 아우가 거주하고 있다.

○ 청주 한씨인 삼괴정(三槐亭) 한경린(韓景麟)¹⁸의 후손 한준석

12) 홍서봉(1572~1645) 본관은 남양(南陽). 강원도관찰사·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화의(和議)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3) 홍응항(1699년 출생) 1735(영조 11)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 19위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14) 황희(1363~145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

15) 황복(1834년 출생) 1894(고종 31) 식년시 진사(進士) 3등 149위로 합격하였다.

16) 남궁찬(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여헌(汝獻), 호는 창랑(滄浪).

17) 구득희(1824년 출생) 자는 사능(士能). 1873(고종10) 식년시 진사(進士) 3등 194위로 합격하였다.

(韓俊錫)이 살고 있다. 여러 벗들과 밤새도록 얘기하였다.

5. 서문동(西門洞¹⁹⁾)

地古西門倚路傍	옛날의 서문은 길가에 있는데,
盆烟點點繞耕庄	옹기 굽는 연기 올라 농장을 싸고 있네.
一平草色閑空地	평평하게 풀 우거진 널따란 빈터가,
認是當年習陣場	당시의 훈련장이었음을 알게 해주네.

○ 서문동(西門洞)은 혈구산(穴口山) 남쪽에 있다. 고려 고종이 정자산(亭子山) 아래로 천도하였을 때 이곳을 서문현(西門峴)이라고 하였다. 습진원(習陣原)은 곧 고려 때 군진(軍陣)을 연습하던 곳인데, 오래전부터 그릇가게(盆店)를 내서 생활하는 자가 많았다.

○ 이하의 세 동네는 물과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잠깐 거주하다가 바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모든 것이 자세하지 않다.

6. 마장동(馬場洞²⁰⁾)

馬城西北馬場村	마성의 서북쪽에 마장촌이 있는데,
隔水居人各樹藩	개울 건너 주민들은 나무 심어 울 삼았네.

18) 한경린(1544년 출생) 자는 중진(仲振). 1582년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6위로 합격하였다.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지냈다.

19) 불은면 삼성2리 서문안 마을이다.

20) 불은면 삼성1리 매재이 마을이다.

野霧山雲簷影裡 들안개와 산구름이 처마 안으로 비취들고,
 咳嘶何老戲兒孫 한 노인이 기침하며 손자와 놀고 있네.

○ 마장동(馬場洞)은 곧 혈구산 남쪽에 있다. 진강산 마성(馬城)의 서북쪽 시냇물 양쪽에 마을이 있는데, 마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과 토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병(咳嗽病)이 있는데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그러하다. 비록 거주하려 마음먹고 왔어도, 모두 바로 이사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세하지가 않다.

7. 석성동(石城洞²¹⁾)

穴口山南號石城 혈구산 남쪽은 돌성이라 부르는데,
 長原草色一郊程 풀 덮인 넓은 벌판 마을을 에워 쌓았네.
 居人誇說田之廣 마을 사람 밭 넓다고 자랑하며 말을 하니,
 豆麥相連上下平 콩밭과 보리밭이 아래 위에 이어졌네.

○ 석성동(石城洞) 역시 혈구산 남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때에 이곳에 성을 쌓은 돌이 많았는데, 그 돌을 옮겨 놓고 흙으로 메워 들판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에는 밭이 많아 밭농사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

21) 불은면 삼성1리 돌성 마을이다.

8. 대청교(大清橋²²⁾)

溪流東走大清橋 시냇물은 동쪽으로 흘러 대청교를 지나는데,
 十里相通花島湖 십리나 떨어져 있는 화도호와 통하네.
 滿月一坪瀦水濶 만월평의 저수지는 넓기도 넓으니,
 年年穡²³⁾事奏豐謠 해마다 농사 잘 되어 풍년가를 부르네.

○ 혈구산 이남의 시냇물은 모두 대청교(大清橋)로 흘러가는데, 화도(花島) 사이의 조수와 서로 통하였기에 주민들이 제방을 쌓아 대청포(大清浦)·만월포(滿月浦)를 만들어서 기뻐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화도 갑문의 위에는 하나의 둔대가 있으니 ‘화도둔대(花島墩臺)’이다. 그 형상이 마치 꽃핀 가지가 물에 떠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 현종 갑진년(1664)에 유수 조복양(趙復陽)²⁴⁾이 제방 등 수문을 쌓았다. 그 후에 유수 이은(李澗)²⁵⁾이 수문을 수리하고 기문을 지었다. 그 기문은 다음과 같다. “화도수문은 심부(沁府) 남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광성보의 북쪽에 있다. 수문의 이름이 화도(花島)인 것은 화도둔대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문의 외부에는 오두양(龍頭洋)이 있으며 바다 안쪽으로는 대청포(大清浦)가 있다. 이 섬의 여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다와 포구의 좌우로 모이고 또 수백결의 민전이 있어서 ‘만월평(滿月坪)’이라고 하는데 선원면·인정면·불은면 3면의 백성들이 이곳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다. 1백년 전

22) 대청개의 다리이다.

23) 구창서발문본에는 ‘穡’이 ‘稼’로 되어 있다.

24) 조복양(1609~1671)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강화유수로는 1664(현종5) 1월에 부임하여 1665년 2월에 이임하였다.

25) 이은(1722~1781)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치호(稚浩), 호는 첨재(瞻齋). 1766~1767년 강화유수로 재직했다.

갑진년(1664, 현종 5)에 조복양(趙復陽)이 유수로 재직할 때에 연변에 수십 리나 되는 긴 제방을 쌓아서 태풍에 대비하고 조수가 전지(田地)에 침범하는 것을 막았으므로 ‘포구’라고 하였으며, 3개의 수문을 설치해서 안쪽의 물을 밖으로 빼냈으므로 ‘화도 수문’이라고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을 설치한 것이 어찌 절실하다 하지 않겠는가? 수문을 삼가지 않으면 내지의 물이 넘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조수가 침범하게 되어 큰 제방이 무너지면 바다를 지키는 일이 허망해지고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하는 일도 말할 수가 없으며 또한 3면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명도 매우 위태롭게 되므로 국가를 위해서나 백성을 위해서나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수문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다. 최초로 설치할 때에는 바위를 깎아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는 큰 돌로 덮어서 너비가 십여 보, 높이가 한 장쯤 되었다. 그 공력이 매우 컸으며 그 규모와 제도 또한 장엄하였다. 그러나 안으로는 포구이고 밖으로는 조수가 있어서 서로 충돌하여 그 위치가 매우 험하며, 문의 곁으로는 또 흙이 있어서 흙에 물이 스며들어 틈이 생겼다. 이 때문에 1백년 전에 처음으로 수리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 북쪽의 한 문에서 물길이 무너졌고 여름 장마에 막혀 성안으로 범람해서 경작지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러 오래도록 폐기될까 우려해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수리를 요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유수로 부임한 처음에 그 형편을 살펴보았더니 공력이 클 뿐만 아니라 쓸물 후에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수가 하루에도 여섯 번 드나드는데 공사 시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러저럭 세월만 가고 오래도록 복구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방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생업이 걸려있는 만큼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재물을 모아 성 수축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붕괴 위험은 북문 옆의 흠에 물이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전에 쌓았던 것을 모조리 걷어내고 물길을 터놓고서 돌을 많이 가져다가 옛것과 새것을 섞어 좌우의 무사석(武砂石)과 흰 선(檀堦) 등은 두꺼운 장방형의 돌받침으로 길게 엇갈려 쌓고 위에는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홍예(虹霓)를 만들어 흠이 무너지는 병폐를 방지하고 너비를 약간 넓게 해서 물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자 일몰 후에도 물이 넘쳐 붕괴되는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공사를 시작하자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한 자들 중에서는 단지 하루만 일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위한 정사가 매우 절실하고 급했음을 알 수가 있다. 병술년(1766, 영조 4) 4월 13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10일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끝나갈 즈음 감독·장교·공장 등을 모아 공사 장소에서 회식을 시켜주었다. 아! 조공이 처음 공사할 때 수십 리나 되는 긴 제방을 3개의 수문과 동시에 시행하였으니 그 비용이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수문에 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재력이 부족해서이다. 내가 쌓은 것은 옛 제방 중에서 무너진 곳을 보수했으므로 수리한 곳은 한 개의 수문뿐이다. 공력이 매우 적게 들었고 이미 망가진 곳을 보아서 돌홍예를 설치하였으며 남쪽의 두 문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덮는 제도를 따랐다. 후에 개수할 대에도 이 제도에 따라 3문을 모두 돌로된 홍예문을 완성한다면 해안 방어와 백성들의 생업은 영원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공사 완료 뿐만 아니라 장차 후인에게도 알리고 싶어서이다.”

선원면(仙源面)

9. 거말동(巨末洞²⁶⁾)

巨末洞前野水橫	거말동 앞에는 시냇물이 비껴 흐르고,
拍崖列屋夕烟生	뚝 가에 늘어선 집에서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南望雲谷西廉坂	남쪽엔 ‘백운곡’ 보이고 서쪽엔 ‘염씨산관’ 있는데,
一浦農謳卽大清	농요 부르는 이 포구가 대청포라네.

○ 거말동(巨末洞)은 선원면(仙源面)에 있으니 곧 강화부 관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남쪽은 백운곡(白雲谷)으로 이규보 공의 집터가 있고, 서쪽은 염씨(廉氏)의 산관(山坂)²⁷⁾이 있으니 조선 철종(哲宗)의 외가의 묘소이다. 모두 다 대청포에서 농사를 짓는다. 지금은 금월동(錦月洞)이라고 한다.

10. 연동(烟洞²⁸⁾)

烟洞村中最一門	연동 마을에는 훌륭한 가문이 있으니,
權都元帥奉祠孫	권율(權慄) 도원수의 봉사손(奉祠孫)이라네.
楣前敬讀丹旌字	문 이마의 정려 글자 경건하게 읽어보니,

26) 선원면 금월2리 대촌 마을이다.

27) 선원면 냉정리 철종외가 서편에 철종의 외숙부인 염성화(廉星華)·염덕석(廉德碩)·염상임(廉尙任)의 묘가 있다.

28) 선원면 연리이다.

世世風聲海岳尊 대를 이은 가풍 명성이 산과 바다만큼 존귀하네.

○ 강화부사 안동 권씨 권적(權勳)의 아들 권철(權徹)²⁹⁾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해서 일찍이 한림으로 재직하다가 김안로(金安老)와 맞지 않아서 벼슬을 버리고 연동(烟洞)에 들어와 살았는데 강화부(江華府)가 처가였기 때문이다.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강정(康定)이다. 그 아들 권율(權慄)³⁰⁾은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년(1592, 선조 25)에 광주목사(光州牧使)로서 군대를 일으켜 외적을 웅치(熊峙)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또 군대를 거느리고 북상하여 고양의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왜적을 격파해서 도원수(都元帥)가 된 중흥명장이다. 관직은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만년에 선원면에 우거하면서 불은면 오두산(鰲頭山)에 만취당(晩翠堂)을 짓고 쉬었다. 선무(宣武) 원훈(元勳) 공신에 올랐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그 아들 권익경(權益慶)³¹⁾은 승지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후손들도 계속 벼슬해서 7대손 권태형(權泰亨)은 일찍이 용천부사(龍川府使)를 역임하고 이곳에 와서 살았다.

○ 강정공(康定公) 권철의 아들 권개(權愷)³²⁾는 관직이 호조좌랑에

29) 권철(1503~157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유(景由), 호는 쌍취헌(雙翠軒). 아버지는 강화부사 권적(權勳)이며, 권율(權慄)의 아버지이다. 병조판서·의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30) 권율(1537~1599) 조선 중기의 문신·명장.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

31) 권익경(1572~1637) 본관은 안동. 초명은 태경(泰慶), 자는 성길(成吉). 아버지는 권순(權恂)이며, 임진왜란 때의 명장 권율(權慄)에게 입양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강화도에 들어갔는데, 적병이 세자를 해하려 하자 돌벼루로 적병 여러 사람을 격살하고 크게 꾸짖다가 살해당하였다.

32) 권개(1530~1568) 강화부사였던 권적의 손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권철의 아들이고, 임진왜란 때 명장 권율의 형이다. 의금부도사·호조좌랑 등을 역임

이르렀으며 그 후손도 역시 대부분 이곳에서 살았다.

11. 송공촌(宋公村*)

徘徊因問宋公村	송연(宋淵) 선생 살던 마을 물어 물어 찾아오니,
古木斜陽鳥自喧	해 저무는 고목 위에 새들이 지글대네.
唯有墳塋知舊蹟	오로지 묘소만이 옛 자취를 알게 하니,
短碑半臥綠蕪原	작은 비석 반쯤 누워 풀 속에 묻혀 있네.

○ 서산 송씨 송대립(宋大立)³³은 학행이 있었고 호는 외암(畏庵)이다. 선조 때 지평(持平)에 제수되었으며 배천군수(白川郡守)까지 올랐다. 고조 집의공(執義公) 송거(宋巨) 때부터 이곳 연동(烟洞)에 살기 시작하였다. 외암의 아들 송연(宋淵)³⁴은 호가 둔암(菴菴)인데 문장과 학행이 있었다. 집안의 명성을 능히 계승해서 당시의 명유(名儒)가 되었다. 동 시대의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³⁵ 등이 모두 그를 인정하였고, 석주(石洲) 권필(權鞞)³⁶과 교류하여 시와 술로써 스

하였다.

- 33) 송대립(1542~1583)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사강(士強), 호는 외암(畏庵). 학행이 뛰어나 이이(李珣)의 천거로 지평에 올랐고, 배천군수를 역임하였다.
- 34) 송연(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사인. 본관은 여산(礪山). 호는 둔암(菴菴). 권필(權鞞)의 조카사위이며 성혼(成渾)에게서 수업하였다. 문장과 덕망이 뛰어났으며, 이안눌(李安訥)과 교류하였다. 인조 때 증추부경력을 거쳐 진산현감(珍山縣監)을 지냈다. 선원면 연리(煙里)에 살았고, 묘소도 연리에 있다. 그의 글이《강도고금시선(江都古今詩選)》에 여러 편 전한다.
- 35)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저서로는《동악집》26권이 있다.
- 36) 권필(1569~161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 벽(壁)의 다섯째아들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저서로 《석주집》이 있다.

스로 즐겼으며 관직은 진산군수(珍山郡守)에 이르렀다. 연곡(烟谷)에 옛 집터가 있는데 지금은 그의 자손들이 다른 동네에 살고 있으며, 옛터엔 오직 비갈(碑碣)이 보일 뿐이다.

12. 독정촌(獨政村³⁷*)

獨政村幽一谷回	한 골짜기 돌아들어 그윽한 독정촌엔,
鄭公去後孰爲臺	정유성(鄭維城) 공 가신 뒤에 그 누가 대를 삼았나.
趙翁白髮欣迎我	백발의 조옹이 흔쾌히 나를 맞아,
云是遊人少往來	놀러오는 사람 왕래가 드물다고 말해주네.

○ 연일이 본관인 포은(圃隱)의 후손 정유성(鄭維城)³⁸은 강정공

37) 강화군 선원면 지산1리 독재이 마을이다.

38) 정유성(1596~1664)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 강화 출신. 정몽주(鄭夢周)의 9대손으로, 정구응(鄭龜應)의 손자이고, 박사 정근(鄭謹)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황치경(黃致敬)의 딸이다. 10세 때 외할아버지 황치경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 학문을 닦은 뒤 1627년 강화도에서 열린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황해도관찰사로 나간 뒤 승지·전라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이어 대사간·대사성·도승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어 호조판서·예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고, 뒤이어 이조판서·형조판서가 되었다. 그가 이조판서에 재직할 때는 오직 공도(公道)로써 관리들의 임명을 결정,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인사관리에 조급도 부정이 없게 하였다. 한성관윤과 호조판서를 지내는 동안에는 낭비를 막아 국고를 윤택하게 하였다. 1660년 우의정으로 고부사(告誅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품성은 온량(溫良)하였으나 판단력이 뛰어나면서 공사 처리에는 명석하고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다. 군왕의 실정이나 불의를 보면 대세의 이해에 관계없이 직간을 서슴지 않아 효종대에는 중용되지 않았으나 그를 이해한 현종대에는 경상(卿相)의 자리까지 올랐다. 가정에서도 겸허하고 근신하였으며, 청빈(淸貧)을 가훈으로 하는 선비다운 생활을 즐겼다. 저서로 《은대일기(銀臺日記)》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康定公) 권철(權徹)³⁹의 외예(外裔)였다.⁴⁰ 유복자로⁴¹ 연동(烟洞) 독정촌(獨政村)에서 태어났는데, 감사 황치경(黃致敬)⁴²의 외손자였으므로 일찍이 연미정(鸞尾亭)⁴³으로 와서 살았다. 정묘년(1627년)에 강화의 과거에서 이종사촌 윤계(尹槩)⁴⁴와 함께 합격해서 우의정까지 지냈다. 시호가 충정(忠貞)이고 호가 도촌(陶村)이다.

○ 지금 그 터에는 평양의 세족인 조희구(趙羲龜)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봉우리가 낮고 계곡이 구불구불해서 지세가 매우 험작하여 인적이 드물다.

13. 남산동(南山洞⁴⁵)

欲尋花樹到南山 우리 일가 찾으려고 남산동에 이르니,
山下列茅流水間 산 아래 시냇물 사이 초가집이 늘어섰네.

39) 권철(1503~157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유(景由), 호는 쌍취헌(雙翠軒). 병조판서·우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40) 권철의 외손자가 정근이고 정근의 아들이 정유성이다. 즉 정유성은 권철의 딸의 손자였다.

41) 정유성이 1596년에 태어났고, 아버지 정근은 159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복자는 아니며, 어머니 창원황씨는 남편이 죽자 3살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월곶리 연미정 마을로 와서 양육하였다.

42) 황치경(1554~162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이직(而直), 호는 몽죽(夢竹). 호조와 공조의 참의를 지냈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경기호소사(京畿號召使)로 의병을 초모(招募)하여 적에 대비하다가 그해 겨울에 죽었다.

43) 강화를 월곶리에 있으며, 이 일대에 창원황씨 장무공 황형(黃衡)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다.

44) 윤계(1583~1636)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 병자호란 때 청병에게 잡혀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죽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45) 강화군 선원면 지산2리의 남산마을이다. 신지동의 '지(智)'와 남산동의 '산(山)'이 합해져 지산리가 되었다.

沈益安兄須共酌 심형과 안형이 술잔을 나누며,
 舒談終日却忘還 종일토록 한가하게 얘기하며 돌아가길 잊었네.

○ 남산동(南山洞)은 고려 때에 신지동(神智洞)에 가궐(假關)을 창설하였을 때⁴⁶⁾ 이곳을 남산이라고 하였다. 나의 친척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서 화수(花樹)로 말을 한 것이다. 풍산(豊山)을 본관으로 하는 청천(聽泉) 후손 심씨(沈氏)와 강진(康津)의 세족 안씨(安氏)들이 이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방문해서 회포를 풀었다.

14. 용당사(龍堂寺⁴⁷⁾*)

龍堂寺北卽龍津 용당사 북쪽이 곧바로 용진인데,
 地古人稀草自新 옛 터엔 사람 드물고 풀만이 무성하네.
 却憶當年桑下夢 그 옛날 이 절에서 자던 일을 생각하니,
 已過三十七年春 어느 덧 37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 용당사(龍堂寺)는 선원(仙源)의 동쪽 성(城) 바닷가에 있다. 그 북쪽에 있는 용진진(龍津鎭)⁴⁸⁾과 용진돈(龍津墩)은 예전의 방어 시설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내가 일찍이 기사년(1869) 봄 이 절에서 유숙하였기 때문에 글귀 끝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46) 1264년(원종5)에 신니동(神泥洞) 가궐에서 대불정오성도량(大佛頂五星道場)을 열렸다. 고려 때의 신니동은 오늘날 신지동(神智洞)으로 불린다.

47) 용진진 남쪽 바닷가에 있던 절

48) 용진진은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215번지에 소재하며, 인천시기념물 제42호이다. 1656년(효종 7)에 축조되었으며, 가리산돈대·좌강돈대·용당돈대 등 3개의 돈대를 관리하였다.

15. 참경루(斬鯨樓⁴⁹*)

斬鯨樓下水聲多	참경루 아래에는 물소리가 요란한데,
操習千軍摠去何	훈련하던 많은 군사 모두다 어디 갔나.
申使關防誰不憶	신(申) 통어사 나라 지킨 일 그 누가 잊으리,
斜陽撫劔一高歌	석양에 칼 어루만지며 한바탕 크게 노래하노라.

○ 수군 훈련장은 용진진(龍津津)과 제물진(濟物津) 앞쪽 바다에 있었는데, 매년 봄·가을에 한 번씩 훈련하였다. 참경루(斬鯨樓)는 용진진 남쪽에 있는 문루인데, 숙종 신미년(1691)에 유수(留守) 겸 진무사(鎭撫使) 신후재(申厚載)⁵⁰가 처음 세워 대장의 좌기소(坐起所)로 삼았다.

○ 정조 계묘년(1783)에 유수 김노진(金魯鎭)⁵¹이 기문(記文)을 지었다. 그 기문은 다음과 같다. “누각의 이름을 ‘참경’이라 한 것은 장차 뜻을 두려는 것이다. 뜻을 두는 것은 하늘의 질서와 사람의 규범이 세워지는 것이다. 병자 정축년의 호란을 당하여 저 어리석은 자들이 교만하게 굴면서 국사를 그르친 원인은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뜻이 없었기 때문에 나태했고 탄환을 가지고도 쏘지 않았고 배를 타고 도망하였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고래의 발을 자르려하는 뜻을 둘 수 있었겠는가? 참경루는 강화부 관아 남쪽 9리 되는 곳

49) 용진진의 문루로, 1999년 복원되었다.

50) 신후재(1636~1699)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덕부(德夫), 호는 규정(葵亭)·서암(恕庵). 강화유수·개성유수·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강화유수로는 1690년 3월부터 1692년 2월까지 재임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집《규정집》7권이 있다.

51) 김노진(1735~1788) 본관은 강릉. 자는 성침(聖瞻). 강화유수·형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편서로 《강화부지 江華府志》가 있다.

에 있으니, 즉 용당돈(龍堂墩) 있는 곳이다. 돈대가 있으면 반드시 첩(堞)이 있고, 첩이 있으면 반드시 문(門)이 있고, 문이 있으면 반드시 누(樓)가 있는 것은 전쟁의 방어를 갖추기 위함이니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누각이 허물어졌다. 이에 내가 재물을 모으고 장인을 모집하고, 사찰의 목재를 거두어서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에 10일 지나지 않아 옛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회복되었다. 이제 전쟁이 그친지 수백 년이 지나 대로의 파도는 높지 않고, 배를 삼킬만한 고기도 다니지 아니하니 ‘확연히 일이 없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이것에 힘쓰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조정에서 통어영을 이곳에 옮긴 것은 용당의 앞바다를 수군의 조련소로 삼은 까닭이다. 대체로 대장의 깃발을 세우고 북을 두드리며 삼도의 함선을 영도하여 바람을 타고 돛을 올리며 개연히 노를 저어 파도를 깨뜨리는 뜻이 있어서였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러한 참경루가 없어서는 안된다. 아! 이 일대를 빙 둘러 해안과 포구를 따라서 돈대는 뗏이며 첩은 뗏이고 문은 뗏 개이며 누는 뗏 개이던가? 그러나 고래를 참하는데 뜻을 둔 것은 한결같다. 이 누각에 올라 참경이란 이름을 되돌아보니 후대에 반드시 나의 뜻과 같이 하여 기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 지금은 모두 폐허되었기 때문에 탄식할 뿐이다.

16. 가리포(加里浦⁵²*)

加里浦頭驚欲眠 가리포 입구에는 백로가 즐고 있고,

52)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마을이다.

背箕何老釣城邊 도롱이 쓴 어떤 노인 성득에서 낚시하네.
 李公亭築君知否 이공(李公)이 정자 세운 일 그대는 아는가,
 一小峯前四水田 작은 봉우리 앞에는 사방이 논이네.

○ 가리포(加里浦)는 용진(龍津)의 서북쪽에 있다. 양성(陽城) 이씨(李氏)가 일찍이 풍천(豐川) 군수를 지내고 은퇴하여 이곳에서 살면서 이 가리포의 위에 정자를 지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이 작은 봉우리에 오르면 사방에 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읊었다.

17. 신당동(神堂洞⁵³)

神堂村口立移時 신당촌 입구에서 한참동안 서있는데,
 柿葉桃花左右籬 감나무와 복숭아나무로 울타리 둘러쳤네.
 知我禹翁今白髮 나를 아는 우공(禹公)은 백발이 되었으니,
 十年面目却生疑 10년만에 만난 얼굴 그가 맞나 의심 가네.

○ 신당(神堂)은 곧 고려 때 축리신당(祝釐神堂)이 있던 터이다. 단양(丹陽) 세족 우씨(禹氏)들이 이 마을에 많이 살고 있다.

18. 신지동(神智洞⁵⁴)

今之神智古神泥 지금의 신지동은 옛적의 신니동인데,

53) 선원면 신정2리의 신당동으로 속칭 신대이 마을이라고 한다.

54) 선원면 지산2리의 신지동 마을이다.

麗事如雲月影迷 고려 때 일이니 구름 속 달그림자처럼 희미하구나.
 都監又何經劫火 도감은 또 어찌하여 화재를 겪었는가,
 行人下馬意淒淒 말에서 내린 나그네 처연한 생각 드네.

○ 고려 원종이 술사(術士) 백승현(白勝賢)⁵⁵⁾의 말에 따라 신니동(神泥洞)에 가궐(假闕)을 짓고 이곳에서 대일왕도량(大日王道場)⁵⁶⁾을 설행하였으니 곧 지금의 신지동(神智洞)이다. 또 정자산(亭子山) 아래로 도읍을 옮겼을 때 도감(都監)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명을 통칭 ‘도감’이라 하였다. 조선에 와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창고를 이곳에 설치했었는데 병인양요 때 모두 불타 없어졌다.

19. 대문동(大門洞⁵⁷⁾)

大門峴下路東西 대문고개 아래에는 동서로 길이 있고,
 有屋相連傍碧溪 집들이 시냇가에 서로서로 이어있네.
 最是具公登桂籍 대단하도다 구공(具公)의 과거 시험 합격한 일,
 暮年緋玉謝雲梯 만년엔 승진을 사양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네.

○ 대문현(大門峴)은 곧 고려 고종 때 정자산 아래에 도읍하였을

55) 백승현(생몰년 미상) 고려 고종 때의 풍수지리가·도참사상가. 강화 천도 당시에 삼랑성(三郎城)과 신니동(神尼洞)에 가궐(假闕)을 짓고 도량을 열면, 8개월 안에 친조(親朝)문제가 해결되고 주위의 대국들이 조공을 바치러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6) 《고려사》에는 대불정오성도량(大佛頂五星道場)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57) 선원면 금월1리 대문이 마을이다. 이 마을 북쪽에 강화도읍기 강화중성의 큰 문이 있었다고 한다.

때 남대문(南大門)이 있던 곳이다. 고개 남쪽의 길 동서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능성 구씨인 강암공(江菴公)의 후손인 석촌(石村) 구성희(具星喜)⁵⁸)는 이름을 용희(用喜)라고 바꿨는데, 일찍이 문과에 급제해서 대각(臺閣)의 청직(淸職)을 여러 번 거쳤고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동부승지(同副承旨)를 역임하고서 말년에 비옥(緋玉)⁵⁹)으로 은퇴하였다. 호를 창사(滄史)라고 하였다.

20. 염씨산영(廉氏山塋⁶⁰*)

廉氏山塋野水邊	염씨네 선영은 개울가에 있는데,
短松鬱鬱草芊芊	소나무 울창하고 풀들이 무성하네.
瑞雲北入龍興殿	상서로운 구름이 북쪽에서 용흥전에 들어오니,
世世宜承雨露天	하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리.

○ 염씨산(廉氏山)은 곧 우리 철종의 외가의 묘소이다. 용흥전(龍興殿)은 부성(府城)의 안에 있으니 곧 철종의 잠저(潛邸)⁶¹)이다.

58) 구성희(1832년 출생) 1874년(고종11)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합격했다. 아버지는 구진화(具震和)이다.

59) 붉은 비단옷과 옥관자라는 뜻으로 당상관(堂上官)을 이른다.

60) 선원면 냉정리 산70번지 일대에 철종의 외가와 외숙들의 묘소가 있다.

61) 임금이 등극하기 전에 살던 집이다.

21. 냉정동(冷井洞⁶²)

壽嶺東南冷井流	숫고개(壽嶺)의 동남쪽엔 찬우물이 흐르는데,
居人於此關田疇	주민들 이곳에서 전답을 개간했네.
鄭金二雅知幽趣	정씨와 김씨가 고상함을 알아서,
時與前村野老遊	수시로 앞마을 노인들과 교류하며 지냈네.

○ 고개의 길가에 우물이 있는데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냉정(冷井)이 되었다. 경주(慶州) 정(鄭)씨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⁶³ 후손인 참의공(參議公)의 손자와 안동(安東) 김씨 선원(仙源)김상용(金尙容)의 후손 김씨가 거주하고 있다.

22. 선행동(仙杏洞⁶⁴) 충렬사(忠烈祠)

環州百水盡東之	고을을 휘감는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곳에,
砥柱屹然忠烈祠	큰 주초 높은 기둥 여기가 충렬사네.
二十一公無限恨	스물한 분 충신들의 끝없는 회한은,
鴨江西北卽燕支	압록강 서북쪽의 청나라를 향해 있네.

○ 충렬사(忠烈祠)는 선행동(仙杏洞)에 있는데 강화부 관아와의 거리가 7리이다. 이곳은 상공(相公) 김상용(金尙容)⁶⁵의 집터이다. 인

62) 선원면 냉정리이다. 현재 찬우물이 있는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창리에 속하게 되었다.

63) 정지운(1509~1561)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정이(靜而), 호는 추만(秋巒). <천명도설 天命圖說>을 지어 조화(造化)의 이(理)를 구명하였다.

64) 선원면 선행리 선행마을이다.

조 임오년(1642)에 세워져 현충사(顯忠祠)라 이름하였는데, 효종 무술년(1658)에 사액하여 충렬사(忠烈祠)라고 하였다. 정축년(1637)에 순의한 21분을 제사지내고 있다.

○ 제향은 2월과 8월의 두 번째 정(丁)일에 지내지만, 혹 국기일(國忌日)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丁)일로 옮겨 지낸다.

○ 각위는 모두 도(稻)·양(梁)·서(黍)·직(稷)·축(豕)·생(牲)으로 하니 한 마리씩이었다. 영조⁶⁶⁾ 계미년(1763)에 정실(鄭宗)⁶⁷⁾이 양생(羊牲) 한 마리를 더하였다. 헌관(獻官)은 사림(士林) 중에서 차출하였다.

○ 정당(正堂) 7칸 반, 앞기둥(前楹) 3칸, 내삼문(內三門) 3칸, 성취당(成取堂)은 곧 강당이다.

○ 동서재방(東西齋房), 전사청(典祀廳), 비각(碑閣), 원생수직방(院生守直房), 고간(庫間), 외삼문(外三門).

○ 제기는 보(簠), 궤(簋), 유작(鑪爵), 목두(木豆), 뉴변(柎籩), 향로(香爐), 향합(香盒), 제상(祭床), 폐상(幣箱)이다.

○ 원생은 별안(別案) 50명, 원안(元案) 70명, 동몽(童蒙) 100명이다.

○ 위전(位田)은 48부(負)이다.

○ 동몽미(童蒙米)는 한 사람마다 각 2두(斗)이다. 복호미(復戶米)는 75두이다.

○ 선원 상국 김공(金公, 김상용), 공조판서 이공(李公, 이상길), 돈녕부도정 심공(沈公, 심현), 봉상시정 이공(李公, 이시직), 사복시주

65) 김상용(1561~1637) 조선 인조 때의 상신(相臣)이며,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殉節人)이다.

66) 원문에는 '정조 계미년'으로 되어 있으나, 정실의 활동 연대와 강화유수 부임 시기로 볼 때 '정조'가 아니고 '영조'가 옳다.

67) 정실(1701~1776)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공화(公華), 호는 염재(念齋). 1764년 강화부유수와 호조판서·평안도관찰사·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부 송공(宋公, 송시영), 천충 구공(具公, 구원일) 이상 6인은 효종 임오년⁶⁸⁾ 사당에 세웠다.

○ 중군 황공(黃公, 황선신), 천충 강공(姜公, 강홍업) 이상 2인은 정유년(1657)에 추향되었다.

○ 시강원필선 윤공(尹公, 윤전), 빙고별좌 권공(權公, 권순장), 성균관생원 김공(金公, 김익겸) 이상 3인은 무술년(1658)에 추향되었다.

○ 승정원우승지 홍공(洪公, 홍명형)은 영조⁶⁹⁾ 무신년(1728)에 추향되었다.

○ 의주부윤 황공(黃公, 황일호), 남양부사 윤공(尹公, 윤계), 사헌부장령 홍공(洪公, 홍익한), 홍문관교리 윤공(尹公, 윤집), 익위사익위강공(姜公, 강위빙), 형조정랑 김공(金公, 김수남), 광흥창수 이공(李公, 이돈오), 학생 이공(李公), 학생 민공(閔公, 민성)이 추향되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⁷⁰⁾은 정당(正堂) 상량문(上樑文)을 찬술하였다. 그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어영차, 몸을 바쳐 의리에 죽는 것은 신하의 법도이며, 열사(烈士)를 표창하고 현인을 숭상하는 것은 예속(禮俗)의 굳은 규범이다. 이에 정성을 바칠 땅을 열게 된 것은 하늘의 정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온 나라가 함께 우러러보며, 삼강이 영원히 이에 힘입게 될 것이다. 과거 병자년과 정축년에 일어난 난리로 말하면, 백륙(百六)의 재앙으로서 정말 참혹하기 지극한 것이다. 남한산성의 행궁이 7일 간의 백등(白登)보다도 더욱 위태하였으므로 강도(江都)의 보장(保障)만을 굳게 믿었으나, 여기 역시

68) 원문에는 ‘효종 임오년’으로 되어 있으나, 효종대에는 임오년이 없다.

69) 원문에는 ‘정조’로 되어 있으나, 금석문 등의 사료에 근거하여 ‘영조’로 고쳤다.

70) 이식(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 대사헌과 형조·이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문장이 뛰어나 김택영(金澤榮)에 의하여 여한구대가(麗韓九大家)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긴 회수(淮水)의 한 구석과 같은 결과를 면하지 못하고 말았다. 강도로 말하면, 빈궁(嬪宮)과 종척(宗戚)이 그곳으로 들어가 의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창름(倉廩)과 갑병(甲兵)이 평소에 비축되어 있었고, 또 오묘(五廟)의 신위(神位)도 이곳으로 옮겨 모시고 있었으므로, 팔로(八路)가 이 때문에 이곳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군대의 힘에 의지하여 방어해야 할 바다의 요새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흠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어지는 듯 한 형세를 맞게 되고 말았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옛 역사에서도 찾아보기가 드문 일이요, 임금을 버리고 아버이를 뒤로 돌린 것은 사람의 도리상 차마 못할 짓이었다. 이때에 오직 원로 재상과 팔좌(八座, 판서의 별칭)의 노신(老臣)이 지수(止水)에 맹세한 강승상(江丞相)의 평소 신념대로 행동하였고, 대성(臺城)의 환란에 뛰어난 변상서(卞尙書)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군부(君父)에게 사죄하는 글을 지어 놓고 부부가 함께 죽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곤수(閹帥)의 행위를 꾸짖는 글을 지어 배척하고는 친척과 영결(永訣)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의병을 일으켜 진격하다가 상산(常山)과 같은 참혹한 화를 당하였으며, 어떤 이는 산관(散官)인 동료로 따라 화읍(畫邑)의 절조를 본받기도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의병을 일으켜 진격하다가 상산(常山)과 같은 참혹한 화를 당하였으며, 어떤 이는 산관인 동료로 따라 화읍의 절조를 본받기도 하였다. 나라에 의를 바쳐 자진(自盡)하였으니, 거기에 무슨 관직의 높고 낮은 차이를 둘 수 있으리오. 범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웅장(熊掌)과 어물(魚物)의 취사를 결정하였으니, 자신의 목숨을 기러기 털 하나처럼 가벼이 여기는 입장에서 벼슬로 출세하는 것 쯤이야 비루하게 여긴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곧은 송백(松柏)이 세모(歲暮)에 우뚝 버티고 선 덕택에 궁벽한 산골에도 봄

빛이 돌아오고, 용이 촛불을 물고서 황량한 삭방을 비취 준 덕분에 암흑 천지가 대낮처럼 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가가 이를 의지하여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죽어서 불후(不朽)하게 된 정도뿐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낭묘(廊廟)에서 정려(旌閭)하고 추증하여 그 절조를 밝게 드러내 주었다 하더라도, 향려(鄉閭)에 사우를 세우고 신위를 배향하여 길이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 역시 더더욱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수양(睡陽)의 쌍절(雙節)을 추모하는 묘우(廟宇)를 당시에 벌써 세웠고, 애해(崖海)의 삼충(三忠)에 대해서도 후대에 제사를 흠향하게 하지 않았던가. 이에 도성 교외의 성곽에 나아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유허(遺墟) 가까운 곳에다 몇 길 높이의 사당을 짓고 한 줌 향불을 바쳐 올리게 되었다. 굳이 감독할 필요도 없이 공사가 진척된 덕분에 그야말로 하루가 못 되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었나니, 격양시키는 일과 관계가 있는 만큼 이곳의 풍도를 접하고서 떨쳐 일어나는 이들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눈앞에 우뚝 높은 건물이 광채를 발하면서 땅속의 정령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바칠 터전이 마련되었으니, 해와 별이 빛을 더하고 강과 산도 안색을 바꾸는 듯하다. 이 어찌 하나의 고을과 향리에서만 신상(神像)을 우러러보고 길이 사모할 뿐이겠는가. 대부들과 온 나라 사람들 역시 그 꽃다운 의열(義烈)을 생각하며 모범으로 삼게 될 것이니,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제사를 바쳐 올리게 될 것이요, 여기에서 또한 현송(絃誦)의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들보를 올리게 되었기에, 글 하나를 의탁하여 아름다운 일을 기리는 바이다.

들보 동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도성의 한 줄기 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네. 경도(京都)와 강도(江都)를 감싸고 더욱 보호해 주면서 천고도록 성난 물결 꽃다운 풍도를 전하리라.

들보 서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바닷가 보루 어촌에 지는 해 낮게 드리웠네. 삼천의 강노수를 동원할 필요가 있으리오. 조수도 기껏해야 언홍제에 이르는 것을.

들보 남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맑게 갠 하늘 속에 옥 누대가 솟구쳤네. 산안개여 창공을 가리우려 하지 마오. 충진의 마음 그야말로 저 태양과 똑 같구나.

들보 북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오늘도 여전히 성가퀴는 간성(干城)으로 우뚝 섰네. 바람과 비가 누린내를 깨끗이 씻어 주는 속에 해마다 향초(香草) 돌아 유적지를 기리리라.

들보 위쪽에다 떡을 던지세나. 밤마다 빛을 발산하여 별자리를 움직이네. 당겨진 활 혁혁하게 천랑성(天狼星)을 겨누나니 창함을 뒤덮은 저 구름도 말끔히 걷히리라.

들보 아래에다 떡을 던지세나. 서리에 꺾여 한 맺힌 꽃들 들판에 가득하네. 사당을 둘러싼 저 송백(松柏)을 한 번 보소. 한결같이 질 푸른 빛 겨울도 끄떡이 없구나.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는 귀신과 사람이 다 함께 경사를 누리고 산과 강물이 신령스러운 빛을 발하는 가운데, 선비들을 추구할 방향을 알아서 의리를 분변(分辨)하는 데에 어둡지 않게 되고, 마을에서는 착한 풍속을 따라서 각자 충효의 윤리에 힘쓰게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훌륭한 선인(先人)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요, 후세에도 장차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 판상(板上)의 시(詩)는 다음과 같다. “해마다 벼슬아치는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年年冠蓋向何之) 만고토록 강도로 가 이 사당에 머무네(萬古江都只此祠). 서까래가 비바람에 망가짐을 걱정말아라(榑桷莫愁風雨剝) 천지가 크다 해도 이 역시도 지탱하네(乾坤雖大亦撐支).”

23. 충렬사 안동인 김상용(安東人 金尙容⁷¹⁾)

捐身殉國金相公	육신 바쳐 순국하신 김상용 선생,
百世風聲鎮華東	백세토록 그 명성이 동방에 전해오네.
硝火南樓雷霆起	화약 쌓은 남문에서 우레 소리 일어나니,
釋孫微僕亦丹忠	어린 손자와 노비들까지 충성심을 보여줬네.

○ 병자년 난리에 상공(相公)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은 종묘사직을 모시고 강화도에 왔다. 성이 함락되자 가족과 결별하고 남문루에 올라가 초황(硝黃)을 쌓고는 그 위에 앉아 스스로 불질러 죽었다. 당시 손자 김수전(金壽全)은 나이가 13살이었는데 그 옆에 있었다. 종에게 명하여 끌고 나가게 하였으나 아이가 옷을 부여잡고 가지 않으며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해서 종도 어찌 하지 못하고 다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충렬(忠烈)이라 표창하였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했으며, 사당을 옛 집터에 지어 제사지냈다.

○ 택당(澤堂) 이식(李植)은 축문을 지어 “조정의 문장이며 국가의 원로이네. 나라 위해 목숨 바치니 영원토록 그 이름 날리리”라고 하였다.

71) 김상용(1561~1637) 조선 인조 때의 상신(相臣)이며,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殉節人). 본관은 안동.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 선원촌(仙源村)으로 피난했다가 양호체찰사 정철(鄭澈)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토벌과 명나라군사 접대에 공을 세워 승지에 발탁되었다. 병조·예조·이조의 관서를 역임하였으며,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고 그 후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바로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묘사주(廟社主)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성혼(成渾)과 이이(李珣)의 문인으로서 황신(黃愼)·이정구(李廷龜)·신흠(申欽) 등과 친밀했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강화 충렬사,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 정주 봉명서원(鳳鳴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 《선원유고》 7권이 전한다.

24. 충렬사 벽진인 이상길(碧珍人 李尙吉⁷²⁾)

金石貞心李晚沙	금석 같은 끈은 마음 만사 이상길 선생은,
耆英宿望著朝家	덕망 있는 원로로 조정에 이름이 높았는데,
西風一哭先生廟	西風 속에 선생의 사당에서 한 바탕 곡을 하니,
手劍光中海日紅	손에 든 칼 광채 속에 바다 해가 붉도다.

○ 관서를 지낸 만사(晚沙) 이상길(李尙吉)은 묘사(廟社)를 따라 와서 선원촌(仙源村)의 집에 우거하였다. 갑곶나루(甲津)가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 명하여 배를 갖추고 피하게 하면서 “종사가 망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정경(正卿)이다. 나라가 무너지면 당연히 사직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촉하여 몰아서 강화부로 와서 묘사(廟社)에 나아가 통곡하고 재배한 후에 자결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충숙(忠肅)이라 시호를 내렸고 본 사당에 배향되었다.

○ 택당 이식은 축문을 지어 “마음은 금석처럼 끈고 덕망은 기영(耆英)⁷³⁾에 높았으니, 의리를 들어 충성을 바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찾았도다.”라고 하였다.

72) 이상길(1556~1637)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사우(士祐), 호는 동천(東川). 병조참의·공조관서를 역임하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노령에도 불구하고 묘사(廟社)를 받들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청군이 강화도로 육박해오자 아들 경(垓)에게 뒷일을 부탁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강화도 충렬사에 배향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동천집》이 있다.

73) 조선 시대에, 임금의 친척과 이품 이상 정일품 이하의 벼슬아치 및 경연당상(經筵堂上) 중에서 일흔 살 이상 된 사람들이 참석하던 경로회(敬老會)이다.

25. 충렬사 청송인 심현(靑松人 沈覲⁷⁴⁾)

沈公大義篤宗祔	심현 선생 큰 뜻이 종묘에 돈독하니,
一語從容婦效貞	남편 말씀 순응하며 부인도 본받았네.
萬古綱常由是賴	만고의 기강이 여기에 의지했으니,
疏中字字淚縱橫	상소문 글자마다 눈물로 얼룩졌네.

○ 도정(都正) 심현(沈覲)은 강화부에 있으면서 성이 함락될 때를 미처서 조카 심동구(沈東龜)가 배를 준비해 놓고 울면서 피하기를 청하니, 심공이 말하기를 “나라가 깨지고 집안이 망했는데 살아서 다시 어찌하겠는가. 나는 죽을 것을 결심하였다.”라고 하였다. 아내 송씨(宋氏)가 옆에 있으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저도 따르기를 청합니다. 고사에 ‘충절로써 죽고 정조로써 죽어서 몸을 깨끗이 하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고사를 조용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기뻐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였다. 이에 조복을 갖추어 입고 행조(行朝)를 향해 네 번 절하고 유서를 써서 “신(臣) 현(覲)은 동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남한산성(南漢山城)에 계시는 주상전하께 글을 올립니다. 신은 아내 송씨와 더불어 같은 날 자결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미 외손 박장원(朴長遠)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처와 더불어 상대하여 목매에 죽었다. 일이 알려지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천되고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74) 심현(1568~1637)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화(士和). 여러 군현의 수령을 지내고 돈령부도정에 이르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종사(宗社)를 따라 강화에 피난, 가묘의 위패를 땅에 묻고 국난의 비운을 통탄하는 유소(遺疏)를 쓰고 부인 송씨(宋氏)와 함께 진강(鎭江)에서 순절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강화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택당이 축문을 지어 “벼슬을 지키는 몸이 아니었으되, 그 뜻은 종실에 독실하여 한 집안의 충절이요 만고의 강상(綱常)을 잡았다.”라고 하였다.

26. 충렬사 파평인 윤전(坡平人 尹焄75)

歷敷臺閣尹公心	대각(臺閣)을 역임한 윤전(尹焄) 공의 마음씨,
曾以風裁動有箴	일찍이 풍모로 선비들을 감동시켰네.
最恨短刀難刺虜	한스럽다 짧은 칼 적을 베기 어려우니,
臨危性命海天陰	생명이 위급함에 임하여 바다 하늘도 어두웠다네.

○ 후촌(後村) 윤전(尹焄)은 세자빈을 호위하고 강화에 왔다. 성이 함락되던 때에 관리가 무리 중에서 왼손을 데리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왼손을 모시고 가지 않을 수 없다. 따르고자 하는 자는 따라와라.”라고 하였다. 태상 이시직(李時稷)⁷⁶이 윤공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가라. 가야만 한다. 내가 명을 받아 빈을 보호하고 오겠다. 지금 난리가 있는데 죽지 않는다면 비록 왼손을 모시고 가더라도 구차히 면하는 것일 뿐,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였다. 오

75) 윤전(1575~1637) 초명은 찬(燦).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정숙(靜叔), 호는 후촌(後村). 병자호란 때 필선으로 빈궁(嬪宮)을 배종하여 강화에 들어왔으나 성이 함락되자, 송시영(宋時榮)·이시직(李時稷) 등과 함께 자결하기로 결의, 두 번이나 목을 매었으나 구출되자 다시 패도(佩刀)로 찔렀는데 미처 절명하기 전에 적병을 크게 꾸짖고 죽었다. 사람됨이 돈후하고 신중하다는 평을 들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강화의 충렬사(忠烈祠), 연산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76) 이시직(1572~16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 병자호란 때 목을 매어 순절했다.

랑캐가 모두 달려오자 성중의 사람들이 뛰쳐나왔는데 윤공은 차고 있던 칼로 자신을 찔렀다. 오랑캐에게 분하여 욕을 하면서 “내 칼이 짧은 것이 한스럽구나. 어찌 너를 따라 빨리 나를 죽이겠는가.”라고 하면서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헌(忠憲)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이공이 축문을 지어서 “대각의 벼슬을 거쳐 그 위풍을 지녔도다. 어려운 지경에 목숨을 바쳐 그 이름이 죽백(竹帛)에 남았도다.”라 하였다.

27. 충렬사 남양인 홍명형(南陽人 洪命亨⁷⁷⁾)

常行直道是洪公	뒹뒹하고 곧은 길이 홍명형 공이 가는 길,
殉節初心到海中	순절의 초심으로 이 섬에 들어왔네,
南樓坐對仙源哭	남문루에 마주 앉아 선원선생과 곱하고서,
一死同歸萬古忠	함께 죽어 같이 가니 만고의 충성이라.

○ 승지를 지낸 무적당(無適堂) 홍명형(洪命亨)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가가 강화로 몽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강화로 들어왔는데, 어가가 오지 않고 서쪽으로 갔다 하자 탄식하기를 “명(命)이로구나. 이것은 필시 패할 조짐이다.”라고 하였다. 성이 함락될 때를 미처서 선원공에게 나아가 서로 붙잡

77) 홍명형(1581~1636)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계통(季通), 호는 무적당(無適堂). 고부군수·승문원부제조 등을 역임했으며,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여 나라의 형세를 한탄하다가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분신자살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의열(義烈)이다.

고 통곡하고 분신자살하였다. 일이 알려져 좌찬성(左贊成)에 추존되고 의열(義烈)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⁷⁸⁾가 축문을 지어서 “곧은 도는 항상 행해지고 초심으로 순절하였네. 대의가 이 때문에 곧아져서 백세토록 공경할지이다.”라고 하였다.

28. 충렬사 남양인 홍익한(南陽人 洪翼漢⁷⁹⁾)

洪學士居尼嶽幽	홍학사는 마니산의 깊은 곳에 살았는데,
尊周大義炳春秋	주(周)왕실을 존중하니 대의가 춘추의리에 빛났네.
瀋陽寒雪何堪說	심양의 눈보라를 어찌 차마 말하겠나.
赤日東方盪海流	동쪽의 붉은 해는 바다 물결에 출렁이네.

○ 학사(學士) 화포(花浦) 홍익한(洪翼漢)은 일찍이 벼슬을 그만두고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남쪽 산골 중에서도 바위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 살았다. 오랑캐가 침람되어 국호를 칭하자, 그때 마침 공이 대관으로서 상소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병자년 난리에 오랑캐가 크게 이르자 공이 평양의 부윤으로 나갔다가 사람을 보내 옛 거처를 살피

78) 정제두(1649~173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양(士仰), 호는 하곡(霞谷).

79) 홍익한(1586~1637)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習).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론(和議論)을 극구 반대하였고, 화의가 성립된 후 청나라로 잡혀가 죽음을 당하였다. ‘삼학사’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 《화포집(花浦集)》이 있고,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려 할 즈음이 이미 강도의 성이 함락되어 버렸다. 그때 그의 아내 허씨(許氏)와 두 아들 홍수원(洪睟元)과 홍수인(洪睟寅), 수원의 아내 이씨(李氏)가 모두 죽었다. 공도 적국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조정에서는 안타깝게 여겨 그 모친에게 평생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받았고 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남한(南漢)의 현절사(顯節祠) 축문에 “오랑캐를 물리치니 영원한 본보기라네. 온 누리에 윤리 세우니 해와 달보다 충성 빛나네”라고 하였다.

29. 충렬사 남원인(南原人) 윤계(尹檠)⁸⁰ · 윤집(尹集⁸¹) 형제

高聖鄉中尹弟兄	고성골 마을에 윤씨 형제 살았는데,
春秋大義講平生	춘추의 대의를 평생토록 강의했네.
南州北塞堂堂節	남쪽 고을 북쪽 변방에서 당당한 절개 지켰으니,

80) 윤계(1583~1636)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 1627년 강화에서 열린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교리·이조좌랑·남양부사를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 청병에게 잡혀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몸에 난도질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81) 윤집(1606~1637)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1631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1636년 교리로 있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오달제 등과 함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다. 화의가 성립된 후 청병에게 끌려갈 때도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않아 청병이 감복하였다고 한다. 청나라의 고문과 회유에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다 심양성 서문 밖에 끌려가 사형 당하였다. 오달제·홍익한과 더불어 삼학사라고 이른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廣州)의 절현사(節顯祠), 강화의 충렬사, 평택의 포의사(褒義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同立常山萬古名 상산(常山)과 같이 서서 만고에 이름났네.

○ 부사인 백죽(白竹) 윤계(尹槩)가 두 아우 윤집(尹集)·윤유(尹柔)와 함께 장령(長嶺)의 고성향(高聖鄉)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후에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병자년 난리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 아우인 윤집은 교리(校理)로서 오랑캐와의 화친을 물리쳤다. 정축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왔을 때에 오랑캐가 척화(斥和)의 신하들을 수색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윤집과 학사 오달제(吳達濟)·학생 홍익한(洪翼漢)으로 응답하였으며 심양에 들어가서도 굶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를 당하였다. 이들이 삼학사(三學士)이다. 후에 윤계를 좌찬성에 추존하고 충간(忠簡)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윤집을 의정부 영의정에 추존하였고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모두 이충렬사에 배향하였다.

○ 부사가 축문을 지어서 “하늘이 상란(喪亂)을 내리사 선비들은 그 충간(衷肝)을 분발하였도다. 적은 군사로 의로운 성을 지켰으니. 그 의리 상산(常山)과 같도다.”라 하였다.

○ 교리가 축문을 지어서 “충정(忠正)을 두고 충간(忠簡)을 숭상하니, 절의가 서로 빛나 영원토록 드리우리”라고 하였다.

30. 충렬사 창원인 황일호(昌原人 黃一皓⁸²⁾)

念昔黃公按義州	황공이 옛적에 의주를 다스릴 때를 생각하니,
胡雲常入劍頭秋	오랑캐땅 구름 밀려들고 칼끝엔 가을기운 일었네.
崔車二士同心逝	최효일과 차예량이 한마음으로 죽었으니,
鴨水空如易水流	압록강은 부질없이 역수(易水)처럼 흐르네.

○ 부사인 지소(芝所) 황일호(黃一皓)는 판서인 황신(黃愼)⁸³⁾의 아들이다. 일찍이 의주(義州) 부윤이 되어 최(崔)·차(車) 두 역사(力士)를 명나라에 보내어 성이 함락된 수치를 설욕하려 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오랑캐에게 잡혀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인조가 일천 금으로써 속바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고 이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축문에 “주나라를 높이는 한결같은 마음ियो, 나라 위해 죽는 평소의 뜻이네. 화가 참혹하여 저자에서 죽었으니 그 큰 뜻이 매우 열렬하네.”라고 하였다.

82) 황일호(1588~1641)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익취(翼就), 호는 지소(芝所). 운봉현감·임천군수 등을 역임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전공을 세웠고, 척화를 적극 주장하였다. 1638년 의주 부윤으로 있을 때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를 치고자 최효일(崔孝一) 등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청나라 병사에게 피살되었다. 강화 충렬사, 부여 의열사(義烈祠) 등에 배향되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83) 황신(1562~161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사숙(思叔), 호는 추포(秋浦). 정랑 대수(大受)의 아들이다. 성혼(成渾)과 이이(李珣)의 문인이다. 공조판서·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31. 충렬사 연안인 이시직(延安人 李時稷⁸⁴)

質直好人李太常	성품 곧고 사람 좋은 이시직 선생은,
若柔心法是居剛	마음씀이 부드러웠지만 굳센 태도로 살았네.
從容一決秋霜凜	조용히 한번 결심하면 추상처럼 늠름했으니,
遺子書中摠義方	자손에 남긴 글에 의로운 말 모아 놓았네.

○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이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써 호종하여 왔다. 성이 함락되자 글을 써서 자식에게 주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일이 알려지자 이조판서에 추존되었고 충목(忠穆)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택당의 축문에 “질박하고 정직한 좋은 그 사람이여, 강하면서도 부드럽다. 조용히 한 번 자결한 그 의리는 가을 서리처럼 늠름하다.”라고 하였다.

84) 이시직(1572~16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 병조좌랑·사간원정언·사복시정·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에 들어갔다가, 강화가 함락되자 사복시주부 송시영(宋時榮)이 먼저 자결하자, 묘 들을 파서 송시영을 매장하고 하나는 비위놓아 노복에게 자기를 그곳에 매장하도록 부탁한 다음 활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와 회덕의 송현사(崇賢祠)의 별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32. 충렬사 은진인 송시영(恩津人 宋時榮⁸⁵)

野隱宋公自漢城	야은 송시영 선생은 한성에서 왔는데,
下僚大義篤宗祊	하급관료로서 대의를 지키고 종묘제사 돈독했네.
惟魚其捨惟熊取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하였으니,
永訣書中字字明	유서에 남긴 글자 분명도 하여라.

○ 야은(野隱) 송시영(宋時榮)은 사복시의 주부로서 호종하여 왔다. 성이 함락될 때를 미처서 글을 써서 집사람에게 주고는 목매 죽었다. 그 조용하고 자세한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과 같았다. 일이 알려지자 좌참찬에 추존되었으며 충현(忠顯)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택당이 축문을 지어서 “비록 직급 낮은 관료였지만 그 의리는 나라를 위해 순절하였도다. 어(魚)를 버리고 웅장(熊掌)을 취한 격이니, 죽음에 나아가기를 삶과 같이 하였도다.”라 하였다.

85) 송시영(1588~1637)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공선(公先) 혹은 무선(茂先), 호는 야은(野隱). 좌랑 방조(邦祚)의 아들이며, 시열(時烈)의 종형이다. 상의 원주부(尙衣院主簿)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남에 왕명을 의해 강화도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정월에 강화성이 적에 의하여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좌참찬에 증직되었으며 충현(忠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강화 충렬사, 영동의 초강서원(草江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33. 충렬사 진주인 강위빙(晉州人 姜謂聘⁸⁶⁾)

姜公陪護到江潯	강위빙 공은 호종하고 강화에 왔는데,
白刃翻中炳赤心	흰 칼이 번득이고 충성심도 빛났도다.
斷舌斷頭雙立膝	혀 잘리고 머리 잘려도 나란히 선 두 무릎이
擎天撐地永如今	하늘 받들고 땅을 버텨 지금까지 영원하도다.

○ 강위빙(姜謂聘)은 익위사(翊衛司) 익위(翼衛)로서 원손(元孫)을 호종하고 왔다. 성이 함락될 때 오랑캐에게 잡혀서 협박을 당하여 무릎 꿇리게 되었다. 공이 분하여 욱을 하며 “머리가 잘릴지언정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적이 마침내 혀를 잘라 죽였다. 일이 알려지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축문에 “혼조(昏朝)에서 벼슬하기를 부끄럽게 여겼고 황제를 위해 의리로 순절하였네. 높고 뛰어난 충절은 윤리를 똑바로 세웠네.”라고 하였다.

86) 강위빙(1569~1637) 본관은 진주. 자는 백상(伯尙), 호는 서호(西湖). 순안 현령(順安縣令)을 거쳐 청풍군수(淸風郡守)를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가서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등을 배종, 호위하였다. 강화성이 함락되자 포로가 되어 항복을 강요당하였으나 “내 목은 끊을 수 있으나 너희들 앞에 무릎은 꿇을 수 없다.” 하여 끝내 순절하였다. 1657년 좌승지에 추증되고, 1811년에 다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혜국지(惠局志)》가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34. 충렬사 연안인(延安人) 이돈오(李惇五⁸⁷) 이돈서(李惇叙⁸⁸) 형제

陪護西來李弟兄	배호하고 서쪽에 온 이씨 형제는,
一門節義併垂名	한 문중이 절의로 함께 이름을 빛냈네.
鎮江泓水流無極	진강산 큰물은 끝없이 흐르는데,
忠孝家聲益著明	충효의 가문 명성은 더욱더 빛나는구나.

○ 이돈오(李惇五)는 광흥창수(廣興倉守)로서 세자빈(世子嬪)을 호종하고 왔다. 성이 함락될 때 오랑캐가 세자빈을 핍박하여 남한으로 달려갔는데 공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욕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필선 윤전·익위 강위빙과 함께 죽었다. 일이 알려지자 좌찬성에 추존되었으며 충현(忠顯)이란 시호를 받았다.

○ 그 아우 이돈서(李惇叙)도 역시 오랑캐에게 잡혀서 탄식하기를 “우리 집은 충과 효로써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구차하게 죽지 않는다면 종사를 잇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진강(鎭江)에 이르러 투신자살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이조판서에 추존되었으며 충민(忠愍)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87) 이돈오(1585~16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전(子典), 호는 일죽(一竹).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광흥고수(廣興庫守)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건너가서 훈련도감낭청으로 군기(軍器)를 관리하다가, 적이 침입하자 그들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좌참찬에 증직되었고, 강화의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88) 이돈서(1599~1637)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殉節人).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륜(子倫), 호는 만사(晩沙).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성으로 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마니산(摩尼山)으로 들어갔다. 적병에게 잡혔으나 끝내 굽히지 않았고, 함께 잡힌 유옹(柳雍)과 함께 진강(鎭江)의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1824년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 창수공(倉守公)이 축문을 짓기를 “학문은 경서와 예를 오로지 하였으며 행동은 충과 효를 돈독히 했네. 집안을 온전히 하고 인을 이루었으니 빛이 해와 달과 닮네.”라고 하였다. 학생공(學生公)이 축문을 짓기를 “우뚝하구나, 형제여. 바다 같은 절개를 밟고 기러기 털처럼 한 번에 버리니 만고의 역사에 남을지어다.”

35. 충렬사 평해인 황선신(平海人 黃善身⁸⁹⁾)

黃公白髮立江皋	백발의 황선신공 강 언덕에 우뚝 서서,
浪拆軍中一柱高	흩어진 군사 앞에 기둥처럼 높이 섰네.
弦斷矢虛當日節	활시위 끊기고 화살통 비어 그날로 순절했으니,
先王親見特加褒	임금님이 친히 보고 특별히 포상했네.

○ 훈정(訓正) 황선신(黃善身)이 강화부의 중군(中軍)으로서 주장하고 간하는 것이 매우 힘이 있었다. 오랑캐가 이르자 천총(千摠) 강흥업(姜興業)이 돌아보며 “일이 어렵게 되었다. 우리들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은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약간의 노인들과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갑곶진을 지켰다. 오랑캐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군대들이 모두 흩어졌다. 홀로 서서 적에게 활을 쏘았는데 활시위가 끊어지고 화살이 다하여 적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89) 황선신(1570~1637)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사수(士修). 1597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정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듬해 청나라 군사가 강화도를 공격하자, 강화부 중군의 직책으로 강진흔(姜晉昕), 구원일(具元一) 등과 함께 적을 방어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갑곶진에서 전사하였다. 뒤에 병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1792년 정조는 그의 충렬을 기려 자손에게 벼슬을 주었다.

서 죽었다. 효종이 눈으로 직접 그의 죽음을 보고서 일찍이 연석에 임하여 탄식하기를 “내가 황선신의 용모를 보니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이미 홀로 힘썼다. 이 일은 특히 포상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병조참의에 추존하고 충렬사에 배향하였다.

○ 청호(靑湖)가 지은 축문에 이르기를, “삼군(三軍)이 물결처럼 흩어졌지만 한 기둥으로 그 흐름을 막았도다. 죽기를 본분처럼 여겼으니, 그 의열(義烈)은 천추에 전해지리.”라 하였다.

36. 충렬사 능성인 구원일(綾城人 具元—90)

具公自有一心丹	구원일 공은 본래부터 충성심이 강했으니,
甲串 ⁹¹)千年怒激湍	갑곶나루 천년동안 격노하며 흘러가네.
雲薄天高剛正氣	구름 얇고 하늘 높는데 올바른 기운 보였으니,
手中如雪劍光寒	손에 쥔 칼날 빛이 눈처럼 차갑구나.

○ 구원일(具元一)은 천총(千攄)으로서 변란 소식을 듣고 갑곶나루로 달려갔으나 이미 오랑캐가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때 검찰사 김경징(金慶徵)과 부사 이민구(李敏求)는 싸우지 않고 배로 도망가 버렸다. 유수 장신(張紳)이 강구에 닳을 내리고 있었지만 우물쭈물하면서 싸울 뜻이 없었다. 구원일 공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위에 올라 크게 부르기를 “오랑캐의 군대가 강을 건너서 종묘사

90) 구원일(1582~1637)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여선(汝先). 선조 때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좌부 천총(千攄)으로서 갑곶나루로 나아갔으나,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싸울 뜻이 없음을 보고 항의하다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다.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91) 구장서발문본에는 ‘串’이 ‘津’으로 되어 있다.

적을 꺾박하는데 어찌하여 대장은 싸우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먼저 대장을 베고 후에 전투하기를 청하였다. 장신이 크게 분노하면서 군대를 지휘하여 왔다. 구원일 공이 칼을 어루만지며 크게 소리치며 “그대는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리니 죄가 하늘과 통한다.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이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니 어찌 이 몸이 그대에게 죽임을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향하여 통곡하면서 네 번 절하고 칼을 잡고서는 강으로 뛰어 들었다. 죽음이 알려지자 병조참의에 추존되었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황상의 정축년(1877, 고종 14)에 병조판서에 추존되었다.

○ 태당 이식이 축문을 지어 “벼슬은 낮았지만 의리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았도다. 일편단심은 성난 파도 되어 천년을 가네.”라고 하였다.

37. 충렬사 진주인 강흥업(晉州人 姜興業⁹²⁾)

姜公當敵鎮天君	강흥업 공은 적을 맞아 마음을 진정시키고,
甲串津頭射湖雲	갑곶나루 앞에 나가 적을 향해 활을 쏘네.
北虜見之猶嘖嘖	오랑캐도 그걸 보고 오히려 찬탄했네,
丹心白首兩將軍	‘충성스런 백발의 두 장군’이라고.

92) 강흥업(1575~1637) 본관은 진주. 자는 위수(渭叟). 권필(權驥)의 문인으로 학문이 높았으나, 왜란의 참화를 목격하고 무인의 길로 들어섰다. 1596년 무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훈련원첨정에 이르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우부천총(右部千總)으로서 강화부중군(江華府中軍)인 황선신(黃善身)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순절하였다. 노장으로 분투하였으므로 적병도 ‘백수장군(白首將軍)’이라고 칭송하였다 한다.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 강흥업(姜興業)은 천총(千摠)으로서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과 함께 출전하여 강가에서 황선신이 죽는 것을 보고는 더욱 치열하게 싸우며 죽는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랑캐가 그의 시신을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면서 오히려 탄식하기를 “장하구나, 두 노장군이여.”라고 하였다. 두 장군은 대체로 황공과 강공을 말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병조참의에 추존하였다.

○ 황상 정축년(1877, 고종 14)에 병조판서에 추존되었다.

○ 청호(靑湖)의 축문에는 “몸을 던져 적을 막고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였도다. 엄숙한 그 의리 이름은 산과 같이 높았도다.”라고 하였다.

38. 충렬사 안동인 권순장(安東人 權順長⁹³⁾)

望蔚賢關權別坐	성문을 지키던 권순장 별좌는,
南樓共對積硝筵	남문루에 마주 하여 화약 쌓아놓고 순절했네.
可憐是日松亭舍	애석하게도 같은 날 송정마을 그의 집에선,
婦女奴婢擡九泉	부인과 노비까지 다 함께 자결했네.

○ 별좌(別坐) 권순장(權順長)은 창의하여 남한산성을 지켰다. 갑

93) 권순장(1607~1637) 본관은 안동. 자는 효원(孝元).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로 피란갔다가, 검찰사 김경정(金慶徵)과 유수 장신(張紳) 등이 수성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의병을 일으키고 순사(殉死)할 것을 맹세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상신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화약에 불을 질러 분사했다. 이튿날 그의 처와 누이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목을 매어 자결했으며, 아우 순열(順悅)과 순경(順慶)은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조정에서는 좌찬성에 추증하였다. 강화의 충렬사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꽃나루가 함락될 때에 두 아우를 보내서 노모를 구하게 하고, 군대를 피하여 진사 김익겸(金益謙)과 함께 선원 김상용(金尙容)을 찾아가서 분신자살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좌찬성에 추존되었으며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아내 이씨, 여동생 그리고 여러 친척의 부녀자들은 병란을 피하여 송정촌(松亭村) 집에 모여 있었는데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로 목매어 죽었다. 노(奴) 의남(宜男)과 비(婢) 의례(宜禮)도 역시 죽었다.

○ 청호(靑湖)가 축문을 짓기를 “명망은 현관(賢關)에 빛나고 행적은 이도(泥塗)에 고달팠도다. 동시에 절의를 취하였으니 그 덕이 외롭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39. 충렬사 광산인 김익겸(光山人 金益謙⁹⁴)

詩禮家中上舍金	시문과 예법 높은 가문의 김익겸 진사가,
南城孤守朔雲侵	외로이 남쪽 성문 지키는데 오랑캐 쳐들어왔네.
捐生殉節堂堂語	몸 바쳐 순절하며 당당하게 남긴 말,
火裡江樓共一心	화염 속 남문루와 한 마음이 되었네.

○ 진사(進士) 김익겸(金益謙)은 별좌 권순장(權順長)과 함께 남문을

94) 김익겸(1614~1636) 본관은 광산. 자는 여남(汝南). 할아버지는 장생(長生)이고, 아버지는 참판 반(槃)이다. 1635년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가서 섬을 사수하며 항전을 계속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김상용(金尙容)이 남문에서 분사할 때, 권순장(權順長)과 함께 순절하였다.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지키다가 이미 군대가 꺾박해 온다는 말을 듣고 선원 김상용에게 나아갔다. 김익겸 공이 웃으면서 “상공(相公)만이 홀로 좋은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같이 분신자살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영의정에 추존되었으며 충정(忠正)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청호(靑湖)가 축문을 짓기를 “집안은 시와 예를 전승하고 이름은 포위(포위)에 독점하였도다. 목숨을 버리고 순절하였으니 그 빛이 열렬하도다.”라고 하였다.

40. 충렬사 김수남(金秀南⁹⁵*)

金佐郎隨廟社來	종묘사직 강화 올 때 김 좌랑도 따라왔는데,
南樓火裡一聲雷	남문루 화염에 덮이고 우레 소리 진동했네.
以身殉國男兒事 ⁹⁶	몸을 바쳐 순국함은 남아의 뜻이니,
寄內書中臟腑開	집안에 부친 글 속에 속마음을 펼쳤다네.

○ 좌랑(佐郎) 김수남(金秀南)은 종묘사직을 따라 강화성으로 왔는데 장차 성이 함락될 때에 승지 홍명형(洪命亨)과 함께 선원 김상용(金尙容)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직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 의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관직이 낮다고 해서 어찌 충신(忠臣)이 될

95) 김수남(1576~1637) 본관은 광산. 자는 여일(汝一), 호는 만치당(萬痴堂). 162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감찰 등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따라 강화도로 피란하였으나, 그곳에 적군이 침입하자 홍명형(洪命亨)과 같이 김상용(金尙容)을 따라 남루(南樓)에 올라 분사(焚死)하였다. 뒤에 공조좌랑·승지에 추증되었다. 강화의 충렬사, 은진의 금곡사(金谷祠)에 제향되었다.

96) 구창서발문본에는 ‘事’가 ‘志’로 되어 있다.

수가 없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나와서는 서찰을 집안의 종에게 부탁하였다. 그 서찰에는 “이 몸을 다해 나라 위해 죽는 것은 남아가 평소에 정한 것이다. 나랏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두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니 아이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나의 죽음을 한스럽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고는 마침내 분신자살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승지에 추존되었으며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축문에 이르기를 “연원 있는 학문은 죽어서도 도를 지키네. 유서 여덟 자는 미리 정해진 것이니 빠르기도 하네.”라고 하였다.

41. 충렬사 여흥인 민성(驪興人 閔埜⁹⁷)

念昔閔公入海濱	옛적에 민성 공이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忠貞孝烈十三人	충정과 효열 인사 13명이나 되었네.
床頭敬讀龍巖傳	책상머리에서 용암 선생 전기를 공손히 읽어보니,
知我東方砥礪身	알겠네 우리 동방의 숫돌(砥礪)이신 것을.

○ 용암(龍巖) 민성(閔埜)은 옛 재상 민인백(閔仁伯)의 아들이다. 병자년 난리에 그의 아들 민지침(閔之針)·민지혹(閔之劬)·민지술(閔之鋏)과 함께 의병에 소속되었다. 성이 장차 함락될 때에, 지침·지혹·지술과 지침의 아내 이씨·지혹의 아내 김씨·지술의 아내 유씨

97) 민성(1586~163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재만(載萬), 호는 용암(龍巖). 광해군 때 생원시에 합격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에 출전하여 적의 침공에 맞서 요새를 지키다가 1637년에 전 가족 13명과 함께 순절하였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용암실기(龍巖實記)》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와 함께하였다. 그의 장녀는 최여준(崔汝峻)의 처이고 둘째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세 사람·서제(庶娣)·그 첩들은 흠으로 지은 집에 가서 정결하게 하고 관복을 정제하고는 서열대로 서제에게 말하기를 “제의 나이는 많으니 필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이미 떠나자 첩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죽지 않는다면 따라서 가는 것도 가하다.” 첩은 “함께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고서 모두 목을 매어 죽었다. 서제가 선원리(仙源里)에 이르러서 이 일을 듣고는 업고 있던 아이를 여종에게 부탁하고는 목매어 죽었다. 죽은 자가 모두 13명인데 후에 명하여 모두 용암에 정려되었다. 호조판서에 추존되었으며 충민(忠愍)이란 시호를 받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선정(先正) 우암(尤菴) 송시열이 그의 발자취를 전기로 지었다.
- 축문에 “한 가문의 충과 효는 온 천하보다 열렬하네. 순결한 공이 없으니 선정이 전기를 지어주었네.”라고 하였다.

42. 강화부 수신(江華府 守臣*)

廟社西來萬姓啼	종묘사직 서쪽 올 때 만 백성이 울었는데,
守臣何事醉眠迷	수비 신하 어이하여 술 취해서 졸았던가.
雖歸地下應多愧	지하에 묻혀서도 응당 몹시 부끄러울지니,
猶見賢兒又義妻	그래도 훌륭한 아들과 의로운 아내가 있었다네.

- 병자년 난리에 강화부의 검찰사 김경징(金慶徵)⁹⁸과 부사 이민

98) 김경징(1589~1637) 본관은 순천. 자는 선응(善應). 도승지를 거쳐 한성부 관윤이 되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사에 임명되어 강화도 수비

구(李敏求)⁹⁹⁾ 등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술 마시고 놀이에 빠져 전쟁을 준비하고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오랑캐가 강을 건널 때에 이르러서 김정징과 이민구 등은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정징의 아내 박씨(朴氏)와 첩 권씨(權氏)는 모두 목매어 죽었다. 후에 정려(旌閭)를 내려주었다. 이민구의 아들 이원규(李元揆)·이중규(李重揆)는 적을 만나서 분전하다가 굽히지 않고 죽었다. 그의 조카 이상규(李尙揆)도 죽었다. 난이 평정되자 김정징은 사약을 받았으며 이민구는 금고되었다.

43. 충의혼백(忠義魂魄*)

嗚呼慘矣丙丁羞 오후라 참혹하다 병자정축년 수모여,
崖海淮城此一州 바다 절벽 성을 이룬 이곳 강화 고을에는,
義魂忠魂難可數 충의로운 혼백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의 책임을 맡았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지휘, 명령하고 대군이나 대신들의 의사를 무시하였다. 청나라 군사가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다가 적군이 이르러서야 서둘러 방어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가 부족하여 해변의 방어를 포기하고 강화성 안으로 들어와 성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져 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나룻배로 도망하여 마침내 성은 함락되었다. 대간으로부터 강화수비의 실책에 대한 탄핵을 받아 사사(賜死)하였다.

99) 이민구(1589~167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洲)·관해(觀海). 이조참판·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로 임명되었다. 난이 끝난 뒤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죄로 아산에 유배되었다가 1649년에 풀려났다. 그뒤 부제학·대사성·도승지·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에 뛰어나고 사부(詞賦)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저술을 좋아해서 평생에 쓴 책이 4,000권이 되었으나 병화에 거의 타버렸다. 저서로는 《동주집》·《독사수필 讀史隨筆》·《간언귀감 諫言龜鑑》·《당률광선 唐律廣選》 등이 있다.

蕭條閭里盡霜秋 쓸쓸한 마을에 온통 서릿발이 서는구나.

○ 정축년 난리에 순절하고서도 표창되지 않은 자들은 아래에 대략 기술한다.

○ 정백형(鄭百亨)¹⁰⁰은 장령으로서 옛 유수 정효성(鄭孝成)의 아들이다. 스스로 함문해서 목매어 죽었으니 죽은 자가 아홉명이었다.

○ 심지심(沈之謙)은 선비로서 성이 함락될 때에 그 어머니가 살해되었다. 심지심이 구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어머니를 덮어서 같이 죽었다. 그 아내도 역시 죽었다.

○ 심숙(沈誡)은 충렬공 심현(沈諶)의 사촌동생이다. 의병장이 되어 오랑캐가 이르렀을 때 달려 나갔는데 전쟁 후에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 이가상(李嘉相)¹⁰¹은 급제하였으나 병란에 죽었다.

○ 이사규(李士珪)¹⁰²는 첨정으로서 병란에 죽었다.

○ 이참(李參)은 파총으로서 갑곶진을 지켜려 시종 힘껏 싸우다 죽었다. 임진년에는 손자 이시익(李時翊)의 상소로 인하여 공조참의

100) 정백형(1590~163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덕후(德後). 승문원저작·예문관검열을 거쳐 대교·봉교를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임금을 따라 강화도에까지 갔던 공로로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아버지 효성과 함께 자결하였다. 현종 때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101) 이가상(1615~16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회경(會卿), 호는 빙헌(氷軒). 병자호란이 일어나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가서 피난하였다. 강화도가 함락되자 자신은 적에게 잡히고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옆의 섬으로 피난하였다. 그 뒤 풀려나왔으나 여러 차례 적진에 들어가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적에게 피살되었다. 아내 나씨도 이 소식을 듣고 상심한 끝에 죽었다. 1671년 승지 이단하(李端夏)의 건의로 수찬을 추증받았다.

102) 이사규(1583~?) 아버지는 이경백(李景白)이다. 1603년(선조 36) 식년시 진사 3등 62위로 합격했고, 1610년 별시(別試) 병과(丙科) 16위로 합격했다.

에 추존되었고 정려를 내려주었다. 유수 이은(李潑)¹⁰³은 이참의 후손들이 잔약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토지를 주고 결혼도 시켜주었다. 묘표의 음기도 고쳐 새겨서 세웠다. 묘표의 추기에는 다음과 같다. “아! 정축년 충신 이공의 묘이다. 예전에 묘표가 있었으니 중간에 훼손되어 동네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호, 연도 등을 잘못 써서 충신의 혼도 갑절이나 수치스럽고 분통하였을 것이다. 마침내 이것을 깎아내고 이와 같이 고쳐 새겼다. 영령이 어찌 처음부터 송승상(宋承相) 세 글자에 편안하게 여기겠는가? 공의 5대손 봉룡은 잔약하여 매우 안타깝다. 유수 이은이 황운조(黃運祚)에게 돌에 쓸 것을 청하였다.”

○ 안몽상(安夢祥)¹⁰⁴은 파총으로서 이참과 함께 갑곶진에서 죽었다. 애초에 아들이 없었는데 유수 이은(李潑)이 당시 방손 세태(世泰)로서 양자를 삼아주었다. 매년 순절한 날에 관청에서 제물을 주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이참의 집안에도 이 관례를 똑같이 하였다.

○ 전기업(全起業)은 전이직(全以直)¹⁰⁵의 아들로 나이가 스물셋이었는데, 정축년 난리 때 아버지가 연일(延日)의 임소에 있었다. 기업은 홀로 집에 있으면서 군대를 모집하여 적을 방어하려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지금 바깥의 임소에 계시고 외할아버지

103) 이은(1722~1781).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치호(稚浩), 호는 첨재(瞻齋). 1766-1767년 강화유수로 재직했다.

104) 안몽상(?~1637) 조선 중기의 무인. 본관은 강진(康津).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첨정(訓練僉正)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강화군영의 파총(把總)으로 있었다. 이 때 갑곶진이 무너지자 차명세(車命世), 황신신(黃善身) 등과 함께 갑곶진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병조참의에 추증하였다가 다시 병조판서로 증봉하였다. 강화 충렬사에 배향하였다.

105) 전이직(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성주(星州). 상서(尙書) 전신(全信)의 후손으로 강화 양도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연일현감(延日縣監), 백령진수군첨절제사(白翎鎭水軍僉節制使)를 지냈다. 성품이 청렴 강직하여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묘지는 국사봉(國賜峯)에 있다.

가 교동(喬桐)에 계시다. 나라의 은혜가 끝이 없으니 지금 너는 우리 국가를 위하여 죽는다 한들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칼을 가져다가 이마의 머리카락을 한 치 남짓 잘라서 주고는 마침내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기업은 손에 작은 칼도 없었다. 나무를 깎아 병기를 만들어 마침내 순절하였다. 병술년(1706)에 우수 민진원(閔鎭遠)이 사적을 살펴 부역을 경감시켜 주었다. 임신년(1752)에는 우수 조관빈(趙觀彬)은 선비들의 장계에 의거하여 세금을 완화해 주었다.

○ 황대곤(黃大坤)¹⁰⁶은 무과에 합격하여 파총으로서 적을 방어하였다. 갑곶진에서 칼로 자살하였다. 병오년(1726)에 우수 박사익(朴師益)¹⁰⁷이 장계를 올려서 공조참의에 추존되고 정려문을 세워주었으며 황상의 정축년(1877)에 병조판서에 추존되었다.

○ 이사후(李嗣後)는 초관(哨官)이었다. 이광원(李光元)¹⁰⁸은 기패관(旗牌官)이었다. 서언길(徐彦吉)¹⁰⁹은 출신(出身)이었다. 고의겸(高義謙)은 교사(教師)였다. 차명세(車命世)¹¹⁰는 정병(正兵)이었다. 이상

106) 황대곤(?~1637) 조선 중기의 무인. 본관은 평해(平海). 호는 송포(松圃).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파총(把總)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이참(李參), 안몽상(安夢祥)과 함께 갑곶진을 방어하다가 전사했다. 1726년 강화유수 박사익(朴師益)이 장계를 올려 공조참의에 증직하고,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107) 박사익(1675~1736)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겸지(兼之), 호는 노주(鷲洲). 강화유수로 1725년 5월 부임하여 1727년 윤3월에 이임하였다.

108) 이광원(1560~1637)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선초(善初). 1618년 식년시 생원 3등으로 급제하였다.

109) 서언길(?~1637) 조선 중기의 무인. 1636년 병자호란 때 갑곶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의 외손인 송만(宋萬)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철에 그가 전투 시 중군(中軍)에게 올린 글과 본영에서의 회답문, 그리고 군중(軍中)과 관아에서 공론한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활약상을 엿볼 수 있다.

110) 원본에는 차광세(車光世)로 되어있으나 구창서발문본 및 표충단 기록 등에 의거하여 차명세(車命世)로 고쳤다.

다섯 명이 갑곶진에서 같이 죽었다. 표충단(表忠壇)에 보인다.

○ 김득남(金得男)¹¹¹)은 철곶 첨사로서 출전하여 힘이 다하여 싸우다 죽었다. 송영춘(宋榮春)은 수군으로서 적이 그 마을에 도착하자 분함을 참지 못해 목매어 죽었다. 이상 2인은 표충단에 함께 올라 있다.

○ 이국화(李菊華)은 사노(私奴)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정려문을 세워주었다.

○ 한여종(韓汝宗)은 정축년(1637) 효종이 봉림대군으로서 이 고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쓴 자이다. 그는 서리(書吏)로서 사람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인조가 그의 충성심을 가상하게 여겨서 특별히 내자주부(內資主簿) 직을 주었다. 후에 강화부로 돌아와서 초지만호(草芝萬戶)가 되었다.

○ 송해수(宋海壽)는 사노(私奴)였다. 어머니를 효로써 지극하게 섬겼으나, 정축년(1637) 난리에 목매어 죽었다. 기해년에 효심을 기리기 위해 정려문을 내려주었고, 경진년에는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또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44. 열녀절부(烈女節婦*)

丁年二月一州空 정축 2월 난리 통에 모든 고을 비었으니,
烈婦爭投水火中 열부들이 다투어 물과 불에 몸 던졌네.

111) 김득남(1591~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선술(先述), 호는 매죽헌(梅竹軒). 철곶첨사(鐵串僉使)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부평(富平) 근처에서 적에게 항전하다가 전사하였다.

北虜亦驚相顧語 오랑캐도 놀라서 서로 보고 말하기를,
海東不似漢南風 조선의 풍속은 중국과는 다르구나.

○ 당시에 열녀와 절부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체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 일찍이 이런 말을 들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간 청나라 장수들은 “동방에 절개있는 여인이 많은 것은 한남(漢南)이 음란한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 정씨(鄭氏)는 무거(武舉) 이춘남(李春男)의 아내이다. 정묘년(1627) 봄에 이춘남이 군에 입대하자 정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는데 오랑캐들이 와서 그것을 파내려 했다. 정씨는 어린 아이를 업고 피하려다가 그들과 마주쳤고, 모욕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는 동쪽으로 향하여 네 번 절하고서 “여자가 순국하지 못하고 헛되이 죽는 것이 매우 한스럽습니다. 주상께서는 이 난리를 극복하고 영원히 나라를 누리소서”라고 하고는 마침내 자신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하였다.

○ 안씨(安氏)는 학생 유인립(劉仁立)¹¹²의 아내이다. 정축년(1637)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 몸이 온전한 데가 없었는데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오랑캐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냥 두고 가버렸다.

○ 이씨(李氏)는 집의(執義) 윤선거(尹宣舉)¹¹³의 아내이다. 정축년 난리 때 목매 죽었다. 당시 윤선거는 위사(衛士)의 대열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들 윤증(尹拯)¹¹⁴은 나이가 아홉 살이었는데도

112) 유인립(1601년 출생) 본관 김성(金城), 거주지 이천

113) 윤선거(1610~1669)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

114) 윤증(1629~1714)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

빈소에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으며 그곳 네 귀퉁이에 돌을 두고 중간에 회를 다진 뒤에 곡(哭)을 하였다. 여종이 엮고 나왔다. 상서 이민서(李敏叙)¹¹⁵가 왕에게 아뢰기를 “이씨는 조용히 자결하였습니다. 위태로운 때를 당해서 몸을 버렸으니 더욱 숭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죽음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 권씨(權氏)는 영상 이성구(李聖求)¹¹⁶의 아내이다. 아들 이상구(李尙揆)의 아내 구씨(具氏), 이일상(李一相)¹¹⁷의 아내가 된 딸, 급제 한오상(韓五相)의 아내가 된 딸과 함께 같은 날 목매죽었다. 이들 모두에게 정려문을 내렸다.

○ 유씨(柳氏)는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¹¹⁸의 아내이다. 성이 무너지가 아들 김경징의 아내 박씨(朴氏), 부제학 진륜(震慄)의 아내 정씨(鄭氏), 김류의 첩 신(申)가, 경징의 첩 권(權)가와 함께 같은 날 목매 죽었다. 모두에게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 장씨(張氏)는 도정 권순창(權順昌)¹¹⁹의 아내로 옛 경력 장우한(張遇漢)¹²⁰의 딸이다. 성이 무너지자 송정(松亭)에 있는 권씨(權氏)의 집을 나와 여러 절개 있는 여인들과 함께 같은 때 목매 죽었다. 모두에게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 이씨(李氏)는 권순정(權順正)의 아내로 장씨의 손아래 동서이다. 성이 무너지자 동서가 같이 목매 죽었는데,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 이씨(李氏)는 헌남 홍명일(洪命一)¹²¹의 아내로 군사를 피해 갑

115) 이민서(1633~168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중(彝仲), 호는 서하(西河)

116) 이성구(1584~164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이(子異), 호는 분사(分沙).

117) 이일상(1612~1666)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함경(咸卿), 호는 청호(靑湖)

118) 김류(1571~1648) 본관은 순천.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119) 권순창(1609~1687) 본관은 안동. 자는 성지(聖之).

120) 장우한(1585년 출생) 본관 인동(仁洞).

꽃진으로 갔다가 배안에서 오랑캐의 압박을 받았다. 시어머니 황씨(黃氏)가 자살할 때 이씨는 그 옆에 있다가 생질 박세상(朴世相)의 아내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 그의 두 아들 자의(子儀)와 자동(子叟)도 함께 죽었다. 모두 정려문을 세워 주었다.

○ 두 한씨(韓氏)는 만이가 참판 여이징(呂爾徵)¹²²의 아내이고 둘째가 참판 정백창(鄭百昌)¹²³의 아내로 모두 인열왕후(仁烈王后)¹²⁴의 여동생들인데, 성이 무너지자 목매 죽었다. 정백창의 아들 사복 정정선(鄭正善)과 아내 권씨(權氏)도 죽었다. 모두 정려문을 세워 주었다.

○ 아무개 선비의 아내는 성(姓)이 전하지 않는다. 성이 무너지자 자살하기 전에 여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적들이 나의 시신 근처에 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서는 향리에서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안타까워 하였다.

○ 충렬사순절비문(忠烈祠殉節碑文)은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¹²⁵가 찬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숭정(崇禎) 병자년 겨울에 건주(建州)의 오랑캐들이 대거 입구하니 상계서는 강도(江都)로 행행하려하여 종묘(宗廟)의 위패를 모시고 먼저 떠나게 하고 그 뒤로 빈궁(嬪宮) 원손 대군과 군신 중 노병자를 따르게 하였으며 대가도 뒤따라 출발하여 서울 남문에 이르니 오랑캐들이 벌써 서교(西郊)를 압박하는지라 어가를 돌려 남한(南漢) 산성으로 들어갔다. 검찰사 김경징(金慶徵), 부사 이민구(李敏求) 유

121) 홍명일(1603~1651)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만초(萬初), 호는 보옹(葆翁).

122) 여이징(1588~1656)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구(子久), 호는 동강(東江).

123) 정백창(1588~1635)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덕여(德餘), 호는 현곡(玄谷).

124) 인열왕후(1594~1635) 조선 인조의 비. 청주한씨.

125) 권상하(1641~1721) 본관 안동.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寒水齋).

수 장신(張紳)이 실질적으로 강도의 일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강도(江都)는 믿을 만한 천험(天險)의 요새라고 말하면서 술과 놀이로 싸워 지킬 일을 내쳐두니, 방비하는 이가 충고를 하면 즉석에서 이를 억압 굴욕하였다. 정축년 정월 22일에 적이 갑곳이 나루로 건너오니 경징 등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배를 빼앗아 타고 도망하니 강도는 함락되었다. 그때에 의정부 우의정이었던 선원 김상용(金尙容) 선생은 반드시 구제할 수 없을 줄 알고 탄식하기를 ‘종묘사직과 원손이 여기에 있으니 이곳은 나의 죽을 땅이다’ 하고 일이 급하게 되니 성 남쪽의 초루(譙樓)에 올라가 초황(硝黃) 상자에 걸터앉아 자폭하였다. 공조판서였던 이상길(李尙吉)은 성 밖 10리 되는 곳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급보를 듣고는 달려 들어와 종묘의 신주 앞에 통곡하고는 순절하였으며, 돈령부도정이었던 심현(沈諤)은 집사람들이 배를 마련해놓고 울면서 바다로 나가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사배(四拜)하고 손수 왕에게 상소하는 글을 쓴 뒤에 부부가 함께 죽었고, 사헌부장령이었던 이시직(李時稷)은 유서를 써서 종에게 주고, 사복시주부 송시영(宋時榮)과 함께 관(棺) 두 개를 사고 구덩이 둘을 판 뒤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시강원 필선 윤전(尹焮)은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다가 해를 입었고, 의금부도사였던 권순장(權順長)과 성균관생원 김익겸(金益兼)은 스스로 군사 대열에 뛰어들어 남문의 성첩(城堞)을 지키다가 상공(相公)이 자폭할 때 비켜라 해도 비키지 않고 함께 죽었으며, 본부 중군 황선신(黃善身)과 천총 강흥업(姜興業)은 잔병을 이끌고 강나루를 끊으려 힘써 싸우다가 죽었고 천총 구원일(具元一)은 강 언덕에 올라가 김정징 등을 꾸짖으며 울분이 폭발하여 물에 몸을 던졌다. 난이 끝나니 조정에서 충의를 가상히 여겨 의정공에게는 시호 문충(文忠)을, 판서공에게는 좌의정과 충숙(忠肅)을, 도정공에게는 이조판서와 충렬(忠烈)을, 장령공에게는 참찬

과 충목(忠穆)을, 주부공에게는 참찬과 충현(忠顯)을, 필선공에게는 도승지를, 도사공과 생원공에게는 지평을, 구공 황공 강공에게는 모두 참의를 내렸다. 임오년에 경외의 유생들이 합의하여 강화부 남쪽 7리 되는 선원촌(仙源村)에 사우(祠宇)를 세우니 이곳은 문충공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다. 문충이 주향(主享)이 되고 충숙, 충렬, 충목, 충현과 구공이 배향(配享)이 되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충렬사(忠烈祠)’란 호가 내렸고, 효종(孝宗) 조에 이르러서는 황(黃) 강(姜) 2공과 윤(尹), 권(權), 김(金) 3공이 선후(先後)하여 추향(追享)되었으며 지금의 주상 정축년에는 그 순의한 날짜에 관원을 보내 제(祭)를 올렸으니 어시호(於是乎) 성조의 포충(褒忠) 현렬(顯烈)이 유감없이 이루어졌다 하겠다. 오호라! 사대부들이 평소에는 도리를 말하여 참으로 사생(死生)과 의리(義利)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같다가도 일조에 큰 난리를 만나면, 나라를 배반하고 살길을 엿보며 몸을 욱 되게 하고 이름을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 여기 문충제공은 천지가 번복되는 날을 당하여 의(義)를 지켜 자정타가 조용히 죽음을 택하였고 일명(一命 : 꼭 한번 베풀어 주어진, 진급이 없는)의 한산한 관료나 포의의 한낱 선비들까지 사직을 수호하다가 순국하였으며 또 작은 고을의 비장들까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모두 충의심을 분발하여 죽음을 초개같이 여겼으니 그 세운 바 공훈은 비록 일월과 빛을 다룬다 하여도 가하리라. 슬프다. 하늘이 상란(喪亂)을 내려 온 나라가 침몰하였으나 동토(東土)의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천지의 뒤흔튼 기강이 있음을 알게 하고, 3백년 예의지방(禮義之邦)의 면모를 실추시키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의 공이었는가? 전 유수 이이명(李頤命)이 여러 공(公)들의 사실과 사우(祠宇)를 세우게 된 전말을 수집하고 또 구, 황, 강, 3공을 위하여 전(傳)을 지어 사우에 갈마 두었으며 김창집(金昌集)이 이어서 강화

유수로 부임하여 사우를 참배해 뱃고는 개연히 탄식하기를 ‘사당에 비를 세우는 것은 옛날부터의 준례다. 비(碑)가 없으면 어떻게 당세와 후세에 알릴 수 있겠는가?’하고 드디어 돌을 떠 제생(諸生)들에게 맡기니 제생들이 기꺼이 나가서 돌을 다듬어 놓고 이후(李侯)가 기록한 일통(一通)의 사실을 나 상하에게 주면서 글을 청하였다. 나는 태어나기는 비록 후세에 태어났으나 그 사실에 감격하고 격앙되어 실상을 상상해보면서 눈물 흘려온 지 오래였다. 이제 의리 없이 사양할 수 없어 그 대략을 간추려 후세에 신빙하는 자료가 되게 하고자 한다.”

45. 선원사(禪源寺¹²⁶*)

禪源古寺問阿誰	선원사 옛 절을 누구에게 물어보나,
流水桃花處處疑	시냇물에 복사꽃 떠오는 곳곳마다 의심 가네.
寂矣半千龕月影	적막토다 오백불상 달그림자 속에 들고,
黃金銷盡碧蘿垂	황금불상 다 녹아서 푸른 덩굴 드리웠네.

○ 선원사(禪源寺)는 지금의 선원리(仙源里)에 있다. 고려 고종 때 술사(術士)의 말을 따라서 절을 지었다. 최우(崔瑀)¹²⁷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몄으므로 ‘반천선감(半千禪龕)¹²⁸’이라고도 하였다. ‘

126) 고려시대 강화도읍기 당시 최고집권자 최우(崔瑀)가 강화도에 세운 절. 무인정권과 관련이 있던 정혜결사의 송광사 스님들이 주로 주석하였다. 충렬왕이 피난을 하기도 했으며, 실록을 보관하는 등 국가적 비중이 컸던 절이다.

127) 최우(?~1249) 고려 무신정권의 집권자. 본관은 우봉(牛峰). 뒤에 이(怡)로 개명하였다. 아버지는 충헌(忠獻)

선(禪)’을 ‘선(仙)’으로 바꿔 지명이 되었으므로 당시에 무엇을 숭상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여전히 옛 터가 전해 지지만 넝쿨 숲만이 무성할 뿐이다.

46. 고성인 이암(固城人 李岳¹²⁹⁾)

杏村老相築山臺	늙은 재상 행촌 선생 산대를 세웠는데,
息隱禪師共往來	선원사 식은선사 ¹³⁰⁾ 가 친구 되어 왕래했네.
果是當年明哲計	정말로 그 당시의 명철한 뜻 있을진대,
海雲堂上絕浮埃	해운당 위에는 먼지마저 끊어졌네.

○ 고려 공민왕 때의 문정공(文貞公) 이암(李岳)은 호가 행촌(杏村)이었는데 정승을 역임한 후에 선행촌(仙杏村)에 거주하면서 식은노인(息隱老人)과 함께 결사하여 시름을 같이하면서 당시의 난리를 피하였다. 선원사 중에 해운당(海運堂)이 있었다.

128) 오백 개의 감실(龕室)이 있는 선찰(禪刹)이란 의미로, 이는 오백나한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9) 이암(1297~1364)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초명은 군해(君該). 자는 고운(古雲), 호는 행촌(杏村).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였고,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우왕 때 충정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30) 《동문선》·《목은집》 등에는 식영(息影)·식영암(息影菴)으로 되어있다.

47. 선원리 경주정씨(仙源里 慶州鄭氏*)

丹霞深鎖碧茅家	붉은 노을은 푸른 초가집을 깊이 감싸고 있는데,
鄭是山中有桂花	정씨 댁의 산중에는 계수나무 서있네.
花下有人來拾馥	꽃 아래 사람들이 향기 맡으러 찾아오니,
介然一路石間斜	잠깐 사이 한 줄기 길이 돌 틈 사이로 비스듬히 났네.

○ 경주 정씨(慶州鄭氏)는 세족으로서 지평(持平) 정아무개의 후손이 거주하면서 대대로 문학으로 가르쳤는데 여러 제자들 중에 성취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연성로(介然成路)’라고 말한 것이다.

48. 선원리 진주유씨(仙源里 晉州柳氏*)

古宅江山柳色連	옛집 있는 산과 내에 버들 빛이 연이었는데,
炳然文藻尙今傳	빛나는 글월들이 아직도 전해오네.
欲知沁府由來蹟	강화의 유래와 자취를 알고자 한다면,
先看宜蔬誌一篇	의소(宜蔬)공의 《강도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 이네.

○ 진주 유씨(晉州柳氏) 좌랑(佐郎) 유탉하(柳宅夏)¹³¹⁾는 호가 의소

131) 유탉하(1714년 출생)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언장(彦長), 호가 의소당(宜蔬堂)이다. 1764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급제하였고, 벼슬이 병조정랑(兵曹正郎)에 이르렀다. 강화에 살면서 《강도지(江都誌)》 2권을 편찬하였다.

(宜蔬)이며 일찍이 《강도지(江都誌)》를 찬술하였다.

○ 그 형인 유탉조(柳宅肇), 아우인 진사 유탉규(柳宅揆)·유탉우(柳宅耦)·유탉모(柳宅口)의 5형제가 과거에는 장령(長嶺)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이 동네로 이사하여 살았다.

49. 창동(倉洞¹³²)

還踰花麓洞云倉	꽃뭇부리 돌아 넘어 창리가 있는데,
大路東西列短墻	큰길 동서 편에 낮은 담장 열지어 있네.
春種秋收儲幾斛	봄에 뿌리고 가을 거두니 몇 가마나 쌓을까,
知應穡 ¹³³ 事比豐穰	농사일이 풍년임을 응당 알겠네.

○ 이곳은 토질이 비옥하며, 큰길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50. 이정동(梨井洞¹³⁴)

梨井一村對府城	이정촌은 강화부성과 마주하고 있는데,
殷殷窓外午鍾鳴	창밖으로 은은히 정오 종소리 울리네.
高司馬去兒孫繼	고형규 선생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이어져,
淡泊生涯讀且耕	책 읽고 밭 갈며 담백하게 살고 있네.

132) 선원면 창리이다.

133) 구창서발문본에는 ‘穡’이 ‘稼’로 되어 있다.

134) 선원면 신정리는 신당동과 이정동이 합해서 생긴 이름이지만, 현재 이정(梨井)마을은 창¹리에 속해 있다.

- 제주 고씨의 세족으로서 진사 고흥규(高亨奎)¹³⁵의 자손이 이곳에 살고 있다.
- 관아와의 거리가 3리 남짓이고 정오에는 종소리가 창문 하나를 격해서 들리는 듯하다.
- 지명을 고식이(固植里)라고도 한다.

51. 조산평(造山坪¹³⁶*)

一平廣潤造山坪	평평하고 널따란 조산평 들판엔,
農老紛紛聽水聲	농부들이 분주하게 물을 대고 있구나.
最是江都膏沃地	이곳은 강화에서 손꼽히는 옥토이니,
府城富客擲金爭	성안의 부자들이 다투어 투자하네.

○ 조산평(造山坪)은 비옥한 땅으로 읍내 부자들의 곡식창고로 불리웠다. 강화부의 남쪽 수문 밖에 있는데, 고을의 풍흉과 금값의 고하가 오로지 이곳에 달려있다.

135) 고흥규(1828년 출생) 본관은 제주. 1849년 식년시 진사(進士) 3등 58위로 합격하였다.

136) 강화읍 갑곶리와 선원면 창리 사이의 넓은 들판을 말한다.

부내면(府內面)

52. 남산동(南山洞¹³⁷) 수록암(壽祿巖¹³⁸)

壽祿巖前壽祿增	수록암 앞에 살면 수명 복록이 늘어난다는데,
南宮世世卜居仍	남궁씨 가문이 대를 이어 살고 있네.
乃知壽祿由心德	수명과 복록은 심덕(心德)에서 나옴을 알겠으니,
一鑑東天水月澄	동쪽 하늘 물에 비친 달을 거울삼고 살았네.

○ 함열 남궁씨인 부제학 남궁찬(南宮璨)¹³⁹의 후손이 수록암 마을에서 대대로 세습하여 살았다. 손자 남궁제(南宮堤)는 진사로서 행실과 의리에 돈독하였다. 향리에서 장녕전(長寧殿) 참봉에 제수된 것으로 인하여 형조좌랑 회덕 현감을 지냈다.

○ 그 아들 남궁현(南宮鎡)은 관직이 인동 부사에 이르렀는데 효행이 뛰어났었다. 영조 계유년(1753)에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그 아들 남궁철(南宮澈)은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그 후손 가선대부 남궁일(南宮鎰)과 남궁주(南宮澍) 부자는 향반(鄕班)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어찌 장수와 복록의 징험이 아니겠는가?

137) 강화읍 남산리이다.

138) 이형상 《강도지》에 보이는 남산 남쪽에 수록암리(水陸庵里)가 수록암·술감으로도 불린 것으로 짐작된다.

139) 남궁찬(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여헌(汝獻), 호는 창랑(滄浪). 제주목사·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53. 구춘당(九春堂*)

九春堂後幾經春	구춘당 떠나신지 몇 해가 지났는가,
碧桃紅杏尙一新	푸른 복사 붉은 살구 더욱더 새롭구나.
東岳先生題壁韻	동악 선생 지은 시 벽에다 써붙이니,
有心嘗許卯君親	마음으로 허락한 동갑내기 친구였네.

○ 구춘당(九春堂) 남궁수(南宮棼)¹⁴⁰는 자가 자구(子久)였는데 대사성 남궁침(南宮枕)¹⁴¹의 손자이다. 일찍이 학업을 폐지하고 강화부의 남산 바깥 수록암(壽祿菴)에 집을 짓고 화초를 많이 심었으며 시와 술로써 스스로 즐겨서 매우 은거하는 뜻이 있었다.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¹⁴²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 아홉 수의 시를 지어서 곁었으며 《동악집(東岳集)》에 전하는데 ‘남궁자구(南宮子久)의 초당(草堂)’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 첫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궁벽한 곳 뜰에다가 길가에 못을 파니(崖闕園庭蹊鑿池) 초당이 진실로 주인과 걸맞구나.(草堂眞與主人宜) 붉은 단풍 노란 국화 가을날을 알리고(赤楓黃菊九秋日) 붉은 은행 푸른 복숭아 삼월의 때이로세.(紅杏碧桃三月時) 지난해엔 일찌감치 맑은 술을 두고서(去歲曾蒙置清醪) 오늘 새벽엔 문득문득 참신한 시 짓는구나.(今晨却要賦清詩) 바람은 산골로 흐르는게 이와 같아(風流岳壑有如此) 육십의 취한 노인 또 한잔을 기울이네.(六十醉翁添一奇)

○ 두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강화는 황량한 고을이라 물산 적어

140) 남궁수(생몰년 미상) 본관 함열(咸悅), 자는 자구(子久), 동악 이안눌과 교유하였다.

141) 남궁침(1513~1567)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성중(誠仲).

142)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江府荒村少物華) 벗님의 집에서 늦은 봄을 어엿버하네.(獨憐春晚卯君家) 스스로 이월부터 삼월까지(自從二月及三月) 한 꽃이 새로 피니 모든 꽃이 따르다네.(新開一花仍百花) 흰 꽃이 울에 가득 맑은 것이 눈을 안고(素藥壓籬晴擁雪) 붉은 꽃 담에 비취느니마히 노을 지네.(紅葩映塢晚蒸霞) 늙은이가 수레 타고 문득이 방문하니(老夫乘輿輒相訪) 글귀를 찾느라고 해지는 줄 모르네.(素句不知山日斜)

○ 구춘당의 아들 남궁섭(南宮燮)¹⁴³은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고, 그 아들 남궁민(南宮愷)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남궁섭의 아들 남궁제(南宮埏)은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남궁제의 아들 남궁현(南宮鑣)은 정려문을 내려주었다.(위에 보인다.)

○ 남궁현의 아들 남궁철(南宮澈)은 사마에 합격하였다.

○ 남궁철의 아들 남궁빈(南宮贇)은 인동 부사를 지냈다.

○ 동약은 구춘당과 함께 형제의 의리를 맺었기 때문에 묘군(卯君)¹⁴⁴으로 일컬어졌다.

54. 남산동 청송심씨(南山洞 靑松沈氏*)

府南城下近郊墟	강화부 남쪽의 성 아래 근교에,
沈雅聯床坐讀書	심씨 형제 책상 놓고 글을 읽고 있었네.
道德門前春月色	도덕심 높은 문 앞에는 봄 달빛이 가득한데,
令人和悅駐征車	사람들 화락하여 가던 수레 머물게 하네.

143) 남궁섭(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함열(咸悅). 구춘당(九春堂) 남궁수(南宮修)의 아들로 강화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한 뒤 흥해군수(興海郡守)를 지냈다.

144) 묘년(卯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 청송씨(青松沈氏)의 청성군(青城君)의 후손 세마 무문재(無聞齋) 심태(沈垞)¹⁴⁵의 손자 심낙형(沈樂迥), 심낙선(沈樂善) 형제가¹⁴⁶ 거주하였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벗을 좋아하였다.

○ 소동파집(蘇東坡集)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가을의 달빛은 사람을 참담케하고(秋月色令人慘愴) 봄의 달빛은 사람을 기쁘게 하네(春月色令人和悅).

55. 안파루 부내12동(晏波樓 府內12洞¹⁴⁷*)

晏波樓上坐停杯	안파루 위에 앉아 술잔을 들고 보니,
滿眼繁華次第開	번화한 집들이 차례차례 보이네.
桃李杏花三萬樹	복사꽃 살구나무가 삼만 그루나 되는데,
影中無處不樓臺	그림자 중에는 누대 없는 곳이 없도다.

○ 안파루(晏波樓)는 심부(沁府 : 江華府)의 남문의 편액이다.

145) 심태(1698-1761)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자고(子固), 호는 무문재(無聞齋) 혹은 모둔자(慕鈍子)이다. 심상원(沈尙元)의 아들이다. 청하현감(淸河縣監)을 지냈다. 후손이 강화도로 입향하였으며, 관직에 나아간 이들이 많다. 종손 심광식씨가 소장하고 있는 심태의 《無聞齋集》은 2008년 인천학연구원에 의해 학계에 공개되었고, 심경호 교수는 논문 〈무문재 심태의 문학과 학술〉(《하곡학과 근대성》, 제5회 하곡학국제학술대회 발표문집, 2008)을 발표하였다.

146) 원본에는 무문재 심태, 심낙형, 심낙선 등의 이름이 빈 칸으로 되어 있으나, 구창서발문본에 의거하여 보완하였다.

147) 제목 '부내12동' 뒤에 남산동(南山洞)·구촌동(舊村洞)·신촌동(新村洞)·종각동(鍾閣洞)·홍문동(紅門洞)·부사후동(府司後洞)·부사하동(府司下洞)·동문동(東門洞)·숙곶동(楛串洞)·서문동(西門洞)·국정동(國淨洞)·당주동(唐州洞)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신사년(1761) 9월에 광산 김씨 김상복(金相福)¹⁴⁸이 예조의 당상(堂上)으로써 명을 받들고 와서 지나다가 나이 오십 이전에 거주할 때를 추억하였다. 홍태(洪台)의 아들 홍안(洪安)에게 새겨서 걸게 했으니, 그것은 시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누각에 올라 옛날 남문루를 물어보고 싶어서(登樓欲問舊南樓) 칼에 기대 가을 바다에 높게도 의지하네.(倚劍高歎海日秋) 오십리 성터는 반쯤이 허물어지고(五十里城一半毀) 병자정축년 사건은 고금이 다르구나.(丙丁年事古今差) 선원선생 사당에 우주가 머물렀고(空留宇宙仙源廟) 갑곶나루에 손놓고 앉아서 관방 잃었네.(坐失關防甲串流) 성세에 소임 나눠 은혜도 못갠고서(聖世分司恩未報) 벼슬을 버리고 한가로이 노니네.(可能裘帶作遨遊)”

56. 진보 돈대(鎭堡墩臺*)

百里封疆地勢雄	백리 강도는 지세가 웅장하고,
山靑水白四環中	푸른 산 맑은 물이 사방에 둘러 있네.
十三鎭與諸墩堡	열세 개의 진보(鎭堡)와 수많은 돈대는,
制勝當年凜凜風	승리하던 당시의 늠름한 풍포네.

○ 강화(沘)에는 13개의 진이 있는데 월곶진(月串鎭), 제물진(濟物鎭), 용진진(龍津鎭), 광성진(廣城鎭), 덕진진(德津鎭), 초지진(草芝鎭), 선두진(船頭鎭), 장곶진(長串鎭), 정포진(井浦鎭), 철곶진(鐵串鎭), 인

148) 김상복(1714~1782) 본관은 광산. 자는 중수(仲受), 호는 직하(稷下) 또는 자연(自然). 이조·호조·예조판서와 우의정·영의정을 지냈다. 평소 청빈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화진(寅火鎭), 승천진(昇天鎭), 문수진(文殊鎭)이다. 그리고 53개의 돈대가 있는데 적북돈(赤北墩), 휴암돈(鵠巖墩), 월곶돈(月串墩), 옥창돈(玉倉墩), 망해돈(望海墩), 제승돈(制勝墩), 염주돈(念珠墩), 갑곶돈(甲串墩), 가리돈(加里墩), 좌강돈(左岡墩), 용당돈(龍堂墩), 화도돈(花島墩), 오두돈(鰲頭墩), 광성돈(廣城墩), 손석항돈(孫石項墩), 덕진돈(德津墩), 초지돈(草芝墩), 장자평돈(長者坪墩), 섬암돈(蟾巖墩), 택지돈(宅只墩), 동검북돈(東檢北墩), 후애돈(後崖墩), 양암돈(陽巖墩), 갈진돈(葛津墩), 분오리돈(分五里墩), 송곶돈(松串墩), 미곶돈(彌串墩), 북일곶돈(北一串墩), 장곶돈(長串墩), 검암돈(黔巖墩), 송강돈(松岡墩), 굴암돈(屈巖墩), 건평돈(乾坪墩), 망양돈(望洋墩), 삼삼암돈(三三巖墩), 석각돈(石角墩), 계룡돈(鷄龍墩), 망월돈(望月墩), 무태돈(無殆墩), 인화돈(寅火墩), 광암돈(廣巖墩), 구등돈(龜登墩), 작성돈(鵲城墩), 초루돈(譙樓墩), 불장돈(佛藏墩), 의두돈(蟻頭墩), 철북돈(鐵北墩), 천진돈(天津墩), 석우돈(石隅墩), 빙현돈(氷峴墩), 소우돈(疎雨墩), 숙룡돈(宿龍墩), 낙성돈(樂城墩)이다. 이것은 모두 한 고을의 관방(關防)이다. 올라서 사방을 바라보고는 개연히 예전에 돈대를 세운 뜻을 생각해 보았다.

57. 충신 이춘일(忠臣 李春一*)

粵在丙寅失此門 병인년 난리 통에 남문을 못 지켜서,
 鑰魚堞雉帶羞¹⁴⁹⁾痕 자물쇠와 치첩에는 상처가 둘러 있네.
 大呼拔劍忠臣李 호령하며 칼을 뽑던 충성신하 이춘일은,

149) 구창서발문본에는 ‘羞’가 ‘愁’로 되어 있다.

泉下應歸不死魂 구친으로 돌아갔으려면 혼은 죽지 않았네.

○ 황상의 병인년(1866, 고종 3) 9월에 서양인의 도적들의 난리를 일으켰을 때 유수 이인기(李寅夔)¹⁵⁰ · 관관 김세헌(金世獻) · 중군 이 아무개 등이 수비를 하지 않고 도적떼가 이르자마자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버렸다. 그때 남문의 수문장인 이춘일(李春一)이 도적떼가 이르는 것을 보고는 칼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들이 감히 이곳에 들어오려 하려느냐.”라고 하며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일이 알려지자 공조참의에 추존되었고 정려문을 세워주었다.

58. 남대제월(南臺霽月)

南山臺上久踟躕 남산대 위에 올라 오래토록 머뭇대는데,
 霽月浮來太極圖 맑은 달 떠오르는 모습 태극도와 같구나.
 流峙如看金鏡裡 흘러내린 산줄기는 금거울을 보는 듯하니,
 昭昭十景一江都¹⁵¹ 밝고 밝은 그 모습은 강화 10경의 하나로다.

○ 강화부의 남산은 화산(花山)이라고도 하는데 위에 장대(將台)가 있었다.

○ 영조 기축년(1769)에 유수 황경원(黃景源)¹⁵²이 누각을 짓고 장인대(丈人臺)라는 현관을 붙였다. 정조 계묘년(1783)에 유수 김노진

150) 이인기(1804년 출생) 본관은 전주. 강화유수를 지냈다.

151) 구창서발문본에는 ‘都’가 ‘州’로 되어 있다.

152) 황경원(1709~1787) 조선 후기의 문신·예학자(禮學者).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

(金魯鎮)¹⁵³이 본부의 십경(十景)을 지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남산대에서의 비개인 날에 뜨는 달(南臺霽月)·북장에서 봄에 기르는 말(北場春牧)·진강산으로 돌아오는 구름(鎭江歸雲)·적석사에서 바라보는 낙조(積石落照)·오두돈대에서의 고기잡이 불(鰲頭漁火)·연미정의 조운선(燕尾漕帆)·갑곶 성에 벌려있는 초루(甲城列譙)·보문사에 밀려오는 파도(普門疊濤)·선두평에서의 늦 농사(船坪晚稼)·참성단의 맑은 조망(星壇清眺). ‘비개 뒤의 달(霽月)’은 십경 중에서 가장 우선 하므로 읊은 것이다.

○ 장인대(丈人臺)에서 유수 황경원(黃景源)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마니산의 그림자는 외로운 성 안고 있고(摩尼山影抱孤城) 높디높은 층대에는 새벽 안개 생겨나네.(百丈層台曉靄生) 그린 창에 해가 올라 삼각이 가깝고(畫戟日昇三角近) 돛대에 구름 휘도니 오관이 고르구나.(錦纜雲擁五冠平) 난간 높아 언제나 은하수를 범하고(欄高常犯星河氣) 성안이 조용하니 새소리가 들리네.(壘靜唯聞鳥雀聲) 가을 바람 기다려서 큰 열병에 임하니(且待秋風臨大閱) 일곱 고을의 군사를 거느린다 말을 하네.(敢云能將七州兵)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아름다운 피리 불어 강화성을 움직이고(鳴鳴畫角動江城) 바위 끝 깃발에는 저녁 안개 생겨나네.(巖際旌旗夕煙生) 물가가 제릉 감싸 파란 풀이 가깝고(洲繞齊陵靑草近) 호수가 한수 도니 흰 구름이 깔리네.(湖廻漢水白雲平) 높은 누에 누군가가 충신의 혼 위로하니(危樓誰慰忠臣魂) 옛 나루서 전사의 함성 소리 생각하네.(古渡唯思戰士聲) 칼 만지며 긴 노래에 감개가 많으니(拊劍長歌多感慨) 이 대에서 다시는 군대 얘기 없으리.(茲臺不忍更論兵)

○ 장녕전(長寧殿)의 별검(別檢) 김택수(金宅洙)¹⁵⁴가 차운한 시는

153) 김노진(1735~1788) 본관은 강릉. 자는 성침(聖瞻). 강화유수·형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편서로 《강화부지 江華府志》가 있다.

다음과 같다. 한 섬의 관방은 십리되는 성인데(一島關防十里城) 산봉우리 높은 누에 여름 구름 생겨나네.(峯嶺層榭夏雲生) 깃발로 멀리 알려 삼방이 광활한데(旌旗迺歷三方闊) 부월이 높이 서니 일곱 진이 평정되네.(斧鉞高臨七鎮平) 지휘에 장군 지략 펼쳐진걸 기뻐하니(已喜指揮宣將略) 호령에 군대 소리 엄숙한걸 알겠구나.(更知號令肅軍聲) 이 대는 옛날의 건물이 아니니(茲臺不是舊觀所) 원수는 해마다 이곳에서 열병하네.(元師年年此閱兵)

○ 만녕전(萬寧殿)의 별검(別檢) 최현필(崔顯秘)¹⁵⁵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높고높은 층대는 고성을 진압하고(千尺層塔壓古城) 해문에는 모두가 연기가 피어나네.(海門皆處瘴煙生) 홀륭한 집 잡아 당겨 많은 산이 서있고(飛檐遠控群山立) 높은 난간 내려보니 여러 진이 평정되네.(危欖高臨列鎮平) 만리되는 비바람에 변화는 무쌍하고(萬里風雲歸變化) 한 나라의 국방책은 위엄을 떨치네.(一邦保障振威聲) 나쁜 기운 끊어짐을 이곳에서 문득 느껴(登茲頓覺氛埃絕) 상장의 계획은 병서보다 낫구나.(上將訂謨勝讀兵)

○ 위에 차운한 두 수는 장녕전과 만녕전 두 전각에서 장인대에 올라 주고받은 시이다. 이튿날 보여주고는 상대로 하여금 이어서 짓게 하였다. 그리하여 즐렬함을 잊고 웃음거리에 대비한다.

○ 좌랑 유탉하(柳宅夏)¹⁵⁶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허공에는 높은 누각 층층 성을 걸터앉고(半空飛閣駕層城) 좌정한 곳 상쾌한 바람 겨드랑이 불어오네.(坐處輕颺兩腋生) 백리되는 뽕과 삼에 들판이 펼쳐지고(百里桑麻田野闊) 세 방향의 떠가는 배 바다 조수 고르다

154) 김택수(1714년 출생) 본관은 의성(義城).

155) 최현필(1725년 출생) 본관은 강릉(江陵).

156) 유탉하(1714년 출생)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언장(彦長), 호는 의소당(宜蔬堂)

네.(三方舟楫海潮平) 낮에 쏘는 대포소리는 맑은 날의 우레이고(晴雷晝听輪砲響) 밤에 패는 장작소리 벌러있는 횃불이네.(列炬宵傳木坵聲) 첩첩의 성벽에는 모두가 붉은 깃발(疊疊詞垣皆赤幟) 장군은 5영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네.(將軍兼統五營兵)

59. 서문동(西門洞¹⁵⁷) 서문루(西門樓)

瞻華樓頭倚夕陽	침화루 지붕 위에 석양이 걸렸고,
山腰川帶共縈蒼	산허리 두른 내는 함께 얽혀 푸르다.
萋萋鍊武堂前草	연무당 앞의 풀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幾度春秋大操場	봄가을 큰 훈련을 몇 번이나 치렀을까.

○ 침화루(瞻華樓)는 심도부성(沁都府城) 서문(西門)의 편액이다. 그 안에는 대조장(大操場)과 연무당(鍊武堂)이 있으니 곧 옛날 서장대(西將臺)의 옆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60. 국정동(國淨洞¹⁵⁸)

府內西連國淨村	강화부 서쪽에는 국정촌이 이어져서,
辛韓兩姓關山門	신씨와 한씨가 산문을 열었네.
桃梨柿栗幽幽谷	복숭아 배 감과 밤이 골짜기에 그윽하고,

157) 강화읍 관청7리의 서문동마을이다.

158) 국정동(國淨洞)은 강화읍 국화2리 옛 국정사(國淨寺) 어귀에 있는 큰 마을이다.

耕讀生涯永不諼 발 갈고 책 읽는 삶이 영원토록 변치 않네.

○ 영월 신씨(寧越辛氏)와 청주 한씨(淸州韓氏) 현감 한상부(韓相阜)의 증손 한성모(韓聖謨)가 이 국정동 동네에 처음 살기 시작했고 그 자손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61. 맥현제단(麥峴祭壇)

麥峴壇前不忍馳 맥현 제단 앞에는 차마 달려 지날 수 없어,
丙丁往事自然思 병자 정축년 지난 일이 저절로 생각나네.
妖氛未散愁雲黑 원통한 기운 아직 안 걷혀 검은 구름 되었으니,
一氣東天亘日維 동쪽 하늘에 그 기운이 하루 종일 이어졌네.

○ 맥현제단(麥峴祭壇)은 서성(西城) 안의 사직단(社稷壇) 남쪽 산 등성이에 있다. 정축년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군민(軍民)과 사녀(士女)들이 묻힌 이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다. 무릇 삼단(三壇) 육위(六位)를 설치하고, 직책이 있던 사람이든 직책이 없던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단에 위를 나누었고, 직책이 있던 부녀와 직책이 없던 부녀도 단을 똑같이 하여서 자리를 나누었으며, 서인(庶人)의 군민과 서인의 여인은 단을 같이하여 위를 나누었으며 그 위에는 각각 패(牌)가 있었다.

62. 사직단(社稷壇)

一府城中社稷壇	강화부 성중에 사직단이 있으니,
萬千家戶賴而安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입고 편안해지네.
蒸民乃粒無非極	백성은 곡식을 지극히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厚德元來氣鬱盤	후덕함이 원래부터 가득 서려 있었다오.

○ 사직사(社稷祠)는 부성(府城) 북문 안의 교궁(校宮)¹⁵⁹의 동쪽에 있다.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영조 갑자년(1744)에 유수 김시혁(金始赫)¹⁶⁰이 세웠다.

- 부(府)의 사직사는 단의 남쪽 조금 낮은 곳에 있다.
- 사직단(社稷壇)은 부성의 소서문(小西門) 안에 있다.

63. 문묘(文廟)

仰止樓前肅肅然	양지루 앞에서는 마음이 숙연하네,
大成殿屹聖師筵	대성전 우뚝하니 공자님의 자리일세.
三綱五典明明教	삼강과 오륜으로 밝은 가르침 밝히니,
天地同流萬億年	천지와 함께 흘러 억만년을 이어가리.

○ 성묘(聖廟)는 부의 서쪽 성안에 있다. 외삼문(外三門)의 편액은 양지루(仰止樓)이며, 내정전(內正殿)은 대성전(大成殿)이다.

- 전하기를 몽골이 성을 허물 때에 위판(位版)을 불음도(浦音島)

159) 강화향교를 이르는 말이다.

160) 김시혁(1676~1750) 본관은 강릉. 자는 회이(晦而), 호는 매곡(梅谷).

에 옮겨 모셨는데, 비록 징험할만한 문헌이 없지만 옛터와 위전은 모두 섬안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옮긴 시기와 그 터는 모두 상고할 수 없다. 인조 갑자년(1624)에 유수 심열(沈悅)¹⁶¹이 소동문(小東門) 바깥 송악의 동쪽 기슭 아래에 세웠는데 7년이 지나 경오년(1630)에 유수 이안눌(李安訥)¹⁶²이 비로소 위관을 받들어 명륜당(明倫堂)에 세우고 시를 지어 게시하였고, 이중명(李重溟)¹⁶³이 돌에 새겨서 그 일을 기록하였다. 그 해에 향교를 승격시켜 학교로 삼아서 비로소 학궁(學宮)이라고 칭하였다. 대체로 송도에서 신관(新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횡당(黌堂)이라고 하였다. 제도가 학궁(學宮)이라고 칭하면서 이때부터 새로와졌다. 현종 계축년(1673)에 유수 민시중(閔蓍重)¹⁶⁴이 성내(城內) 남산 아래로 옮겨 세웠다. 영조 신해년(1731)에 유수 유척기(兪拓基)¹⁶⁵가 “관아가 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받들고 공경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재우(齋宇)와 포주(庖廚)를 옮겨서 세웠다. 이때부터 질서정연해졌다. 병술년(1766, 영조 42)에 유수 동악(東岳)의 5대손 이은(李澱)¹⁶⁶이 중수한 일을 기록한 비석을 교문(校門)의 바깥에 새겨서 누각을 세웠다.

161) 심열(1569~1646)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학이(學而), 호는 남파(南坡).

162)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163) 이중명(생몰년 미상)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구주(鷗洲)

164) 민시중(1625~167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공서(公瑞), 호는 인재(認齋).

165) 유척기(1691~1767)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166) 이은(1722~1781)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치호(稚浩), 호는 침재(瞻齋).

※ 대성전(大成殿)

○ 10 칸으로 다섯 성인의 위패를 모셔서 안치하였다.

○ 동쪽의 종향(從享)한 분은 다음과 같다. 비공(費公) 민손(閔損), 설공(薛公) 염옹(冉雍), 여공(黎公) 단목사(端木賜), 위공(衛公) 중유(仲由), 위공(魏公) 복상(卜商),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頓頤),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 서쪽에 종향한 분은 다음과 같다. 운공(鄆公) 염경(冉耕), 제공(齊公) 재여(宰予), 서공(徐公) 염구(冉求), 오공(吳公) 언언(言偃), 영천후(穎川侯) 전손사(顓孫師),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

○ 동무(東廡)는 4칸이다.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 서무(西廡)는 4칸이다. 문창공(文昌公) 최치원(崔致遠),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원공(文原公) 이언적(李彦迪),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

○ 제기고(祭器庫), 신문(神門), 명륜당(明倫堂), 예방(醴房), 강당(講堂), 전사청(典祀廳), 공수(供需), 중문(中門), 동서재(東西齋), 포소(庖所), 비각(碑閣), 홍전문(紅箭門), 외삼문(外三門), 유제기(鉦祭器), 보궐(篚簋), 용작(龍爵), 작(爵), 작대(爵臺), 향로(香爐), 향함(香盒), 준(樽), 축대(燭臺), 분(盆), 사제기(沙祭器), 목두(木豆), 상변(杻邊), 목축대(木燭臺), 목작대(木爵臺), 축판(祝板), 향상(香床), 축상(祝床), 조상(俎床), 관(盥), 관세상(盥洗床), 폐광(幣筐), 가자(架子), 가자복(架子袱), 제복(祭服), 제복궐(祭服櫃), 부(釜), 식정(食鼎).

○ 교생(校生) 원안(原案) 200인, 별안(別案) 54인, 동몽(童蒙) 170인, 재직(齎直) 20명, 노(奴) 4명, 비(婢) 7명, 위전(位田)은 망도(望島)에 130두락(두락), 각 면(面)에 수전(水田) 129두락, 한전(旱田) 55두락.

○ 복호미(復戶米) 100두.

○ 동몽미(童蒙米)는 이름마다 각각 2두이다.

○ 접량미(接糧米)는 150석이다. 병자년에 유수 조영국(趙榮國)이 처음으로 300석을 갖추고서 관창에 소속시키고 관리하였다. 매년 10분의 1을 소모된 것으로 취해서 유생들이 사용하는 식량으로 삼았다. 흥년에 이르러서는 소모 곡식을 줄였으며 이 수를 간직하였다.

○ 석전(釋奠)은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낸다.

○ 서(黍), 직(稷), 도(稻), 량(粱), 양(羊)의 희생은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희생으로 대신하였다. 폐백을 시행하는 데에는 절차가 별도로 있었다.

64. 명륜당(明倫堂)

萬古明倫屹一堂	만고의 명륜당이 큰 집으로 솟아있고,
槐風杏雨入清涼	느티 바람 은행 비는 청량함이 들게 한다.
敬推東岳經營意	동악 선생 경영한 뜻 미루어 생각하니,
牖我青衿趣向方	우리 유생 나아갈 방향을 열어 주었네.

○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의 시는 다음과 같다.

고을에는 으레 명륜당이 있지마는(郡邑明倫例有堂) 강도의 사당과 학교만은 황량하다네.(江都廟學獨荒涼) 예악과 시서는 사서를 따르고

(禮樂詩書遵四術) 군신과 부자는 삼강을 세웠다네.(君臣父子樹三綱)
재물을 기증하여 터전을 마련하고(損貲敢愛鳩財用) 대궐의 제도대로
사망 인재 양성하네.(闕制堪羞養四方) 흰머리 노인은 경영할 뜻 지키
고(白頭老守經營意) 흑시라도 선비들이 잇을까 경계하네.(說如青衿戒
或忘)

○ 명륜당창건비명(明倫堂創建碑銘)은 관관 이중명(李重溟)이 찬하
였는데 다음과 같다.

지금 임금님이 즉위하신 지 5년 정묘년(1627)에 임금님께서 강도
에 행차하시니 선비 심숙(沈誥) 등이 하소연하되, ‘본부의 부윤 이안
눌(李安訥)이 부윤(府尹)이 되었을 때에, 몸가짐이 청렴하고, 백성에게
은혜로움이 많았고, 직무에 임하심이 분명했고, 일을 처리함이 부
지런하셨다’ 하니, 임금께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다. 이때에 본 강화부
가 국가의 방어에 중요한 땅이라 하여 부윤을 격상하여 유수(留守)로
삼았다. 전 유수가 체임한 뒤로, 조정의 논의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
이 어렵다하여 이공을 으뜸으로 추천하나 아직 수습 기용되지 못했
다고 계청하니, 임금이 말씀하되, ‘이안눌이 전에도 소문난 치적이
있어 내가 아깝다하여 여겼으니, 지금 다시 임용함이 옳다’ 하셨다.

공이 목욕재계하고 일을 살피면서 이르되, ‘임금의 사랑이 심히 중
한데 감히 힘쓰지 않으랴’ 하다. 하루는 공자의 사당을 알현하고 물
러나 모든 생도에게 가서 이르되, ‘강화부는 이름을 격상했는데, 공
자의 사당에 명륜당(明倫堂)이 없으니, 나는 인재를 잃어 유교가 소
홀해질까 두렵다’ 하고는 이에 사당의 남쪽에 짓기로 하고 유생 안종
도(安宗道) 등에게 일을 독려하게 하여 전당(殿堂)과 실방(室房)이 각
기 법도를 얻으니, 전당이 격식을 갖추어 아름다우나 사치스럽지 않
다. 학생과 선생에게 방이 있고 주방과 창고가 차서가 있어, 모든 칸
수가 48칸이다. 당이 이루어지자 술을 마시며 즐거워 하니, 어느 선

비가 술잔을 들고 이르되, ‘인류가 있는 이후로 공자의 시대보다 융성한 때가 없었은즉 공자의 끼친 풍교를 우리름이 이에 있지 아니한가. 더구나 건축을 경영함에 있어 관가의 재정을 허비하지 않으며 백성의 힘을 아껴, 철차를 줄여 꾸미면서 여러 방면을 주선하니 공의 민첩한 처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에 이르렀겠는가’ 한다.

완산(完山) 이중명(李重溟)이 대중에게 이르되, ‘오늘의 세대가 성명한 군주를 만났고, 이 강화부는 우리 공을 만나 모든 선비가 이 명륜당으로부터 오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삼강의 진리를 밝혀, 세상이 태평하면 예와 악을 배워 우리 민생을 풍족히 하고 국가가 불행할 때는 아들은 효도로 죽고, 신하는 충성으로 죽으리니, 오! 우리 많은 선비들이여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겠나’ 하니 모두가 재배하며 머리를 조아려 ‘그렇다’ 한다.

오! 성상께서 현명한 이를 선택하고 유능한 이에게 맡겨, 우리 공이 당을 짓고 가르침을 세웠음이 모두가 간격이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모든 선비들이 공을 위해 비를 세움은 성상을 위함이고 공자를 위함이다. 여러 선비들이 공을 위한 정성도 오! 가당한 일이다.

공은 덕수이씨(德水李氏)이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지조가 있으며 여가의 일로 문장을 하니 늙을수록 건장 강경하여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일으키는 더구나 평소에 쌓여진 포부이다. 명(銘)을 짓되, “드높은 그 집이여 공이 경영한 바이니 오! 감탄한다, 공이여. □□ 있음이여 많은 선비 평안한 바이니 오! 감탄한다, 공이여. 이에 같고 다듬고 이에 노래하고 익히니 오! 감탄한다, 공이여. 이름을 회고하고 의를 생각하여 우리 선비 많이 기르니 오! 감탄한다, 공이여.”

○ 《명륜당중수록(明倫堂重修錄)》은 다음과 같다.

전현감 교수 석지형(石之珩)¹⁶⁷이 부임하여 학궁(學宮)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서쪽으로 50보쯤 떨어져 집을 짓고 예전의 강당을 이전하여 연이어 강당을 축조하였다. 재내(齋內)에는 강당이 없고 마침 성전(聖殿) 안에 물린 기와와 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준공되었다. 공장(工匠)을 동원하니 강당의 옛터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엮어 뒤터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때 도유사(都有司)와 재임(齋任)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읍 향교의 위전은 고을의 크기, 농지의 수가 법전에 수록되어 있다. 강도(江都)의 학교 위전(位田)은 만력 20년(1592) 임진왜란 이후에 전복(典僕)의 무리들이 훔쳐 팔았다. 또 고려가 강도로 들어와 병화(兵火)를 피한 39년에 불음도(浦音島)로 학교의 위전을 옮겼으니 5결은 본도에 있으며 도행장(導行帳, 농지세에 관한 장부)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임진년 큰 난리를 겪은 후에 이 섬의 백성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부 등이 여러 번 정문(摺文)을 보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먼저 담장 밖에 빼앗긴 전지를 환수하고, 다음으로 불음도에 점유된 위전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지내는 날에 도유사 등 35인이 유상(留相) 민공(閔公)에게 글을 올렸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학교를 세우면 반드시 위치(位地)가 있어야 하고 위치가 있고서야 그러한 뒤에 반드시 위답(位畓)이 있으며, 위답이 있고서야 그러한 뒤에 예모(禮貌)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본부의 문묘(文廟)는 담장 아래로 4면이 모두 경작지로 옛날부터 노비 등이 대를 이어 전해서 자기의 소유물과 동일시하여 농사지어 선비를 양성하였습니다. 임진년에 병화(兵禍)가 잇따르고 계축년·갑인년에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노비를 담당한 관리들이 헐값으로 팔

167) 석지형(1610년 출생) 본관은 화원(花園). 자는 숙진(叔珍), 호는 수현(壽峴).

아치위 여러 해가 지난데다가, 팔고 되팔고 하여 문서가 이뤄지고 해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그렇게 내려오던 폐단들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륜당(明倫堂)을 짓고서도 구차하게 좁은 땅을 빌리자니 뜰에서는 생도(生徒)가 예를 행할 수 없고 문에서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 모두가 애통해 하면서도 고쳐보고자 하지만 힘이 부칩니다. 지금의 문묘는 개축하고 길을 남쪽으로 곧게 내어 담장 밖의 빼앗긴 경작지를 학교의 위전으로 환원하여 소속시키고 사방을 터서 정면을 바르게 하며 명륜당을 개축하여 시선을 높이는 것은 비단 여러 선비들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역시 국가에도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묘의 터전과 위전의 규모는 모두 법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엮드려 원하옵건대, 합하(閣下)께서는 특별히 영원히 행해질 정사를 펴시기 바랍니다. 전후로 이뤄진 소송이나 문건 등을 살피고 판단하여 먼저 끝은 길을 내고 그러한 뒤에 명륜당을 개축하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삼가 몸가짐을 바로해서 아웁니다.”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설령 학교의 위전이 백성들에게 잘못 편입되었더라도 경작지의 일은 이미 60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에 와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다른 전지로 바꾸는 것이 ‘공사(公私)가 모두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살피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그날로 반값으로 바뀌 수노와 정생을 환속시키고 학교 위전의 문건을 완성하여 비치하고서야 그러한 뒤에 정면의 길이 곧아지고 남쪽 밖 대문 3칸이 새로 지어졌으며 명륜당이 거듭 수리되고 강당이 수리, 단장되었다. 일을 시작한 이듬해 봄 2월 13일에 도유사·재임이 자재와 기와를 살피 감독하였다. 매매하던 쌀과 베가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교수가 혁파되었기 때문에 집이 훼손되었

다. 부족한 것을 메워 수리하였다. 일을 마친 것은 대체로 5월 3일 이었다. 일꾼의 경우에는 김경력(金經歷)이 역군(役軍) 235명을 부조하고 유도사(柳都事)가 역군 195명을 부조했으며 서재(西齋)의 유림 303명이 각각 노비 3명씩을 부조했으니 모두 1,339명이었다. 명륜당은 거둬 새로워지고 사방을 텅으며 정면의 길은 똑바르게 하고 남향을 시원스럽게 만들었으며 시선을 높게하도록 하였다. 아! 아름답구나.

65. 강당 안연재(講堂 安燕齋)

數仞墻東一講堂	높은 담장 동쪽에는 큰 강당이 있으니,
故來絃誦振江鄉	예로부터 학업하는 소리 강화 고을 진동했네.
笙簧金石鏗鏘處	생황이며 금석 악기 낭랑하게 울리는 곳,
抱玉諸生共躋躋	옥을 품은 여러 학생 다함께 예를 갖추네.

○ 지금은 안연재(安燕齋)라고 부르는데, 정전(正殿)의 안쪽 담장 동쪽에 있으니, 바깥 담장의 안쪽이다.

66. 북문(北門)

鎮松門下久徘徊	진송루 성문 아래서 한참을 머물러 보니,
山自高麗屈曲來	산은 고려산에서 굽이쳐 흘러왔고,
眼下一千茅瓦屋	눈 아래는 일천 채의 초가집과 기와집,
烟火影裡半塵埃	연기 그림자 속에 절반이 티끌이네.

○ 강화부의 북산(北山)을 송악(松嶽)이라 하고 북문으로 진송문(鎭松門)이라고 하였다.

○ 정조 계묘년(1783)에 유수(留守) 김노진¹⁶⁸이 다음과 같은 기문을 지었다.

“강화도는 산을 빙 둘러 성을 쌓은 것이, 또한 10 리이다. 무릇 4문을 설치하였는데 동문 서문 남문에는 모두 누각이 있으나 유독 북문만 누각이 없으니 어찌 북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대개 미처 누각을 쌓을 겨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절도사직을 제수 받고 송정에서 전함을 사열하였는데, 길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벗겨진 첩과 짧은 구릉이 어슴프리 축대밭 사이로 보였다. 이어 좌우에 있는 수행원에게 ‘아, 이와 같은데 방어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문은 송악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송악과 대치하고 있으니 옛 서울과 접하는 것이다. 송정에 임하여 굽어 살펴보니 전함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지나가는데 그(지나가는 사람들의) 상투가 보이는 것과 같다. 돈대와 섬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고, 날개 모양으로 숲 사이로 드러난 것이 연미정이다. 호서와 영서의 조운선이 경유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짝 지어 경작하는 볼만 하다. 갓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있으니 편안한 날로 교화할 수 있고, 빗장을 단단히 잠가서 폭도를 막을 수 있으니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누각이 없을 수가 없다. 하물며 두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 누각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에 누각을 지어 앞선 사람들이 남긴 나머지를 대신하면 좋지 않겠는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였다. 돌을 캐고 재화를 모아서 축조를 시작하니 얼마 안 되어 완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168) 김노진(1735~1788) 본관은 강릉. 자는 성침(聖瞻). 강화유수·형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편서로 《강화부지 江華府志》가 있다.

에 누각에 편액을 달아 ‘진송’이라 이름을 명명하고 그 대략을 이와 같이 기록한다. 계묘년(1783) 초여름 하순에 유수 김노진(金魯鎭)은 기록한다.”

67. 여제단(厲祭壇¹⁶⁹)

門外指云厲祭壇	북문 밖 가까운 곳에 여제단이 있는데,
沈沈烟霧鬼難看	연무가 내려앉아 귀신조차 보기 어렵네.
導迎和氣年年祝	화기(和氣)를 모아서 해마다 축원하니,
庶使州人得一安	고을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길 바라네.

○ 여제단(厲祭壇)은 북문 바깥에 있다.

68. 당주동(唐州洞¹⁷⁰)

北望唐州一谷深	북쪽 당주마을 골짜기 깊은 곳이,
世云舊邑址傳今	예전의 읍터라고 지금껏 세상에 전해오네.
後人結構東西密	뒷날의 사람들이 빼곡이 집을 짓고,
耕織生涯淡泊心	밭 갈고 옷감 짜며 담담하게 살고 있네.

○ 당주동(唐州洞)의 구읍(舊邑) 터는 부의 안쪽 경계 내의 북문 바깥에 있다.

169) 여제단은 나라에 역질이 돌 때에 여귀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이다.

170) 당주동은 현재 송해면 신당리의 으뜸 마을이다.

69. 북장대(北將臺)

石築崑然北將臺	높다란 석축 위에 북장대가 있는데,
滿山草木有風來	산 가득 숲 우거졌고 산들바람 불어오네.
誰能先據宣威武	누가 먼저 차지하여 무예 위엄 보이는가.
軍令分明數舉杯	분명한 군령 후엔 몇 잔 술이 있었겠지.

○ 송악의 정상에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돌을 쌓아 북장대(北將臺)를 지었다.

70. 북장춘목(北場春牧)

松岳山北草色齊	송악산 북쪽은 풀색이 가지런하고,
三三兩兩馬牛蹄	삼삼오오 늘어있는 소와 말의 발자욱들.
春風一葉聲聲笛	한 줄기 봄바람 속에 들려오는 피리소리,
吹送江天日影西	하늘 닿은 서쪽 강으로 지는 해를 보내노라.

○ 송악산 북쪽 우마장(牛馬場)도 강화부 10경 중의 하나이다.

71. 기우청단(祈雨晴壇)

祈雨祈晴築有壇	비를 빌고 개기를 빌기 위해 쌓은 제단은,
神靈恍若鎮峯巒	신령이 깃들여 산봉우리 진압하는 듯.
推看六所皆如此	여섯 곳이 모두다 이 곳과 같을지니,

庶免人間旱澇嘆 가뭄 장마 인간 걱정 면해주길 기원하네.

○ 기우청제단(祈雨請祭壇)은 모두 6개소인데 고려산(高麗山), 화산(花山), 마니악(摩尼嶽), 송악산(松嶽山), 혈구산(穴口山), 갑곶진(甲串津)이다.

72. 행궁 궁아제단(行宮 宮娥祭壇)

祗今寥落古行宮	지금은 무너져버린 옛적의 행궁은,
後苑叢林細雨中	후원의 숲속에서 가랑비에 젖어 있네.
唯有層壇山與屹	오직 기단만이 산과 함께 우뚝하여,
年年春色杜鵑紅	해마다 맞는 봄별에 진달래의 붉음이어.

○ 행궁(行宮)은 부의 관아 북쪽 송악산에 있다. 정축년 난리에 빈궁(嬪宮)을 모시고 온 궁인(宮人)들이 오랑캐가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서 행궁 후원의 나무에 목매 죽었다.

○ 영조는 특별히 유수에게 명하여 그 땅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지 내게 했으며 매해마다 그리 하도록 했다.

73. 척천정(尺天亭)

北山下有尺天亭	북산의 아래쪽에 척천정이 있는데,
花自粧紅草自青	꽃 질로 붉어지고 풀은 스스로 푸르네.
憶昔宋公扁額字	옛적 송공의 편액 글자를 생각하니,

周旋一念侍長寧 주선 했던 일념은 장녕전 모실 생각이었네.

○ 행궁의 북쪽에는 예전에 산 위에 정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없었다. 영조 무신년(1728)에 유수 송성명(宋成明)¹⁷¹이 액자를 걸고 척천정(尺天亭)이라고 하였다. 그 시의 끝 글귀는 다음과 같다. “예의 법도 지키니 하늘조차 작아지고(周旋不違尺五天) 나라걱정 신하 마음 일편단심 뿐이라네(耿耿臣心丹一片).” 대체로 이 시는 장녕전(長寧殿)의 뜻과 은연중 통한다.

74. 장녕전(長寧殿)

長寧殿古草菲菲	장녕전 옛터엔 풀만이 우거졌지만,
兩廟曾臨咫尺威	일찍이 두 임금 초상 모셔져 위엄을 보였다네.
白首丹心崔別檢	충성스런 노인이었던 최 별검이,
丙寅九月奉安歸	병인 9월 난리 피해 안전하게 옮겨 모셨다네.

○ 장녕전(長寧殿)에는 숙종과 영조의 초상화를 봉안하였다. 황상 병인년(1866) 9월에 양인이 쳐들어와 성이 함락되었을 때 별검 최씨(崔氏)가 임금의 영정을 받들어서 서울로 돌아와 궁 안의 진전(眞殿)에 봉안하였다.

75 세심재(洗心齋)

春風三月客登臨 봄바람 삼월에 나그네로 와서 보니,

171) 송성명(1674년 출생)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성집(聖集), 호는 송석(松石).

山有寒泉可洗心 산에는 샘물 있어 내 마음을 씻을 만 해.
 物累都將隨爾去 쌓인 허물 모두 다 너를 따라 보내노니,
 清閑世界廣披襟 맑고 한가한 경계로 마음이 넓어지네.

○ 세심재(洗心齋)는 행궁에 있는데 이곳에는 샘물이 맑고 깨끗하다.

○ 서하(西河) 이민서(李敏叙)¹⁷²의 시는 다음과 같다. “산보하며 못의 정자에 이르니(閒步到池亭) 비 온 뒤에 피 빛이 푸르구나.(雨餘山色靑) 지게문 열어서 그윽한 꽃 감상하니(幽花開戶賞) 괴이한 새소리 발을 격해 즐겁구나.(怪鳥隔簾听) 책을 펴서 읽는 것이 무척이나 좋으니(正好披書卷) 마음을 기르는 일 단정하게 어울리네.(端宜養性靈) 쓸쓸하게 앉아서 하루를 보내자니(蕭然坐終日) 소나무 그림자가 빈 뜰에 비춰지네.(松影轉空庭)”

○ 회헌(梅軒) 조관빈(趙觀彬)¹⁷³의 시는 다음과 같다. “물가의 늙은이 살고 있는 정자에(河翁所營亭) 오래도록 완연한 단청이라네.(閑劫宛丹青) 청림과 절개는 맑은 샘이 보고 있고(廉節清泉見) 인자한 소문은 늙은 나무가 듣는구나.(仁聲老樹聽) 지금의 바다에는 장수가 없으니(無能今海帥) 이 산의 신령에게 부끄러움 있다네.(有愧此山靈) 시를 지어 이 내 마음 즐겁고 기쁘는데(只喜詩添料) 샘물에 꽃이 지니 정자에 비 지나네.(花泉雨過亭)”

○ 서하(西河) 이민서의 시는 다음과 같다. “두 언덕 사이에 살 집을 지으니(築室兩崖間) 맑고 맑은 샘물이 앞으로 흐르네.(前有清泉流) 물과 돌은 어여쁘고 고우니(水石媚閒娟) 술과 대는 날개치듯 흔들리네.(松竹亦翛翛) 은둔해서 사는 것이 아무리 아니더라도(雖非隱遯居) 산림의 그윽한 건 분명한 사실이네.(宛似山林幽) 벼슬할 때에는 간소

172) 이민서(1633~168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중(彝仲), 호는 서하(西河).

173) 조관빈(1691~1757)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晦軒).

하게 일처리하고(居留職事簡) 공직에서 물러서는 때때로 홀로 노니네.(公退時獨遊) 발 휘장으로 온화한 바람이 들어오고(和風入簾帷) 숲에서는 밝은 달이 더욱 더 빛나네.(明月爛林邱) 쓸쓸히 맑은 것을 기뻐하여 감상하니(蕭然愜清賞) 나그네 근심조차 모든 것 잊게하네.(却忘羈旅憂) 이곳에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니(遇地便自得) 한가로이 지내면서 무엇을 구하리오.(攸攸何所求)”

○ 또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가을 매미 울음소리에 손님을 배웅하고(秋蟬送客兩三聲) 차갑게 흐르는 건 비온 뒤의넷물이라네.(雨後寒川泱泱鳴) 손짓에 맞추어서 기러기는 머물고(着處宜鴻留指瓜) 작은 못에 밝은 달만이 한가롭고 맑구나.(小塘明月獨閒清)”

○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¹⁷⁴⁾의 시는 다음과 같다. “관직에 있으면서 싸우려하지 말아라(莫以官留鬧) 마음을 씻는 것은 진실로 이곳이라네.(洗心良在茲) 봄의 그들은 노정에 드리웠고(春陰滋露井) 밤에 내린 비는 이끼 낀 못을 적시네.(夜雨滴苔池) 안석에 기대니 하늘이 가깝고(隱几寥天近) 지팡이를 짚으니 먼 곳으로 가고 싶네.(扶藜遠壑意) 그대 만나 짝이 되어 잠을 자니(逢君成伴宿) 시의 감흥은 침상 휘장에 가득하네.(詩興滿床帷)”

○ 회헌(梅軒) 조관빈의 시는 다음과 같다. “세상사 위험하긴 이것과 같지만(世路危如彼) 관사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기 이와 같네.(官齋靜若茲) 동산의 섬들에는 가지가지 꽃피우고(雜花園接砌) 우물은 못과 통해 물길을 내었구나.(活水井通池) 발자취를 머물고서 생각을 깊이 하니(滯跡窮冥想) 끊어진 협곡으로 이 몸을 숨긴 듯.(逃身絕峽疑) 마음을 씻고서는 외물에 관심 없고(洗心無物累) 한가로운 깊은 곳에서 책 읽으며 살려하네.(閒僻欲書帷)”

174) 김창협(1651~1708)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

○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¹⁷⁵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 나라에 아스라이 비 내리다(海國茫茫雨) 맑게 개니 온 못이 넘치네.(晴來湛一池) 한가로운 세심재엔 해가 빛나고(閒齋有白日) 높은 나뭇가지에 새소리가 좋구나.(好鳥自高枝) 세사 밖에는 먼산이 녹색이고(事外遙山綠) 잠을 지는 도중에는 가는 풀이 자라네.(眠中細草滋) 손과 주인의 쓸쓸한 뜻은(蕭然賓主意) 오언시를 지어서 흥을 돋우네.(漫興五言詩)”

○ 회헌(悔軒) 조관빈의 시는 다음과 같다. “진영 안에는 오히려 골이 깊고(營內猶深壑) 세심재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다네.(齋前有小池) 숲 속의 새 소리에 소매를 떨치고(托襟林鳥語) 가지에 있는 두견새에 발길을 머무네.(留蹟杜鵑枝) 늙어가니 인연이 소중하고(老去因緣重) 봄이 오니 그 뜻이 재미있구나.(春來意味滋) 농사짓는 일이란 내가 바라는 바이고(農淵吾所仰) 책에서 본 시 글귀를 떠올린다네.(追揭卷中詩)”

76. 연초헌(燕超軒)

超軒遺石壓山深	연초헌엔 초석만이 산 깊숙이 박혀있는데,
過客緣何獨坐吟	과객은 무슨 인연으로 홀로 앉아 읊조리나.
却憶當時賢太守	그 시절 생각하면 어진 태수 계셨으니,
燕居無累一清心	엿매임 없는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살았으리.

○ 유수 권적(權適)¹⁷⁶의 시는 다음과 같다. “녹색 나무 그늘지고

175) 김창흡(1653~1722)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그린 누각 깊은데(綠樹陰陰畫閣深) 이 사이의 맑은 정취 그대와 읊조리네.(這間清趣共君吟) 관리되어 오래도록 머문 것이 부끄러운데(爲官自愧經年滯) 머무는 손이 어찌 방해하리 저녁내 비오는 것을.(留客何妨竟夕霏) 한가한 날에 매헌에서 자주 술마시니(暇日梅軒頻對酌) 난실에서 옷깃을 여민 것이 언제이던가.(幾時蘭室更聯襟) 산 정자에서 활쏘기를 마치고 다시 글쓰니(山亭射罷仍揮翰) 이별 뒤에는 마음을 씻는 것이 아름답다네.(別後容華在洗心)”

○ 퇴어(退漁) 김진상(金鎭商)¹⁷⁷의 시는 다음과 같다. “누대의 나무가 겹겹이 깊으니(樓臺樹木重重深) 한가로이 앉아서 초연히 읊조리네.(燕坐超然可嘯吟) 가까운 영문에는 세속의 일이 없고(咫尺營門無俗事) 둘러친 바닷물은 비바람에 끊어졌네.(環圍海水絕風霏) 주인은 생각 많아 술과 안주 내오고(主人多意置肴酒) 머무는 손 다시 생각 잠자리로 가는구나.(客子還思移枕衾) 글을 쓰고 활쏘는 건 아직도 아니 끝나(揮翰射幟殊未了) 솔 바람과 시내물에 마음이 맑아지네.(松風澗雨更清心)”

○ 회헌(梅軒) 조관빈의 시는 다음과 같다. “과중한 업무에 이 병이 깊어지니(強病分司此島深) 백성들은 힘이 들어 노래소리 그쳤네.(兵民務劇廢閒吟) 산으로 돌아가니 가을 느낌 상쾌하니(歸山何待秋風爽) 바다가에 머무니 여름 장마 어렵구나.(滯海難經暑雨霏) 경인년 일 생각하니 자리만을 더하였고(遺愛庚寅徒忝席) 정축년 일을 근심하니 이부자리 편치않아.(餘憂丁丑敢安衾) 위급할 때에는 목숨을 바치고(一方利害剗肝疏) 물러나서 나라 지킬 마음을 생각하네.(將退猶懷衛國心)”

176) 권적(1675~1755)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하(景賈), 호는 창백헌(蒼白軒)·남애(南厓)·계형(繼亨).

177) 김진상(1684~1755) 본관은 광산.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

77. 규장외각(奎章外閣)

奎章閣在古宮傍	규장각은 행궁의 옆 자리에 있었는데,
一視天恩最我鄉	임금님 은혜 보여주니 우리 고향 으뜸가네.
玉牒丹書眞寶氣	옥첩과 단서는 참된 보배 기운이니,
海西夜夜亘虹光	서쪽 바다엔 밤마다 무지개빛 뻗혔네.

○ 정조 신축년(1781)에 유수 서호수(徐浩修)¹⁷⁸⁾에게 명하여 행궁의 동쪽에 규장외각(奎章外閣)을 지어서 열조(列朝)의 보첩(譜牒)·단보어제(丹寶御製)·어정제서(御定諸書)들을 봉안하였고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액자를 써서 걸게 하였으니, 대체로 문장을 같게 하여 한결같이 보려는 뜻이었다.¹⁷⁹⁾

78. 상아(上衙)

以寬堂上覺新晴	이관당에 오르니 새로 맑아짐을 느끼는데,
伊昔保釐文武營	그 옛적 보리문무영이 있었네.
畫角時時簾外起	때때로 화각 소리 주렴 밖으로 들렸으니,
平臨六十六州城	예순 여섯 고을과 성곽 평화롭게 다스렸네.

○ 이관당(以寬堂)은 현윤관(顯允館)이라고 하는데 유수가 정사를

178) 서호수(1736~1799)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양직(養直).

179)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 의해 도서가 약탈되고 불태워진 사실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보는 정아(正衙)이다. 문무(文武)의 이름난 재신(宰臣)들이 와서 다스렸다. 외삼문을 진어보리영(鎭禦保釐營)이라고 했으며 내삼문은 호수문(虎睡門)이라고 하였다. 심영(沁營)은 경기 35읍, 황해 17읍, 충청 13읍을 관할하였다.

○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¹⁸⁰의 시는 다음과 같다. “벼슬길이 영화롭다지만 나만은 심려 깊어(人說官榮我慮深) 밤에도 잠 못자고 낮에도 신음하네.(夜無眠睡晝呻吟) 봄에는 비개이면 가뭄이 걱정되고(春天乍霽偏憂旱) 여름에는 비내려서 장마될까 두렵다네.(夏日仍霾旋懼霖) 뜨거운 날 김매기를 보고서 넓은 집을 혐오하고(炎見野耘嫌廣廈) 추울 때엔 베짜기를 듣고서는 겹이불이 부끄럽네.(凍聞村織愧重衾) 숲속에 사는 재미 없어서 기억하니(老身却記林居味) 밥에다가 산나물은 내 마음에 흡족하네.(飯煮山蔬愜素心)”

○ 유수 이복원(李福源)¹⁸¹의 시는 다음과 같다. “태평한 천하에서 못난 선비 늙었으니(腐儒生老太平天) 이 섬에서 벼슬한 건 훌륭한 인연일세.(海國分符亦勝緣) 갑곶진을 한번 건너 느끼는 게 많으니(一渡甲津多感慨) 오랑캐의 난리를 모두가 말한다네.(無人不說丙丁年)”

○ 동악(東岳) 이안눌¹⁸²이 동헌에 쓴 벽상시(壁上詩)는 다음과 같다. “기내의 관방은 이 섬에 이 고을이고(畿內關防島上州) 바다와 강에는 형세가 둘러있네.(海門江口勢環周) 나라에서 진을 두니 3천 호를 이루었고(國朝置鎭三千戶) 왕씨가 천도하니 40년의 세월이네.(王氏移都四十秋) 즉묵¹⁸³ 지방 보존하니 제나라가 날을 달리고(卽墨獨

180)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181) 이복원(1719~1792)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수지(綏之), 호는 쌍계(雙溪).
 182)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183) 즉묵(卽墨)은 전국시대 제(齊)의 고을 이름이다. 연(燕)의 장수 악의(樂毅)에게 대패하여 거(居)와 즉묵 두 고을만 남게 되자, 즉묵 사람들이 전단(田單)을 장수로 추대하여 기이한 전략으로 빼앗긴 70여 성을 되찾았다.

全齊走日) 진양¹⁸⁴) 지방 소속되니 조나라의 계획이었네.(晉陽方屬趙歸謀) 용종이 질까봐 밝은 때에 의지하고(龍種恐負明時倚) 청평검을 손에 잡고 옛 누에 기대네.(手握青萍倚古樓)”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태수가 새롭게 부윤으로 승진하니(太守新陞尹) 예전 고려 때엔 도읍을 옮겼었지.(前朝舊徙都) 지형은 험하고 견고하여(地形留險固) 조정 의논으로 유사시를 대비했네.(廷議備難虞) 세금이 많이 걷혀 창고가 가득차고(廩匱增租賦) 전쟁나서 판도가 줄어들네.(軍興減版圖) 마음은 나태한 성품을 털어내고(心慚疏懶性) 특별한 은혜에 거듭 부치네.(重寄荷恩殊)”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10년 동안 옛 성지를 거듭해서 살펴보니(十年重按古城池) 앉아서 헤아리니 많은 세월 지났구나.(坐度星霜屆一朞) 난리가 일어나니 수레 가마 임하고(車駕曾臨兵亂日) 마을 사람 흩어지고 가뭄도 들고 마네.(里閭俱散旱荒時) 재주가 볼품없어 명예는 손상되고(才微只畧聲名損) 정사는 졸렬해서 남긴 은혜 없어라.(政拙元無惠愛遺) 마음은 얼음 밟듯 머리는 눈내린 듯(心似履冰頭似雪) 녹봉만 챙겼으니 누린 은덕 부끄럽네.(俸錢空愧荷恩私)”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흉년이라 백성 살릴 방법 없고(歲飢無術活民流) 봄여름엔 해마다 밤낮으로 근심 걱정.(春夏年年日夜憂) 건책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받았으니(嚴譴幸稽三考過) 잘못된 은혜에 또 한 해가 지났구나.(謬恩虛飜一冬流) 부로들은 경하한다 그릇되이 전하니(謾傳父老俱相賀) 산하를 마주하고 나 스스로 부끄럽네.(獨對山河益自羞) 세상에선 어렵다하고 이 몸은 너무 늙어(世事傳

184) 진양(晉陽)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고을 이름이다. 진나라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에게 진양을 다스리라고 하자, 윤탁은 진양을 보장(保障)이 되게 하기 위해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그 후 조간자의 아들 지백(智伯)이 난을 피해 진양에 들어갔을 때, 윤탁의 관대한 정치 덕분에 백성들이 끝내 배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國語 晉語>

難身太老) 기대에 못미쳐서 허물될까 두렵구나.(未酬隆委恐招尤)”

○ 정해당(靜海堂)은 이관당(以寬堂) 남쪽에 있다.

○ 현종 을사년(1665)에 유수 조복양(趙復陽)¹⁸⁵⁾이 지은 상량문(上樑文)은 다음과 같다.

“요새를 지켜서 국가를 건고하게 하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유수의 소임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꾸며 마침내 정사를 보는 집을 건립하였으니, 산과 들관은 광채를 더하였고, 고을 부로(父老)들은 경관이 바뀐 것이라 하였다. 돌아보건대 오직 이 강화만이 천연의 요새라 불렸다. 그 이유는 긴 강과 큰 물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못이 되었고, 길게 늘어선 높고 험한 봉우리는 반공에 우뚝 솟아 있어 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강화는 황해도·경기도 하류의 문호에 있으면서 여섯 갈래 길이 모이는 해안의 요충지로서 고려의 왕이 오랑캐를 피해 궁궐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강화의 지난 사적을 기록해 본다면, 단군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오래된 제단이 아직 있으며 임진난 때는 서쪽 요새로 파천하였으니 나라의 운명은 이로써 걱정이 없었다. 정묘년에 이르러서는 북방 오랑캐의 창점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임금이 이곳에 잠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아, 참람된 일이 생겼으니, 병자년에 나라가 다시 도탄에 빠졌지만 강화의 형승은 바뀌지 않아, 전과 다름없이 안팎으로 요새를 지켰지만, 평범하고 용렬하게 대응하여 더럽혀졌고 안전을 한 날 명주실에 맡기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렇지만 조 유수의 거친 식견으로도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고, 또한 주시에서 말한 지도가 무엇인지 듣기는 하였으나 재주는 거칠고 계략은 알아서 비록 한 가지 장점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도, 정성과 지혜를

185) 조복양(1609~1671)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다하였다. 대개 백가지 폐해가 나타난다고 해도 모두 참여해서 오직 관아 증건을 보고자 했다. 일찍이 지난 번 난리 초에 보면, 넓고 드넓은 관아와 동헌이 있었지만 관부의 체제는 완성되지 않았었다. 작은 뜰과 깊게 박혀있는 작은 건물은 관민들이 일을 보러 오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옛날 구양주가 활주서의 동헌을 새롭게 꾸미지는 않았고, 소장공의 부풍당 북쪽은 마땅히 증축되고 고쳐져야 했을 것이다. 저 남쪽 꼭대기에 있는 굽은 정자를 보라. 또 그 전면에 있는 이리저리 엮혀있는 옆면을 보라. 그 다음에는 점차 백성들의 집이 헐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말하듯이 지맥이 쇠절한 까닭인 것이니 하물며 전란 후에 반드시 돌아갈 땅임에랴. 마땅히 근신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애 해악을 물리고 안정을 얻을 것이니 어찌 회필할 수 있겠는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세울 것은 세워 거주하는데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무와 돌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은 일 자체를 넘어 섰다. 작업 도구를 나란히 하고 장인들의 손놀림은 서로 다투었으니, 드디어 가운데 구역의 넓은 터를 열기에 이르렀다. 옛 수령 관아 중 동헌을 이곳에 옮기니 그로 인해 승지가 될 것이다. 어찌 마음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닦지 않겠는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성되어 눈앞에 우뚝 솟아있고 섬돌 아래는 상쾌하게 돌아져있다. 긴 회랑과 빗장 문은 멋지게 돌아있고 갖가지 꽃과 대나무는 여기저기 심어져 있다. 굽이굽이 담장은 돌계단으로 받쳐지고 언덕 모양으로 둘러져 있는데, 동네 우물은 눈앞에 있고 성안에 부는 연기를 내뿜기도 하고 들어마시기도 한다. 이곳에서 산하를 바라다보니 요새처럼 되어 있는 섬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에 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길이길이 상서롭도록 길한 이름을 걸자. 아득하게 멀리

가고 아득하게 무사하도록, 이 집이 앞으로 좁게 느껴지고 전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사치하지 않고 누추하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로 이 강화부의 규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이 집에서는 사람들의 화목을 마땅히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보통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군비를 잘 계산해서 증강시키는데 주의하면 사나운 외적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비록 풍속이 바뀐다고 해도 임금의 교화가 있으면 그 명령이 잘 시행될 것이다. 스스로 강화부에서 어떤 정책을 꾸민다 해도 관아 밖으로 새 나가지만 않는다면 우스운 애깃거리라 해도 조용하게 이곳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관아 일대 지역을 잘 다스리면 그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편하게 설 수가 있을 것이고 앉아서도 멀리 일어나는 풍파를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이름이 가진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들보를 잘 닦아 세우면 좋은 정치를 온전히 베풀 것이다.

어영차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한강 서쪽은 바다에 접하여 통해있고 정성스런 마음은 매일 밤 조수를 따라 임금 계신 서울을 왕복하니 지척간이구나.

어영차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포구 끝은 보이질 않아도 기운은 쌓여 가고 만 가지 곡식은 큰 배 실려 오고가는데 붉은 밤과 산삼만은 곧장 서울로 가는구나.

어영차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마니산에서 곧장 가니 북쪽은 산이 가지런하여 산 앞에 늘어선 섬들이 마치 바둑판 위 돌 같은데 고기잡이 집들은 고기 잡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구나.

어영차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고려산의 맥은 송도에 있는데 도읍 옮긴 날 전 왕조를 생각하니 백만 오랑캐 군대는 얻지 못할 것을 엿보았구나.

어영차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하얀 달빛 아래 먼데서 부는 바람은 허공에 떠있고 맑은 향이 나는 그림의 창끝은 한가로이 종이 한 장을 거느릴 뿐. 아침에 부는 맑은 기운은 다시 새롭게 맛을 낸다.

어영차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마음 속 사무쳐 홀로 노래 부르지만 대답하는 사람 없구나. 내 한 가지 소원은 늘 만물이 따뜻하게 있는 것이었는데, 내 추위를 가리고 어찌 드넓은 집을 얻으리오.

엎드려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후에는 군민이 평안하고 화목하여 바다와 육지가 모두 맑은 기운으로 나라의 근본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푸른 바다를 지키며 이어온 우리 조정은 관방을 굳건히 하여 태산과 같은 네 가지 근본이 있었으므로 해마다 풍년이 드는 낙토가 되어 오랫동안 노래 소리가 끊이질 않기를 바란다. 또 여유가 있으면 화당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술이라도 서로 나누기를 바란다. 뽕나무 밭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바뀌어도 이 정해당만은 어그러짐이 없기를 바란다. 을사년 중춘에 쓰다.”

79. 객사(客舍)

海口館前官道橫	해구관 앞에는 큰길이 뻗어 있고,
廳房倉庫昔盈盈	관공서와 창고들이 옛적엔 즐비했었네.
丙寅甲午何堪說	병인년과 갑오년 일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十有兩三仍舊名	열여섯 개 옛 건물의 이름이 남아있네.

○ 해구보장지관(海口保障之館). 곧 객사이다. 예전에는 장녕전(長寧殿)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아(上衙)의 서쪽에 있다.

○ 옛 벽대청(舊壁大廳). 전패(殿牌)와 향축(香祝)을 이 포(鋪)에

봉안하였는데 이를 벽(壁)이라 해서 벽대청이라고 하였다.

○ 망궐례(望闕禮). 매월 삭망에 유수·경력·검률·중군·각 진의 장수들이 이 진의 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었다.

○ 영사(迎赦). 사면하는 글과 교서는 가져오는 관리가 남문 바깥에 이르면 용정(龍亭)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고, 경력(經歷)이 나아가 맞이하여 앞장서서 인도하여 여기서 예를 행하였다.

○ 영명(迎命). 경력·중군·각 진(鎭)의 장수들이 각각 부임할 때, 그리고 4영장(營將)이 일로 인하여 본부에 도달하는 자의 교서·유서를 받들어 예를 행하는 처소가 역시 위와 같다.

○ 전최(殿最). 매년 6월과 12월에 있다. 유수가 자리를 열고 동헌에 오르면 경력, 중군, 별검, 참봉, 각 진의 장수, 월령 검률, 이고 참봉(吏庫參奉,¹⁸⁶) 제 군문(軍門)의 장군과 장교들은 예에 의거하여 참배하고 알현한 후에 포핍(褒貶)하고 봉하여 아뢰었다.

○ 봉전(封箋). 해마다 정월 초하루·동지, 대전(大殿)의 탄신일과, 언제나 나라의 경사가 있어 하례하는 전문이 있을 때에도 동헌에 올라 봉하여 바쳤다. 그러므로 망궐례 등의 절차와 아울러 여기에 기록한다.

○ 향청(鄉廳) : 상아(上衙)의 서쪽에 있다. 향임이 거주하며 편액은 향헌당(鄉憲堂)이다.)·비장청(裨將廳) : 상아의 동남쪽에 있다.)·집사청(執事廳) : 편액은 운주(運籌)이다.)·서리청(書吏廳) : 상아의 서쪽에 있다.)·장려좌우열장관청(壯旅左右列將官廳) : 상아의 남쪽에 있다.)·영군청(營軍廳) : 상아의 남쪽에 있다.)·의려좌우열급장관청(義旅左右列及將官廳) : 상아의 남쪽에 있다.)·종사군관청(從事軍官廳) : 이아(貳衙)의 옆에 있다.)·별군관청(別軍官廳)·포도청(捕盜廳)·관청

186) <속주증보강도지>에는 '사각참봉(史閣參奉)'으로 되어 있다.

(官廳) · 군무장관청(軍務將官廳) · 중영관청(中營官廳) · 청직청(廳直廳) : 편액은 소성(小星)이다.) · 별파진청(別破陣廳) · 도훈도청(都訓導廳) · 관노청(官奴廳) · 순뢰청(巡牢廳) · 종각(鐘閣) · 내탕제고(內帑諸庫) · 사창(司倉) · 호조창(戶曹倉) · 서창(西倉) · 남창(南倉) · 유비창(有備倉) · 관청고(官廳庫) · 보민청(補民廳) · 부사고(府司庫 : 동문 안에 있다.) · 군기고(軍器庫) · 화약고(火藥庫 : 세 곳이다.) · 경적고(京籍庫) · 부적고(府籍庫) · 공방고(工房庫) · 호남고(戶南庫) · 약방고(藥房庫) · 진휼고(賑恤庫) · 군수고(軍需庫) · 수성고(修城庫) · 부료고(付料庫) · 빙고(氷庫) · 병대청(兵隊廳·두 곳이다.) · 옥(獄)이 있었다. 이상 여러 청(廳)과 방(房)은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졌기도 했고 다시 짓거나 증설하기도 했다. 갑오년(1894)에 개혁한 뒤에 모두 폐지되었는데 대체로 두세 개의 옛 이름이 있을 뿐이다.

80. 민풍시(民風詩)

金公昔日涖江鄉	김상익 공 옛적에 강화에 부임하여,
詩誦民風二十章	백성들의 풍속을 20수 시(詩)로 읊었었지.
耕織漁鹽多少字	밭 갈고 옷감 짜고 어염 일을 몇몇 글자로 짓되,
最先保障海西方	서쪽 바다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네.

○ 영조 을유년(1765)에 김상익(金尙翼)¹⁸⁷이 강화부의 민풍시(民風詩) 20장(章)을 지어 올렸다. 그 계사(啓辭)는 다음과 같다. “우리 성상께서는 요임금의 힘써 일할 때의 나이로 위무공의 청잡하는 계

187) 김상익(1699~1771) 본관은 강릉. 자는 사필(士弼).

을을 본받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근심하여 밤낮으로 나태함이 없었고, 교서를 칠월장(七月章)을 거듭 강하던 날에 두루 내려서 상한 백성을 걱정하는 어진 마음으로 정녕 간절하고 측은히 여겨 짐승을 감화하고 금식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강화부는 수백 년 동안 국가를 지키던 땅으로서 열성조의 근심하던 법전을 입어서 계속되는 원망은 반드시 풀어주고 목은 병폐는 반드시 시정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의 마음을 만정에 더욱 근면하고 숨어있는 것을 캐내어 도와주기를 극진히 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마디의 말로 온 섬이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서 춤을 추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기대할 만하였습니다. 신이 전하의 뜻을 받들어 이에 풍속과 백성의 산업의 어려움을 간략하게나마 채집하여 삼가 가려 뽑아서 올립니다.”

1) 보장(保障)

우뚝한 저 마니산(截彼尼嶽) 바다를 지킨다네.(鎮茲海防) 대양에 둘러싸여(環以大洋) 백리의 지역이라네(百里其方) 쌓고 또 수리하여(修斯築斯) 단단히 묶어 매네.(繫于苞桑) 해자 덮는 경계를(覆隍之戒) 어떻게 잊겠는가?(俾也可忘)

2) 진전(眞殿)

아름다운 진전(穆穆眞殿) 위엄있는 곤룡포네.(有儼龍袞) 하늘 멀다 누가 그랬나?(誰謂天遠)

무척이나 가깝네.(尺五之近) 우러르고 의지하니(載瞻載依) 반짝반짝 빛나네.(日襯耿光) 백성에겐 별이 있어(庶民有星) 숭양하는 정성이네.(此拱之誠)

3) 사각(史閣)

보각은 높고높아寶閣崇崇) 삼랑성 옛성일세.(三朗古廓) 왕실 기록
보관하고藏寶藏史) 중요 서책 빛나누나.(有煌玉軸) 하늘이 존엄하니
(木天尊嚴) 모두가 공경하네(孰不起欽) 하물며 지난 세월(矧惟往歲)
우리 임금 행차했네.(我后光臨)

4) 충렬사(忠烈祠)

아름다운 사당이여(有廟如奕) 12분의 충신이네.(十二貞忠) 인을 이
룬 곳에서成仁之地) 백세의 기풍일세.(百世氣風) 풍모 명성 감동하니
(風聲攸動) 지사들이 분발하네.(志士愈激) 이곳에 제사 지내俎豆于斯)
우리의 법도라네.(爲我矜式)

5) 사속(士俗)

바다의 입구에는(海之口矣) 백성들이 어리석네.(氓俗蚩蚩) 무사가
일곱이고(弓馬其七) 선비가 셋이라네.(士也三之) 가르침이 부족해서
(文教不振) 속되게 되는구나.(遂歸下俚) 본래의 습성은(習尙固然) 환
경이 그러했네.(風氣所使)

6) 염전(鹽田)

바닷물이 넘쳐서(海水濫濫) 경작지로 흘러드네.(亦流于田) 독만들
러 해보지만規以爲僂) 사망이 그러하네.(四郊皆然) 바닷가에 염전 개
척海濱斥鹵) 흉년이 들었다네.(罕有有年) 흉년이 들었으니(罕有有年)
백성들은 배고프네.(民惟食艱)

7) 목어(牧圉)

진장의 목장에는(鎭江之場) 토양이 비옥하지.(孔沃其土) 개간하지

얇은 것은(土何不墾) 목장이 있어서라네.(牧圉之故) 범조차도 하천 못건너(虎不渡河) 말무리가 비어있네.(馬羣殆空) 백성 모집 의논에는(募民之議) 모두가 동의하네.(萬口攸同)

8) 선상(船商)

얼음 강이 깨지면서(氷江卽坼) 갈매기가 우는구나.(鷗有春聲) 가진 배를 수리하고(理舟理楫) 장사하고 떠나려네.(將賈將行) 물귀신에 제사 지내(爰賽水神) 둥둥둥 북을 치네.(伐鼓淵淵) 일곱 산의 험함이어(七山之險) 조심하라 부탁하네.(婦曰慎旃)

9) 춘경(春耕)

봄날에 햇빛 비취(春日載陽) 농사 때가 되었구나.(農候始至) 우리 소에 여물 주고(言飼我牛) 우리 처자 같이하네.(同我婦子) 해안에는 눈 있지만(海岸殘雪) 바람으로 자취남네.(于以風趾) 창포는 싹이 나고(菖已筍矣) 은행은 아니 꽃피.(杏未花矣)

10) 잠상(蠶桑)

초여름을 건더내고(載勝初下) 누에 일을 시작하네.(蠶事起矣) 여인은 광주리 잡고(有女執筐) 이것을 따르다네.(薄言遵彼) 아들아들 잎사귀는(嫩綠者葉) 아침저녁 구한다네.(爰求朝暮) 채집해도 양이 적고(采不盈掬) 뽕나무는 아니 크네.(桑不宜土)

11) 엽무(饑畝)

저 교외를 보자니(瞻彼郊垌) 보리싹이 파릇파릇.(麥苗青青) 곡식은 비어있고(瓶粟既罄) 집안도 비어있네.(室如懸磬) 밭일이 더디니(田日遲遲) 배고픈걸 어찌하리?(何以求飢) 나뭇잎을 따다가(言採槐葉) 삶아

서 먹는다네.(以烹以飴)

12) 한한(曠旱)

오월인데 가뭄이라(五月其曠) 농사 때를 잃었구나.(三農愆期) 해마다 흉년이니(歲將無秋) 백성들이 굶는구나.(民其餓殍) 타는 듯한 근심 걱정(憂心如惔) 그 누가 살피리요?(繫誰察眉) 성후께서 측은해하니(聖后其惻) ‘운한’이란 시가 있네.(雲漢有詩)

13) 추획(秋獲)

가을 걷이 하였지만(我稼載獲) 쭉정ियो 빈 것이네.(有穀其空) 가을인데 수확 없어(秋既不粒) 세금을 어찌 내리.(租稅何從) 이것 저것 팔고서(賣係賣犢) 말로만 읊기네.(言輸其粟) 부자들도 죄이는데(富亦云急) 가난한자 어찌하리?(奈何窮獨)

14) 창저(倉儲)

창고 속을 보노라니(相彼倉實) 그 수량이 매우 많네.(鉅萬其數) 예전에는 넘쳤지만(昔何盈矣) 지금은 축났다네.(今何耗矣) 이리저리 빌리지만(東輸西貸) 병조차도 못 채우네.(瓶罌之恥) 흉년든 세월이니(歲其大侵) 무얼 믿고 내가 살까?(我將焉恃)

15) 어리(漁利)

포구에는 소라 있고(浦口有螺) 바다 속엔 새우 있네.(海中有蝦) 그 물치고 잡아다가(爰罟爰採) 지고 가고 이고 가네.(以負以載) 밥먹는 고을에서(就食稻鄉) 우리 처자 같이 살지.(偕我妻孥) 철따라 이동하며(秋南春北) 새들과도 함께하네.(鴻雁與俱)

16) 자염(煮鹽)

바다 조수 밀려가면(海潮初退) 소금 꽃이 땅에 뜨네.(鹺花浮地) 걸러서 볶으니(漉以熬之) 모래와 물이구나.(惟沙與水) 흰 것을 내고 보니(搆白出素) 눈싸인 광경인 듯.(積雪其似) 파는 것을 일삼아서(販以爲業) 이익 남겨 생활하네(牢盆之利)

17) 관시(販柿)

밭에는 감이 있어(于田有柿) 과실이 익었구나.(有爛其顆) 따다가 껍질 벗겨(酒摘酒剝) 광주리에 담는다네.(于筐于筥) 저자로 가서는(爰赴墟市) 팔아서 빚을 갚네.(鬻以補糶) 이것 키운 땅에서는(爲生殖地) 그 이익도 매우 크네.(其利孔博)

18) 직공(織功)

한해가 저무니(歲聿暮矣) 귀뚜라미 벽에 있네.(蟋蟀在壁) 농사가 끝나니(田功既訖) 길쌈을 하는구나.(可紡可績) 남자는 베를 짜고(士曰織布) 여인은 자리 짜네.(女曰織席) 인생이란 근면이니(人生在勤) 노력하지 않겠는가?(可不努力)

19) 안집(安集)

하늘은 은혜 내리고(天降恩言) 정사는 자식 보듯.(子視之政) 일하는 자 근본 복귀(傭者返本) 그 성을 회복한다네.(酒復其姓) 떠도는 자 귀향해서(流者還土) 편안하게 사는구나.(酒安其堵) 그 누가 하사했나?(伊誰之賜) 우리 임금 쓰다듬네.(撫我惟后)

20) 초애(椒艾)

바닷가에 쭉이 있어(海濱有艾) 목장 말은 먹지 않네.(場駒勿食) 물

가에는 산초있어(川上有椒) 물고기가 먹지 않네.(沙禽勿啄) 그 쭉을
공께 바치고(艾以獻公) 산초로 임금 기리네.(椒以頌君) 충성하고 사
랑하니(寓我忠愛) 천만세를 사시겠지.(壽千萬春)

81. 도과(道科)

文武道科別典垂	문무 도과에 별전이 행해져 왔는데,
通喬豐邑亦無遺	통진교동 풍덕읍도 포괄하여 치러졌네.
紅牌丹桂春風客	홍패와 단계를 내려 받은 젊은이는,
盡是朝廷稷禹夔	모두다 조정의 명신들이 되었네.

○ 문무의 도과(道科)는 특명으로 인하여 행하므로 정기적으로 시
행하지는 않는다.

○ 인조 5년 정묘년(1627) 정월에 청나라 사람들이 항복한 장수
강홍립(姜弘立)을 향도로 삼아 크게 거병하여 깊숙이 들어와서 평산
(平山)에 이르렀다. 임금이 강화도로 행차하였는데 3월에 여러 재신
(宰臣)들을 파견하고 오랑캐들과 협상하여 진해루(鎭海樓)에서 강화
하였다. 친히 임하여 선비를 시험하기를 ‘무간우우양계(舞干羽于兩階)’
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해서 허색(許穡)¹⁸⁸ · 정유성(鄭維城)¹⁸⁹ · 남진명
(南振溟) · 윤계(尹槩)¹⁹⁰ 등 4명을 선발하였다. 통진(通津)과 교동(喬
桐)에도 각각 1명씩을 들게 하였다. 그리고 어가가 서울로 돌아갔다.

○ 영조 2년 병오(1726)에 대제학 이병상(李秉常)을 파견하여 선비

188) 허색(1586년 출생) 본관은 양천(陽川)

189) 정유성(1596~1664)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

190) 윤계(1583~1636)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

를 시험하기를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해서 성유열(成有烈),¹⁹¹⁾ 조정(趙挺), 이선태(李善泰),¹⁹²⁾ 황연(黃沄),¹⁹³⁾ 황태빈(黃泰彬)¹⁹⁴⁾ 등 5명을 선발하였다. 통진과 교동에 각각 1명씩 들게 하였다. 무과로는 구철(具澈) 등 185명을 선발하였다.

○ 영조 20년 갑자(1744)에 어사 윤득재(尹得載)를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험하였다.

○ 영조 27년 신미(1751)에 어사 성천주(成天柱)를 파견해서 무재를 시험하였다.

○ 영조 40년 갑신(1764)에 대제학 김양택(金陽澤)을 파견하여 ‘억위보장(抑爲保障)’이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해서 유탉하(柳宅夏),¹⁹⁵⁾ 민응세(閔膺世), 이사조(李思祚),¹⁹⁶⁾ 전광서(全光瑞) 등 4명을 선발하였으며, 통진과 교동에 각 1인씩 들게 하였다. 무과로는 조기(趙琦) 등 57인을 선발하였다.

○ 철종 4년 계축(1853)에 대신 정원용(鄭元容)을 파견하여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보장재(保障哉)’를 제목으로 해서 수석한 자로 남궁갑(南宮鉉)¹⁹⁷⁾을 선발하고 나머지 급제자에게 상을 내렸다. 무과에 아무개 등 몇 명을 선발하였다.

○ 고종 3년 병인(1866)에 중신 조병창(趙秉昌)을 파견해서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를 제목으로 해서 이연수(李演壽),¹⁹⁸⁾ 이건창(李建昌),¹⁹⁹⁾ 윤시영(尹

191) 성유열(1698년 출생) 본관은 창녕(昌寧).

192) 이선태(1673년 출생) 본관은 연안(延安).

193) 황연(1680년 출생) 본관은 평해(平海).

194) 황태빈(1691년 출생) 본관은 창원(昌原).

195) 유탉하(1714년 출생)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언장(彦長), 호는 의소당(宜蔬堂).

196) 이사조(1729년 출생) 본관은 전주(全州).

197) 남궁갑(1820년 출생) 본관은 함열(咸悅).

時榮),²⁰⁰⁾ 이만규(李晩奎),²⁰¹⁾ 유원식(劉元植),²⁰²⁾ 권채규(權綵奎)²⁰³⁾ 등 6명을 선발하였다. 통진과 교동, 풍덕에 각각 1인씩 들게 하였다. 무과로는 유영길(劉永吉) 등을 뽑았다.

82. 공도회(公都會²⁰⁴⁾)

都會古規陞補同 공도회의 옛 규범은 승보시²⁰⁵⁾와 같은데,
 三場詩賦擇精工 삼장의 시부로 인재를 뽑았네.
 年年貢舉從原數 정해진 인원을 해마다 올렸기에,
 伊昔江州蔚土風 예로부터 강화는 선비풍(학구열)이 높았었네.

○ 공도회(公都會)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술(製述)과 시부(詩賦)를 설해서 각각 1명씩 선발하고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을 강하여 각각 1명씩을 선발하는데 모두 4명을 선발하였다. 우수 권적(權臈)이 소학만으로는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술을 1명 추가할 것을 아뢰었

198) 이연수(1809년 출생) 본관은 전주(全州).

199) 이견장(1852~1898) 조선 말기의 문신·대문장가.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200) 윤시영(1818년 출생) 본관은 파평(坡平). 강화(江華) 거주

201) 이만규(1833년 출생) 본관은 전주(全州). 통진(通津) 거주

202) 유원식(1847년 출생) 본관은 배천(白川). 교동(喬桐) 거주.

203) 권채규(1792년 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풍덕(豐德) 거주.

204) 공도회(公都會)는 조선시대 각 도(道)와 유수부(留守府)에서 매년 관할 지역의 향교 생도들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험이다.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의 두 과목을 시험하여, 합격자는 이듬해 서울에서 열리는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205) 승보시(陞補試) : 소과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四學)의 유생에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하면 식년(式年)의 소과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다. 황상(高宗) 때에 유수 이재원(李載元)이 아뢰어서 4명을 더 선발해서 도합 8명이 되었다. 시부삼장(詩賦三場)으로 계획하고 합격자를 뽑았으니 서울에서 선발하여 보임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 시관(試官)으로는 유수(留守)가 주시험관이 되고 장녕전 별검(別檢)이 부시험관이 되고, 기내의 문관과 수령, 찰방들이 부시험관으로 참여했다.

○ 초시를 보아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는 주악을 울리고 음식을 마련해서 합격자들이 함께하여 즐거워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와 선비를 대우하는 방식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강학(講學)하는 선비의 풍속이 매우 불 만하였다.

83. 이아(貳衙)

敬愛堂中太守閑	경애당의 태수는 일이 없어 한가하니,
時時拄笏對西山	때때로 홀을 괴고 서산을 대했었지.
最是李公循良政	으뜸은 이공(李公)의 어진 정치를 꼽는데,
十七碑傳里巷間	열일곱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전해오네.

○ 경애당(敬愛堂)은 객사 남쪽 약간 낮은 곳에 있었다. 관리가 정사를 듣고 돌보는 동헌으로 그 북쪽에 주홀당(拄笏堂)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지되어 향청(鄉廳)으로 사용하고 있다.

○ 옛날 숙종 을미년(1715)에 이세성(李世晟)이 경력(經歷)으로 있으면서 정사를 잘 펼쳤는데, 유수 이태좌(李台佐)²⁰⁶가 칭찬하여 말

206) 이태좌(1660~1739)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국언(國彦), 호는 아곡(鵝谷).

하기를 “그는 옛날의 ‘순양리(循良吏 : 어진 관리)’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강화부의 업무를 모두 맡길 만하다.”라고 하였다. 그가 떠나고 나서 열일곱 개 마을의 사람들이 비를 세워주었다.²⁰⁷⁾

84. 중영(中營)

挽河軒上甲兵收	만하헌 안에는 갑옷 병기 거둬두니,
曾是昇平累百秋	일찍부터 오랜 세월 평화로운 때문이네.
今日惟餘房一二	오늘에는 한두 개의 방만이 겨우 남아,
教員課字此中留	교원이 머물면서 학업을 권면하네.

○ 만하헌(挽河軒)은 중군(中軍)이 머무는 동헌(東軒)의 명칭이다. 정조 정해년²⁰⁸⁾에 중군 김상태(金相台)가 편액을 고쳤다.

○ 황상 병인년(1866) 후에 고쳐 세우고 삼문에 편액하기를 부수영(副帥營)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하나들만 있으며 나머지는 엮어서 교원들이 거주하면서 과업을 권하고 있다.

85. 진무영 열무당(鎭撫營 閱武堂)

閱武堂高大將筵 열무당 드높으니 대장의 지휘소라.

207) ‘유수이태좌선정비’와 ‘경력이세성선정비’가 강화 화도면 상방리 비석군에 있다. 이 2기의 비석은 모두 1781년에 상도면과 하도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웠다고 새겨져 있다.

208) 정조 재위시에는 정해년이 없다.

試才月月又年年 달마다 해마다 재주를 시험하네.
 兼是春秋操鍊日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병 훈련 하던 날은,
 麾下軍容萬六千 휘하의 군사가 만육천 명이나 되었네.

○ 진무영(鎭撫營)은 종각의 서쪽에 있으니 즉 열무당(閱武堂)이다. 숙종 갑자년(1684)에 유수 윤계(尹埜)²⁰⁹가 짓고서 ‘열무(閱武)’라는 편액을 걸었다. 일명 승천대(承天臺)라고도 한다.

○ 진무사(鎭撫使)가 무과를 시험할 때에 머무는 곳이다. 매월 활 쏘기를 시험하여 상을 주고, 매년 도시(都試)를 설치하여 무과를 취한다. 매년 봄, 가을에 조련하고 군대를 정비하여 진무영 아래의 수군들은 합해서 16,200인이었다.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86. 선원비각(仙源碑閣)

舊南門址閣丹青 옛적 남문 있던 터의 단청한 비각에,
 一石巍然紀丙丁 비석하나 우뚝하니 병자·정축년 일 적혀 있네.
 硝火聲中金相國 화약 폭발 소리 속에 김상국이 있었으니,
 萬古貞忠貫日明 만고의 충정은 해를 뚫고 밝았다네.

○ 옛 남문의 누각은 곧 상국(相國)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순절한 터이고 후에 비각을 세워서 진무영 외삼문(外三門) 동쪽에 두었다.

○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이 순의비기(殉義碑記)를 지었다. 그

209) 윤계(1622~1692)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태승(泰升), 호는 하곡(霞谷).

기문은 다음과 같다.

“오호라! 여기는 강화부성 남문으로 고 우의정 문충공 선원 김선생께서 순의하신 곳이다. 선생의 휘는 상용(尙容)이니, 안동인이다. 만력 18년 경인년(1590, 선조 23)에 급제하여 여러 조정을 섬기면서 벼슬은 재상의 지위에 이르렀고, 충후하고 정직함으로써 사류의 떠받들음이 되었다.

승정 병자년(1636, 인조 14)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니 임금께서는 강화로 납시려 하였다. 그 때에 선생은 이미 재상의 벼슬을 그만두었고 또 늙고 병든 몸이었는데도 임금께서 선생에게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먼저 떠나라고 명하시었다. 이에 장신(張紳)을 강화부의 유수로 삼고, 검찰사 김경징(金慶徵)과 부사 이민구(李敏求)에게 군사(軍事)를 맡게 하였다. 그러자 이미 임금님의 행차(大駕)가 오랑캐의 선봉에게 공격을 받아 창졸간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적은 두터운 포위망을 구축하고 지키면서 내외의 연락을 차단하니 제도(諸道)의 근왕병들은 오는대로 모두 궤멸 당하였다. 적은 또 군사를 나누어 강도를 엿보고 있었는데, 장신과 김경징 등은 천험(天險)만 믿고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경징은 교만 방자하여 군사로써 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성을 내어 이를 목살시켜 버렸다.

이에 선생께서 분연히 이르기를 ‘행재소가 포위당한 지 벌써 오래 되었고, 정세규(鄭世規)도 도로에서 패하여, 풍문에는 이미 그가 죽었다고들 하니, 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사는 호서로 달려가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고 의병을 규합하여 호남의 병졸로 뒤쳐진 자들을 독려하여 임금의 위급함에 내달아 기회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남한성의 소식이 끊겼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를 모집하고 벼슬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열 번을 시도하면 한 번쯤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신하된 도리에 어떻게 팔짱만 끼고 보고 있던 말인가? 하니, 경징 등이 빈정거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여기를 관장할 사람이 있는데 피난 온 대신이 참여할 일이 아닐 줄 아오.’ 하고는, 하나도 듣지 않고 시행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일은 끝났습니다. 어찌하여 배를 준비하여 급한 일에 대비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선생께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포위 중에 계시며 종묘사직과 왕손인 원손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만일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적이 크게 몰려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장신과 김경징은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첫 겁쟁이들이로다. 강물이 넘실거리려 흐르는데 적이 어떻게 날아 건너올 것이냐?’ 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적이 과연 갑곳으로 건너오니 우리 병졸들은 바라만 보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절로 무너지고 김경징 등은 일시에 배를 빼앗아 타고 도망하였다. 이에 적은 평시에 행군하듯 성 밑에 이르렀다.

선생께서는 집안사람들과 결별하고 성의 문루에 올라 염초를 쌓아 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옷을 벗어 하인에게 주고는 손을 저어 좌우를 물리치고 불을 붙여 자폭하였다. 손자 수전(壽全)은 당시 나이 13세로 곁에 있었다. 선생께서 노복을 시켜 손자를 데려가라고 하였으나, 손자는 선생의 옷을 붙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할아버지를 따라 죽어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노복도 가지 않고 함께 죽었다. 별좌 권순장(權順長)과 진사 김익겸(金益兼)은 동지들과 먼저 약속하여 부하들을 성문으로 나누어 보내, 관군을 도와 성을 사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에 이르러 마침내 선생과 함께 죽으니 실로 정축년(1637, 인조 15) 정월 22일이었다.

대저 이미 선생께서 죽으니 국가에서는 충신의 문으로 정려(旌闈)하고, 또 강화부성의 남쪽 7리 되는 곳에 사우(祠宇)를 짓고 ‘충렬사(忠烈祠)’라 사액하여 권공(權公), 김공(金公) 및 이상길(李尙吉) 이하 열 한 사람을 모두 배향하게 하였으니, 숭보하는 은전이 갖추어졌다 하겠다.

금상(숙종) 24년 무인년(1698)에 백씨(伯氏)께서 왕명을 받들어 본부의 유수가 되어 현지에 이르자, 먼저 사당에 배알하고 다시 남문에 올라 크게 한숨을 지으면서 ‘위공자(魏公子)의 선비 후대한 일을 갖기도 대량(大梁)의 동문에다 글을 적은 사람이 있었고, 사마천은 이 일을 사기(史記)에 쓰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선생의 충절은 혁혁하여 백세토록 인륜 기강으로 신뢰하는 바이니, 이 일이 기록이 없을 수 있는가?’하고는 이에 돌을 다듬어 비를 만들어 전액(篆額)으로 크게 써서 남문가에 세우고는 나 창협(昌協)으로 하여금 그 본말을 적도록 하였다.

창협이 조용히 생각건대, 충의가 사람들에게 감동시킴이 깊다. 정축년(1637)에서 지금까지는 60여년이요, 당시의 노인들은 다 가고 없건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남문을 기리면서 아무개가 이곳에서 죽었노라 하고는 왕왕 그 때의 일을 어제의 일처럼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오다가다 이 고을을 찾는 자도 반드시 남문이 어디 있느냐고 먼저 묻고는 흐느끼면서 감탄하며 떠날 줄을 모른다. 이로 보아 말한다면 비록 비석이 없어도 역시 좋은 일이겠으나, 유적을 포지 게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갑절이나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여 백세 뒤이라도 선생의 충절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비석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정부를 돌아보면, 이런 데에 마음을 쓰지 못했음이, 어찌면 국가 장해의 보호를 급히 여기기에 겨를이 없었던 것인가? 그러나 절의의 장사가 국가에서는 국방을 위한 성곽이

나 무기보다 더함을 안다면 오늘 이 일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하겠는가?

백씨의 이름은 김창집(金昌集)이니 선생의 아우 문정공 청음선생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이다. 그래서 후인들이 이 일이 혹 사사로운 처사였다고 의아해 한다면, 이는 대공의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87. 시장(市場)

閱武堂前一市場	열무당 앞쪽에 큰 시장이 있는데,
日之二七列塵商	2일과 7일에는 가게들이 늘어서네.
朝來暮去紛紛處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분주한 곳이지만,
殖貨何人辨出藏	돈 버는데 어느 누가 오고 감을 따지겠나.

○ 시장은 열무당 앞 구천(緱泉)의 뒤편에 있었다. 매월 2일과 7일에 장이 서서 물건을 사고 판다.

88. 용흥궁(龍興宮)

龍興宮裡五雲多	용흥궁 안쪽에 오색구름 가득하니,
庚戌元年海內歌	경술(1860) 원년 강화섬에 노래 소리 울렸었네.
江水益深山益重	강물 더욱 깊이 흐르고 산 또한 칩칩하니,
昇平日月聿中和	태평스런 세월이 중화를 이루었네.

○ 용흥궁(龍興宮)은 열무당의 동쪽에 있다. 동쪽 성 안에 있는 철종(哲宗)²¹⁰의 잠저이다. 경술년(1850)에 등극하였다.

○ 단종 원년 계유년(1453)에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²¹¹과 그 아들 우직(友直)을 강화도에 유배 보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다.

89. 육궁(六宮)

六宮昔日倣京師	육궁은 옛적의 서울을 본뒀는데,
空逐飛灰但有基	무너지고 먼지 날려 그 터만 남아있네.
到此行人皆指點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지점을 가리킬 뿐,
飛花殘草幾多時	꽃 날리고 풀 시든 세월 몇 차례나 지났는가.

- 내수사(內需司)는 동문 안쪽에 있었다.
- 명혜궁(明惠宮)은 내수사 동쪽에 있었는데 뒤에는 육상궁(毓祥宮)이다.
- 어의궁(於義宮)은 내수사 북쪽에 있었다.
- 용동궁(龍洞宮)은 내수사 남쪽 건너편에 있었다.
- 명례궁(明禮宮)은 용동궁 남쪽에 있었다.
- 수진궁(壽進宮)은 궁기고 서쪽에 있었다. 병인양요 때 모두 폐허되었다.

210) 칠종(1831~1863) 조선 제25대왕. 재위 1849~1863.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변(昇).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升), 호는 대용재(大勇齋). 정조의 아우 은언군(恩彦君)의 손자로,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광(曠)과 용성부대부인(龍城府夫人) 염씨(廉氏) 사이의 셋째아들이다.

211) 안평대군(1418~1453) 조선 초기의 왕족·서예가. 전주이씨(全州李氏).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낭간거사(琅玕居士)·매죽헌(梅竹軒). 세종의 셋째아들이다.

90. 강화부내 심부윤(沈府尹*)

沈府尹來按此城	심 부윤이 부임해와 강화성을 다스리며,
迎儒昔日大開黌	선비를 모셔다가 학교를 열었었네.
千秋尙有文翁化	오랜 세월 지났어도 선생 교화 남았으니,
處處相聞講讀聲	책 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

○ 강화부의 옛날 습속은 궁벽하고 누추하여 일찍이 강학(講學)할 줄을 몰랐다. 고려 때에 심덕부(沈德符)가 강화부의 부윤이 되면서 크게 횡당(黌堂) 즉, 학교를 크게 열고 스승을 모셨으며, 마을의 자제들을 모아 시·서·예·의를 가르쳐서 울연(蔚然)하게도 문옹(文翁)이 촉나라를 교화시킨 풍속이 있었으니, 한 고을의 학문이 지금까지 빛이 난다.

91. 강화부내 최판서(崔判書*)

崔判書曾此土生	최판서는 일찍이 이곳에서 태어나,
海東夫子特垂名	‘해동부자’ 칭호를 특별히 받았다네.
天朝亦是稱楊震	‘동방의 양진’이라 중국서도 불렀으니,
兩國江山共著明	두 나라 강산에서 다함께 저명했네.

○ 형조판서 최용소(崔龍蘇)²¹²는 본래 강화 사람이었다. 세종과 문종을 섬겼는데 죽어서는 제정(齊貞)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일찍이

212) 최용소(?~142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강화. 조선 태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성품이 청백하였다. 시호는 제정(齊貞).

해동부자(海東夫子)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 중국에서도 동방의 양진(楊震)²¹³)이라고 칭하였다.

92. 강화부내 김효자(金孝子*)

金孝子居此府城	김창구 효자는 강화부에 살았는데,
海東黔婁一紅旌	해동의 검루 ²¹⁴)라고 정려문을 받았네.
氷魚山虎從何出	얼음속 잉어와 산 호랑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知有天翁著此誠	하늘은 알고 있다네, 이 정성에서 나온 것을.

- 효자 김창구(金昌九)는 강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매우 효성스러웠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드렸고, 시묘(侍墓) 살이 할 때에는 산의 범이 보호해 주었다는 말까지 있었다. 영조가 이를 듣고는 최용소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해동검루(海東黔婁) 김창구의 문’이라는 정려문을 내려주었다.

93. 성황단(城隍壇)

亭子山頭有一壇	정자산 꼭대기에 제단이 있는데,
城隍祭所鬱如盤	성황의 제사장소로 반석처럼 성대하다.

213) 양진(?-124) 중국 후한의 사람으로 박학하고 청렴했다.

214) 검루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이름난 효자 유검루(分黔縷)로, 아버지의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해 변의 맛을 보았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한 상분(嘗糞)이라는 고사성어는 지극한 효성을 뜻한다.

雉頭獸角環周勢 썩머리와 짐승 뿔이 주위를 감싼 형세이니,
賴使江州保泰安 강화의 평안 보전을 여기에 의지했네.

- 성황단(城隍壇)은 동문 안의 정자산(亭子山)에 있다.

94. 고려궁지(高麗宮址)

麗王何事昔移都 고려왕은 무슨 일로 도읍을 옮겨 왔나,
延慶康安搃虛無 연경궁과 강안전이 모두 다 허무하네.
埋地洪鍾誰敢發 땅에 묻힌 큰 종을 누가 감히 꺼내겠나,
滿天雷雨即時驅 하늘 가득 우레 소리가 곧바로 몰아친다는데.

○ 고려 고종 19년 임진년(1232)에 최우(崔瑀)가 왕을 보좌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다가 원종 11년 경오(1270)에 예전의 서울로 돌아갔다. 충렬왕은 왕 16년 경인년(1290)에 또 강화에 도읍하였고 18년 임진(1292)에 개경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 성터와 궁터가 모두 강화부의 동남쪽 정자산 바깥에 있다. 강안전(康安殿)은 연경궁의 안에 있었는데 세속에 전하기를 “그 터에서 옛날의 종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발굴하려 하니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라고 하였다. 궁터 4, 5리 안에는 담장, 산재한 주춧돌, 붕괴된 기와, 깨진 옹기 등이 군데군데 밭 사이에 쌓여 있다.

○ 지금 장령(長嶺)의 성문현(城門峴)과 선원(仙源)의 대문현(大門峴)과 인정(仁政)의 서문동(西門洞) 그리고 대묘동(大廟洞)·도감동(都監洞)의 지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 가정(稼亭) 이곡(李穀)²¹⁵의 시는 다음과 같다. “산해의 깊은

곳에 작은 배가 떠있고(山海深處一扁舟) 화산을 다니는데 흥이 아직 남았구나.(行到華山興未休) 옛날부터 금성탕지는 덕을 퍼기에 해가 되니(自古金湯能害德) 이곳으로 천도한 것은 누구의 계획인가?(移都此地是誰謀)”

○ 고려의 허금(許錦)²¹⁶의 시는 다음과 같다. “어부 초동도 옛날의 천경을 말하는데(漁樵猶說舊天京) 임금 수레 기구하여 이 성에 행차하였네.(玉輦崎嶇幸此城) 구름이 참담하여 찬 빛인 듯 하는데(洞雲慘慄疑寒色) 궁의 나무 남아서 옛소리를 울리네.(宮樹潺湲咽舊聲)”

○ 용헌(容軒) 이원(李原)²¹⁷의 시는 다음과 같다. “길을 닦아 바다 섬에 통하고(修程通海島) 예전의 관은 구름 봉우리에 기댓구나.(古館倚雲峰) 고요히 밤 지내니 시끄러움 없어지고(夜靜坐喧息) 빈처마에 달빛이 파고 드네.(簷虛月色侵) 침상에는 살랑살랑 맑은 바람 불어오고(床風清細細) 뜰에 있는 나무에는 녹음이 우거지네.(庭樹綠陰陰)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듣자니(聽得居民話) 태평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네.(昇平正值今)”

○ 함부림(咸傅霖)²¹⁸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는 가까우니 구름은 물기 머금고(海近雲猶濕)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쉽게 지는구나.(山圍日易陰)”

215) 이곡(1298~1351) 고려 말엽의 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

216) 허금(1340~1388)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공암(孔巖 : 陽川). 자는 재중(在中), 호는 야당(埜堂).

217) 이원(1368~1430)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수문하시중 암(嶗)의 손자이며, 밀직부사 강(岡)의 아들이다.

218) 함부림(1360~1410)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윤물(潤物), 호는 난계(蘭溪).

○ 안승선(安崇善)²¹⁹의 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진 산에는 비취 빛이 떠서 멀고(連崗浮遠翠) 깎아지른 언덕에는 층층이 구름 이네. (斷壘起層雲)”

○ 권맹손(權孟孫)²²⁰의 시는 다음과 같다. “고국은 푸른 바다에 둘러 있고(故國環滄海) 빈 성은 비취빛 산으로 벌려있네.(空城列翠岑)”

95. 동문(東門)

望漢樓前望漢陽	망한루 앞에 서서 한양을 바라보니,
圓紅朝旭自東方	붉고 둥근 아침 해가 동쪽에서 일어나네.
操兵場上菲菲草	병사들의 조련장은 풀들만이 무성하고,
含得光輝未吐芳	햇빛을 머금었지만 향기 내지 못하네.

○ 망한루(望漢樓)는 심부(沁府 : 강화부)의 동문(東門)의 편액이다. 문 밖에 병사를 조련하는 훈련장이 있었다. 병인양요(1866년) 후에 설치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빈터가 되었다.

219) 안승선(1392~145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중지(仲止), 호는 용재(雍齋).

220) 권맹손(1390~1456)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예천. 자는 효백(孝伯), 호는 송당(松堂).

96. 강화부성(江華府城*)

環城終日感懷多	성을 둘다 해가 지니 감회가 많구나,
五十年間變幾何	지나간 오십 년 동안 변란이 몇 번 있었는가.
官吏武文多少式	문무의 관리들이 많았을 터인데,
攄如一劫夢中過	모두가 한순간의 꿈처럼 지나갔네.

○ 내가 일찍이 50년 전 여기 강화부에서 노닐 적엔, 관리들의 방어대책과 문무를 대우하고 기르는 방법, 관청 건물과 창고들이 매우 치밀하였었다. 황상 병인년(1866) 9월에 서양의 오랑캐가 갑곶진에 와서 정박하고 갑자기 강화부로 쳐들어왔다. 이때 유수 이인기(李寅夔)²²¹와 본관 김재현(金在獻)과 중군 이아무개 등은 대비를 소홀히 하고 달아나버리고, 하급관리와 백성들은 스스로 뛰어다니며 허우적 대는데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저 오랑캐들이 관청 건물을 소굴로 삼고 한 달 가까이 살았다. 저들 수백 인이 정족산성(鼎足山城)에 함부로 쳐들어갔다가, 마침 양헌수(梁憲洙)²²²의 매복 계획에 당하여 포를 맞고 죽은 자가 많았다. 그들은 이곳이 대비가 잘 돼있는 것을 보고는 관사(官舍)와 공청(公廳)과 각 탕고(帑庫)에 불을 지르고 철수하였다. 후에 조정에서는 다시 세 관아의 관각과 공청을 지어서 웅장하고 견고하게 하였다. 하급관리를 더 설치하고 별무사 3000명을 두어서 군량미 3000석을 준비해서 방어하는 대책으로 삼았으니 매우 장하다고 할 수 있다. 관(官)은 문무를 겸임하여 다스리는데, 유수 겸 진무사 삼도통어사가 있고, 그 아래의 관관과 중군이 있는데, 모

221) 이인기(1804년 출생) 본관은 전주. 강화유수를 지냈다.

222) 양헌수(1816~1888)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경보(敬甫).

두 명망 있고 정선된 자들이었다. 사(士)는 향교의 분교관(分敎官)인데 처음 벼슬을 맡은 계급이었다. 매년 도회(都會)에서 여름마다 시험을 보고 혹 백일장을 치러 가르침을 장려하였다. 무(武)는 춘추로 도시(都試)를 보고 매월 활쏘기를 시험해서 무예를 분발시켰다. 갑오년(1894)에는 단지 군수(郡守) 또는 부윤의 한 관아만을 남기니 그 나머지 관아들은 폐지되거나 저절로 없어진 것들이 많았다. 50년 동안 변화된 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육궁과 각 탕고들은 어떠했겠는가. 다만 탄식할 뿐이다.

 장령면(長嶺面²²³)
97. 장동(長洞²²⁴)

亭子山東大路傍	정자산 동쪽의 큰 길 옆에는,
柿樓瓜圃各成庄	감나무와 참외밭으로 농장을 이루었네.
箇中最是權居久	개중의 으뜸은 오래 산 권씨 가문,
芸月書窓倚短床	달빛 담은 서재에서 책상에 기대있네.

○ 장동(長洞)은 강화부와와의 거리가 동남쪽으로 1리인데, 대로(大路)의 곁에 있다. 옛날부터 참외밭이 많았고, 그 안에는 안동 권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98. 묵사동(墨寺洞²²⁵)

墨洞來尋博士居	묵사동에 다다라서 박사 거쳐 찾아가니,
諄諄教語以經書	정성스레 경서를 가르치고 있었네.
知應此道光千古	이 도가 천년토록 빛날 것은 응당 알았으나,
一變何難古寺墟	한번 변한 옛 절터는 찾기가 어렵구나.

223) 장령면은 1914년 강화읍에 편입되었다.

224) 강화읍 갑곶3리의 장동마을이다.

225) 강화읍 갑곶2리 먹절마을이다.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와 현대아파트 남쪽에 위치한다.

○ 묵사동(墨寺洞)은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때 세워진 절의 터라고 한다.

○ 함열 남궁씨 우계(牛溪) 성혼(成渾)²²⁶의 문인 남궁명(南宮莫)²²⁷의 후손 승지 남궁갑(南宮鉞)²²⁸의 조카인 겸산(謙山) 남궁은(南宮澗) 박사가 경학을 익히면서 만년에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99. 갑곶동(甲串洞²²⁹)

鎮海樓臨甲串津	진해루는 갑곶진에 임하여 있는데,
春風起浪拍城闌	봄바람에 물결 일어 성벽을 치고 가네.
如噴如激千秋恨	분노한 듯 격노한 듯 천추의 한이 되어,
猶帶丁年代北塵	정축년의 오랑캐 흔적 아직도 남아 있네.

○ 진해루(鎭海樓)는 갑곶진의 초루이다. 여기서 서쪽으로 관아와의 거리가 20리이다.

○ 옛날에 침략했던 몽고의 장군이 “갑곶을 쌓아 건널 만하다.”라고 하여 앞잡아본 것이다. 이첨(李詹)²³⁰의 기문에는 이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고려사》를 살펴 보건대 이미 갑곶이란 명칭이 있었

226) 성혼(1535~1598)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호원(浩原), 호는 묵암(默庵)·우계(牛溪).

227) 남궁명(1566년 출생)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요서(堯瑞).

228) 남궁갑(1820년 출생) 본관은 함열(咸悅).

229) 강화읍 갑곶1리 갑곶마을이다. 갑곶나루와 제물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230) 이첨(1345~1405)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

다. 강화의 옛이름 갑비고차(甲比古次)가 나루의 명칭이 되었으니 어찌 ‘갑’이나 ‘고’가 아닌 줄 알 수 있었겠느냐. ‘고’와 ‘곶’자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 인조 정축년(1637)에 청나라가 침략하였을 때에 충신과 열사들이 싸우다가 많이 죽은 곳이다. 나룻가에는 제물진(濟物鎭)이 있었는데 그 진에는 만호(萬戶)가 있었다.

○ 또 유비창(有備倉)이 있었다.

○ 금의영(禁義營)²³¹이 있었다.

○ 나루 위에는 복파루(伏波樓)가 있었다.

○ 김창협(金昌協)²³²의 시는 다음과 같다. “눈속의 슬픈 노래에 갑곶진을 바라보니(雪裡悲歌望甲津) 북풍이 말에 불고 성곽에 이르네(北風吹馬到城闔) 영웅의 한맺힘을 창해가 못씻으니(滄海未洗英雄恨) 전쟁의 먼지에 눈물이 흐른다네(涕淚空沾戰代塵) 지금의 조정은 요새를 늘리니(今日朝廷增設險) 옛날부터 관방터는 사람을 기다렸네(古來天塹更須人) 태평한 세상이라 선장들도 쉬고 있고(時平臥穩樓船將) 위협에 처해서는 죽음을 불사해야지(寄語臨危莫愛身)”

○ 두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강화의 유수부는 천연의 요새지라(天險江都府) 바람과 연기가 진해문에 가득하네(風煙鎖海門) 돛대를 높이세워 누 밖으로 나가고(檣高出樓外) 조수가 밀려와서 성 밑에 이르네(潮滿到城根) 정축년의 한맺힘이 터전에 싸여있고(地積丁年恨) 갑곶의 원혼들이 봄날에 상심하네(春傷甲水魂) 구슬픈 노래에 격한 파도 약해지니(悲歌和擊汰) 저 늙은 교룡이 뒤집는 듯하다네(似有老

231) 금의영(禁義營)은 금위영(禁衛營)이 옳다. <속수증보강도지>권상 官署조에 ‘금위영은 갑곶진의 북쪽 복파루 문 안에 있다.’고 하였다.

232) 김창협(1651~1708)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안동.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

蛟飜)”

○ “섬인지라 새해에 기러기 일찍 날고(澤國新年起早鴻) 말을 타나
나 역시도 동풍을 거스르네(歸鞍吾亦溯東風) 성 주변엔 아지랑이 봄
바람에 움직이고(城邊野馬吹春動) 나루터에 얼음 풀려 바다 하늘을
마는구나(渡口氷漸卷海空) 세상사와 천기는 끝끝내 흘러가고(世事天
機終冉冉) 물정과 인의는 부드럽게 융화하네(物情人意也融融) 떠가는
저 배는 누대를 가리키고(舟移背指樓臺好) 꽃이 피는 시절에는 사찰
을 묻는다네(花發他時問梵宮)”

○ 정상규(鄭尙揆)는 정휴(鄭庠)²³³의 아들이다. 안산 부사로서 본
부에 부임하여 공도회(公都會)의 시관을 지낼 때에 이곳을 건너면서
느낀 것을 시로 지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강화의 형승은 동쪽
에서 으뜸인데(江都形勝冠東州) 오랑캐가 침략하게 한 것이 누구였던
가?(誰使胡鞭此斷流) 갑자년을 회고하니 옛 원한이 남아있고(甲子重
回餘舊恨) 산하는 그대로지만 갈수록 부끄럽네.(山河不變帶深羞) 성
과 해자 예부터 증축했다 하더라도(城壕自古雖增築) 잠근 것이 지금
같아 경작지가 되었구나.(鎖鑰如今更有疇) 지리와 인화는 맹자의 말
씀인데(地利人和鄒聖語) 주상께서 세밀하게 추구하길 바란다네.(吾王
竊願細推究)”

○ 이안눌(李安訥)²³⁴의 시는 다음과 같다. “진의 누는 멀리까지
바다를 누르고(鎭樓迢遞壓海梁) 초루문을 잠그니 성벽이 길구나.(鐵
鎖譙門石壘長) 한수가 내려 흘러 한 물결을 나누니(漢水北來分一派)
바다 하늘은 서쪽으로 삼면을 접하네.(海天西望接三方) 지세는 옛날
부터 견고한 요새라서(地勢自昔金湯險) 왕도는 지금처럼 빛이 나네.
(王道如今玉燭光) 난간에 앉아 부니 조수가 밀려오고(坐嘯曲欄潮滿

233) 정휴(1625년 출생) 자는 대경(大卿), 본관은 경주(慶州).

234) 이안눌(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港) 무수히 돌아온 배는 고기잡는 상인이라네.(無數歸帆雜魚商)”

○ 갑진(甲津)은 일명 동진(東津)이라고도 한다.

100. 갑성열초(甲城列譙)

長城一面水平鋪	장성의 한쪽 면은 물이 넓게 펼쳐있고,
列立譙樓盡畫圖	열 지어 선 문루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人去人來多指點	오고가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가리키니,
玲瓏額月耀江都	영롱한 둥근 달이 강도를 비추고 있네.

(甲城列譙 卽本府十景之一也 畫譙錯落 粉堞暎帶 極目上下 不但金湯之固甲於東方 亦近畿佳景之勝地也)

○ 갑성에 벌려진 초루들은 강화부 십경(十景)의 하나이다. 초루가 벌려있고 성이 어우러져 시야에 모두 들어오니 매우 견고할 뿐만아니라 동방에서도 으뜸이므로 근기지방에서는 매우 훌륭한 장소이다.

101. 이섭정(利涉亭)

漢水臨津合祖江	한강과 임진강이 조강으로 합해지고,
別流南坻泛篷窓	따로 흐른 남쪽 갈래에 거룻배를 띄웠네.
祇今利涉亭前月	이섭정 앞쪽에 떠오르는 저 달은
猶照李堂梅樹雙	이침 선생댁 한쌍 매화나무를 비추어 주고 있네.

○ 이섭정(利涉亭)은 갑곶진의 가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홍무 무인년(1398, 태종 7)에 이성(李晟)이 세웠다.
- 쌍매당(雙梅堂) 이침(李詹)²³⁵이 기문을 지었다. 그 기문에는 “한강과 임진이 합류하여 조강이 되어서 서쪽으로 바다로 달려가는데, 별도의 흐름을 갑곶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102. 진해사(鎭海寺²³⁶)

鎭海寺前綠草肥 진해사 앞에는 푸른 풀이 무성하고,
 曇雲慧月摠依迷²³⁷ 구름 속 밝은 달은 헤메는 듯 보이누나.
 寂然空場²³⁸無人掃 고요한 탑에는 사람 없이 비었는데,
 惟有山禽帶春飛 오로지 산새들만이 봄빛 띠고 날아가네.

- 갑곶나루의 서쪽에는 진해사(鎭海寺)가 있는데 예전에는 불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103. 제승곶(濟勝串)

濟勝串中多水聲 제승곶 가운데는 물소리만 요란한데,
 朝宗東入漢陽城 조선 조정 동으로 가 한양성에 돌아갔네.
 昔時何作無情物 옛적에는 어찌하여 그리도 무정했나,

235) 이침(1345~1405)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

236) 지금은 해운사(海雲寺)로 이름이 바뀌어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237) 구창서발문본에는 ‘迷’가 ‘穉’로 되어 있다.

238) 구창서발문본에는 ‘場’이 ‘塔’으로 되어 있다.

不濟朝鮮濟彼清 조선은 건너지 못했고 청나라는 건넜네.

○ 갑곶의 상류를 예전에는 제청곶(濟淸串)이라고 불렀다. 인조 정축년(1637)에 강이 얼어붙어 배가 다닐 수 없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져 청나라 군대가 건너왔다. 그러자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104. 오종도비(吳宗道碑²³⁹)

甲申津西石立崇	갑곶진 서쪽에 한 비석이 우뚝하니,
壬辰天將紀吳公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 오종도공을 기념했네.
峩峩浩浩山河氣	높고 넓은 강산 같은 당시의 기백,
永世同傳撫綏功	위무해준 공로를 영원토록 전하리니.

○ 선조 임진년(1592) 난리에 중국 절강(浙江)의 소흥부(紹興府) 사람 오종도(吳宗道)가 흠차관(欽差官)으로서 황명을 받들어 동쪽으로 왔다. 정유년(1597) 왜가 다시 침략하였을 때에 형개(邢玠)의 군문에 소속되어 수병을 이끌고 강화에 머물면서 주민을 보살피니 섬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여겼다. 그가 돌아갈 때에 강화도 사람들이 그를 생각해서 갑곶나루 위에 비석을 세워 떠나는 사람의 은혜를 표현하였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아아, 천군(天軍)의 강성함은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於鑠王師 聿遵海澨) 오공(吳公)의 밝고 정성스러움은 실로 그 군사를 장악하였도다.(顯允吳公 實掌其旅) 인의(仁義)가 가득 차고 울창하여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239) 본래 갑곶나루 진해루 안쪽 언덕 위에 있었으나, 2000년에 강화역사관 비석군으로 이전되었다.

(仁涵義○護○誦歌謳) 푸르고 서늘한 바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음과 같음이라.(譬彼青颺 是吹是煦)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목전(目前)에 두었으며,(拯我燎灑 措之衽席) 덮은 장막을 걷고 폭풍을 부려서 미치지 못하게 하였도다.(幘幘乍輟 颯馭莫及) 높은 귀부(龜趺)는 대로(大路)에 드러나 보이고,(巒嶮龜趺 表茲達路) 마니산은 높고 늠름하며 강물은 장대하다.(尼山峨峨 河水浩浩) 아아, 공의 아름다움을 만세에 걸쳐 사모하리라.(繫公之烈 萬世之慕)”

105. 삼충단(三忠壇²⁴⁰)

國事蒼黃昔丙丁	나라일 다급했던 지나간 병자·정축년 때,
諸公義烈劍頭汀	많은 사람 의열심에 창칼 들고 맞섰네.
表忠壇上青苔石	표충단 위 바위는 푸른 이끼 덮였는데,
點點如斑月日星	얼룩진 반점은 해·달·별처럼 빛나네.

○ 표충단(表忠壇)은 갑곶진 위 당고개(堂峴) 남쪽 산기슭에 있었다. 황선신(黃善身), 구원일(具元一), 강흥업(姜興業)이 순절한 곳이다. 처음에는 삼충단(三忠壇)이라고 하였다. 후에 동시에 죽은 이들을 함께 배향하여 제사를 지냈으니 파총 안몽상(安夢祥)·이참(李參), 초관 이사후(李嗣後), 기패관 이광원(李光遠), 출신 서언길(徐彦吉), 교사 고의겸(高義謙), 정병 차명세(車命世), 철곶침사 김득남(金得男), 수군 송영춘(宋榮春) 등 모두 9명이다.

○ 유수 이유(李瑜)는 그들이 순절한 날에 합동제사를 지내고 비

240) 구창서발문본에는 ‘表忠壇’으로 되어 있다.

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면서 표충단이라고 이름하였다.

○ 유수 정실(鄭宗)²⁴¹이 축문을 지었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한 때의 순절은 천고의 강령이네(一時殉節 千古樹綱) 제삿날에 이르러서 삼가 제물 올리나니(茲以夫日 敬薦豆觴)” 부일(夫日)은 『예기』에 “죽은 날이다.”라고 하였다.

106. 용정동(龍井洞²⁴²)

萬壽山南洞保明	만수산 ²⁴³ 남쪽에 보명동 ²⁴⁴ 이 있는데,
鬼然古廟赫然名	높다란 옛 사당에 빛나는 명성 있네.
李公去後雲仍在	이공이 가신 후에 후손이 이어져,
世世惟禪亭祀誠	대대로 정성 다해 제사를 지내오네.

○ 임진년(1592) 난리에 명나라 총병(摠兵) 이어매(李如梅)가 그의 아버지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樑)과 함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로 왔었다. 그 자손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이면(李勉)이라고 하는 자는 만수산(萬壽山) 남쪽 기슭 작은 마을에 와서 거주하였으므로 그 마을 이름을 보명동(保明洞)이라고 하였다. 영조가 이것을 듣고 그 터에서 영원백 부자를 제사지내주었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후손 이기혁(李基赫)²⁴⁵은 무과에

241) 정실(1701~1776)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공화(公華), 호는 염재(念齋).

242) 강화읍 용정리로, 용구물 용구말이라고도 한다.

243) 만수산은 당산이라고도 하며, 갑곶리에서 용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당고개라고 한다.

244) 보명동은 용구물 남동쪽에 있다.

245) 이기혁(1810년 출생) 자는 원서(元緒), 본관은 합천(陝川).

급제하여 병사를 거쳐서 관직이 한성 판윤(漢城判尹)까지 올랐다. 또 그 아들은 정평 부사(定平府使)를 지냈다.

107. 용정동 남궁공(南宮公*)

杏亭春色想南宮	행정(杏亭)에 봄빛 도니 남궁 선생 생각나네,
積累餘功折桂紅	공부를 많이 하여 과거에 급제했네.
諫藁猶存承政院	정사를 논의한 글들 승정원에 남아있으니,
愛君一念始而終	임금 사랑 한 생각은 시종여일 하였네.

○ 남궁갑(南宮鉞)²⁴⁶은 대대로 학문을 세습하여 철종 계유년(1854)에²⁴⁷ 강화부 도과(道科)에 합격해서 승정원 승지를 거쳤으며,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인 남궁명(南宮羹)²⁴⁸의 후손이다. 대사성 남궁침(南宮忱)²⁴⁹의 10대손이다.²⁵⁰

108. 용정동 황공(黃公*)

黃公白髮坐江東	백발의 황 선생은 강화 동쪽 사셨는데,
矜式吾鄉凜有風	우리 고장 본보기로 기품이 늠름했네.

246) 남궁갑(1820년 출생) 본관은 함열(咸悅).

247) 철종 재위기간에는 계유년이 없다.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남궁갑은 철종 5년(1854, 갑인)에 정시(庭試) 병과(丙科) 9위에 합격하였다.

248) 남궁명(1566년 출생)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요서(堯瑞).

249) 남궁침(1513~1567)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성중(誠仲)

250) 이 문장은 구창서발문본에 실려 있다.

歸思倘如陶令否 귀거래 생각한 건 도연명을 닮았는가,
放鷗明月亦開籠 흰 꿩을 놓아주니 밝은 달도 문을 여네.

○ 추포(秋浦) 황신(黃愼)²⁵¹의 후손 황호석(黃浩錫)은 강화부의 분교관(分敎官)으로서 능령(陵令²⁵²)을 여러 번 역임하고 돈녕부의 도정(都正)을 지냈으며 늙어서 이곳으로 돌아와 지냈다. 그 대략은 추포영당(秋浦影堂) 조의 주(註)에 보인다.

109. 장승동(長承洞²⁵³)

杏園端坐郭先生 행원(杏園)에 단좌하신 곽한익 선생은,
侍立彩衣三品榮 채의 입고 임금 모시는 3품 명예 누리셨네.
認是風聲傳世世 이런 명성 인정하여 세세토록 전해지니,
一門孝烈兩紅旌 한 문중에 효자·열녀로 두 정려문이 세워졌네.

○ 청주 곽씨인 선전관(宣傳官) 일송(一松) 곽한익(郭漢益)은 관직이 종3품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 곽원종(郭遠鍾)²⁵⁴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돈녕부의 도정을 지냈고, 그의 할아버지 곽치오(郭致五)는 효행으로 정려문을 내려 받았으며, 그의 고조 곽임도(郭林道)²⁵⁵은 사

251) 황신(1562~161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사숙(思叔), 호는 추포(秋浦). 정랑 대수(大受)의 아들이다. 성혼(成渾)과 이이(李珣)의 문인이다.

252) 능령은 왕이나 왕의 친족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맡은 종5품의 벼슬아치이다.

253) 장승동(長承洞)은 강화읍 옥림1리 장승마을이다. 도감골 서남쪽에 있으며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254) 곽원종(1874년 출생) 자는 복려(復呂). 본관은 청주(淸州).

255) 곽임도(1744년 출생) 자는 여유(汝游). 본관은 청주(淸州).

마에 합격하였다. 그의 조모 풍천 임씨(豐川任氏)는 열녀로써 정려문을 내려받았다.

110. 성정(星井²⁵⁶)

井星光彩耀姜門	우물별의 광채는 강씨 문중에 빛나는데,
銀杏樹前成一村	은행나무 앞쪽에 한마을을 이루었네.
世世簪纓承繼業	대대로 관직 올라 그 업을 계승하니,
至今高築讀書軒	지금도 책 읽는 집으로 높다랗게 세워져있네.

○ 성정(星井)은 일명 성천(星泉)이라고도 한다. 검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 별이 떨어져서 샘이 솟았다고 한다. 진주 강씨 강세필(姜世璉)은 음사로서 예빈시 주부를 지냈는데 처음으로 장령(長嶺)의 이곳에 들어와 살았고, 그 손자 강흥적(姜興績)은 침정을 지냈고 둘째 손자 강흥업(姜興業)²⁵⁷은 충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강흥적의 손자 강상무(姜尙武)²⁵⁸·강석무(姜錫武)²⁵⁹ 형제는 모두 진사였으며 또 그 아우 강익무(姜翼武)²⁶⁰는 우후를 지냈다. 또 그 아우 강수무(姜授武)²⁶¹는 관관을 지냈다. 강석무의 아들 강성좌(姜聖佐)²⁶²는 무인으로써 영변 부사를 지냈으며, 강성좌의 아들 강옥(姜頊)은 무인으로서

256) 강화읍 월곡리 성정(星井)마을로, 별우물·뿔우물이라고도 불린다.

257) 강흥업(1575~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 자는 위수(渭叟). 권필(權鞞)의 문인.

258) 강상무(1618년 출생) 자는 취지(就之). 본관은 진주(晉州).

259) 강석무(1622년 출생) 자는 석지(錫之). 본관은 진주(晉州).

260) 강익무(1625년 출생) 본관은 진주(晉州).

261) 강수무(1635년 출생) 자는 수지(授之). 본관은 진주(晉州).

262) 강성좌(1651~1696)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

영암 군수와 수안 군수를 지냈고 통진 부사로 있다가 경상좌도 수사로 올랐으며, 또 그 아우 강영(姜瑛)은 절제사를 역임하였다. 강욱의 아들 강계주(姜啓周)는 무인으로서 김해 부사까지 올랐다. 모두 4대가 통진 부사를 역임하였다.

111. 왕림동(旺林洞²⁶³)

復齋書榻向東城	복재 선생 글방은 동쪽성을 향해있고,
矜式吾鄉是弟兄	우리 고장 본보기는 이 두 분 형제라네.
若使國家收德器	만약에 국가에서 덕 높은 인재를 받아들일 때,
先庸此老播璜聲	먼저 이 노인을 썼더라면 명성이 퍼졌겠지.

○ 복재(復齋) 남궁호(南宮高)는 그 아우 남궁속(南宮濶)과 함께 이 왕림동에서 거주하였으니 모두 학행이 뛰어나 한 마을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여전히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였다. 부제학을 지낸 남궁찬(南宮璨)²⁶⁴의 13대손이며 대사성을 지낸 남궁침(南宮忱)의 11대손이며, 문과에 합격한 남궁성(南宮攄)의 증손이고, 진사인 남궁용(南宮鏞)의 조카이다.

263) 강화읍 옥림2리 왕림마을이다. 장승말 남쪽에 있으며, 왕림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264) 남궁찬(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여헌(汝獻), 호는 창랑(滄浪).

112. 왕림사 추포영당(秋浦影堂*)

旺林寺古在何邊	왕림사 옛 터는 어디쯤에 있는가,
秋浦影堂獨巍然	추포 선생 영당만이 홀로 우뚝 서 있네.
想是雲仍文蔭武	생각하니 후손들이 문무 관직에 나아가고,
鳴吾東國博淵泉	우리나라 울려 퍼져 깊은 덕성을 넓혔네.

○ 왕림사(旺林寺)는 고려 때의 절이다. 지금은 폐지되어 형체도 없지만 동네 이름만이 남아있다.

○ 추포(秋浦) 황신(黃愼)의 영당(影堂)이 이 동네에 있었는데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화상찬(畫像贊)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병처럼 맑디맑고 대처럼 곧다네.(炯如水壺 貞若竹筠) 백년의 기운은 한폭의 정신이라네.(百年間氣 一幅精神) 늠름한 절개에 바르고 큰 식견일세.(凜烈之節 正大之識) 어디서 취했는가? 주자의 학문이라네.(斯焉取斯 考亭之學)”

○ 장무공(莊武公) 지촌(芝村) 황형(黃衡)의 아들은 황원(黃瑗)이고, 황원의 아들은 황대수(黃大受)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선조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주서(注書)로서 잡저의 처소에 드나들었으며 그의 행동은 그 지키는 바가 탁월해서 여론이 매우 칭찬하였다. 장차 높이 쓰일 것을 기약하였는데 병조정랑으로서 영남도에 명을 받들고 가다가 죽었다.

○ 황대수의 아들 황신(黃愼)은 호를 추포(秋浦)라고 하였는데 일찍이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과 함께 우계(牛溪) 성훈(成渾)을 사사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성훈의 제자라고 하였다. 오윤겸과 황신은 진사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대성(臺省)에 들어갔으며 행동이 매우 곧아서 여러 소인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후에는 천장(天將) 접반사(接

伴使)로서 오래도록 웅천(熊川)의 왜영(倭營)에 있었다. 병신년(1596)에는 통신사로서 일본에 들어가 서해문(誓海文)을 지었다. 정유년(1597)에는 호남의 안찰사가 되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으며 능히 절의가 이름을 떨쳐 크게 중국의 도적들이 복종하는 바 되어 관직이 검호조판서체찰사(兼戶曹判書體察使)까지 올랐다. 광해군 때에는 이이첨(李爾瞻)에게 모함을 받아 죽음을 겨우 면해서 웅진(瓮津)에 유배되어 죽었다. 인조반정이 있는 후에는 우의정에 추존되었으며 문민(文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문민공의 아들 황일호(黃一皓)는 호를 지소(芝所)라고 하였는데 인조 을해년(1635)에 군수로서 과거에 합격하여 의주 부윤에 오르고 풍옥(風玉) 조수륜(趙守倫)²⁶⁵을 사사했는데, 주나라를 종주로 여기는 뜻으로 인해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잡혀가게 되었다. 인조가 천금(千金)을 들여서라도 구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단지 홀전만을 거행하였다. 좌찬성으로 추존되었으며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다. 부여의 의열사(義烈祠)와 운봉의 용암서원(龍庵書院)에 배향되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지어주었다. 강화부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 지소(芝所)의 증손 황사용(黃士用)은 오수당(悟修堂)이라 호를 하였는데 글씨를 잘 써서 세상에 유명하였다. 유수 황경원(黃景源)²⁶⁶은 ‘오수당기(悟修堂記)’를 지었다.

○ 지소의 현손 황경조(黃景祚)는 승지 황윤(黃玆)²⁶⁷의 증손이다. 장녕전의 참봉으로 동부(東部) 도사(都事)를 지냈다.

265) 조수륜(1555~1612)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경지(景至), 호는 풍옥헌(風玉軒)

266) 황경원(1709~1787) 조선 후기의 문신·예학자(禮學者).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

267) 황윤(1623년 출생) 자는 집중(執中). 본관은 창원(昌原).

○ 아술당(蛾述堂) 황진(黃璣)은 우암(尤菴)과 동춘(同春)을 사사하였으며 효도하는 마음을 오로지 하였고 창릉(昌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후에 지평에 추증되었다.

○ 쌍송당(雙松堂) 황하민(黃夏民)은 황진(黃璣)의 아들이다. 형 황하신(黃夏臣)²⁶⁸이 계묘년(1723)에 참화를 당하자,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섬으로 돌아와 다시는 갑곶진을 건너지 않겠다고 맹서하였다. 일찍이 오류천(五流川)에 거주하면서 대문을 닫고 손님을 사양하였다. 임진년(1772)에 경녕전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관직이 직산 현감에까지 이르렀다.

○ 황하민의 아들 황상경(黃尙敬)²⁶⁹은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황상경의 손자 황면철(黃勉喆)²⁷⁰은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13. 옥포동(玉浦洞²⁷¹)

紫紋村裡卜居閑	자문촌엔 사람들이 한가로이 사노니,
物外田園倚水山	속세 벗은 전원에서 산수에 기대 사네.
白髮青衫黃上舍	백발에 푸른 옷 입은 황복 진사는,
暮年詞賦動江關	나이 들어 시를 잘 지어 강화에서 유명했네.

○ 자문리(紫紋里)²⁷²는 옥포동(玉浦洞)의 작은 지명이다. 방촌(尙村) 황희(黃喜)의 후손 황복(黃馥)²⁷³은 예문에 정밀해서 사마시에

268) 황하신(1656년 출생) 자는 종명(宗明). 본관은 창원(昌原).

269) 황상경(1688년 출생) 자는 일경(一卿). 본관은 창원(昌原).

270) 황면철(1739년 출생) 본관은 창원(昌原).

271) 강화읍 옥립리와 월곶리에 걸쳐 있는 개울 옥개 옆의 마을이다.

272) 강화읍 옥립리의 도감골이다.

합격하였다.

114. 옥포동(玉浦洞) 황공(黃公*)

玉浦東邊海屋深	옥포 동편에는 바닷가 집도 깊은데,
黃公昔日炳丹心	그 옛날 황공은 충심으로 빛을 냈지.
務安後裔今司果	무안 현감 후예들은 사과 벼슬 올랐는데,
不遇衿懷寓酒斟	품은 뜻 때를 못 만나 술 마시며 지내네.

○ 황선신(黃善身)²⁷⁴의 정축년에 있어서의 충절은 충렬사 주(註)에 보인다. 그의 아들 황류(黃瑠)²⁷⁵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며 군수를 거쳐 가선대부 수군방어사에까지 이르렀다. 그 손자 황연(黃沆)²⁷⁶은 문과로써 무안 현감을 거쳤으며 그의 6대손 황시(黃時)은 무과를 하였지만 등용되지 않아서 술만 즐겼다.

115. 범우리(範圍里)

範圍里內是安居	범우리 마을에는 안씨들이 사는데,
柿葉桑枝左右廬	감나무와 뽕나무가 집주위에 늘어섰네.

273) 황복(1834년 출생) 자는 형백(馨伯). 본관은 장수(長水). 1894년 식년시 진사(進士) 3등으로 합격하였다.

274) 황선신(1570~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사수(士修).

275) 황류는 1651년 신묘(辛卯) 별시(別試) 병과(丙科) 88위로 합격하였다.

276) 황연(1680년 출생) 본관은 평해(平海).

老翁當晚投鋤坐 날 저물면 노인은 호미 놓고 앉아서,
戒兒勤讀古人書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훈계하네.

○ 범위리(範圍里)²⁷⁷)는 옥포동(玉浦洞)의 작은 지명이다. 강진(康津) 안씨(安氏)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

116. 월곶동(月串洞²⁷⁸)

鷺尾亭前鎮月移 연미정 앞에는 둥근 달이 기울어 가는데,
黃公舊屋別成規 황공의 옛집이 규모 있게 서있네.
一苞奇竹千松樹 기이한 대숲과 수천 그루 솔숲은,
認是當年種德基 그 당시 덕 베풀던 터인 줄을 알려주네.

○ 성종과 중종 때 창원 황씨 판서 지촌(芝村) 황형(黃衡)²⁷⁹)은 무로씨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번 전공을 세워서 관직이 공조판서에까지 올랐으며 일찍이 강화도로 물러나 거주하면서 월곶(月串)의 연미정(燕尾亭) 아래에다가 집을 짓고 종을 시켜 나무를 심었는데 수천 그루에 이르렀다. 어떤 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심느냐?”라고 말을 하자 지촌은 “후에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진년(1592) 난리 때에 첩병과 의병이 강도에 들어와 지켰는데 배와 목책들이 모두 마련되어서 모자람이 없게 되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멀리 보는 식견에 탄복하였다.

277) 범위리는 용구물 남동쪽마을로 범우리·범옹골·보명동이라고도 불린다.

278) 강화읍 월곶리로 예전에 월곶진(月串鎭)이 있었다.

279) 황형(1459~1520) 조선 전기의 무신.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언평(彦平).

○ 월곶에 진을 설치한 후에는 옛 집터를 진(鎭)의 관아로 삼았다. 지금 이미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새집처럼 견고하였다. 서로 전하기를 “바꾸려고 하면 재앙이 들었다. 섬돌 아래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지촌이 직접 심은 것이다. 마도(馬島)에서 군대를 돌릴 때 옮긴 것이다.”라고 한다. 공은 휘가 형(衡)이며 시호가 장무(莊武)이다.

117. 연미조범(鵞尾漕帆)

鵞尾亭高二水中	연미정 높이 셋네 두 강물 사이에,
三南漕路檻前通	삼남지방 조운 길이 난간 앞에 통했었네.
浮浮千帆今何在	떠다니던 천 척의 배는 지금은 어디 있나,
想是我朝淳古風	생각건대 우리나라 순후한 풍속이었는데.

○ ‘연미정 조운선의 돛대’는 강화부 10경(景)의 하나이다. 삼남 지방의 조운선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모두 이 정자 앞을 경유하면 이것이 큰 볼거리였다. 지금도 정자가 여전히 있지만 조운선은 폐지되었다.

118. 대묘동(大廟洞²⁸⁰)

莊武祠傳大廟村	장무사는 대묘촌에 전하여 오는데,
在前列屋摠雲孫	앞에 있는 열 지은 집에 후손이 모여 사네.
枝枝葉葉春風氣	가지마다 잎새마다 봄바람 기운 가득,

280) 강화읍 월곶리의 대묘마을로 대목골이라고도 불린다. 고려 강화도읍기에 대묘를 두었다 전한다.

盡帶皇天雨露天²⁸¹) 모두 다 왕실의 은혜를 입었을 터.

- 대묘동(大廟洞)은 고려 때에 사당을 세운 곳이다.
- 지촌(芝村) 장무공(莊武公) 황형(黃衡)의 사당이 이곳에 있고 그 자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 장무공 황형의 아들 황침(黃琛)은 무과에 급제해서 관직이 한성 관윤을 지냈다. 황침의 동생 황기(黃琦)²⁸²는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이 경기 관찰사까지 이르렀다. 황기의 아들 황치경(黃致敬)²⁸³은 황침의 후사가 되었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전라 감사를 지냈다. 황치경의 아들 황수(黃瀾)²⁸⁴는 문과에 급제해서 목사를 지냈고 ‘진해루 상량문’과 ‘강화부 향안문’을 지었다. 황수의 아들 황호(黃扈)²⁸⁵는 호가 만랑(漫浪)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성까지 이르렀고 그의 문집이 세상에 유포되어 있다. 지금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문과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거나 진사,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119. 고성당동(高聖堂洞²⁸⁶)

高聖堂前近海門 고성당 앞 쪽은 해문에 가까운데,

281) 구창서발문본에는 ‘天’이 ‘愿’로 되어 있다.

282) 황기(1498~1539).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중운(仲韞). 공조판서 형(衡)의 아들이다.

283) 황치경(1554~162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이직(而直), 호는 몽죽(夢竹).

284) 황수(1587년 출생) 자는 행원(行源). 본관은 창원(昌原). 목사를 지냈다.

285) 황호(1604~165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자유(子由), 호는 만랑(漫浪).

286) 강화읍 율곡리 북쪽 해안가에 있는 고성동마을이다.

黃翁白髮坐松軒 백발의 황옹이 松軒에 앉아 있네.
 閑言此土其風好 이 땅은 풍수가 좋다고 말들 하니,
 曾是林溪學士村 일찍이 임계선생의 학사촌이 있던 곳이네.

○ 부사 백죽(白竹) 윤계(尹槩)²⁸⁷는 두 아우 윤집(尹集)²⁸⁸, 윤유(尹柔)²⁸⁹와 함께 이곡(高聖堂洞)서 살았다. 윤계는 강화부의 과거를 거쳐 남양부사를 지냈고, 병자년(1636)에 죽었다. 아우 임계(林溪) 윤집은 교리의 관직에 있으면서 청나라와의 화의를 배척하다가 정축년(1637)에 죽었다.

○ 지금은 창원 황씨들이 살고 있다.

120. 양양곡(襄陽谷²⁹⁰)

姜公舊第地襄陽 강공의 옛 집은 양양골에 있는데,
 楣上紅旌玉署香 문 이마의 붉은 정려 귀한 글씨 향기 나네.
 荷國龍光今正尉 나라의 은총 입어 지금은 정위 벼슬,
 南征西守晚歸鄉 남쪽 정벌 서쪽 수비 마치고 늘그막에 고향 왔네.

○ 진사인 진주 강씨 강시(姜愷)²⁹¹의 아들 강응생(姜應生)²⁹²은

287) 윤계(1583~1636)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

288) 윤집(1606~1637)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289) 윤유(1616~1644)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강백(剛伯), 호는 농아(聾啞).

290) 월곶리 양골 마을이다.

291) 강시는 1546년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 21위로 합격하였다.

292) 강응생(1552년 출생) 자는 시망(時望). 본관은 진주(晉州).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강응생의 아들 강위빙(姜渭聘)²⁹³은 정축년(1637)에 순절하였다. 이 일은 충렬사 주(註)에 보인다. 강위흥(姜渭興)은 진사를 지냈다. 강위흥의 아들 강학(姜鬻)²⁹⁴는 문예로써 진사에 합격하고 과거에도 합격하여 일찍이 영원군수를 지냈다. 인조 병자년(1636) 난리에 이웃 고을과 약속하고는 적을 막고 물리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군대를 소집하기도 전에 적군이 몰려들어 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강학(姜鬻)의 증손 강시겸(姜始謙)은 진사이고 강학의 형 강익(姜翌)은 무과로서 선전관을 지냈다. 강학의 7세손 강대흠(姜大欽)이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정위를 지냈다. 그는 남쪽으로는 제주목사를 지내고 서쪽으로는 해주목사를 지냈다. 그는 지금 귀향하여 살고 있다.

○ 강위빙의 아우 강위재(姜渭載)는 임피(臨陂) 현감을 지냈고 그의 아들 강수남(姜壽楠)은 인지(麟趾) 현감을 지냈다.

○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은 정자(正字) 강학(姜鬻)에게 벽상시(壁上詩)를 지어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진양의 후손이 강화에 살고 있는데(晉陽才子住江城) 공부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 않네(問字曾勞載酒行) 벼슬을 하기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本向庭闈叨地主) 사와 부에 의지한 문생이라 하였네(敢憑詞賦號門生) 을묘년에 첫 번째로 의발을 전수하니(乙卯第一傳衣鉢) 동갑 모임에 처음부터 형제를 맺었다네(庚契從初結弟兄) 밥먹다 홀연이 난리일을 생각하니(寄食忽思遭亂日) 두 집안의 지금까지 백년의 정이라네(兩家終始百年情).”

○ 두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 몽진하던 사건을 생각하니(憶昨鸞輿避虜塵) 외론 신하 이 강가로 걸어서 왔다네.(孤臣徒步此江

293) 강위빙(1569~1637) 본관은 진주. 자는 백상(伯尙), 호는 서호(西湖).

294) 강학(1601년 출생) 자는 군백(君白). 본관은 진주(晉州).

濱) 파란 파와 흰 밥이 서로 땅을 찾으니(靑蔥白飯相尋地) 자주빛 말
 붉은 옷이 다시 몸을 일으키네.(紫馬朱衣再起身) 향촌 노인 함께 살
 며 오늘을 공경하니(鄉叟共生今日敬) 나그네 길 일찌감치 우리 집에
 머무네.(旅程曾被我家嗔) 전후로 그대 대하니 진실로 낮빛이요(對君
 前後眞顏色) 한 번 저무니 인간 만사 새롭구나.(一暮人間萬事新)”

○ “되박만한 작은 집 무릎은 들어가니(小齋如斗膝湛容) 그윽한 새
 소리에 깊은 낮잠 드는구나.(幽鳥聲中午睡濃) 달빛에 들관 끊겨 밝은
 것은 한 구비요(野斷江光明一曲) 산에는 나무 그늘 지는데 어두움이
 천겹이네.(山回樹影暗千重) 이슬 내린 동쪽 계단에 새롭게 대 자르니
 (東塔露浥新栽竹) 북쪽 산 오래된 나무에 바람이 부는구나.(北塢風生
 舊植松) 임금 알현 그만두고 귀향해서 쉬자니(官罷見君歸臥穩) 벼슬
 하는 생활보다 진실로 낫다네.(眞勝抱笏趨曉鍾)”

121. 선학곡(仙鶴谷²⁹⁵)

谷鳥翩翩仙鶴村	골짜 새들 날아 오른 선학촌 골짜기엔,
曾是金公卜居爰	일찍이 김공이 자리 잡고 살던 곳.
府留瓊韻雙詩板	강화유수 지은 시구 두 판에 새겨있고,
收得風烟入此軒	風煙을 거둬들여 이 집으로 들어가네.

○ 강릉 김씨 김수창(金睡窓)의 증손 김명호(金命浩)는 선학동(仙鶴洞)에서 살면서 ‘학곡유거(鶴谷幽居)’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유수 심성진(沈星鎭)²⁹⁶이 현관에 시를 지어주었다. “동갑내기 벗님을 보기 위

295) 강화읍 율곡리 3반·4반 일대로, 고성당 서쪽 마을이다.

296) 심성진(1659년 출생) 지는 시서(時瑞) 본관은 청송(靑松).

해(爲見同庚友) 학동의 집으로 찾아갔다네.(來尋鶴洞家) 돌 밭 허름한
지붕 아래에(石田茅屋下) 백발되어 담백하게 살고 있네.(白髮淡生涯)”

○ 유수 김상익(金尙翼)²⁹⁷이 ‘학촌정사(鶴村精舍)’에 제하여 8경(景)을 읊어서 주인인 족형에게 준 시는 다음과 같다. “산의 기운 고요하니 비단으로 글을 써서(山氣微霏錦作文) 고운 산에 하늘열려 황혼에 아름답네.(天開麗岳媚斜曛) 오두의 달에 상아 돛대 비추고(牙檣隱映鰲頭月) 연미 구름에 피리를 비껴 부네.(畫角橫吹燕尾雲) 동쪽 밭 찬 소리에 여인네 채취하고(東陌寒聲樵女採) 서쪽 밭 새벽 빛에 남정네 김을 매네.(西疇曉色鎰夫耘) 감나무 숲 어찌 홀로 후손에게 물려줄까(柿林豈獨貽孫計) 나무 심고 자식에게 근면함을 가르치네.(手植庭槐教子勤)”

122. 소산리동(小山里洞²⁹⁸)

小山叢桂管何人	소산리 계수나무 숲은 그 누가 돌보는가,
招隱歌中客意新	초은의 노래 소리에 나그네 뜻 새롭구나.
唯有村翁知務本	시골 노인 오로지 농사에 힘쓸 줄 알아,
賣絢賣草未全貧	새끼 꼬고 이엉 엮어 팔아 가난하지는 않다네.

○ 지명 소산(小山)은 <회남자>의 ‘소산 총계로 은사를 불러 샅았다.[叢桂招隱]라는 짓귀에서 연유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다. 겨울과 봄 사이에 새끼를 꼬고 풀을 덮어서 시냇에 갔다 팔아서 생업을 돕는 이들이 많았다.

297) 김상익(1699~1771) 본관은 강릉. 자는 사필(士弼).

298) 강화읍 대산1리 소산마을로 송학골 위쪽에 있다.

 송정면(松亭面)
123. 낙성동(樂城洞²⁹⁹)

神城洞口聽農歌	신성동 입구에 권농가가 들리는데,
頭着黃冠背着簑	머리에 황관 쓰고 도롱이를 등에 졌네.
相語今年糧道足	금년 양식 풍족하다 서로들 말을 하고,
前冬結網受錢多	지난 겨울 그물뜨기로 돈도 많이 벌었다네.

○ 송정면(松亭面)은 강화부 관아의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낙성동(樂城洞)은 옛날에는 신성동(神城洞)이라고도 했다. 낙성돈(樂城墩) 낙성포(樂城浦)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물을 짜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124. 솔정동(率亭洞³⁰⁰)

率亭洞裡土多居	솔정동 마을에는 선비가 많이 살아,
鋤罷西疇坐讀書	호미질 끝내고 밭두렁에 앉아서 책을 읽네.
床頭橫張蒲席械	상머리에 부들 짜는 기계를 놓았으니,
箇中經緯識何如 ³⁰¹	그 중에 씨줄 날줄 있는 줄을 어찌 알았을까.

299) 강화읍 대산리 납성개 옆 마을이다. 납성개를 한자로 표기하여 신성포(申城浦)라 하였는데, 신성포(神城浦), 낙성포(樂城浦)로도 불렸다.

300) 송해면 솔정리 삼거리 근처로,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송정, 솔제이라고 불렸다.

301) 구창서발문본에는 ‘如何’로 되어 있다.

○ 송정(松亭)을 솔정동(率亭洞)이라고 하는데 강화부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10리되는 곳에 있다.

○ 제주 고씨 고숙(高愍)은 우리 할아버지 대제학 영곡공(靈谷公)의 13대손이다. 영곡공의 증손 고인상(高仁相)³⁰²은 문과에 급제하여 경기 관찰사를 지냈다. 일찍이 지공거(知貢舉)로서 시험답안이 불타는 일에 연루되어 본부의 진강(鎭江)으로 유배되어서 이쪽에 머물러 살았다. 묘가 매음도(媒音島)³⁰³에 있다. 후손들이 이 동네에 사는데 관찰사의 손자 고자원(高自元)은 진사였다. 진사의 증손은 고상직(高尚稷)·고상설(高尚說)인데 모두 무과를 합격하였다.

○ 전의 이씨·양성 이씨·전주 이씨·강진 안씨 등이 이곳에 많이 살면서 밭 갈고 배 짜고 돛자리를 짜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다.

125. 숙룡교(宿龍橋³⁰⁴)

麗山水出向東流	고려산 계곡물이 동쪽 향해 흐르고,
亘一橋龍駕浦頭	‘용’다리 걸쳤으니 포구의 어가로다.
北望崇陵何處是	북쪽의 숭릉은 어디에 있는지,
九疑雲影滿天浮	의심 많은 구름들이 하늘 가득 떠있네.

○ 숙룡교(宿龍橋)는 송정(松亭) 앞의 포구의 다리이다. 다리 상하 좌우가 모두 넓은 들이다.

302) 고인상(1620년 출생) 본관은 제주(濟州). 1651년 별시(別試) 을과(乙科) 20위로 합격하였다.

303) 삼산면 매음리이다.

304) 송해면 송뢰리의 숙룡머리에 있는 다리이다.

○ 사람들이 전하기를 “다리 북쪽에는 고려 때에 승릉(崇陵)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은 승릉교(崇陵橋)였다고 한다. 불교(佛橋)와 하교(蝦橋)가 이 근처에 있다.

126. 뇌곶동(雷串洞³⁰⁵)

御來峴上渚雲垂	어래현 위쪽의 물안개가 드리운 곳은,
三百年前殿坐基	삼백 년 이전에 임금 머문 터였네.
雷串洞人猶仰慕	뇌곶동 사람들이 아직도 우러러보기에,
至今不敢起耕菑	지금껏 목히 밭을 일굴 생각 못한다네.

○ 뇌곶(雷串)은 돈대 뒤에 있다. 인조 정묘년(1627)에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 임금의 가마가 임시로 자리했던 터가 있고, 그 남쪽에 임금이 오신 고개인 어래현(御來峴)이 있다. 주민들이 지금도 전좌기(殿座基)라 부르며 감히 개간하거나 경작하지 못한다.

127. 승릉동(崇陵洞³⁰⁶)

宿龍橋下雨來村	승룡교 아래쪽에 우래촌이 있는데,
列柳枝枝拂短垣	늘어선 버들가지 낮을 담을 쓸고 있네.
曾有年兄居此地	일찍이 내 형님이 이곳에 살았는데,
春風歸自杏花園	봄바람이 살구나무정원에 저절로 돌아오네.

305) 송해면 승뢰리 우뢰(雨雷)마을이다. 어래현은 돌기와집 뒤의 낮은 고개이다.

306) 송해면 승뢰리 승릉다리의 북쪽 마을이다.

○ 우래촌(雨來村)은 작은 지명이다. 진주(晉州) 유씨(柳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유인근(柳仁根)³⁰⁷은 나와 연방(蓮榜)을 함께 하였기에 형이라 부른다.

128. 포촌동(浦村洞³⁰⁸)

在昔壬辰一劫當	그 옛적 임진년에 왜적의 침입 받아,
腥塵八路共淒涼	사방팔방 피비린내로 모두가 처참했네.
最奇此地松汀字	이 지역 ‘松汀’ 글자 가장 기이하였으니,
能退夷兵百萬疆	백만의 오랑캐를 거뜰히 물리쳤네.

○ 선조 25년 임진년(1592)에 왜구가 송정(松汀) 배를 대고 그 곳의 지명을 묻기에 ‘송정’이라 대답하니, 곧바로 떠나고 상륙하지 않았다. 대개 그 동쪽으로 들어올 때 ‘송(松)’ 자를 만나면 반드시 패하는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다.

○ 송정(松亭)은 일명 송정(松汀)이다.

307) 유인근(1842년 출생) 자는 성배(聖培). 본관은 진주(晉州).

308) 송해면 송뢰리 송정 포구가 있던 마을.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의 필지가 작은 면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예전엔 시설 밀집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해면(三海面³⁰⁹)
129. 당산동(堂山洞³¹⁰)

須到堂山披晚霞	당산리에 이르니 저녁노을 퍼져있고,
李安許朴樞比家	이씨 안씨 허씨 박씨네 집들이 즐비하네.
一條長路昇天府	한 갈래 긴 길은 승천부로 이어지고,
半是蒼松半是花	절반은 푸른 소나무 절반은 꽃이로다.

○ 삼해면(三海面) 당산동(堂山洞)은 강화부 관아의 서북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승천포(昇天浦)에 이른다.

○ 홍주(洪州) 이씨인 진사 이윤중(李允中)³¹¹의 증손 이현필(李賢弼)과 강진 안씨와 양천 허씨 그리고 권관 반남 박씨 진사 박제형(朴齊衡)의 자손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다.

130. 승천포(昇天浦³¹²)

昇天浦口問歸船 승천포 나루에서 돌아가는 배 물어보니,

-
- 309) 현재는 송해면에 편입되었다. 송정면과 삼해면이 합하여 송해면이 되었다.
 310) 송해면 당산리 당산 마을로, 당집이 있던 당산 아래에 있다.
 311) 이윤중(생물년 미상) 조선 후기의 사인. 본관은 홍주(洪州). 호는 신재(愼齋). 문간공(文簡公) 이서(李舒)의 후손으로 강화에서 태어나, 일찍이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 강화 송해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냈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저서《포상만록(浦上漫錄)》이 있다.
 312) 송해면 당산리 당산 동쪽에 있던 포구이다. 고려 때 개경으로 건너가는 나루터였다.

或指開城或漢川 어떤 것은 개성이요 어떤 것은 한강을 가리키네.
 念昔高皇麾二將 옛적에 태조께서 두 장수 거느리고,
 倭氛掃盡此津邊 왜구를 소탕한 곳이 바로 이 나룻가네.

○ 고려 우왕 4년 무오년(1378)에 우리 태조 고황제(高皇帝)와 최영(崔瑩), 양백연(楊伯淵)이 승천부(昇天府)에서 왜병(倭兵)을 크게 격파하였다.

○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이 이곳을 건너면서 시를 지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바람 물결 모질어 막지도 못하는데(遮莫風濤惡), 호기를 부리는 손과도 같지 않네(無如客興豪). 파란 하늘은 작은 돌에 기대 있고(青天歛片石), 하이얀 저 눈은 봄 옷을 씻는구나(白雪洒春袍). 고래악어 보고서는 크게 한 번 웃어주고(一笑看鯨鱷), 술내오라 명하고서 노래를 부르네(長歌命酒醪). 외로운 배 아무리 실세했다 하지만(孤槎縱失勢), 저 높은 하늘을 해치지는 못하네(未害上天高).”

○ 포음(圃陰) 김창집(金昌緝)의 시는 다음과 같다. “마니산을 나막신 신고 가고(摩山收蠟屐) 승천포 가에서 고기를 낚는구나.(昇浦上漁舸) 지는 해에 초루가 작아보이니(落日華譙小) 봄바람에 푸른 바다 높구나.(春風碧海高) 배 지나니 악어가 놀라고(揚帆驚怒鱷) 배 멈추니 높은 파도 밀려오네.(散帙信飛濤) 집안의 경계를 범할지라도(縱犯垂堂戒) 내 길에서 스스로 호기 부리네.(吾行也自豪)”

131. 궁곡(矜谷³¹³)

矜谷來留客馬羈	궁곡에 다다라서 나그네 발길을 멈추니,
依然春色舊遊時	봄기운 의연하네 옛적에 놀던대로.
薔薇花下金韓老	장미꽃 아래서 김씨 한씨 노인 둘이,
情話慙慙日影移	은근한 정담으로 해가 저물어가네.

- 궁곡(矜谷)은 당산동(堂山洞)의 소지명이다.
- 해풍군(海豐君)의 후예인 대장(大將) 김영(金瑩)의 족손인 김씨와 청주인 삼괴정(三槐亭) 한경린(韓景麟)³¹⁴의 후손인 한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132. 상도동(上道洞³¹⁵)

上道村前春水生	상도촌 앞에는 봄물이 불어나고,
洪崖琥谷近郊程	홍애부락 호박골이 가까이 자리했네.
李金各倚東西壟	이씨와 김씨네가 동서 뚝 사이에 살며,
夜織茵紋晝出耕	밤에는 돛자리 짜고 낮에는 농사짓네.

- 상도동의 동쪽의 호박골(琥珀谷)³¹⁶에는 대흥 이씨(李氏)들이 살고 있고, 서쪽의 홍애촌(洪崖村)³¹⁷에는 광산 김씨(金氏)들이 살고

313) 송해면 당산리 금곡마을이다.
 314) 한경린(1544년 출생) 자는 중진(仲振). 1582년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6위로 합격하였다.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지냈다.
 315) 송해면 상도리이다.
 316) 송해면 상도1리로 홍의 마을 동쪽에 있다.

있다. 모두들 부지런히 농사짓고 자리 찌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133. 하도동(下道洞³¹⁸)

石洲卜宅五流川	석주선생 오류천 ³¹⁹ 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陂上櫻桃幾百年	언덕 위의 앵두나무 몇 백 년이 되었는가.
讀罷碑文如復見	비문을 읽고 나니 다시 선생을 보는 듯,
羹牆遺意士皆然	우러러 사모하는 뜻 선비라면 모두 같네.

○ 석주(石洲) 권필(權韜)³²⁰은 절개와 행실을 같고 닦아서 벼슬길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 번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광해군 때에 궁류시(宮柳詩)에 연좌되어 해를 당하고서 이곳 오류천(五流川)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에 소유동(小有洞) 앵도파(櫻桃坡)와 반환정(盤桓亭)이 있었는데 지금도 명칭이 전해진다. 사손(嗣孫) 권적(權楫)이 강화부의 유수가 되었을 때에 그 유허에 비를 세워 기문을 지었다. 그 기문은 다음과 같다. “강화부 서쪽 오리천은 석주 선생의 유지이다. 선생의 휘는 필(韜)이요 자는 여장(汝章)으로 습재 선생 권벽(權擘)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고, 계부(季父)

317) 송해면 상도2리로 홍의(紅衣), 홍해(紅海)라고도 불린다.

318) 송해면 하도리이다.

319) 송해면 하도2리 오류내 마을에서 다섯 개울물이 합해져 바다로 흘러간다. 오리천(五里川)이라고도 한다.

320) 권필(1569~1612) 조선 중기의 문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생원부군 휘 별(撤)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뜻이 없어 포기하고 관직에 제수되어도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세상의 번거로움을 피해 이곳에 집을 짓고 거주하니 원근의 학자(學子)들이 선생의 명성을 듣고 다투어 몰려들어 구의(摠衣 ; 옷을 걷어 올려 존경을 포함)로 가르침을 청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선생은 나날이 가르쳐 성취시키는 것을 일로 삼았고, 때때로 시를 읊으며 스스로 소일하여 늙음에 이르는 것도 알지 못 하였다. 수년간 거하였는데 강화유수가 재물에 빠져 아비를 시해한 옥사를 관대히 처결하자, 선생은 소를 올려 그 죄를 바로잡았고, 드디어는 이곳을 떠나 현석강으로 돌아가 살았는데 스스로 호하여 석주(石洲)라 하였다.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공이 일찍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문사를 엄선할 때 선생은 유생으로 참여하였다. 임진왜란 때 죽창 구용(具容)과 함께 화친을 주장하는 두 상신을 참수할 것을 청하는 글을 써 올렸다. 이이첨(李爾瞻)을 남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담을 넘어서 피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 4) 무옥(誣獄)에 궁류시(宮柳詩 ; 광해군 비 유씨의 아우 柳希奮 등 척족들의 방종을 비방한 시)로 연좌되어 화를 입었으니 간악한 무리들의 모해로 그렇게 된 것이다. 계해년(1623, 인조 즉위년) 인조의 개옥(改玉·왕은 佩玉으로 즉법을 고침, 인조반정을 이름)에 이르러 선생에게 지평을 추증하고 그 후사를 관직에 채용하니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다. 선생은 자질이 매우 뛰어났고 안으로 행실이 심히 조신하셨으며 염락(濂洛)³²¹의 여러 책을 읽어 그 견해가 두루 통하여 밝았다. 또한 도학정맥(道學正脈) 한 편을 저술하였으니 그 초(抄)하고 평(評)함이 자세하고 적절하니, 문장을 짓는 일은 실로 여가의 일인데, 세상에서 선생을 아는 이들은 다만 시를

321) 중국 송대 성리학의 두 계파로, 염은 염계의 주돈이, 낙은 낙양의 정호·정이를 이른다.

잘 한다고만 알고 깊이 쌓인 것을 다 살피지 못하니 역사 아는 것이 천박하다. 불초한 제가 무오년(1738, 영조 14) 가을, 강화부에 부임하여 선생의 유거(遺居)를 내방하니, 황폐한 집터며 부서진 섬돌들은 오히려 이곳이 유거임을 판별하게 한다. 반환정(盤桓亭), 앵도파(櫻桃坡), 소유동(小有洞) 등 여러 명승지는 선생의 시집 중에서 지칭한 곳이며, 또한 고로(古老)들도 가리켜 전해져 설명한 곳이기도 하다. 상하의 두 연못에 이르러서는 지금은 벼논이 되어 옛날의 맑은 물결이 없어, 배회하며 쓸쓸한 감상을 억제할 수 없다. 드디어 초당 옛터에 짧은 표(表)를 세워 사실을 간략히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알리노니 이 역시 선생을 경모하고 추념하는 뜻이 깃든 것이다. 나를 뒤이어 오는 사람이 만약 더욱 뜻이 있어 이를 보호하여 비문이 벗겨져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면 어찌 비단 자손들만의 사사로운 다행이겠는가.”

하음면(河陰面)

134. 하음면(河陰面³²²)

冬音奈縣卽河陰	옛적의 동음나현 오늘의 하음이니,
麗代傳名尙到今	고구려 때 전한 이름 오늘에 이르렀네.
屹彼鳳頭山上石	높다란 봉두산의 꼭대기에 있는 돌은,
烽烟銷盡海雲沈	봉수 연기 없어졌고 구름 속에 잠겨있네.

○ 하음면(河陰面)은 유수부 관아의 북쪽 20리 지점에 있다.

○ 옛날의 하음현(河陰縣)은 고구려 때에는 동음나현(冬音奈縣)이었다. 또 우고(芋高)³²³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 해구(海口)로 고쳤고 고려 때에는 하음(河陰)으로 고쳐서 불렀다. 그 옛 터에는 봉두산(鳳頭山)이 있고 방장대석(方丈埴石)이 있으니, 대체로 신라와 고려 때의 옛 유적이다. 조선에 와서 봉수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135. 신촌동(新村洞³²⁴)

新村洞口樹多陰	신촌동 입구에는 숲이 많이 우거졌고,
金老恒遊道德林	김씨 노인 언제나 도덕의 세계에서 노닐었네.
勉使兒孫勤講讀	부지런히 책 읽으라 아이들을 독려했고,

322) 본래 하음현이 있던 곳으로, 신촌·장정·부근·양오의 4개 동을 관할하였다.

323) 《고려사》 지리지에는 ‘아음(芽音)’으로 되어있다.

324) 하점면 신봉1리 새말이다.

滿床皆是古人箴 옛 사람 잠언이 책상에 가득했네.

○ 청풍(淸風) 김씨 정우당(淨友堂) 김식(金湜)³²⁵의 후손이 이 마을에 많이 살고 있다.

136. 봉가지(奉哥池³²⁶)

雲龍直上奉哥池	구름 탄 용 봉가지에서 수직으로 올라갔고,
中有浮函出有兒	떠오른 상자 속에 아이가 있었다네.
年代杳然難可攷	연대가 아득하여 고증하긴 어렵지만,
閣留眞像一巖奇	바위에 새겨진 모습 건물 안에 남아있네.

○ 강화부의 서북쪽으로 봉가지(奉哥池)가 있는데 전하기를 “용이 올라가서 못이 되었다. 못에서는 석함(石函)이 있어서 물에 떠서 저 절로 나왔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두어 길렀다. 이것으로 인하여 봉(奉)을 성(姓)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대개 받들고 지킨다는 뜻인데, 그 연대는 살필 수가 없고, 바위에 새긴 그 형상이 각(閣) 속에 있다.

325) 김식(1482~1520) 조선 중종 때의 문신·학자.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노천(老泉), 호는 사서(沙西)·동천(東泉) 또는 정우당(淨友堂).

326) 봉가지는 하점면 부근리 420번지에 있다.

137. 부근동(富近洞³²⁷)

麗山峯壑赴河陰	고려산 봉우리와 골짜기는 하얗게 다다르고,
富近村間碧繞林	부근리 마을이 푸른 숲에 둘러있네.
坐讀農書黃主政	농서를 즐겨 읽는 황봉희 주시는,
戒令後學守恒心	항상심을 지키라고 후학들을 가르치네.

○ 부근동(富近洞)에는 창원 황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황봉희(黃鳳熙)는 일찍이 주사(主事)를 역임했는데 근검한 풍도로써 자제들을 가르쳤다.

138. 장정동(長井洞³²⁸)

西上雲山二里餘	서쪽으로 2리 떨어진 구름 낀 산 올라가니,
聽鷄忽覺有人居	닭소리에 문득 깨닫네 사람 사는 마을임을.
乃知長井眞仙境	그리고 또 알겠네 장정리가 선경임을.
龔世閑翁掛短鋤	세속 일에 귀막은 노인이 호미를 걸고 있네.

○ 장정동(長井洞)에는 종가(鍾哥)가 많이 살고 있어서 종촌(鍾村)이라고도 한다.

327) 하점면 부근리이다.

328) 하점면 장정리이다.

139. 양오리(陽五里³²⁹)*)

陽五里村水石奇	양오리 마을에는 수석이 기이한데,
三家相接短松籬	세 성씨 모여 살며 소나무로 울타리 쳤네.
乃知文武多兼備	문과 무를 겸비한 집안임을 알겠으니,
盡是聖朝簪紱垂	모두가 조정에서 높은 벼슬 하였다네.

- 청주 한씨 삼괴정(三槐亭) 한경린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광산 김씨 김명현(金命鉉)은 무관으로서 인화권관(寅火權官)이 되었으며 양성(陽城)으로 승차하였다.
- 영월 신씨 백록(白麓)의 후손인 신성묵(辛成默)은 문과에 합격해서 시독경, 지제교, 대홍군수를 역임하였다.³³⁰⁾

329) 송해면 양오리이다.

330) 1890년(고종27) 경인(庚寅)에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합격하였다. 지제교와 대홍군수를 역임 사실은 구창서발문본에 실려있다.

 북사면(北寺面³³¹)
140. 산이포동(山里浦洞³³²)

山里浦前水色連	산이포 앞쪽은 바닷물에 닿아 있어,
漁歌一曲去來船	오고가는 배에서 고기잡이 노래곡조.
家家揭網家家酒	집집마다 그물 걸고 집집마다 술 담그니,
笑道延坪是貨泉	‘연평길은 재화의 샘’이라고 웃으며 말하네.

○ 북사면(北寺面) 산이포동(山里浦洞)은 강화부의 서북쪽 30리 지점에 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잡이의 배로 생업을 잇고 있다.

141. 철곶동(鐵串洞³³³)

鐵串當年設鎮關	그 당시 철곶에는 진관(鎭關)이 있었으나,
祇今唯指一拳山	지금은 하나의 작은 봉우리뿐이구나.
居人慣識行船法	그 곳 주민 배 부리는 법 훤히 꿰고 있었기에,
碧水聲中任去還	푸른 물 파도 소리 속에 마음대로 오고 갔네.

331) 현재는 북사면과 서사면이 합하여 양사면이 되었다. 북사면에는 철곶, 산이포(포촌), 덕현, 군하, 북정(냉정), 삼성 등의 마을이 있었다.

332) 양사면 철산리의 산이포마을로, 한때 양사면사무소와 시장, 학교, 경찰지서 등이 있었다.

333) 양사면 철산리 철곶마을로, 산이포 서북쪽에 있다.

○ 철곶동(鐵串洞)에는 예전에 수군 첨사(水軍僉使)를 두었는데 유수 서필원(徐必遠)³³⁴이 아뢰어서 수군을 풍덕으로 옮기고 별장(別將)을 두었다. 유수 김휘(金徽)³³⁵가 도로 첨사를 두었다. 숙종 임진년(1712)에 유수 조태로(趙泰老)³³⁶가 아뢰어서 주문도로 옮겼다가 다시 별장을 두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업으로 생활한다.

142. 덕현동(德峴洞³³⁷)

德峴洞前客馬停	덕고개 마을 앞에 나그네 발길 멈추노니,
白波縈裡碧山屏	흰 물결 둘러친 안쪽에 푸른 산이 병풍 쳤네.
知吾金老平安否	나를 아는 김 노인은 평안하신지,
星髮斜陽掃石庭	흰머리로 저녁 무렵에 바위마당을 쓸고 있네.

○ 덕현동(德峴洞)에는 광산(光山) 김씨로 자(字)가 익선(益善)인 사람이 살고 있다.

334) 서필원(1614~1671) 본관은 부여(扶餘). 자는 재이(載邇), 호는 육곡(六谷).
 335) 김휘(1607~1677) 본관은 안동. 자는 돈미(敦美), 호는 사휴정(四休亭)·만은(晩隱).
 336) 조태로(1658~1717)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인수(仁叟), 호는 지산(地山).
 337) 양사면 덕하1리의 덕현마을이다.

143. 삼성동(三省洞³³⁸)

三省村名錫以嘉	삼성촌 이름은 기리기 위해 붙였으니,
曾門傳業是誰家	일찍이 업을 이은 가문 누구의 집안인가.
萬殊一本璿源李	성씨 중에 으뜸가는 왕족 이씨 집안이니,
鷹谷春風欲吐花	응골에 봄바람 불어 꽃망울을 틔우려하네.

○ 삼성(三省)이란 일찍이 부자(夫子)의 도이기 때문에 인하여 동네 이름이 ‘삼성동(三省洞)’되었다. 이곳에는 응곡(鷹谷)이 있는데 전주 이씨(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144. 군하동(羣下洞³³⁹)

花綠絮業去無窮	꽃 피고 잎새 나는 일 끝없이 이어지니,
江北山川三月風	강화 북쪽 산천에도 3월 바람 불어온다.
狻浦橋頭逢客語	산예포 다리에서 나그네 만나 이야기 나눴는데,
指云羣下洞中翁	그 분이 바로 군하동의 어른신이라고 하네.

○ 예전에는 군두동(羣頭洞)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군하동(羣下洞)이라고 한다. 근처에 산예포교(狻貌浦橋)가 있다.

338) 양사면 북성리 삼성동, 생설미 마을이다.

339) 양사면 덕하리 군하동이다.

145. 냉정동(冷井洞)

長江一曲抱村流	긴 강이 한 번 굽어 마을 안고 흐르는데,
韓友居之瑤谷幽	요곡의 그윽한 곳에 한씨 친구 살고 있네.
認是三槐多積蔭	삼괴정 쌓은 음덕 많음을 알겠으니,
蓮花隨處紫香浮	연꽃은 가는 곳마다 자주빛 향기를 풍기네.

○ 요곡(瑤谷)³⁴⁰은 냉정동(冷井洞)의 지명이다. 삼괴정(三槐亭) 한경린의 후손인 청주 한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진사 한경곤(韓景鯤)과 진사 한수겸(韓守謙)의 후손이다. 그 중에 한상철(韓相哲)은 우리 집과 교류하는 사람이다.

○ 그 중에 한두석(韓斗錫)³⁴¹은 진사이다.

340) 양사면 북성리의 북정동(北井洞), 요골 마을이다.

341) 한두석(1850년 출생) 지는 성칠(聖七), 본관은 청주(淸州).

 서사면(西寺面³⁴²)
146. 증산동(甌山洞³⁴³)

甌山之上碧生烟	증산 마을 위에서 푸른 연기 일어나고,
南繞松林北繞川	남쪽은 솔숲이 두르고 북쪽은 시냇물이 돌렀네.
趙老高翁相指語	조씨 노인 고씨 노인 서로 보고 하는 말이,
蕉巖靴石古來傳	파초 바위, 신발 바위 예로부터 전해온다네.

○ 서사면(西寺面) 증산동(甌山洞)은 강화부 관아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 조씨(趙氏)와 고씨(高氏)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는 파초암 화자석(芭蕉巖靴子石)이 있다고 한다.

147. 교항동(橋項洞³⁴⁴)

橋項洞人識古風	교항동 사람들은 옛 풍습을 잘 알아서,
金生昔日著心紅	예전의 김 선생은 깊은 충정 드러냈네.
東西從享東西廡	향교의 동쪽 채 서쪽 채서 제향을 올렸고,
丙歲奉安茅屋中	병인년 난리 때엔 초가집에 봉안했네.

342) 현재는 서사면과 북사면이 병합되어 양사면이 되었다. 서사면에는 교항, 증산, 송산, 인화 등의 마을이 있었다.

343) 양사면 교산1리 증산(시루피, 시리메) 마을이다.

344) 양사면 교산2리 교항(다리목) 마을이다.

○ 병인년(1866) 9월에 병인양요 때문에 성이 함락되던 날 교관(敎官) 황호덕(黃浩憲)은 대성전의 위패(聖廟)를 봉안하여 산 뒤로 옮겼고, 자(字)가 치일(致一)인 김씨가 동서무(東西廡)의 위패를 그 집으로 종향(從享)하였다.

148. 송산동(松山洞³⁴⁵)

松林深處是松山	소나무 숲 우거진 곳이 송산 마을이거늘,
曲曲回龍曲曲灣	굽이굽이 용이 돌고 굽이굽이 물이 도네.
下馬愁然仍瞻拜	말에서 내려 숙연해져 바라보며 절을 하니,
表家楸域此中間	외가 조상 무덤이 여기에 있어서.

○ 송산(松山)의 땅은 형세상 굴곡이 많아 기이하며 그 중에 한 지역은 우리 표가(表家)가 사는 산기슭이다.

149. 인화동(寅火洞³⁴⁶)

寅火中流石虎雄	석호의 웅장한 기운 인화리서 흘러서,
西通延海與喬桐	서쪽의 연안 해수와 교동까지 통하네.
渚雲野屋黃忠節	물안개 낀 들과 집이 황충신의 집이니,
甲申千年海日紅	갑곳에서 천년토록 바다 태양처럼 붉으리.

345) 양사면 인화리 송산(솔피, 솔미) 마을이다.
 346) 양사면 인화리이다. 뱀바위 즉, 인화석(寅火石)이 있어 인화성, 인애성이라고도 한다.

○ 인화석진(寅火石津)은 서해 중에 범처럼 생긴 바위가 남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화석(寅火石)이라고 이름 하였다. 수로로 10여 리에 교동·연안·해주 등을 교통하니 진실로 서해의 요충지이다. 효종 병신년(1656)에³⁴⁷⁾ 유수 홍중보(洪重普)³⁴⁸⁾가 진을 설치하여 별장(別將)을 두었다. 기미년(기해, 1659)에는 윤이제(尹以濟)³⁴⁹⁾가 아뢰어서 만호(萬戶)로 승격시켰고 황상의 조정에서 아뢰어서 권관으로 승격시켰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그 위 저운야(渚雲野)에 평해 황씨(平海黃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축호란 때에 순절한 황대곤(黃大坤)³⁵⁰⁾의 집이 이곳에 있다. 자세한 것은 충렬사순절록(忠烈祠 殉節錄)에 보인다.

○ 남익문(南益文)의 시는 다음과 같다. “형승은 악양루라 예전에 들었는데(舊聞形勝岳陽樓) 이 정자에 와서 보니 주변 경치 훌륭하네.(今到斯亭八景優) 인화의 격한 조수에 옥두를 단장하고(寅火激潮粉玉斗) 각산에서 작을 하니 오두에서 춤추네.(角山當汜舞鰲頭) 은관에 요새 설치 천참을 이루고(銀關設險成天塹) 정포로 못을 삼아 땅끝을 맺는구나.(井浦爲池括地隄) 열기 올라 말 세우고 감상한 것 많으니(乘熱停驂多所賞) 어느날에 다시 와서 맑은 흐름 이룰까.(重來何日作清流)”

347) 원문에는 ‘숙종 병신년(1716)’으로 되어 있으나, 홍중보 강화유수 재임기간이 1655년 5월~1657년 1월이므로, ‘효종 병신년(1656)’이 맞다.

348) 홍중보(1612~1671)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원백(遠伯), 호는 이천(梨川).

349) 윤이제(1628~1701)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여즙(汝楫).

350) 황대곤(1577~1637) 조선 중기의 무인. 본관은 평해(平海), 호는 송포(松圃), 자는 자후(子厚).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파총(把總)으로 갑곶진을 방어하다가 이삼(李參), 안몽상(安夢祥)과 함께 전사했다.

 간점면(良岾面³⁵¹)

150. 별립산(別立山)

別立山高石萬層	별립산 높이 솟아 들계단도 많구나,
盤龍蹲虎勢騰騰	서린 용과 웅크린 호랑이가 뛰쳐 오르는 듯.
大海環從西北注	큰 바다 감아 돌아 서북쪽에서 흘러드니,
應使遐夷不可升	응당 변방 오랑캐는 오를 수가 없었네.

○ (해설문 없음)

151. 창교동(倉橋洞³⁵²)

倉橋洞在海西濱	창교동은 서쪽 편 바닷가에 있는데,
李具書樓共是春	이씨 구씨 서당엔 봄빛이 가득하다.
因說閑中還有攬	한가로운 가운데에 소란함이 있다고 말하니,
石工鹽賈往來頻	석공과 소금장수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네.

○ 이 지역은 송계(松溪) 청해백(靑海伯)의 후손인 청해 이씨, 강암공(江菴公)의 후손인 능성 구씨가 거주하고 있다. 땅의 모양이 산을 등지고 바닷가에 임하고 있어, 바다에는 소금이 생산되고 산에는 돌을 뜨는 곳이 있으니, 석수(石手)들과 소금장수들이 빈번히 왕래

351) 현재 하점면에 편입되어 있다.

352) 하점면 창후리의 창교동이다. 창말, 사땃말, 셋말을 통틀어 일컫는다.

하고 있다.

152. 강후동(江後洞³⁵³)

別立山前江後基	별립산 앞쪽의 강후마을이 있는데,
隱居韓友老於斯	숨어 사는 한씨 친구 여기서 늙어 가네.
侍堂侍墓平生孝	사당 지키고 선영 지키며 평생토록 효도하니,
天地知之日月知	하늘과 땅이 알고 해와 달도 안다네.

○ 서원(西原) 양절공(襄節公) 한확(韓確)³⁵⁴의 후손인 한정리(韓鼎履)가 이 강후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나와는 특별히 우정이 도탑다.

153. 이현동(梨峴洞³⁵⁵)

梨峴來尋表弟家	이현마을 이르러 외가 아우 찾아가서,
終霄情話海無涯	밤새도록 정다운 얘기 끝이 없이 이어졌네.
紅蓮幾出三槐蔭	삼괴정의 음덕으로 여러 사람 벼슬 꽃 피니,
一片江州處處花	강화도 곳곳에 꽃동산이 생겼네.

353) 하점면 이강리의 강후동, 함촌말이다.

354) 한확(1403~1456)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유(子柔), 호는 간이재(簡易齋).

355) 하점면 이강3리 이현(梨峴, 배고개, 배우개 마을)이다.

○ 이현(梨峴)은 한씨들이 대대로 사는 곳이다. 한경린(韓景麟)은 아우 한경갑(韓景甲)·한경곤(韓景鯤)과 함께 삼괴정(三槐亭)을 짓고서 학문을 이루었다. 한경린은 문과에 급제하여³⁵⁶⁾ 대간, 해주 판관을 역임하였다. 아우 한경갑도 문과에 급제하여³⁵⁷⁾ 충청도사를 지냈으며 한경곤은 진사에 합격하였다. 삼괴정의 그 옛 터가 아직도 이 동네에 있으니 삼괴의 한씨들이 세상에 유명해졌다. 그 손자 한수검(韓守儉)은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한수온(韓守溫)과 한수겸(韓守謙)은 무과에 합격하여 진무공신이 되었고 한수공(韓守恭)은 무과에 합격하여 첨정이 되었다. 그 후에 과거 합격자가 강화의 사방에서 많이 나왔으니 한씨들은 모두 삼괴정 한경린의 후손들이다.

○ 나의 외사촌 한일석(韓一錫)은 자가 여집(女執)인데 이 종친으로서 이곳에 살고 있다.

154. 이현동 덕수이씨(德水李氏*)

柿林來訪李兄居	감나무 숲 이씨 형이 사는 곳을 찾아가니,
三疊淸琴一架書	삼첩의 거문고와 서가 가득 책이 있네.
簪紱曾投司憲府	일찍이 사헌부에서 벼슬을 하였는데,
時從野老自怡如	지금은 촌로 따라 유유자적 살고 있네.

○ 덕수 이씨인 이기영(李基永)은 자가 여방(汝邦)으로 택당(澤堂) 이식(李植)³⁵⁸⁾의 후손이다. 강화부의 분교관(分敎官) 이규신(李奎信)

356) 한경린은 1582년(선조 15) 식년시(式年試) 을과에 합격했다. <국조문과방목>

357) 한경갑은 1585년(선조 18) 식년시(式年試) 병과에 합격했다. <국조문과방목>

358) 이식(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의 종손(從孫)이다. 일찍이 사헌부 감찰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때때로 이웃의 벗들을 따라서 시와 술로써 스스로를 즐겼다.

155. 삼거동(三巨洞³⁵⁹)

三巨洞中訪沈兄	삼거리에 들어와서 심씨 형님 찾았는데,
從前文學大家聲	종전엔 문학으로 대가 명성 있었다네.
靑衫白髮前司馬	청삼 입고 백발을 한 사마(司馬)를 지내신분,
指導門庭幾後生	그 집에서 가르친 후학들이 많다네.

○ 청송 심씨 청천군(靑川君)의 후손 충렬공(忠烈公) 심현(沈
 說)³⁶⁰과 사촌동생 심숙(沈淑)은 병자호란 때에 의병장이 되어서 오
 랑개가 다다르자 강가로 달려 나가 전쟁하다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
 지 못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충성을 표창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였다. 그 후손들은 모두 이곳에
 살고 있는데 모두 문학으로써 옛날부터 이름이 있었으며 그 중에 심
 능철(沈能徹)³⁶¹은 갑오년(1894) 사마시에 합격하여 돈녕부 도정을
 제수받았다.

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

359) 하점면 신삼2리 삼거동, 서촌마을이다.

360) 심현(1568~1637)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화(士和). 돈녕부 도정을 지
 냈다.

361) 심능철(1874년 출생) 자는 통일(通一)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156. 신성동(新成洞³⁶²)

新成洞有古人風	신성동엔 옛 사람의 풍습이 있으니,
兩李門前一逕同	두 분 이씨 정려문이 한길로 연결되네.
竊想當時忠孝烈	당시의 충성 효열 가만히 생각해 보니,
炳然星日海天東	동쪽 바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누나.

○ 이문위(李文偉)는 청해 이씨 청해백(青海伯)의 후손이다. 강화부의 부윤 이중로(李重老)³⁶³의 아들이다. 인조 갑자년(1624)에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중로는 방어사로서 강음(江陰)의 마탄(馬灘)에서 적과 대항하였는데 군대가 패하자 의리상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 죽었다. 적장인 이수백(李守白)³⁶⁴은 평소 이중로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잘라다가 이괄에게 바쳐 공을 노렸다. 이괄이 패하자 이괄의 머리를 가져다가 관군에게 보내고 이괄의 난이 평정되자 조정에서는 그를 사형시켰다. 이문위는 그 아우 이문웅(李文雄)과 반드시 보복하려는 마음먹었다. 마침내 이수백을 큰길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지고 대궐에 들어와 죄를 청하였는데, 상이 현명하게 여겨서 삼사에 특용하였고, 이름을 드러내어 충청병마사까지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서 이문위의 어머니 정씨는 목릉(穆陵 : 선조)의 재상 정언신(鄭彦信)의 딸이었다. 이중로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에 미치자 몸소 전장을 돌아다니며 시신을 수습하고 상을 치렀는데 탈상을 하지 않으니 친척들이 모두 예를 넘어서는 것

362) 하점면 신삼리 신성동, 동촌마을이다.

363) 이중로(1577~1624)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청해(青海). 자는 진지(鎭之).

364) 이수백(?~1634(인조 12). 조선 중기의 무신.

을 의심하였다. 얼마 안 있어 두 아들이 이수백을 베니 정씨가 그것을 듣고 통곡하면서 “아이들이 능히 그 일을 해냈구나.”라고 하고는 수백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중로의 영전에 고하고 제사상을 차렸다. 이때까지 모두 11년이 걸렸다. 사람들은 능히 놀라고 탄복하였다. 이문위가 죽자 그 제문을 하사하였는데 “일문의 충효는 고금에 보기 어렵구나. 주곤(州關)을 지내면서 큰 실적이 있었구나.”라고 하였다.

○ 아들 이수(李脩)는 관직이 사평에 이르렀으며 이수의 아들은 이광도(李廣道)³⁶⁵이다. 숙종 을유년(1705)에 진사가 되었고 문과에 급제하여 세 임금을 섬겼으며 사간으로서 종성부사에 제수받았고 임지에서 죽었다. 그 후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 연안 이씨는 연봉(蓮峯) 이기설(李基畲)³⁶⁶의 아들인 충민공(忠敏公) 이돈서(李敦敍)³⁶⁷이다. 그 일이 충렬사의 주(註)에 보인다. 그 후손 교리 이중련(李重蓮)³⁶⁸의 고손은 이의록(李義祿)인데 여기서 살고 있다.

365) 이광도(1673년 출생) 자는 대중(大中), 본관은 청해(青海).

366) 이기설(1556~1622)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공조(公造), 호는 연봉(蓮峯).

367) 이돈서(1599~1637)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륜(子倫), 호는 만사(晩沙).

368) 이중련(1765년 출생) 본관은 연안(延安). 1790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 2위로 합격했다.

 외가면(外可面³⁶⁹)

157. 삼거동(三巨洞)

多雲里是外三街	삼거리 바깥쪽에 다운리 ³⁷⁰ 가 있는데,
安李分居碧樹崖	안씨와 이씨가 푸른 숲 언덕에 나뉘어 사네.
塔下長坪連望月	섬돌 아랫 망월 별판 널따랗게 이어있고,
春耕夏耨養禾佳	봄 밭 갈기와 여름 김매기로 벼를 잘도 길렀네.

○ 외가면(外可面) 삼거동(三巨洞)에는 강진 안씨(康津安氏),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많이 살고 있다.

158. 망월동(望月洞³⁷¹)

望月洞開大野中	망월동은 넓은 들판 가운데에 펼쳐있고,
鳥橋春水鵲橋通	까마귀다리 봄물은 까치다리로 통하네.
水秧旱播隨天氣	비 오면 모내고 가물면 씨 뿌려 날씨를 따르지만,
穡事年年實有豐	해마다 농사일은 풍년이 든다네.

○ 망월동(望月洞)의 서쪽 아래에는 오교(烏橋)가 있고 위로는 작교(鵲橋)가 있으니 모두 큰 평야이다.

369) 외가면 전 지역은 1914년 하점면에 편입되었다.

370) 하점면 망월1리 다운리 마을이다.

371) 하점면 망월리이다. 마을이 별판 가운데 있어서 달을 보기에 좋은 곳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한다.

 내가면(內可面)
159. 산곶동(山串洞³⁷²)

山串村開一樂窩	산곶동 마을은 낙원을 열었으니,
春風最是此中多	봄바람 여기에 가장 많이 불어오네.
尹家文筆連鳴世	윤씨 가문 문필로 명성이 높았고,
丹桂紅蓮種種科	여러 가지 과거에 두루두루 합격했네.

○ 파평 윤씨 윤학수(尹學洙)는 일찍이 강화부의 분교관을 지냈는데 법도가 있었다. 그 아들 윤시영(尹時榮)³⁷³은 황상 병인년(1866)에 강화부의 도과(道科)에 합격하여 대간을 지냈다. 그 아들 윤훈(尹埈)³⁷⁴은 어린 나이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만년에는 본부의 분교관을 지냈다. 능참봉과 능력을 거쳤으며 원외랑 벼슬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윤시영의 재종(再從) 윤유영(尹有榮)³⁷⁵은 황상 신미년(1871)에 본부의 유수 정기원(鄭岐源)³⁷⁶이 백의종군했다고 해서 천거하였으며 계유년(1873)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372) 하점면 망월2리 산곶동으로, 산화(山花), 미꾸지라고도 불린다.

373) 윤시영(1818년 출생) 본관은 파평(坡平). 1866년 별시(別試) 병과(丙科) 1위로 합격했다.

374) 윤훈(1831년 출생) 자는 치성(樞聲). 본관은 파평(坡平). 1858년 식년시 진사(進士) 2등 23위로 합격하였다.

375) 윤유영(1821년 출생) 자는 선여(善汝). 본관은 파평(坡平). 1873년 식년시 진사(進士) 3등 195위로 합격하였다.

376) 정기원(1809년 출생)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봉수(鳳叟).

160. 고산동(孤山洞³⁷⁷)

孤山林麓近西湖	고산골 산록은 서쪽 호수에 가까운데,
籠鶴誰家報客乎	어떤 집의 우리 속 학(鶴)이 손님 왔음을 알리네.
最是安韓居得趣	으뜸 가문 안씨 한씨 취향 맞춰 시는데,
東西籬角杞瓜紆	동편 서편 울 모서리엔 구기자 모과가 둘러있네.

○ 고산(孤山)은 지금의 오산동(鰲山洞)이다. 강진 안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주사 안태병(安泰秉)이 있다. 청주 한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진사 한성렬(韓成烈)과 주사 한병렬(韓炳烈)이 있다.³⁷⁸⁾ 이곳은 구기자와 모과가 많이 나는데, 마당과 울타리 사이에 많이 심겨 있다.

161. 구주동(鳩州洞³⁷⁹)

鷗洲洞在鳳山前	봉산의 앞에 있는 구주동 다다라서,
來攬南宮石枕眠	들베개 베고 자던 남궁씨를 깨웠네.
憑問李基何處是	이 선생 댁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文章德業尙今傳	문장과 덕망이 아직도 전해 온다네.

○ 한성관관인 전주 이씨 이중명(李重溟)³⁸⁰⁾은 호가 구주(鳩州)인

377) 내가면 오상3리 고상골이다. 오산(鰲山)이라고도 한다.

378) 원본에는 없으나, 구창서발문본에 있어 삽입하였다.

379) 내가면 오상1리 구주동이다. 양구(陽鳩)라고도 한다.

380) 이중명(2-1637)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구주(鷗洲).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둘째 아들 이중(李翮)과 함께 집에서 자결했다.

데 이곳에 살았으며 문장과 학업으로 서울까지 소문이 났다. 《동악집(東岳集)》의 부(賦)·송(頌)·잡(箴)·명(銘)에 보이는 병판관(病判官)이 이 사람이다.

○ 구춘당(九春堂)의 후손 남궁협(南宮浹)이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다.

162. 구하동(鳩下洞³⁸¹)

鳩下村前導五川	구하촌 앞에는 다섯 시냇물이 흐르고,
趙金相接一村烟	조씨와 김 씨네가 한 마을을 이루었네.
春光近借府中客	봄빛이 다가오니 고을 손님 찾아오고,
富貴鶯花年復年	부귀와 영화도 해마다 찾아오네.

○ (해설문 없음)

163. 황청동(黃淸洞³⁸²)

黃淸水色一千年	황청리의 물색은 천 년 동안 한결같으니,
聖運乾坤海屋連	나라 운세 천지 간에 끝없이 이어지리.
因遇權兄同榻坐	권형(權兄)을 만나서 자리를 같이 하니,
指言此地足風烟	그 곳 땅을 가리키며 풍경이 흠족하다 말을 하네.

381) 내가면 구하리이다.

382) 내가면 황청리이다.

○ 음사로써 호조좌랑에 지낸 권개(權愷)³⁸³의 후손으로 자(字)가 취중(就中)³⁸⁴인 사람이 선원(仙源)의 연동(烟洞)에서 이쪽으로 이사와 살고 있다.

164. 구포촌동(舊浦村洞³⁸⁵)

舊浦村前大海連	구 포촌 앞쪽은 큰 바다에 이어져,
南商北賈往來船	남북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드나드네.
滿盤魚膾盈樽酒	생선 안주 쟁반 가득하고 술독도 가득 차니,
杏店斜陽一醉眠	해질 녘 은행나무 주막에서 술에 취해 한숨 자네.

○ (해설문 없음)

165. 옥계(玉溪)

玉溪一曲繞青山	옥계는 한번 굽어 청산을 감아 돌고,
樹色如眠白日閑	나무는 졸린 듯 대낮인데 한가롭다.
有二翁生迎我語	유 선생 두 분이 나를 맞아 말 나누니,
卜居已久此中間	이곳에 자리 잡고 산지가 오래 됐다네.

383) 권개(1530~1568). 강화부사였던 권적의 손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권철의 아들이고, 임진왜란 때 명장 권율의 형이다. 의금부도사·호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384) 구창서발문본에는 집중(執中)으로 되어 있다.

385) 내가면 황청2리 포촌 마을이다.

○ 기계 유씨(杞溪俞氏)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나와 친하다.

166. 조계동(皂溪洞³⁸⁶)

皂溪猶白碧山崑	거무내는 오히려 희고 청산은 우뚝한데,
知是韓門次第開	한씨들이 차례차례 가문을 일으켰네.
中有一家遊洛社	그 중의 한 집은 서울에 유학했고,
棣華 ³⁸⁷ 同日採蓮來	형제가 같은 날에 급제하고 돌아왔네.

○ 청주 한씨가 이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친족의 한 명이 서울로 이사 간 지 여러 해 되었다. 형제가 같은 해에 진사가 되어서 이 동네에 살고 있다.

167. 백씨산소(伯氏山所*)

穴山西北谷縈回	혈구산 서북쪽 감아 도는 골짜기에,
巖下封塋一土培	바위 아래 무덤과 자그마한 둔덕 있네.
瞻拜斜陽因洗淚	해질 녘 참배하고서 눈물을 씻으니,
墳聲怳惚引風來	질나팔 소리 아득하게 바람에 실려 오네.

○ 나의 형의 산소가 혈구산 북쪽과 고려산 남쪽 사이의 오좌자향

386) 내가면 고천리 조계동, 현천(玄川) 거무내 마을이다.

387) 구창서발문본에는 '華'가 '花'로 되어 있다.

(午坐子向)의 언덕에 있다.

168. 창원황씨(昌原黃氏*)

遠上雲山石逕斜	저 멀리 구름 낀 산에 돌길이 비껴 있고,
罵聲忽覺有人家	피꼬리 소리 문득 들려 인가 있음을 알려주네.
雄詞健筆黃司馬	문장과 글씨가 활달했던 황 사마는,
採得紅蓮一朵花	과거 시험 보아서 급제를 하였다네.

○ 창원 황공 아무개는 문필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며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9. 동래정씨(東萊鄭氏*)

谷谷幽居谷谷村	골골이 그윽하여 골골에 마을 있어,
管領春風鄭一門	정씨네 가문이 봄바람을 거느렸네.
文詞德行承承業	학문과 덕행을 가업으로 이어받아,
是祖家中有是孫	그런 조상 있는 가문 그런 후손 이어지네.

○ 동래 정씨 정건(鄭楗)은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참봉을 역임하였다. 그 손자 정민(鄭旻)은 강화부의 교관(敎官)으로서 서부의 참봉으로 옮겨갔고 후손들이 여기서 산다.

고려산(高麗山)과 매음도(媒音島)

170. 고려산(高麗山*)

高麗山屹鎮江州	고려산 우뚝 솟아 강화 고을 누른 곳에,
五色蓮花五井湫	다섯 색깔 연꽃과 다섯 우물 있었다네.
北虜何心來錫鐵	북쪽 오랑캐는 무슨 뜻으로 철심을 박았는가,
閔公修鑿跡猶留	민진원공 파낸 흔적 아직도 남아있네.

○ 고려산(高麗山)은 강화부의 진산(鎭山)이며 일명 오련산(五蓮山)이라 한다. 전하기를 “천축(天竺)의 승려가 일찍이 다섯 빛깔의 연꽃으로써 하늘에 날려서 각각 떨어진 곳에 사찰 한 개씩을 세웠다.”라고 한다. 지금은 청련사(靑蓮寺)와 백련사(白蓮寺)와 적련사(赤蓮寺) 세 사찰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되었다. 고려산을 오련산이라고도 칭한다. “정상에 다섯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시면 힘이 강해진다. 중국인들이 보고서는 시기를 해서 못을 쳐서 막았기 때문에 샘이 마르고 선비들도 역시 나지 않는다”라고도 한다. 단암(丹巖) 민진원(閔鎭遠)³⁸⁸은 영의정을 지냈는데, 강화유수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가서 다시 우물을 뚫고 축대를 쌓아서 비로소 샘의 맥을 소통시켰으나 다시 말라버렸다.

○ 옛날에 전하기를 “다섯 연못에는 다섯 가지 빛깔의 연꽃이 나오는데 천축의 승려가 이것을 던져서 사찰의 터를 점지하였다.”라고도 한다.

388) 민진원(1664~173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1705년, 1710년 두 차례 강화유수를 지냈다.

171. 청련사(靑蓮寺³⁸⁹)

靑蓮寺在碧山東	청련사는 고려산의 동쪽에 있는데,
國淨僧尼但指空	국정사 여승들은 공(空)의 진리 가리키네.
在近龍藏今亦廢	근처의 용장사도 폐허되어 없으니,
麗王玉輦過雲中	고려 임금 타신 가마 구름 속을 지났었네.

○ 청련사(靑蓮寺)는 고려산 동쪽에 있으며 속칭 국정암(國淨菴)과 원통암(圓通菴)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는 비구니들이 살고 있다. 그 동쪽에 예전에는 용장사(龍藏寺)가 있었는데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일찍이 와서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172. 백련사(白蓮寺³⁹⁰)

白蓮寺在碧山西	백련사는 벽산의 서쪽에 있는데,
法侶閑投括眼篋	스님들은 한적하게 줄음 쫓는 죽비 치네.
誰與淵明同結社	그 누가 도연명의 백련결사 동참했나,
詩人往往姓名題	시인들은 종종 이름을 남겨 놓았네.

○ 백련사는 고려산 서북쪽에 있다. 석주(石洲) 권필(權鞞)³⁹¹의 시는 다음과 같다. “사찰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不識招提路) 날씨는 추워서 온 산에 눈 덮였네.(天寒雪滿山) 연기를 피는 곳을 홀연히

389) 강화읍 국화2리 국정마을에 있다.

390) 하점면 부근리에 있다.

391) 원본에는 권필(權鞞)로 되어 있다.

보노라니(忽看煙起處) 우거진 소나무 사이란 걸 알겠구나.(知在亂松間)”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사찰은 고요하니 승려가 찾아들고(院靜僧初定) 저 산도 맑아서 달도 점점 차는구나.(山晴月更多) 뒤엎힌 풀 속에서 반디불은 날고 있고(流螢依亂草) 깊고 깊은 가지에 밤새들이 모이네.(暗鳥集深柯) 벼슬할 뜻은 외로운 칼에다가 남겨두고(仕志餘孤劍)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시 한수를 읊조리네.(窮愁且短歌) 서울에 살고있는 우리의 형제들은(京華有兄弟) 소식이 어떠한지 몹시도 궁금하네.(消息正如何)”

○ 동악(東岳) 이안눌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백년사 앞에 있는 오동나무와(白蓮寺前桐) 궁궐 안에 심겨진 대나무라네.(紫極宮裏竹) 만고에 울려 퍼진 가을 소리는(萬古一秋聲) 밤 기운에 상쾌해서 움킬만도 하구나.(夜氣爽堪掬) 여러 분의 현인 시를 앉아서 외노라니(坐誦諸賢詩) 시대는 달라도 외로움은 한가지네.(異代共羈獨) 이슬이 차가우니 벌레 울기 시작하고(露冷初蟲吟) 숲속이 고요하니 밤 새가 지는구나.(林靜夜鳥宿) 내 나이는 마흔 아홉이 되었지만(吾亦四十九) 점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어볼까.(鉦可問太卜) 늙어서의 경계는 씩씩이가 큰 것이니(老戒必大費) 귀해지긴 쉬워서 머지 않아 회복하리.(易貴不遠復) 그윽한 정이야 여유로움 즐기지만(幽情樂閑曠) 인생의 황혼에서 옹어짐이 두렵다네.(末路畏傾覆) 벼슬살이 버리고서 떠나고 싶으니(卽欲解綬去) 호수있는 고향에는 느지막히 벼가 익네.(湖鄉晚稻熟)”

○ 권적(權檜)의 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 할아버지가 시를 지은 곳인데(吾祖題詩處) 집을 비운지 많은 세월 지났네.(空門歲月多) 높고높은 이름은 북두성과 동등하고(高名齊北斗) 지나간 자취는 남쪽가지와 같다네.(往跡等南柯) 산승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迸淚山

僧話) 골짜기 새 울음에 마음이 상하도다.(傷心谷鳥歌) 마음먹고 한 번쯤 크게 취해보려는데(一樽湖海酒) 취하고 싶어도 언제일까 기약없네.(更欲醉無何)”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예전에 만든 판을 사롱 속에 두었으니(紗籠護舊板) 푸른 달 아래에 빈 산이 비치네.(壁月照空山) 오류 내의 작은 돌을(一片五川石) 구름 바다 사이에 다시금 둔다네.(更留雲海間)”

○ 유수 심성진(沈星鎭)의 시는 다음과 같다. “서성을 나오니 비갠 빛이 선명하고(偶出西城霽色鮮) 높고높은 산 위에 사찰이 멀리 보이네.(禪樓遙在是高巔) 기운은 모여있고 높은 산은 가까운데(蔥籠佳氣喬山近) 큰 숲의 연기는 큰 바다와 연해 있네.(浩森烟波大海連) 이 절에는 승려 많다 들은 적이 있으니(此寺吾聞多法侶) 이곳에서 노니는 건 신선이라 말들하네.(此遊人說是神仙) 풍광을 인연삼아 시 지으며 보내려는데(輪將景物閑題品) 백련사보다 적련사가 낫다는 말 기약 못하네.(未必赤蓮勝白蓮)”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산에 의지해 옛 절이 있으니(古寺依山在) 뜬 구름은 오랜 세월 지났구나.(浮雲閱劫多) 매의 향기 불전 앞에 공양하고(梅香供榻佛) 뜰 앞의 나뭇가지에 비를 적시네.(華雨濕庭柯) 들녘의 손은 봄의 감흥 일으키고(野客尋春興) 숲속의 앵무새는 종일 운다네.(林鸚盡日歌) 누에 올라도 좋은 글귀 없으니(登樓無好句) 석주 권필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네.(其奈石洲何)”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절 뒤에는 솟구치는 물이 있고(寺後溶溶水) 누 앞에는 우뚝 솟은 산이라네.(樓前矗矗山) 짚신에다 대나무 지팡이로(芒鞋與竹杖) 종일토록 산수를 거닌다네.(終日山水間)”

173. 적련사(赤蓮寺³⁹²) 적석낙조(積石落照)

赤蓮寺在碧山南	적련사는 고려산의 남쪽에 있는데,
積石奇形手欲探	돌 쌓은 모습 기이하여 만지고 싶어졌네.
夕照倘沈西海否	저녁 해는 서쪽 바다로 잠기는 게 아닐까,
先將此理問瞿曇	먼저 이 이치를 부처에게 물어볼까.

○ 적련사(赤蓮寺)는 고려산 서남쪽에 있다. 지금은 적석사(積石寺)라고 한다.

○ 낙조(落照)는 강화부 10경(景)의 하나이다. 중수한 사실을 적은 비문의 글씨는 상서 윤순(尹淳)³⁹³이 썼다.

○ 전하기를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서기가 충만하고 장차 재변이 일어날 때는 우물이 마른다.”라고 하였다.

○ 또 말하기를 “정축년(1637) 오랑캐들이 이곳에 왔을 때 머리 숙여 예배하였고 거주하는 승려들이 피해를 면하였다고 하는데 일이 대략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황당해서 믿지 못하겠다.

○ 정축의 난리에 정명공주(貞明公主)가 이곳에 피난하였는데 그 초상화를 두었었다. 화재를 겪어서 사찰을 중수하였는데 예전의 정명공주의 초상화는 다시 보지 못하였다.

○ 동악 이안눌이 지은 사남루(寺南樓)에 대한 시는 다음과 같다. “길에는 해당화가 피어있고(逕又棠花發) 처마에는 제비새끼 나는구나.(簷仍燕子飛) 젊어서 일찍이 도착했지만(眼靑曾到處) 늙어서야 비

392) 적련사는 현재의 적석사인데, 내가면 고천리에 있다.

393) 윤순(1680~1741)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학음(鶴陰). 만년에는 나계(蘿溪)·만옹(漫翁)이라 하였다.

로소 돌아간다니네.(頭白始歸時) 양남곡에서 잎사귀를 채취하고(採葉楊南谷) 면북기에서 고기를 낚는구나.(釣魚河北機) 십년 동안의 한스러움은(十年前後恨) 이 누각과 더불어 알고 있네.(留與一樓知)”

○ 전정(前正) 정휴(鄭庠)³⁹⁴는 유수 이익(李翊)³⁹⁵과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시를 지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나 귀타고 높은 비탈 오르는데(騎驪上危磴) 흰구름 사이에 절이 있다네.(寺在白雲間) 미망의 바깥에는 해읍이 있고(海邑迷茫外) 깎 사이로 종소리가 나는구나.(鐘聲縹紗間) 축축한 찬비에 걱정 많은데(却愁寒雨濕) 한가로운 노승이 부러웁구나.(偏羨老僧閒) 높이 오르면 굽히기 어려우니(高駕應難枉) 숲 속을 질러서 혼자서 돌아오네.(穿林獨自還)”

○ 만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불단에는 아침햇살 비치고(採龕映朝日) 절간에선 돌끝에 앉는다네.(禪菴鶴石端) 하늘은 창해 밖으로 이어지고(天連滄海外) 사람은 비취빛 속에서 말하네.(人語翠微間) 여러 해의 괴로움을 벗어나(已脫經年苦) 이날에야 한가함 즐긴다네.(偏因此日間)

노니는 일은 다시 얻기 어려워라(清遊難在得) 저녁이라도 돌아감을 재촉말아라.(向夕莫催還)”

○ 유수 심성진(沈星鎭)³⁹⁶의 시는 다음과 같다. “절의 누대 높이 솟아 바위를 누르는 듯(寺樓高壓石巖峨) 하늘은 가까워 손으로도 만지는 듯.(尺天雲霄手可摩) 승려 떠난지 언제런가 불경만이 남아있고(師去何年留寶揭) 손은 와서 종일토록 바라소리 듣는구나.(客來終日聽婆羅) 깊은 숲속 세 가지의 나무가 있다지만(深林應有三枝楹) 기이

394) 정휴(1625년 출생) 자는 대경(大卿). 본관은 경주(慶州).

395) 이익(1629~1690)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계우(季羽), 호는 농재(農齋).

396) 심성진(1659년 출생) 자는 시서(時瑞) 본관은 청송(靑松).

한 자취는 오색 연꽃에서 들었네.(異迹曾聞五色荷) 상서로운 기운은 언제나 일어나지만(瑞氣尋常朝暮起) 영험한 고을이라 사람들은 말을 하네.(人語靈驗在邦家)”

○ 내개(저자 고재형이 이 절에서 노닐고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층층이 쌓인 바위 높게도 올라서(積石層層高可攀) 푸른 숲속에 승려가 인도하여 들어오네.(寺僧導入碧松間) 불교는 우리 도가 아니라고 누가 말했나(誰言驚嶺非吾道) 용문에 오르려면 이산부터 거쳐야지.(欲至龍門自此山) 나무가 하늘 받친 듯 남은 빛이 걸려있고(若木浮天殘照掛) 적련은 물으로 나와 서운이 조화되네.(赤蓮出陸瑞雲斑) 사물을 보는 것은 모두가 인연이라(推看物物皆因果) 만겁이 흘러서 바다 소리 찾는구나.(萬劫流覓聲海灣)”

174. 홍릉(洪陵³⁹⁷)

麗朝如夢鳥空啼	고려시대 꿈 같은데 새만 부질없이 울어대고,
春雨洪陵草色齊	봄비 젖은 홍릉은 풀빛이 가지런하네.
北望雲中松岳樹	북쪽의 구름 속에 송악산 숲이 있고,
猶自青青漢水西	절로 푸른 한강물은 서쪽으로 흘러가네.

○ 홍릉(洪陵)은 고려 고종(高宗)의 능이다.

397) 고려 23대 고종(1192-1259)의 무덤으로 강화읍 국화리에 있다.

175. 보문사(普門寺³⁹⁸) 첩도(疊濤)

渡口錦山一路橫	나루 어귀 금산은 한 길로 이어졌고,
普門寺下疊濤鳴	보문사 아래쪽엔 겹친 파도 울어대네.
石舟不去眉巖立	돌배는 멈췄고, 눈썹 바위 서있으니,
云是梵王窟宅成	범왕과 석굴이 이뤄졌다 말을 하네.

○ 보문사(普門寺)는 매음도(媒音島)의 금산(錦山)³⁹⁹ 치우친 곳에 있는데 고려산 서쪽 지나긴 장강의 바깥에 있는 섬이다. 바다에 임해서 넘실넘실하기가 끝이 없고 사찰의 옆에는 석실이 있는데 관음보살을 안치하였으며 위로는 미암(眉岩)이 있고 옆에는 석주(石舟)가 있다. 승려가 말하기를 인도의 왕이 타고 온 것이라고 하지만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다.

○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시는 다음과 같다. “지는 해 안개 물결에 큰 물이 질펀하고(落日烟波浩水漫) 가운데엔 배가 떠서 푸른 산을 얻었구나.(中有艤棹得青巒) 모든 이는 홀연히 풀을 잡고 오르니(諸人忽已攀籬到) 세 섬에서 약초 캐기 어렵다 누가 말했나.(三島誰言採藥難) 동굴은 깊숙하고 샘물은 담담한데(太始窟深泉澁澁) 천인석에 비춘 달은 둥글기도 하여라.(千人石迴月團團) 대함은 초야에 빛과 기운 넉넉하니(蚌胎初夜饒光氣) 고승이 혼자서 보아야 한다네.(應是高僧獨自看)”

○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외로운 섬 겹겹이 사방과 끊어졌고(孤島重溟絕四鄰) 티끌 없이 깨끗한 바위굴이 아깝구나.(更憐巖屈

398) 삼산면 매음리에 있다.

399) 보문사 뒷산을 오늘날에는 낙가산이라 하고 그 산줄기의 서쪽 높은 봉우리는 상봉산이라 부른다.

淨無塵) 밝아서 박쥐가 머물지를 못하니(空明未許巢蝙蝠) 트인 계곡에 귀신이 있는 듯도 하구나.(開壑渾疑有鬼神) 물결 속에 보이는 산 자라의 등과 같고(浪裏看山是鰲背) 교룡인지 사람인지 깊은 밤에 불경 듣네.(夜深聽梵是蛟人)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온누리가 너무 좁아(伊來轉覺寰徧隘) 줄로 엮은 침상 빌려 이 몸이 늙고 싶네.(願借繩床老此身) 파도가 밀려드는 보문사의 첩도(疊濤)는 본부10경 중의 하나이다.

 위량면(位良面⁴⁰⁰)

176. 정포동(井浦洞⁴⁰¹)

客馬來尋井浦樓	말을 탄 나그네가 정포 누각 찾아가니,
鎮雲散盡海長葑	진보 구름 흩어지고 바다는 멀리 흐르네.
却推許老詩中意	허씨 노인 지은 시의 속뜻을 생각하니,
城月光輝又一秋	성터의 밝은 달빛 속에 또 한해가 지나가네.

○ 위량면(位良面) 정포동(井浦洞)은 강화부 관아의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

○ 허봉(許葑)⁴⁰²의 ‘정포의 성루(城樓)’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늦도록 성루에 혼자서 앉아 있자니(獨坐城樓晚) 시끄럽던 까마귀 등지에 드는구나.(樓鳥無數喧) 바다 산은 안개에 싸여있어 어둡고(海山籠霧暗) 사장의 포구는 조수 밀려 흐리구나.(沙浦帶潮渾) 손이 되어 속절없이 근심하고 생각하니(作客空愁思) 집으로 돌아가는건 꿈속의 혼이라네.(還家只夢魂) 참성단에 올라서 주변을 바라보면(塹城壇上望) 이 나라로 들어오는 정문을 볼 수 있으리.(應見國正門)” 이 시로써 미루어 보건대 옛날에는 성루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웅성 여러 곳이 있는데 “광해세자가 이곳에 구금되었다.”라고들 전한다.

○ 옛날에는 진보가 있어서 수군 만호를 두었으며 현종 병오년

400) 위량면은 1914년 내가면과 양도면으로 나뉘어 편입되었다.

401) 내가면 외포2리 정포마을로, 외포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402) 허봉(1551~1588) 조선 중기의 문인.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陽川).

(1666, 현종 7)에 유수 서필원(徐必遠)⁴⁰³이 아뢰어서 수군을 교동으로 옮기고 별장을 두었다. 기유년(1669, 현종 10)에는 유수 김휘(金徽)⁴⁰⁴가 도로 만호를 두었다. 숙종 무오년(1678, 숙종 4)에는 윤이제(尹以濟)⁴⁰⁵가 아뢰어서 장봉도로 옮겼지만 다시 별장을 두었다.

○ 제방은 서필원이 쌓은 것이다.

177. 외주동(外州洞⁴⁰⁶)

幽谷橫斜是外州	깊은 골짜기 비스듬히 외주(外州) 마을 있는데,
門前南出一貂頭	문 앞에 남쪽으로 초피산이 솟아 있네.
宋金兩姓連書屋	송씨·김씨의 글방이 나란히 있으니,
各採紅蓮玉漱秋	각 집안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네.

○ 외주동(外州洞) 남쪽으로는 초피산(貂皮山)의 한 봉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붓처럼 생겨서 매우 보기가 좋다. 그 거주하는 이는 여산 송씨 송기호(宋基皓)⁴⁰⁷와 김해 김씨가 있는데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그 친척과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403) 서필원(1614~1671) 본관은 부여(扶餘). 자는 재이(載澗), 호는 육곡(六谷).
 404) 김휘(1607~1677) 본관은 안동. 자는 둔미(敦美), 호는 사휴정(四休亭)·만은(晩隱).
 405) 윤이제(1628~1701)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여즙(汝楫).
 406) 내가면 외포1리 외주동으로 박골, 바깥이라고도 한다.
 407) 송기호(1865년 출생) 본관은 여산(礪山). 1885년 식년시 생원(生員) 3등 157위로 합격하였다.

178. 항주(項州⁴⁰⁸)

項州洞口問星田	항주동 입구에서 별밭을 방문하니,
牟麥春光上下連	보리가 봄별 속에 위아래로 연이었네.
申老閑眠桑樹下	신씨노인 뽕나무 아래 한가로이 졸다가도,
時呼釋子讀青篇	어린아이 공부하라고 때맞추어 소리치네.

○ 항주(項州)에는 성전(星田)이 있다. 어떤 이는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도 한다. 평산 신씨(平山申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179. 낙인동(樂仁洞⁴⁰⁹)

國賜峯前王訪村	국사봉 앞쪽에 왕방촌이 있는데,
世居全氏向陽門	전씨들이 양지쪽에 대대로 살고 있네.
丹花仙籍黃金印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 올라가니,
觀海眞工自有源	관해공의 참된 공부 스스로 근원이 있었네.

○ 낙인동(樂仁洞)은 항주에서 갈라진 동네이다. 성주 전씨 전신(全信)⁴¹⁰은 고려조의 병부상서로서 공왕(恭王)을 수행하여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 우리 태종이 공을 방문하였는데 왕방리(王訪里)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을 왕방리라고 하였다. 권농사(勸農

408) 양도면 인산2리 항주동으로 황골이라고 한다. 황골 동남쪽에 별밭(星田) 마을이 있다.

409) 양도면 인산1리 왕방 마을이다.

410) 전신(생몰년 미상) 고려말의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호는 사와(謝臥)

使)를 제수하였고 큰 산 하나를 하사하였기 때문에 그 산을 이름하여 국사봉(國賜峯)이라고 한다. 그 후손은 무과에 급제하여 연일·초계·경주의 영장(營將)과 백령 첨사를 역임하였으며 영사원종일등공신(寧社原從一等功臣)에 등록되었다. 성품이 매우 강직해서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는데 일찍이 강화부 중군(中軍) 때에 공용 면포 한 필을 마상(馬裳)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체임될 때를 미처 그 마상을 중군청에 도로 갖다 주었다. 그 아들 전기업(全起業)은 정축년(1637) 난리에 순절하였으니 일이 충렬사 주(註)에 보인다. 그 후손 관해공(觀海公) 전재봉(全在鳳)⁴¹¹은 일찍이 문과에 합격하여 대간의 청직을 거쳐서 제주 목사로 나갔다. 물러나서는 그 친척과 자손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

180. 흥천동(興川洞⁴¹²)

岐巖山下是興川	기암산 아래에 흥천 마을 있는데,
短竹疎松繞宅邊	작은 대와 성근 소나무가 집 주위에 둘러있네.
大冶爐頭金躍否	커다란 쇠가마에 쇠물을 끓이니,
犁商鼎賈若紛然	쟁기장수 술장수가 분주히 다녀가네.

○ 이 동네에는 주철(鑄鐵)의 분점(盆店)이 있는데 호미 장사와 술 장사가 많이 모여 왕래한다.

○ 산 이름은 기암(岐岩)이라고 한다.

411) 전재봉(1834년 출생)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1861년 식년시 병과(丙科) 24위로 합격하였다.

412) 양도면 삼흥2리 흥천 마을이다. 고려시대에 흥천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181. 산문동(山門洞⁴¹³)

山門洞倚碧山松	산문동은 푸른 소나무 숲에 의지하고 있는데,
漸覺泉聲瀉兩峯	양 봉우리 솟아나는 샘물소리 차츰 들리네.
灌入稻畦能免旱	논에 물을 댈 수 있어 가뭄 걱정 면하니,
年年相賀太平容	해마다 태평한 모습 서로서로 치하하네.

○ 땅의 형세가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샘물이 마르는 일이 없고, 가뭄이 들지 않는다.

182. 존강동(存江洞⁴¹⁴)

存江洞口久停鞭	존강동 입구에서 오래토록 머물다가,
因坐南宮舊榻筵	남궁씨 옛 터전에 잠시나마 앉아보네.
溪柳庭花分植處	시내버들과 정원화초 나누어 심은 곳에,
清風明月尙依然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아직도 의연하다.

○ 구춘당(九春堂)의 후손으로 주사를 지낸 남궁혁(南宮鑄)은 이곳에 살았다. 그 아들 남궁경(南宮勸)은 나와 매우 친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그 자손이 여기에 살고 있다.

413) 양도면 삼흥2리 산문 마을로 홍천 동남쪽에 있다. 이 산문동 부분이 원본에는 106면 '정두동' 뒤에 실려 있으나, <고창서 발문본>의 순서에 따라 이곳으로 옮겼다. 산문동은 홍천동과 인접하여 있다.

414) 양도면 삼흥1리 존강 마을로, 존개이·종개이라고 한다.

183. 건평동(乾坪洞⁴¹⁵)

名是乾坪卽水坪	이름은 건평이지만 물 많은 수평인가,
滿堰春波灌稻粳	둑에 가득 봄물 차니 논에 물을 대기 좋다.
且畊且讀諸君子	밭 갈면서 책 읽은 이 모두가 군자이니,
聊得斯中一味清	그러한 가운데서 맑은 기운을 얻는구나.

○ 평해 황씨(平海黃氏), 함열 남궁씨(咸悅南宮氏), 강진 안씨(康津安氏),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모두 이곳에 살고 있다.

184. 장지포(長池浦⁴¹⁶)

長池春水漲東西	장지포 봄물은 동서로 넘쳐나고,
井浦乾坪築兩堤	정포와 건평에는 두 둑을 쌓았구나.
欵笠何翁投釣餌	삿갓을 쓴 어떤 노인 낚시 바늘 던져놓고,
白鳩飛去影高低	나는 백구는 그림자가 높았다가 낮아지네.

○ 제방은 유수 서필원(徐必遠⁴¹⁷)이 쌓은 것인데 물이 항상 얕지 않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의지하여 생업을 이루어나갔다. 동서에 있는 두 제방은 항상 낚시꾼들이 있어서 취미를 얻고 있을 뿐이다.

415) 양도면 건평리이다.

416) 양도면 건평리 노고산 북쪽에 있는 갯고랑이다.

417) 서필원(1614~1671) 본관은 부여(扶餘). 자는 재이(載邇), 호는 육곡(六谷).

185. 진강산 귀운(鎭江山歸雲)

鎭江山色碧如屏	진강산 산색은 푸른 병풍을 친 듯 하고,
片片歸雲錦繡形	흐르는 조각구름 비단에 수놓은 듯하다.
首智遺墟何處是	수지현 옛터는 어디쯤에 있을까,
造翁筆下影丹青	조물주의 붓끝 아래 단청이 그려졌네.

○ 산릉을 두르고 있는 산은 별려져 있고 굽어 있어서 그 아래에 의지하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니 옛날에 진강현(鎭江縣)이 그 아래에 있었다.

○ 고구려의 수지현(首智縣)⁴¹⁸의 터는 진강 남쪽에 있었다. 그 서쪽 5리에 해녕향(海寧鄉)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능곡(陵谷)은 옮겨져서 찾을 수가 없다.

○ 돌아가는 구름(歸雲) 역시 강화부부 10경(景)의 하나이다.

186. 목장(牧場)

三百年前設牧場	삼백년 이전에 목장이 설치되어,
古稱此地馬多良	좋은 말이 많은 곳으로 오래 전부터 불려왔네.
蓋聞伐代驄云者	듣건대 별대총이라 불린 말은,
內廐嘶風獨異常	궁궐 마구간에서 울부짖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다네.

418) 원문에는 수지손(首智孫)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따라 '孫'을 '縣'으로 고쳤다.

○ 옛날에 목장이 있었는데 인조 기축년(1649)에 유수 조계원(趙啓遠)⁴¹⁹이 장계를 올려서 목장을 파하고 농사를 짓게 하자고 하였으며, 기해년(1719)에는 유수 심택현(沈宅賢)⁴²⁰이 태복을 지낼 때에 “목장에는 훌륭한 말의 종자들이 있으니 다시 목장을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길상산(吉祥山)이 이곳이다. 세속에 전하기를 “효종이 심양에서 돌아올 때 청나라 황제가 말 한 마리를 돌려주면서 ‘이것은 너희 나라 진강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가 나라로 돌아갈 때 이 말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효종은 그 말을 사랑하여 돌아와서는 장차 강을 건너고자 하니 말이 먼저 날아서 건너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비로소 그것이 신령스러운 종자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효종이 심양에서 돌아올 때 이 목장에서 팔준마를 얻었다.”라고 하기도 한다. 일설에는 “효종이 말 한 마리를 길러서 내구에 두었는데 벌대총(伐大驄)이라고 이름하였다. 이것은 진강의 종자들이 다른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이름을 지은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길렀다고 한다.

419) 조계원(1592~1670)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약천(藥泉).

420) 심택현(1674~1736)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여규(汝揆).

상도면(上道面⁴²¹)

187. 하일동(霞逸洞)

霞峴西南谷谷幽 하현의 서남쪽은 골짜기마다 그윽한데,
 山中宰相古今留 재상이 예로부터 이 산중에 머물고 있네.
 二公宅址三公墓 두 정승의 집터⁴²²와 세 정승의 무덤⁴²³ 있어,
 云是江州第一區 이곳을 강화도의 '제일구(第一區)'이라고 부른다네.

○ 상도면(上道面)은 강화부 관아 남쪽 35리에 있다. 도촌(陶村) 정유성(鄭維城)⁴²⁴은 연일 정씨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인데, 선원면(仙源面) 연동(烟洞) 부분의 주(註)에 보인다. 현종 때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며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묘는 하일리(霞逸里)의 서쪽 산기슭에 있다.

○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⁴²⁵는 도촌의 손자이다. 집터가 여기에 있는데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여러 번 조정에서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고향에 은거하면서 도학을 온전히 갖추었으며 오조를 거쳐 국태로(國太老)의 학자라고 하였다. 또 하곡(霞谷) 선생이라고 불리었으며,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의 명을 받들어 지위가 승록대부 우찬성 겸 성균궐주(崇祿大夫 右贊成 兼 成均祭酒)에까지 올랐고, 죽

421) 원본에는 '상도면'이 빠져있으나, 구창서발문본에 따라 삽입하였다. 상도면은 오늘의 양도면에 편입되었다.

422) 정제두와 최규서의 집터를 말한다.

423) 정유성, 정제두, 권개의 무덤을 말한다.

424) 정유성(1596~1664)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

425) 정제두(1649~1736)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양(士仰), 호는 하곡(霞谷).

어서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처하는 초가집은 비바람을 막지 못하여서 유수 민진원(閔鎭遠)⁴²⁶이 평소에 선생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었다. 묘는 하천(霞峴)의 동쪽 기슭에 있다. 지금 그 손자인 참판(參判)을 지낸 정원하(鄭元夏)⁴²⁷가 와서 살고 있다.

○ 영의정을 지낸 간재(良齋) 최규서(崔奎瑞)⁴²⁸는 해주 최씨인데 이 집이 진강산 서쪽에 있었다. 집이 매우 허름하여 경상(卿相)의 집 같지가 않았으며 거실에 편액하기를 수운헌(睡雲軒)이라고 하였다. 9언4구의 시가 전해진다. “구름이 산에 있을 때에는 말렸다가 퍼지고 퍼졌다가 다시 말리고(雲在岵 捲復舒 舒復捲), 사람이 난간에 있을 때에는 잠자다가 깨고 깬다가 다시 잠드네(人在欄 睡復醒 醒復睡). 말리면 잠드는 것은 사람이 산에 있고 구름이 난간에 있을 때이고(捲則睡 人在岵 雲在欄), 퍼지면 깨는 것은 사람이 난간에 있고 구름이 산에 있을 때라네(舒則醒 人在欄 雲在岵).” 당시 심은 자단(紫檀)나무와 측백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

○ 안동권씨 권개(權愷)⁴²⁹는 강정(康定) 권철(權徹)⁴³⁰의 아들이다. 관직은 호조좌랑을 지냈고, 묘는 하곡에 있다.

426) 민진원(1664~173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1705년, 1710년 두 차례 강화유수를 지냈다.

427) 정원하(1855년 출생)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성조(聖肇). 아버지는 연안도호부사 기석(箕錫)이며, 어머니는 풍산홍씨이다.

428) 최규서(1650~1735)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간재(良齋)·소릉(少陵)·파릉(巴陵).

429) 권개(1530~1568) 강화부사였던 권적의 손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권철의 아들이고, 임진왜란 때 명장 권율의 형이다. 의금부도사·호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430) 권적(1503~157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유(景由), 호는 쌍취헌(雙翠軒). 아버지는 강화부사 적(勳), 어머니는 순흥안씨(順興安氏)며, 율(慄)의 아버지이다.

188. 하촌(霞村*)

霞村卜築幾人基	하촌에 집을 짓고 누구 누구 터 잡았나,
南望貂皮一筆奇	남쪽의 초피산은 붓끝처럼 기이하다.
閔朴許同三逕月	민씨와 박씨가 함께 세 달 지내고서,
桂蓮掛榜又時時	과거 시험 함께 보고 함께 급제 하였다네.

○ 남쪽으로는 붓의 형상을 하고 있는 초피산(貂皮山)이 있는데, 여흥 민씨 장령 민응세(閔膺世)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다. 밀양 박씨 진사 박승위(朴承偉)가 이 웅일촌(雍逸村)⁴³¹에 살고 있다. 현석공(玄石公)의 손자로서 진사 박선수(朴善壽)도 이곳에 살고 있다.

189. 묵와선생(默窩先生*)

春風來拜默窩翁	봄바람 씌면서 묵와선생께 절을 하네,
世世家聲學業崇	학업 승상 가문 명성 대대로 이어온 때문.
識得箇中清意味	사물의 밝은 의미 훤히 알고 있었지만,
時人浮說摠如聾	세상의 경박한 말은 귀를 막고 안 들었네.

○ 묵와(默窩) 민재승(閔載昇)은 문학으로써 가업을 계승하였으며 그 마음은 부드럽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였다.

431) 양도면 하일리 웅일 마을이다. 하일의 남서쪽에 있다.

190. 능내동(陵內洞⁴³²)

陵內村中草結廬	능내촌 가운데에 풀을 엮어 집을 짓고,
金申坐讀古人書	김씨와 신씨가 고전을 읽고 있네.
蔭郎庠士何歸速	음직 낭관 지낸 그대는 어찌 빨리 돌아가셨나,
尤是情雲鎖舊居	정다운 구름만 옛집을 에워싸고 있구나.

○ 강릉 김씨 수창(睡窓)의 후손인 진사 김연의(金演儀)⁴³³와 고령 신씨 죽당(竹堂)의 후손인 교관 신흥구(申鴻求)는 나와 친지로서의 정이 있는 사이이다. 모두 세상 사양하고 추탄(追歎)하였다. 그 아우와 조카는 모두 이곳에 살고 있다.

191. 가릉(嘉陵⁴³⁴)

一片鎮江碧幾層	진강산 한쪽 편에 겹겹의 푸른 기운 감돌고,
白雲多處是嘉陵	흰 구름 많은 곳에 가릉이 있다네.
年年杜宇東風淚	해마다 두견새는 동풍에 눈물짓고,
每向開花百感增	개경을 향할 때마다 만감이 더한다네.

○ 고려 원종(元宗)의 비 순경태후(順敬太后)⁴³⁵의 능(陵)이다.

432) 양도면 능내리이다.

433) 김연의(1856년 출생) 본관은 강릉(江陵). 1891년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 110위로 합격했다.

434) 양도면 능내리에 있는 고려 24대 원종의 비 순경태후 무덤으로 사적 370호로 지정되어 있다.

435) 순경태후(?~1236) 고려 원종의 비. 성은 김씨(金氏). 본관은 경주(慶州).

- 개화(開化)는 송도의 옛 이름이다.

192. 조산동(造山洞⁴³⁶)

造洞來尋李石翁	조산동에 이르러 이석 응을 찾아가니,
梅蘭菊竹屋西東	매란국죽 사군자가 집 주위에 둘러있네.
四時長得春風氣	사계절 내내토록 봄기운을 얻었는가,
倚案清談老亦雄	책상 기대어 하시는 말씀 늙었지만 힘이 있네.

- 여흥 이씨로서 소릉(少陵)의 후손인 이성구(李星九)는 호가 석치(石痴)인데 이곳에 살면서 화초를 가꾸며 스스로를 즐기고 있다.

193. 장하동(場下洞⁴³⁷)

古木春深荷麓村	하록촌의 고목에도 봄기운이 완연한데,
權公舊第遍開門	권 선생 옛집엔 저 멀리 문 열렸네.
追思四十年前事	사십 년 전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牖我書中自有源	내가 쓰는 글숨씨의 연원이 여기 있네.

- 안동 권씨 환성재(喚惺齋) 권갑만(權甲萬)은 미수(尾叟)의 문인

아버지는 약선(若先)이다.

436) 양도면 조산리이다.

437) 현재의 양도면 도장2리 장아래마을이다. 진강목장의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하였다.

이다. 은거하면서 벼슬하지 않았다. 6세손인 하은공(荷隱公) 권호(權灝)는 문장과 효로써 세상에 드러났는데 내가 일찍이 수학한 적이 있다. 그의 손자인 주사를 지낸 권병두(權炳斗)와 여러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194. 청주한씨(淸州韓氏)

鎮江山下列韓門	진강산 아래에 한씨 가문 모여 사니,
認是槐亭裕後昆	이들은 모두가 삼괴정의 후손이네.
入室眞工司馬老	입실 공부 바르게 하여 진사로 늙어 가니,
至今光彩動文垣	지금까지 문장으로 빛을 발하고 있구나.

○ 청주 한씨로서 삼괴정 한경린의 후손인 한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 중에 한형석(韓亨錫)⁴³⁸은 고종 을유년(1885)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일찍이 문학으로 이름을 떨쳤다.

195. 평해황씨(平海黃氏)

欲問荷軒正悄然	하헌 덕을 방문하려니 정녕 숙연하여지네,
穉蘭小屋兩三椽	어린 난초 있는 작은 집에 서까래 두세 개 뿐.
眞源覺得清如許	참된 근원 청백함을 깨달아 얻었나니,
薇月藝風度六年	미월(薇月) 예풍(藝風)과 함께 6년 세월을 보냈

438) 한형석(1866년 출생) 본관은 청주(淸州). 1885년 식년시 생원(生員) 3등 189위로 합격했다.

었네.

○ 하천(荷軒)은 평해 황씨 황장(黃璋)공이다. 충신공(忠臣公)의 7세손이며 무안공(務安公)의 고손이다. 일찍이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분인데 내가 일찍이 그의 문하에서 6년 동안 수학하였다. 지금은 어린 손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196. 석릉(碩陵⁴³⁹)

碩陵知在鎮江巒	석릉이 진강산에 자리함을 아노니,
獨閉空林月影寒	빈숲에 홀로 문 닫고 있자니 달그림자 차갑구나.
猗我聖朝封築謹	아, 우리나라 조정에서 봉분을 수축하고,
年年奉審地方官	해마다 지방 관리가 받들어 살핀다네.

○ 고려 희종⁴⁴⁰의 능(陵)이다. 강화부의 4기의 왕릉은 우수 조복양(趙復陽)⁴⁴¹이 찾아내어 봉분을 개축하였다. 10년 마다 예조에 낭관을 파견하여 살피도록 하였으며 지금 지방의 관원들이 해마다 순찰하여 살피고 있다.

○ 고려 태조의 현릉(顯陵)은 왕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참봉을 두었으며 매년 봄가을로 여러 능을 두루 살폈다.

439) 양도면 길정리에 있는 고려 희종의 무덤으로 사적 제369호로 지정되어 있다.
 440) 희종(1181~1237) 고려의 제21대 왕. 재위 1204~1211. 이름은 영(諱), 초명은 덕(德). 자는 불피(不陴).
 441) 조복양(1609~1671)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강화유수로는 1664년 1월에 부임하여 1665년 2월에 이임하였다.

197. 장두동(場頭洞⁴⁴²)

場頭洞在野中間	장두동은 들관의 가운데에 있는데,
低麓如籬四面環	낮은 기슭 울타리처럼 사면을 둘렀네.
列屋東南誰是主	동남쪽에 늘어선 집은 주인이 누구일까,
安居樂業摠閑閑	안씨들이 생업을 즐기며 사니 모든 것이 한가롭네.

○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198. 추포정(秋浦亭⁴⁴³)

秋浦亭墟摠緲然	추포정 옛터는 아련하기만 하니,
一坪水色一空烟	은 들에는 물빛이요 온 하늘에는 연기일세.
堤頭香木人猶指	제방위의 향나무를 사람들이 가리키며,
曾繫黃公釣月船	일찍이 황공이 낚시배를 묶었었다네.

○ 판서 추포(秋浦) 황신(黃愼)⁴⁴⁴의 집터는 상도리(上道里) 추포정(秋浦亭)에 있었다. 정자 터에는 향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지금은 매우 무성하다. 세속에 전하기를 가릉언(嘉陵堰)과 선두언(船頭堰) 두 제방이 아직 쌓여지기 전에 황공은 이곳에서 배를 묶었다고 한다.

442) 양도면 도장1리 장두동이다.

443) 양도면 도장리에 있다.

444) 황신(1562~161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사숙(思叔), 호는 추포(秋浦).

199. 가릉포(嘉陵浦⁴⁴⁵)

嘉陵春水晚來生 가릉벌의 봄물이 늦게야 고여서,
荷鋤紛紛灌稻坪 가래질 바빠하여 논에다 물을 대네.
靜聽老農桑下語 늙은 농부 뽕나무 밑에서 하는 말 조용히 들어
 보니,
風調雨順際昇平 풍우가 순조로워야 태평세월 맞을 텐데.

○ 가릉포(嘉陵浦)는 상도(上道), 오동(五洞)의 사이에 있다. 저장되어있는 물이 항상 부족할까 염려되었으며, 반드시 비가 순조롭게 와야만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

445) 양도면 능내리의 개울이다.

 하도면(下道面⁴⁴⁶)

200. 문산동(文山洞⁴⁴⁷)

摩尼東北是文山	마니산 동북쪽이 문산리 마을인데,
某某家門在此間	이런 저런 가문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
士者先知農業重	선비된 자 농사의 중요함을 먼저 알아,
時從野外勸耕還	때를 맞춰 밭에 나가 경작 권하고 돌아오네.

- 하도면(下道面)은 강화부 관아 남쪽 50리 지점에 있다.
- 문산동(文山洞)은 예전의 박산(博山)이다.
- 파평윤씨(坡平尹氏), 의령남씨(宜寧南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안정나씨(安定羅氏)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201. 상방동(上坊洞⁴⁴⁸)

東風吹到上坊村	동풍이 일어나서 상방촌에 불어오니,
李柳春光關兩門	이씨와 유씨가 문을 열고 봄빛 맞네.
耕讀漁樵勤儉業	밭 갈고 책 읽고 고기잡고 나무하며 부지런히 일하니,

446) 원본에는 ‘하도면’이 빠져있으나, 구창서발문본에 따라 삽입하였다. 하도면은 현재의 화도면이다.

447) 화도면 문산리이다.

448) 화도면 상방리이다.

還⁴⁴⁹⁾從物外起田園 욕심 없이 한가하게 전원에서 살고 있네.

- 양성 이씨(陽城李氏)는 이풍천(李豐川)의 후손이다.
- 유씨(柳氏)

202. 내동(內洞⁴⁵⁰⁾)

內洞水石最云奇 柿棗千株列作籬 宦客騷人多寓此 鶯花富貴又兼之	내동은 수석이 기이하다 말들하고, 수많은 감나무와 대추나무로 울타리를 둘렀네. 관료들과 문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 영화와 부귀를 겸하고 살았네.
--	--

○ 이곳은 물과 돌이 많고 기이하며 감과 대추가 이곳에서 잘 자란다. 근래에는 서울의 벼슬아치와 본향의 선비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

203. 마니산(摩尼山)

來坐摩尼最上頭 江州一片泛如舟 檀君石迹撐天地 萬億年間與水留	마니산 최상봉에 올라가 앉아 보니, 강화섬 한 조각이 배를 띄운 듯하구나. 단군의 돌 단은 천지를 떠받들고, 억만년 긴 세월을 물과 함께 남아있네.
--	---

449) 구창서발문본에는 ‘還’이 ‘閑’으로 되어 있다.

450) 화도면 내리이다.

○ 참성단(塹城壇)은 정상에 있으며 돌을 포개어 쌓았다. 일명 참성단(參星壇)이라고도 한다. 전해지기를, 단군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지내 근본에 보답하였다 한다. 동방의 특교(特郊)의 예(禮)로 지내는 바라고 한다. 또 단군이 쌓은 이 단에서 하늘에 제사지냈다고도 한다.

○ 북쪽 기슭에는 천재암(天齋庵)이 있는데 고려 때 태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 대언으로써 이곳에서 주무시고 산제(山祭)를 지내셨다고 한다.

○ 고려 고종 46년(1259)에 교서랑(校書郎) 경유(景瑜)의 말을 따라서 이 산 남쪽에 이궁(離宮)을 지었다고 한다. 또 산천제단(山川祭壇)이 있었다.

○ 우리 조정에서는 특교의 예로 매년 2월과 8월에 날짜를 정하여 행하였으며, 축문이 서울(京師)에서부터 이르렀다.

○ 목은(牧隱) 이색(李穡)⁴⁵¹의 시는 다음과 같다. “분향하고 앉았는데 곁에서 시를 읊네(焚香清坐側吟頭) 텅 빈 실내는 배(舟)처럼 작구나!(一望虛明小似舟) 기분 좋은 가을 햇빛 문을 열면 들어오고(最愛秋光開戶入) 산 그림자는 뜰에 가득 머무누나.(更邀山影滿庭留) 몸에는 먼지 없으니 봉황(鳳)을 탄 느낌이고(身輕無垢思騎鳳) 세상 일 잊은 마음 갈매기(鷗)와 친하려네.(心靜忘機欲近鷗) 연단(煉丹)을 먹지 않아도 신선이 되는 길은(不用煉丹永羽花) 육정(六情)을 청소하면 저절로 자연의 도를 깨치네(掃除六鑿更天遊)”

○ “무슨 일로 무릉(茂陵)에서 신선 되길 원할까(茂陵何事苦求仙) 봉래산이 어찌면 여기인 것을.(祇是蓬萊亦或然) 산인지 구름인지 한계조차 없는데(山與浮雲自無際) 바람불자 배도 가니 어느 것이 먼저

451) 이색(1328~1396) 고려말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찬성사 곡(穀)의 아들로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일꼬.(風吹船去莫能前) 금인(金人)⁴⁵²의 이슬방울 그릇에 고여 있고(金人一滴盤中露) 청오(靑鳥)⁴⁵³도 한 마리 바다 위에 날고 있네.(靑鳥孤飛海上天) 어떤 것이 참성단에 치성을 드림과 같으리요(何似壘城修望秩) 앉아서 태평 세상 누리게 될 것을.(坐令人享太平年)”

○ “산하가 이처럼 험준하니(山河險如此) 웅장하다 우리 국토여!(壯哉吾有國) 절정(絶頂)엔 구름의 기운이 흐르고(絶頂雲氣流) 벼랑엔 교목(喬木)이 걸쳐 있네(傾崖俯喬木) 바람이 불면 장소(長嘯)가 일어(臨風發長嘯) 여운이 바위골을 진동하누나(餘音振巖谷) 소문산(蘇門山)⁴⁵⁴에 들어가 숨어 버릴까(欲繼羨門遊) 석수(石髓)⁴⁵⁵도 이제 청색일 텐데.(石髓今正綠)”

○ “해와 달은 수레의 쌍수레바퀴요(日月兩轂輪) 우주는 한 칸의 집이로세.(宇宙一門屋) 이 단(壇)이 천작(天作)은 아닌데(此壇非天成) 누가 쌓았는지 알 수 없으라.(不知定修築) 향연(香煙) 오르니 별조차 낮은 듯(香昇星爲低) 악곡이 연주되어 분위기 엄숙하네.(章入氣初肅) 공경히 신의 섭리에 응답할 뿐(祇以答神祝) 어떻게 스스로 복을 구할

452) 쇠붙이를 주조하여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둔 것인데 진시황이 천하의 병기를 함양(咸陽)에 모두 집합, 그것을 녹여서 금인 12개를 만들어 궁중에 세웠는데 이것은 진(秦)나라 이외의 중국 천하를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계획이었으며, 금인의 손바닥에 고이는 이슬을 받아서 먹으면 장생불사의 신선이 된다는 등의 전설들은 후세 사람들의 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53) 청색의 까마귀. 〈分信道士步虛詞〉에는 ‘적봉(赤鳳)은 구슬을 물고 날아오고 청오는 책을 바친다’는 글이 보이는데 적봉과 함께 신선이나 도사의 생활을 읊는 시부(詩賦) 등에 등장하는 가상적인 상물(祥物)인 듯 하다.

454)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이름으로 일명 蘇嶺·百門山 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산 꼭대기에 百門泉이 있어서 불허진 이름이다. 쑤의 孫登과 宋의 邵雍 등이 이곳에 올라가서 선도를 익히며 은거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455) 石鐘乳의 별명이며 玉髓라고도 부른다. 〈仙經〉에는 5백년에 한번 열리는 석수를 따서 먹으면 장생불사한다고 쓰여 있는데, 옛 사람들이 仙遊·隱居 등의 시를 지을 때 자주 쓰여지는 문귀이다.

수 있으랴.(何以自求福)”

○ “바람을 타고 요대에 오르니(長風吹我上徭臺) 넓은 바다 높은 하늘 만리까지 트였도다.(海闊天遙萬里開) 벼슬 버리고 먼지 털며 발을 씻지 않아도(不用振衣仍濯足) 학을 탄 신선의 피리소리 들리는 듯 하네.(似聞笙鶴駕空來)”

○ “만길 높은 단엔 밤 기운도 맑은데(萬丈玄壇夜氣清) 녹장(綠章)⁴⁵⁶이 울러오니 세상 인정 잊혀지네.(綠章才奏澹忘情) 돌아가는 말안장에 장생복(長生福) 가득 실어(歸鞍滿載長生祿) 우리 임금께 올리면 태평성세 이루리.(拜獻吾君作太平)”

○ 이강(李岡)⁴⁵⁷의 시는 다음과 같다. “심신이 한가하니 신선처럼 느껴져서(心精身閒骨欲仙) 아득한 인생살이 망연도 하네.(遙思人事正茫然) 제물을 바쳐 제사함은 증흥된 오늘이요(薦蘋秘席中興後) 돌을 모아 영단(靈壇)을 만든 때는 태고였어라.(疊石靈壇太古前)”

○ 이미 눈은 천리 밖 땅을 보게 되었고(已得眼看千里上) 이 몸은 구중 하늘에 떠있는 듯 하여라.(恍疑身在九重天) 혼자뿐인 이번 행차 아무도 모르겠지(此行無偶如相說) 누가 환도(還都)의 첫해를 맞이 하려나.(誰值還都第一年)

○ 저촌(樗村) 이정섭(李廷燮)의 시는 다음과 같다. “수많은 봉우리에 석대가 높으니(亂峯中斷石臺峩) 구름 바다 비껴가니 굽어서 묻지르네.(雲海橫前可俯摩) 구름 물결 말려들어 기이한 산 무너지고(雲浪卷疑頽玉嶂) 아스라이 배뚝대는 은하를 범하려하네.(風檣渺欲犯銀河) 먼하늘 운무는 남쪽 섬에 자욱하고(遙天霧吐三南島) 포구의 조수는 천리 모래 뒤덮네.(支浦潮吞千里沙) 힘이란건 다하지만 마음은 끝

456) 道士가 천신에게 올리는 녹색의 편지를 말하는데 즉 봄의 찬미같은 것이다.

457) 이강(1333~1368)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수문하시중을 지낸 암(嶽)의 아들이다.

이 없어(目力有窮心不極) 기이한 절경에서 한번 높게 노래하네.(茲遊
奇絶一高歌)”

204. 천재암(天齋庵)

天齋庵後一壇崑	천재암 뒤에는 높은 단이 우뚝하니,
上帝監臨下八垓	상제가 강림하여 팔방을 내려 보네.
昔我太宗昭事地	옛적에 태종이 제사 모시러 온 곳이니,
至今御祝自京來	서울서 온 임금님축문 오늘까지 전하네.

○ 자세한 것은 위의 주(註)에 보인다.

205. 성단청조(星壇淸眺)

星壇淸眺遠無迷	참성단 밝게 보여 멀지만 흐릿하지 않고,
東峽南湖又海西	동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바다라네.
五百里如雙眼入	오백 리 먼 거리가 두 눈에 들어올 듯하고,
冥鴻歸處影高低	저멀리 기러기 돌아가는 곳 그림자는 높았다 낮 아지네.

○ 참성단의 맑은 조망 역시 강화부의 10경(景) 중의 하나이다.
이 단에 오르면 동서남 5백리의 땅이 모두 시야에 들어오며 환히 알
수 있다.

206. 망도서(望島嶼)

回首西南海色長	고개 돌려 서남쪽 보니 바다 넓게 펼쳐있고,
浮浮島嶼摠環疆	떠 있는 섬들도 모두다 우리 강토.
列星半落青天外	열 지은 별들이 하늘 밖으로 기우니,
點點如碁一局張	점점이 늘어선 모습 한판의 바둑판 같구나.

○ 정상에 올라 서남쪽을 바라보면 강화부의 14개의 섬이 바둑처럼 펼쳐져 있다.

○ 14도는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 매음도(媒音島), 사도(蛇島·거주민은 없고 산에는 대나무가 있다), 석모도(席毛島), 미법도(彌法島), 서검도(西黔島), 동검도(東黔島), 말도(耒島), 불음도(虜音島 ; 혹은 望島라고도 한다. 강화부의 향교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터와 위전만이 남아있다.), 아차도(阿此島) 등이 있다.

○ 유수 이민서(李敏叙)⁴⁵⁸의 시는 다음과 같다. “가벼운 바람 불어 돌아온 배 보내고(輕颺拂拂送歸帆) 안석에 기대어서 초연하게 취한다네.(隱几超然倚半酣) 물 건너 산을 보니 원근이 어지럽고(隔水看山迷遠近) 돛대 돌려 기를 굴러 방향을 잃었다네.(回檣轉舵失東南) 서쪽으로 나는 새 그 수는 셀 수 없지만(日西翔鳥且千百) 안개에 고깃배는 몇 척이 아니 되네.(烟際漁舟時兩三) 믿을 만한 강도부는 서로가 도와서(賴有府中携手客) 사람을 흥을 돌아 끝까지 살피네.(令人發興得窮探)” 이 시의 제목은 ‘주문도(注文島)’이다.

○ 유수 이민서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배 버리고 작은 섬을 찾으니(捨舟尋小島) 숲속에서 오르기도 내리기도(榛逕歷高低) 황량한 산

458) 이민서(1633~168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충(彝仲), 호는 서하(西河). 1683년 강화부유수가 되고, 예조·호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아래엔 옛우물 있고(古井荒山下) 교목의 서쪽에는 초가가 있네(茅茨
喬木西) 깊은 이랑 좋은 토질 자랑하고(畝深誇土美) 궁벽한 곳 바위
에서 사는 듯(地僻類巖棲) 예전에는 뗏목타고 다녔지만(宿昔乘桴地)
바람 따라 처량한 이 마음(臨風意更淒)” 이 시의 제목은 ‘장봉도(長峯
島)’이다.

○ 유수 이민서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바람 물결 치고 치니 앞의
섬이 어둡고(輕颺拂拂送歸帆) 쉬지 않고 밤새 돌아 배를 옮기네.(隱
几超然倚半酣) 뜬 구름 없어지고 온누리가 맑아지니(隔水看山迷遠近)
밝은 달이 떠올라 배앞에 걸리네.(回檣轉舵失東南) 허공에 의지해 부
요⁴⁵⁹의 힘 아니 빌려(日西翔鳥且千百) 뜻을 얻어 진실로 실컷 노니
네.(烟際漁舟時兩三) 취하여 누워서는 날새는 줄 모르고(賴有府中携
手客) 새벽되어 흰갈매기 나는 꿈을 꾸다네.(令人發興得窮探)” 이 시
의 제목은 ‘상월(賞月)’이다.

207. 장곶동(長串洞⁴⁶⁰)

尼嶽西停長串村	마니산 서쪽의 장곶촌에 머무니,
鎮墩無迹海雲翻	진과 돈대 흔적 없고, 바다 구름만 피어나네.
樞官庠士朱兄弟	중추원 의관 지낸 주씨 집안 형제는,
楊柳樓臺始闢門	양류 누대에서 가문을 열었네.

○ 장곶(長串)은 예전에 진과 돈이 있어 별장을 두었다. 병진년

459) 부요(扶搖)는 부상(扶桑)을 말한다. 즉 해 뜨는 곳에 있다고 전하는 신목(神木)이다.

460) 화도면 장화리이다.

(1676)에 유수 허질(許秩)이 설치한 바로서 지금은 폐하였다. 신안 주씨인 주윤창(朱潤昌)이 의관(議官)을 지냈고 아우 주윤호(朱潤鎬)⁴⁶¹⁾는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208. 여차동(如此洞⁴⁶²⁾)

如此洞開海一濱	여차동은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데,
李高窓下各逢春	이씨 고씨네 창문에는 봄기운이 가득하네.
白鷗何事疑漁網	백구는 무슨 일로 고기 그물 의심하나,
與爾年年共許親	오래 세월 함께 살며 허락한 친구 사이인데.

○ 경주 이씨와 제주 고씨가 여기서 많이 살고 있다. 이곳은 바다 가라서 고기잡이와 소금으로 생업을 삼고 있다.

209. 흥왕동(興王洞⁴⁶³⁾)

興王村裡列韓基	흥왕촌 마을에는 한씨 집안이 자리 잡아,
山石撐牆水拍籬	산돌로 담 두르고 개울물로 울타리 쳤네.
書士指言麗代事	고려시대 일들을 서생이 말하는데,
文宗昔日祝神釐	그 옛적 문종이 복을 빌던 곳이라네.

461) 주윤호(1877년 출생) 본관은 능성(綾城). 1894년 식년시 진사(進士) 3등 254위로 합격했다.

462) 화도면 여차리이다.

463) 화도면 흥왕리이다.

○ 흥왕촌(興王村)이 곧 흥왕동(興王洞)이며, 일명 희황촌(羲皇村)이라고도 한다. 청주 한씨는 삼괴정 한경린의 후손 한씨들의 세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 예전 흥왕사(興王寺) 평전(平田)에 주춧돌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징험할 수 있다. 대개 고려 문종의 축리소(祝釐所)였다. 어떤 이는 “고려 고종 46년(1259)에 교서(校書) 경유(景瑜)의 말을 따라 이곳 에다가 이궁(離宮)을 지었다.”고 하였다.

210. 화포선생집터(花浦址⁴⁶⁴)

花浦舊基問在何	화포선생 옛 집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居人尙指一雲坡	구름 낀 언덕을 그곳 주민이 가리키네.
大江流去碑猶立	큰 강물은 흘러가도 아직 비석 서있으니,
到此踟躕不忍過	여기 오면 머뭇거리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 화포(花浦) 홍익한(洪翼漢)⁴⁶⁵ 학사(學士)의 집터는 흥왕동(興旺

464) 화포 홍익한의 집터는 흥왕리 큰말 서북쪽 끝말(고른말)에 있다.

465) 홍익한(1586~1637)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習).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이정구(李廷龜)의 문인이다. 1624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1635년 장령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崔鳴吉) 등의 화의론(和議論)을 극구 반대하였다. 이 난으로 두 아들과 사위가 적의 칼에 죽었고, 아내와 며느리는 자결하였으며, 늙은 어머니와 딸 하나만 살아남았다.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의 강요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과 함께 청나라로 잡혀갔다. 그곳에서 갖은 협박과 유혹에도 끝내 굽히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른바 ‘삼학사의 한 사람이다. 강화의 충렬사, 광주(廣州)의 현절사(顯節祠), 평택의 포의사(褒義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화포집(花浦集)》이 있고, 영의정

洞)에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충렬사 주(註)에 보인다. 김종후(金鍾厚)가 돌에 새겨 세워 놓았다.

211. 동막동(東幕洞⁴⁶⁶)

東幕村前水拍堤	동막촌 앞쪽에는 물막이 뚝이 있고,
碁巖隨勢自高低	바둑바위 물때 따라 높아지고 낮아지네.
年年三月南遊客	해마다 3월이면 놀러오는 나그네가,
小店斜陽問絡蹄	석양 무렵 가게에서 낙지를 찾는다네.

○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데 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바둑돌같은 암석이 갯벌에 여기저기 박혀있다. 바닷가의 낙지는 ‘소팔초어(小八梢魚)’라고도 하는데, 늦은 봄에 술안주로 매우 좋다고 한다.

212. 해산정(海山亭⁴⁶⁷*)

遲遲來坐海山亭	천천히 해산정에 올라와 앉으니,
亭古人歸水不停	정자는 낡고 사람은 가고 없어도 파도는 멈추질 않네.
唯有東堤槐一樹	오직 동쪽 제방 위에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는,
數百年來獨自青	수백 년 살았지만 혼자 질로 푸르네.

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466) 화도면 동막리이다.

467) 화도면 동막리 정전(긴발말)에 있었다.

○ 마니산 남쪽 바닷가 산의 정자는 참봉 신광일(申光一)이 세워 놓은 것이다. 정자 동쪽에는 한 그루의 큰 괴목이 있는데 대체로 수백 년은 되었다. 단청이 칠해져 있어 평범한 정자와는 다르다. 지금 폐지되었다.

213. 정수사(淨水寺⁴⁶⁸)

淨水幽深地不凡	정수사 그윽하고 그 터도 비범하니,
法華金字匣中緘	법화경 금자 사경 서갑 속에 봉해 있네.
浮屠前殿涵虛蹟	부도 앞쪽 전각은 함허대사 유적인데,
今日猶傳閻氏巖	각시바위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오네.

○ 정수사(淨水寺)는 마니산 동남쪽 계곡 가운데에 있다. 절 아래에 부도전(浮屠殿)이 있었는데 명나라 영락 연간(1403~1424)에 이름이 득통(得通)이고 호가 함허자(涵虛子)인 스님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와서⁴⁶⁹ 이곳에 절을 짓고 살았다. 이곳에 각씨암(閻氏巖 또는 角氏巖)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전하기를 함허자가 이 암자에 머물면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자 그 아내가 찾아와서 돌아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죽어서 바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468) 화도면 사기리 마니산 남쪽에 있으며, 정수사법당은 보물 제161호로 지정되어 있다.

469) 함허기화(1376~1433) 조선 초기의 유불조화론을 주장한 고승. 성은 유(劉)씨이고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호는 득통(得通), 당호는 함허(涵虛). 21세에 관악산 의상암에서 승려가 되었고, 회암사·대승사·현등사 등에서 수행하였고, 봉암사에서 열반하였다. 그가 중국에서 왔다는 전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름이 되었다고도 한다.

○ 《법화경(法華經)》의 십여구를 금으로 쓴 것이 있는데, 어떤 이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쓴 것이라고 한다.

○ 동악(東岳) 이안눌의 시는 다음과 같다. “천년의 세월에 부도전은(千古浮屠殿) 마니산 기슭의 동쪽이라네.(摩尼嶽麓東) 인적 드문 휘감는 산속에(山回人境隔) 하늘 넓어 해문으로 통하네.(天闊海門通) 지는 달에 소쩍새는 지저귀고(蜀魄啼斜月) 밤바람에 배꽃이 떨어지네.(梨花墮暗風) 범의 대에 누가될까 두려워(慚爲虎竹累) 하루 자고 신선과 이별하였네.(一宿別仙翁)”

○ 병술년 유수 이은(李潑)⁴⁷⁰이 동생 이미(李瀾)⁴⁷¹와 함께 이 절에 와서 시를 짓고 선조 동악 이안눌의 시판(詩板)을 우러러 보았다. 시는 다음과 같다. “도읍에 머물다 한가한 날에(留都能暇日) 밤새도록 산 속을 헤맸다네.(冥搜岳東西) 국화길은 가을의 늦은 때이고(菊磴三秋晚) 절에 있으니 사방이 통하네.(禪樓四望通) 모여서 훌륭한 일 전하자니(聯裾傳勝事) 벽에 붙여 유풍을 이어가네.(題壁挹遺風) 참성단을 향해서 떠나니(更向星壇去) 단목옹의 발자취를 묻는다.(問踵檀木翁)”

○ 동생 참의 이미의 시는 다음과 같다. “푸른 바다 저 먼 곳을 건널 때(涉遠滄溟際) 읊조리며 산 동쪽을 오르네.(吟蹤上岵東) 단풍나무 삼나무 가을 해가 비추고(楓杉秋日暎) 누각에선 저녁 조수와 통하네.(樓殿夕潮通) 옛날의 정숙하고 고운 시는(古貞娃跡詩) 우리 조상의 유풍을 전하네.(傳我祖風迎) 앞의 서너 낱……(前三四衲□⁴⁷²)

470) 이은(1722~1781)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치호(稚浩), 호는 첨재(瞻齋). 1766년 강화유수를 지냈으며, 그 후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471) 이미(1725년 출생) 본관 덕수(德水), 자는 중호(仲浩)

472) 원문에 빠진 글자가 있어 해석이 어렵다.

옛날의 영웅(玲翁)을 알 수 있다네.(能識舊玲翁)”

○ 절 앞에 정녀석(貞女石)이 있다. 선집(先集)에도 정수사의 영상인(玲上人) 준 시(詩)가 있어서 아울러 스스로 주를 낸 것이다.

214. 사기동(沙器洞⁴⁷³)

沙器洞前水向東	사기동 마을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李公節義弟兄同	이공의 절개심은 형제가 한 가지네.
家園喬木葱籠氣	집 앞 정원 키 큰 나무 무성하게 자랐는데,
雨露光中海日紅	이슬방울 빛이 나고 저녁노을 붉게 탄다.

○ 사기동(沙器洞)에는 이시원(李是遠)⁴⁷⁴의 집이 있는데 병인년(1866) 난리에 공이 동생 군수공(郡守公) 이지원(李止遠)⁴⁷⁵과 함께 연명상소를 올리고 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상공을 추증 받고 충정공(忠貞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아들 이상학(李象學)⁴⁷⁶

473) 화도면 사기리로 큰사골과 작은사골이 있다.

474) 이시원(1790(정조 14)~1866(고종 3). 조선 후기의 문신·의사(義士).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직(子直), 호는 사기(沙磯). 정종의 별자(別子)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진사 만백(勉伯)의 아들이며, 건창(建昌)의 할아버지이다. 개성부유수, 형조판서, 함경도관찰사,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되자, 아우 지원(止遠)과 함께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충정(忠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475) 이지원(?~1866) 본관은 전주(全州). 군수를 지냈으며,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부를 점령하자, 형 시원(是遠)과 함께 유소(遺疏)를 올리고 자결하였다.

476) 이상학(1829년 출생)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권(士勸), 이조판서 이시원의 아들, 이견창의 아버지이다.

은 음사(蔭仕)하여 군수를 여러 번 역임하였다. 그 손자 이건창(李建昌)⁴⁷⁷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는 관찰사의 직책을 주어 3번이나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집에서 별세하였다.

215. 덕포동(德浦洞⁴⁷⁸)

貂皮山下聽黃鸝 초피산 아래에서 피꼬리 소리 들노라니,
列柳家門⁴⁷⁹一色齊 유씨네 집들이 가지런히 자리했네.
白髮青衫司馬老 백발에 푸른 장삼 입고 진사로 늙었지만,
曾年詞賦動江西 그의 시문 일찍이 강화 고을 감동시켰네.

○ 전주 세족 유씨들이 초피산 아래 즉 덕포(德浦)에 많이 살았다. 유응(柳應)⁴⁸⁰은 일찍이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만년에 사마시에 합격해서 돈녕부 도정으로 승차되었다.

216. 선평만가(船坪晩稼)

東到船坪聽野謳 동쪽의 선두평엔 들노래가 들리나니,
年年晩稼早登秋 해마다 늦게 심지만 일찍이 추수하네.

477) 이건창(1852~1898) 조선 말기의 문신·대문장가.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478) 화도면 덕포리이다.

479) 구장서발문본에는 ‘門’이 ‘家’로 되어 있다.

480) 유응(1859년 출생)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심(敬心). 1879년 식년시 생원(生員) 2등에 합격했다.

閔堤洪匣皆恩澤 민유수의 제방과 홍유수의 갑문이 모두 은택 끼
 쳤으니,
 永與長江水共流 영원토록 저 긴 강물과 함께 흐르리.

○ 선평(船坪)은 곧 선두포(船頭浦)이다. 늦은 벼 역시 본부 십경 중의 하나이다. 숙종 병술년(1706)⁴⁸¹에 유수 민진원(閔鎭遠)⁴⁸²이 포구의 제방을 쌓아 들관을 만들었고, 철종 임술년(1862)에 유수 홍원섭(洪遠燮)⁴⁸³이 또 제방 내에 큰 수문을 만들자 포구의 백성들이 신뢰하여 비를 세우고는 ‘민공의 옛제방이고 홍공의 새로운 갑문이다’라고 하였다.⁴⁸⁴

481) 원문에는 숙종 병인년(1686)으로 되어 있으나, 병술년(1706)의 오류로 생각된다. 선두포에 제방을 쌓은 공사의 시말은 적어 1707년에 세운 '선두포 축언시말비(船頭浦築堰始末碑)'가 화도면 사기리 비석군에 있다.

482) 민진원(1664~173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1705년과 1710년 두 차례 강화유수를 지냈다.

483) 홍원섭(1798~?)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이강(而剛). 1862년 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484) 수문 설치공사의 시말을 적은 1863년에 세운 '중수문비(中水門碑)'가 화도면 사기리에 있다.


길상면(吉祥面)
217. 선두동(船頭洞⁴⁸⁵)

船浦東頭問白鷗	선두포 동들머리서 백구에게 묻노니,
鎮雲已逐海雲收	진보 구름 내보내고 바다 구름 받았구나.
綠楊明月誰爲主	푸른 버들 밝은 달은 그 누가 주인인가,
李沈兩家同起樓	이건방 심의정 선생이 함께 누각 세웠다네.

○ 예전에는 진장(鎭將)의 관방(關防)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다. 요즘엔 진사 이건설(李建芳)⁴⁸⁶과 참봉 심의정(沈宜禎)이 이 동네에서 산다.

218. 장흥동(長興洞⁴⁸⁷)

長興烟色繞蟾巖	장흥리 연기는 섬암을 감싸 안고,
白波如帶碧山屏	흰 물결은 푸른 산을 병풍처럼 둘렀네.
松下來逢黃衛將	소나무 아래에서 황위장을 만났더니,
笑言林壑摠非凡	이 골짜기 온통 비범하다 웃으면서 말을 하네.

485) 길상면 선두리이다.

486) 이건설(1861~1939) 조선 말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춘세(春世), 호는 난곡(蘭谷). 문장에 능하였으며, 저서로는 <난곡존고 蘭谷存藁> 13권이 있다.

487) 길상면 장흥리이다.

○ 장흥동(長興洞)은 예전의 장걸동(長傑洞)이다. 섬암(蟾岩) 감목관(監牧官)이 있었다.

219. 산후(山後⁴⁸⁸)

山後花開海映紅	산뒤마을 꽃이 피니 바다에 붉게 비치고,
黃司馬坐管春風	황진사는 좌정하여 봄바람을 맞고 있네.
丙寅往事何堪說	병인년 지난 일을 어찌 감히 말로 할까,
聖廟播遷茅屋中	대성전의 위패 옮겨 모셨네 이 마을 초가집에.

○ 진사 황명희(黃明熙)의 조상 직장 황호덕(黃浩憲)이 일찍이 강화부의 분교관(分敎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병인양요가 일어나 성이 함락되던 날 밤에 대성전으로 들어가 5분의 성인의 위패를 지고 나와 이 마을의 집에 안치했다가 서양인이 몰려나자 다시 대성전에 봉안하였다.

220. 전등사(傳燈寺)

傳燈寺下覺心清	전등사에 이르니 마음이 맑아지네.
老去奇觀在此行	늙어감의 명승관광 여기에서 하게 됐네.
樹頭鷓喚黃金擲	나무 위에 피꼬리 우니 황금을 던진 듯 하고,
鰲口龍噴白玉生	우물 입구서 용이 내뿜으니 백옥이 생기는 듯.

488) 길상면 선두리 산후마을 즉, 산뒷말이다.

○ 전등사(傳燈寺)는 정족산성(鼎足山城)에 있는데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다. 고려 원종 7년(1266, 원 지원 3년)까지 세 번 중수하였고, 고려 충렬왕 원비(元妃) 정화궁주(貞和宮主)⁴⁸⁹)가 승려 인기(印奇)를 시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대장경을 인쇄하여 오게 하여 이 절에 두었다고 한다. 불전(佛前)에 옥등(玉燈)이 있으니 역시 정화궁주가 시주한 것이라고 한다.

○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시는 다음과 같다. “나막신에 산오르니 흥이 절로 맑은데(蠟屐登山興自清) 전등사의 노승은 우리 같길 인도하네.(傳燈老釋導吾行) 창사이로 먼 나무는 하늘 닿아 서있고(窓間遠樹齊天立) 누 아래엔 바람불어 물결이 이는구나.(樓下長風吹浪生) 역법 알아 유명했던 사람은 오태사⁴⁹⁰)이고(星曆滄茫伍太史) 구름 안개가 김처럼 휘감는 건 삼랑성이네.(雲烟縹緲三郎城) 정화궁주의 원당을 고쳐 세울 자 그 누구인가(貞和願幢誰更植) 벽기에 쌓인 먼지에 손의 마음 상하네.(壁記塵昏傷客情)” 오태사(伍太史)는 오윤부(伍允浮)이다.

○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남쪽의 가람은 해변 북쪽을 가리키고(南指伽藍海北濬) 자주빛 노을은 푸른 누에 날아 흩어지네.(紫霞飛散碧嶙峋) 삼한에서 세속의 명절은 유두 일이고(三韓俗節流頭日) 만권의 서실에선 학문에 몰두하네.(萬卷書床刺股人) 오랜 술을 태워서 풍토병을 치료하고(舊醪剩燒消瘴毒) 병아리를 구워서 진료에 대비하네.(小鷄初炙備時珍) 찾아가진 못하고 속

489) 정화궁주(?~1319) 고려 충렬왕의 비. 성은 왕씨(王氏). 종실 시안공 인(始安公 綱)의 딸이다. 충렬왕이 태자일 때 혼인하여 정화궁주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몽고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왕비가 되자 별궁(別宮)에 거처하면서 충렬왕과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490) 오태사(伍太史) : 고려 충렬왕 때 태사 벼슬을 지낸 오윤부(伍允浮)를 말한다.

절없이 물으니(未能相訪徒相問) 이 몸이 잘못된 걸 무척이나 부끄럽네.(符竹深慚誤此身)”

○ 내가⁴⁹¹⁾ 20년 전에 이 절을 노닐다가 시를 지은 적이 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삼월이라 바람이 온화하고 맑으니(三月風和日又淸) 전등사 가는 길이 지금의 내 길이네.(傳燈寺路我今行) 수많은 나무 자라 하늘 닿아 서있는데(千株樹崑參天立) 만리의 강소리는 절벽에서 나는구나.(萬里江聲拍岸生) 성인을 모시고자 선원각을 지었고(聖傳事業璿源閣) 신이 쌓아 훌륭하고 뛰어난 건 정족성이네.(神築形容鼎足城) 대웅전 앞에 있는 황금의 부처님은(大雄殿上黃金佛) 이 세상 마음에 아무 말도 없구나.(默默無言此世情)”

221. 삼랑성(三郎城)

對潮樓上送斜陽	대조루 위에 올라 지는 해를 보내면서,
磬一聲中覺夜涼	한 차례 풍경 소리에 밤의 서늘함 느껴지네.
自有仙心無佛念	신선 마음 본래 있고 부처 생각 없었으니,
滿山明月夢三郎	달빛 가득 찬 산에서 단군 세 아들 꿈을 꾸다.

○ 삼랑성(三郎城)은 곧 정족산성(鼎足山城)이다. 강화부 관아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세 봉우리가 솔밭처럼 대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다. 치첩이 있으며 종해루(宗海樓)가 있다.

○ 계묘년(1783)에 유수 김노진(金魯鎭)⁴⁹²⁾이 중건하였다.

491) 저자 고재형을 말한다.

492) 김노진(1735~1788) 본관은 강릉. 자는 성첨(聖瞻). 1782년 강화유수에 부임되었다.

○ 삼랑성은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각각 한 봉우리씩 쌓게 하였는데 하룻밤 만에 완공하였다 하므로 삼랑성이라 이름한 것이라 한다.

○ 고려 고종 46년(1259)에 삼랑성에 가궐(假闕)을 영조하도록 명하였다.

222. 장사각(藏史閣)

石室深深炳有光	석실이 깊지만 빛이 있어 밝으니,
丹書玉牒帶天香	귀중한 서첩들이 天香을 띠고 있네.
此山並列名山四	정족산과 나란히 한 명산이 네 곳이니,
太白五臺又赤裳	태백산 오대산과 적상산이 그곳이네.

○ 해산석실(海山石室)은 전등사 뒤에 있는데, 그 안에는 선원각(璿源閣)과 장사각(藏史閣)이 있어서 선보(璿譜)와 보록(寶錄)을 봉안하였다. 현종 경자년(1660)에 강화유수였던 도계(道溪) 유심(柳滄)⁴⁹³이 창건하였다.

223. 취향당(翠香堂)

翠香堂鎖紫雲窓 취향당 현관은 자운창에 걸려있어,

493) 유심(1608~1667)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정보(澄甫), 호는 도계(道溪). 경상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한 후, 1660년 강화유수를 지냈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송설체(松雪體)에 능하였다.

御墨煌煌彩巨江 임금님 글씨 빛이 나니 문채가 강물 같네.
 十二毫龍蟠屈勢 열두 글자 용이 되어 웅크린 자세이니,
 萬年鎮我一東邦 일만 년 지나도록 우리나라 지켜주리.

- 해산석실의 외관(外館)이 취향당(翠香堂)인데 여기에서 선보·보록을 임시로 봉안한 곳이다.
- 영조 때에 중부시의 관리가 정족성에 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하였다. 후에 영조가 써서 내려준 “계사년(1713, 숙종 39)에 봉안하고 와서 자다. 신묘년(1771, 영조 48) 여름에 써서 부치다(粵癸巳奉安來宿 辛卯夏書付)”라는 12글자를 이 당 안에 게재하였다.

224. 양헌수 비(梁憲洙碑)

梁公昔日據山城 옛적에 양헌수⁴⁹⁴ 장군 정족산에 진을 치고,
 軍令分明破賊兵 분명한 명령으로 적병을 물리쳤네.
 一片碑文⁴⁹⁵如彼白 한 조각 비문이 저처럼 하얀데,
 丙寅年後幾秋聲 병인양요 겪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 병인년 난리에 양(梁) 장군이 순무 천총으로서 정족성에 들어가 대항하여 서양인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가 매우 많았다. 황상의 갑술년(1874) 유수 조병식(趙秉式)⁴⁹⁶이 종루의 동쪽에 비각을 세웠

494) 양헌수(1816~1888)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경보(敬甫).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을 패퇴시켰다.

495) 구창서발문본에는 ‘文’이 ‘石’으로 되어 있다.

496) 조병식(1823~1907)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공훈(公訓). 1874년 강화부유수를 지냈다. 이후예조·형조·이조·공조 판서를 거쳐, 충청도관찰사, 법

다. 양공은 이름이 헌수(憲洙)이다.

225. 애창(艾倉*)

艾葉江南最有名	강화 남쪽 쑥잎이 가장 유명하다는데,
端陽時節採盈盈	단오 때면 캐온 쑥이 창고에 가득했네.
內醫捧供皆前事	내의원에 바친 일은 모두 지난 일이지만,
廣濟神方孰最明 ⁴⁹⁷⁾	병 고치는 처방으로는 무엇보다 밝았다네.

○ 정족산성에는 쑥창고(艾倉)가 있었다. 매년 5월에 태의원(泰醫院)이 약을 담당하는 관리를 보내어 약쑥을 감독하고 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것은 일찍부터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226. 온수동(溫水洞⁴⁹⁸⁾)

溫泉水湧入郊 ⁴⁹⁹⁾ 墟	온천수가 솟아서 교외로 흘러드니,
引此居人作一間	이에 끌려 사는 사람 마을을 이루었네.
愼友欲探源出脈	신병호씨 수맥 근원 찾으려 노력하며
積年坐讀聖賢書	성현들의 서적을 여러 해 동안 읽었다네.

부대신, 외부대신,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497) 구창서발문본에는 ‘明’이 ‘名’으로 되어 있다.

498) 길상면 온수리이다.

499) 구창서발문본에는 ‘郊’교 ‘野’로 되어 있다.

○ 이 땅에서 샘이 솟아나서 온수정(溫水井)이라고 이름하였다. 물의 성질이 따뜻하지 않아 넓은 들판을 물댈 수 있었다.

○ 거창 신씨인 거산(居山) 신승선(愼承善)⁵⁰⁰의 후손 신병호(愼炳鎬)는 자(字)가 주현(周賢)이었는데 이 동네에 살면서 천지의 이치를 연구하고 성현의 글을 독실히 숭상하였다.

227. 초지동(草芝洞⁵⁰¹)

息波亭下草芝城	식파정 아래에 초지성이 있는데,
半是漁鹽半是耕	절반은 어염이요 절반은 농경이다.
姜翁何年來寓此	강흥업공 어느 때에 여기 와서 살았는가,
炳然楣上一紅旌	빛나도다 문 이마의 붉은 정려문 글씨.

○ 초지동(草芝洞)은 옛날에 진관(鎭關)이 있던 곳이다. 계미년(1763)에 유수 정실(鄭寔)⁵⁰²이 첨사 겸 감목관으로 승격하게 하였다.

○ 그 위에는 식파정(息波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 진주 강씨인 충신 강흥업(姜興業)⁵⁰³의 순절의 일이 충렬사 주 아래에 보인다.

○ 그의 후손이 여기에 와서 산다.

500) 신승선(1436~1502)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자계(子繼)·원지(元之), 호는 사지당(仕止堂). 연산군의 장인으로 예조·이조판서,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지냈다.

501) 길상면 초지리이다.

502) 정실(1701~1776)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공화(公華), 호는 염재(念齋). 강화부유수에 이어 호조판서·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다.

503) 강흥업(1575~1637)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 자는 위수(渭叟). 권필(權鞞)의 문인.

228. 대구서씨(大邱徐氏*)

一村左右屋連茅	한 마을 좌우에 초가집이 이어져 있고,
柿葉前庭拍海潮	감나무 정원 앞에 바다 물결 치고 가네.
文學承先徐孺子	문학을 이어 받은 서씨 선비는
坐榻時時俯遠郊	때때로 상에 앉아 먼 들판을 굽어보네.

○ 대구 서씨인 약봉(藥峯) 서성(徐滄)⁵⁰⁴의 후손이 이 동네에 들어와 산다.

229. 직하동(稷下洞⁵⁰⁵)

稷下村橫馬廐川	직하촌엔 마구내가 가로질러 흐르는데,
洪門最是管風烟	홍씨가문 으뜸으로 멋진 풍광 차지했네.
三蓮一蔭同時慶	금제자 셋 음서자 하나 있어 동시의 경사이니,
上下堂中次第筵	아래윗집 차례로 잔치를 베풀었네.

○ 남양 홍씨는 학곡 홍서봉(洪瑞鳳)⁵⁰⁶의 후손으로 이곳에 살았는데 그 가문 내에는 홍진섭(洪瓘燮)⁵⁰⁷·홍이섭(洪理燮)·홍재린(洪在麟) 3인이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홍일섭(洪一燮)은 금부도사

504) 서성(1558~1631)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현기(玄紀), 호는 약봉(藥峯). 호조·형조·병조판서를 지냈다.

505) 길상면 길직리 직하마을이다. 관사말과 마구내가 있는 곳이다.

506) 홍서봉(1572~164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이조·병조·예조판서와 좌의정·우의정·영의정을 지냈다.

507) 홍진섭(1823년 출생) 1873년 식년시 진사(進士) 3등 196위로 합격했다.

로 승진하였다.

230. 직산동(稷山洞⁵⁰⁸)

春風下馬稷山村	봄바람 맞으며 직산촌에서 말을 내리니,
武弁古家方一門	예로부터 무관 지낸 방씨 가문 살고 있네.
楣上紅旌前郡守	문이마의 붉은 정려글 전 군수의 것이니,
曾年忠義鎮西藩	일찍이 충의로 서쪽 변방을 지켰네.

○ 충신 방식(方軾⁵⁰⁹)은 삼수(三水) 군수로서 인조 병술년(1646)에 호서의 적인 유탁(柳濯)·권대용(權大用)의 난리 때 순절하였다. 고종 경오년(1870)에 정려문을 세웠고 이조참판에 추존하였다. 그 아들 방진영(方振英⁵¹⁰)은 관직이 이성(利城) 현감에 이르렀으며 둘째 아들 방진웅(方振雄⁵¹¹)은 첨사를 지냈다. 방진웅의 아들 방우(方塢⁵¹²)는 상주(尙州) 영장(營將)을 지냈다.

○ 방용(方壟⁵¹³)은 백령(白翎) 첨사를 지냈다.

508) 길상면 길직1리 직산마을 피미이다.

509) 방식(생몰년 미상) 본관은 온양(溫陽). 무과에 합격한 후 삼수군수(三水郡守)로 있으면서 유탁(柳濯)의 반란 때 분투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강화 화도면 문산리 박산동에 장례를 지내고 정문을 내렸으며, 길상면 길직리에 충신문이 세워졌다.

510) 방진영(1615년 출생)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중길(仲吉)이다. 1644년 정시(庭試) 병과(丙科) 9위로 합격하였다.

511) 방진웅은 1651년 신묘(辛卯)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합격하였다.

512) 방우(1646년 출생)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여봉(汝奉)이다. 1673년 식년시(式年試) 병과 10위로 합격하였다.

513) 방용(1657년 출생)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여고(汝固)이다. 1681년 식년시(式年試) 병과 34위로 합격하였다.

231. 직산동(稷山洞2*)

稷山谷谷繞烟霞	직산 마을 골골마다 안개 노을 감췄으니,
柳具權金各自家	유씨 구씨와 권씨 김씨가 서로 모여 살고 있네.
薇月窓前勤讀後	달빛 좋은 창가에서 부지런히 독서한 뒤,
冬樵夏耨淡生涯	겨울 땔나무 여름 김매기하며 담담하게 살고 있네.

○ 이 곳에는 계곡이 많은데 계곡마다 은거하기 좋은 곳이 있어서 문화 유씨, 능성 구씨, 안동 권씨, 경주 김씨가 많이 살면서 농사로써 업을 삼았다.

232. 제주고씨(濟州高氏*)

訪我親族到山區	친척집 방문하러 산지경에 도착하여,
情話遲遲半日留	정겨운 이야기로 반나절을 머물렀네.
勉爾無忘勤儉慎	근면·검소·신중함을 잊지 말라 권면하고,
一門四蔭摠是休	한 집안 음서 출신 네 명이 지금은 모두 쉬고 있네.

○ 이곳은 나의 친족인 고석범(高錫範)이 있어서 내가 일찍이 근면·검소·신중 이 세 글자로써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그의 증조는 음사로써 가선대부를 지냈으며 그의 고조는 음사로써 참관을 지냈고 그의 5대조는 참의를 지냈으며 그의 6대조는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233. 정하동(亭下洞⁵¹⁴)

亭下洞連船浦雲	정하동은 선두포의 구름에 이어지고,
山低野廣路中分	산 낮고 들 넓어 가운데로 길이 났네.
知君全雅多清趣	그대 전씨의 고상한 취미 많음을 알겠으니,
窓月時時讀古文	때때로 달빛 창문에서 고전을 읽는다네.

○ 성주 전씨(星州全氏)는 자가 성일(聖一)이고 이곳에 살면서 학업이 뛰어났다.

234. 정두동(亭頭洞⁵¹⁵)

亭頭洞裡李花春	정두동 안쪽은 오얏꽃 봄을 맞고,
枝葉曾從漢水濱	자손들이 널리 퍼져 한강 물가에 살고 있네.
因遇門生憑一問	우연히 만난 문생에게 한 가지를 묻노니,
杏園餘蔭最何人	과거 음서로 나간 분 중 으뜸은 누구인가.

○ 전주 이씨는 광평대군(光平大君)의 후손들인데 이곳에 많이 살았고 그 중에는 이인협(李寅協)은 여러 해 노닐던 문인이다. 과거의 합격자도 있었으며 음적으로 참봉을 지낸 이도 있었고 음적으로 도정을 지낸 이도 있었다.

514) 양도면 길정리의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1989년 길정저수지 시설로 대부분 수몰되었다.

515) 양도면 길정리 정두동 마을이다.

235. 곤릉(坤陵⁵¹⁶)

德庄南麓白雲深	덕장산 남쪽 기슭 흰 구름이 덮였는데,
指是坤陵屹到今	이 곤릉이 지금껏 우뚝하게 서있네
短草萋萋松未老	풀들은 우거지고 소나무도 안 늙어서,
猶含舊國可憐心	고려 왕조 가련한 마음을 아직도 머금고 있다.

○ 곤릉(坤陵)은 고려 고종의 비 태후의 능으로 덕장산(德庄山) 남쪽에 있다.

236. 길상산(吉祥山)

吉祥山色碧如藍	길상산의 산색은 쪽빛처럼 푸르고,
磅礴奇形鎮海南	기이한 모습 가득하여 남쪽 바다를 진압하네.
萬里風濤來去舶	만리 길 파도 위를 오고가는 선박들은,
鳧胸雁背影兩三	오리 가슴 기러기 등 모습으로 두세 척씩 지나가네.

○ 길상산(吉祥山)은 관아 남쪽 40리 지점에 있으며 남쪽이 바닷가이다. 동쪽과 서쪽에는 배들이 왕래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서 오리들이 같이 떠가는 것 같고, 산에 오르면 경관이 매우 훌륭하다.

516) 양도면 길정리 문고개 위에 있다. 고려 22대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 유씨의 무덤이다.

237. 굴곶포(屈串浦⁵¹⁷)

屈串浦流深似淵	굴곶포 시냇물은 연못처럼 깊어서,
水常不淺灌禾田	물이 항상 마르지 않아 논에 물을 댈 수 있네.
白鷗慣識漁翁面	백구는 어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으니,
飛下前磯共借眠	물가 돌에 내려앉아 돌이 함께 즐고 있네.

○ 굴곶포(屈串浦)는 효종 병신년(1656)에 유수 홍중보(洪重寶)가 쌓았다.

○ 포구의 물은 큰 못과 같아서 항상 마르지 않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논에다 물을 대었으며 가뭄을 걱정하지 않았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각각 고기 잡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것 역시 하나의 볼거리였다.

517) 붙은면 덕성리 굴이포로 '구리포'라고도 한다.


불은면(佛恩面)
238. 덕진동(德津洞⁵¹⁸)

德津三月柳如絲	삼월의 덕진은 수양버들 늘어졌고,
白首漁翁勸碧巵	흰머리 난 늙은 어부는 술잔을 권하네.
鎮館緣何多變革	덕진 진관은 어떤 연유로 그리 많이 변했는가,
滿江水色似前時	강 가득한 물빛은 예전과 똑 같은데.

○ 불은면(佛恩面)은 강화부 관아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 덕진동(德津洞)은 예전에 진관(鎭關)이 있었다. 정사년(1677)에 허질(許秩)이 유수가 되었을 때에 창건하였으며 단암(丹岩) 민진원(閔鎭遠)이 철폐시켰다. 그 후에 진이 있어서 첨사를 두기도 하고 별장을 두기도 했으며 만호를 두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농사를 짓기도 한다.

239. 대모산(大母山)

大母一鬢氣積元	대모산 꼭대기에 원기(元氣)가 쌓여서,
諸峯羅立似兒孫	여러 봉우리 늘어선 모습 자손인 듯 하여라.
昇平世世初更燧	태평한 시절에는 초경 봉화 올랐으니,
玉燭光輝耀殿門	옥등잔 불빛이 대궐문을 밝혔네.

518) 불은면 덕성리 봉골 남쪽에 있다.

- 이 산에는 봉수가 있었다.
- 강화부에는 봉수가 다섯 곳에 있었는데 진산(鎭山)봉수·망산(望山)봉수·하음(河陰)봉수·남산(南山)봉수가 그것이다.
- 예전에 태평할 때에 봉수는 초경의 밤에 반드시 전문(殿門)에 보고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240. 손돌목(孫石項)

孫石荒墳倚斷阿	손돌의 황량한 무덤이 절벽 위에 있는데,
舟人指点酌而過	배사람 그곳 가리키며 술 따르고 지나가네.
年年十月寒風至	해마다 시월 되면 찬바람이 불어오니,
知是冤魂激激波	원혼이 격렬하게 물결쳐서 그러는 것이려니.

○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고려왕이 몽고의 군대에 쫓겨서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바다길이 구부러지고 막혀 전진할 수 없을 듯한 것을 보고는 사공이 왕을 속였다 생각하고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그의 시신은 바닷가 산등성이에 묻혀있는데, 10월 20일이 되면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데 대체로 손돌이 죽은 날이라고 한다. 그 아래를 배로 지나는 자들은 술을 붓고 간다.

241. 손장군(孫將軍*)

弁寇何年到窄梁	오랑캐가 어느 해인가 착랑에 들어와서,
許多戰艦夜烟光	수많은 전함에서 밤에 불을 밝혔네.

○ 황상 신미년(1871) 4월에 서양의 오랑캐가 강화를 침입하였을 때에 병사(兵使) 어재연(魚在淵)이 강화부의 중군(中軍)으로서 광성보를 지키며 힘써 전투하다가 죽었다. 그의 동생 어재순(魚在洵⁵²¹) 마침 군중에 와 있었는데 동시에 순절하였다.

243. 광성진(廣城津*)

春風來到廣城樓	광성보 누각에 봄바람 불어오는데,
津吏迎吾指海洲	나루지기 나를 맞으며 바다섬을 가리키네.
三兔三龍三蛇字	묘시 진시 사시의 삼자시가 있으니,
知潮有信可行舟	물때를 잘 알아야 배가 갈 수 있다네.

○ 효종 무술년(1658)에 유수 서원리(徐元履)가 광성진(廣城鎭)을 창설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조수에 따라 배가 다닐 수 있는데, 조수를 기다리는 시는 다음과 같다. 삼토삼룡수(三兔三龍水) 삼사일마시(三蛇一馬時) 양삼원역이(羊三猿亦二) 월흑부여사(月黑復如斯).

244. 신현동(新峴洞⁵²²)

新峴來聽韓友琴 신현리에서 듣노라 친구 한씨의 거문고 소리,

521) 원문에는 어재순(魚在洵)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실록과 금석문 등 대부분의 자료에 '순(淳)'으로 되어 있다.

522) 불은면 신현리이다.

高山流水自然音 높은 산 흐르는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였네.
挑燈半夜悠悠語 등불 돌우며 한밤중까지 정담을 나누었으니,
四十年來共一心 사십 년 이어 온 마음 맞는 친구였네.

○ 한씨(韓氏) 친구는 청주의 세족으로서 삼괴당의 후손이다. 나와는 매우 친한 사이였으므로 밤새도록 정담을 나누었다.

245. 녘성동(莠城洞⁵²³)

具門世築莠城中 구씨 가문 녘성리에 대를 이어 사는데,
現使今人想古風 오늘날 우리에게 옛 풍모를 생각해 하네.
楣上紅旌兵判字 문 이마의 정려 글씨 병조판서 쓰였으니,
海天星日貫貞忠 바다 하늘 해와 별에 충정으로 통했네.

○ 능성 구씨인 구원일(具元一)⁵²⁴은 강암공(江菴公)의 7대손이다. 병조참의를 지낸 구신충(具信忠)⁵²⁵의 6세손이다. 호조의 낭관을 지낸 구유관(具有寬)의 고손이다. 병자년 난리에 순절한 일은 충렬사주(註)에 보인다.

○ 그 자손들은 문학을 세습하여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

523) 붙은면 녘성리이다.

524) 구원일(1582~1637)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여선(汝先). 병자호란 때 강화좌부천총(江華左部千總)으로서 휘하 수십명을 거느리고 갑곶나루로 나아갔으나,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싸울 뜻이 없음을 보고 항의하다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다.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으며,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525) 구신충(생몰년 미상) 1444년 식년시(式年試) 정과(丁科) 15위로 합격하였다.

246. 둔랑촌(菴浪村⁵²⁶*)

菴浪村中朴列墻	둔랑촌엔 박씨 담장이 열 지어 있는데,
勤耕餘暇對書床	부지런히 밭을 갈고 시간 내어 책을 읽네.
指言銀杏峩峩樹	높다란 은행나무 가리키며 하는 말,
傍植先公小舍廊	작은 사랑방 옆에다가 선조가 심은 거라네.

○ 둔랑(菴浪)은 녘성(仍城)의 작은 지명이다. 주계 박씨(朱溪朴氏)가 많이 살고 있으며 내가 일찍이 이곳을 지났는데 박씨 성을 가진 벗이 그 집 뒤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8대 조 할아버지인 판서공이 집 앞에 심은 나무이다.”라고 했다.

247. 오두동(鰲頭洞⁵²⁷)

一村花樹列成庄	꽃나무로 동산 이룬 오두리 마을에선,
於讀於耕日月長	글 읽기와 농사일로 세월을 보내네.
最愛此中丹桂籍	그중에서 소중한 일은 과거에 급제한 일이니,
永承雨露放餘光	나라 은혜 길이 이어 큰 빛을 발하리.

○ 오두동(鰲頭洞)에는 제주 고씨(濟州高氏)가 많이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이 영곡공(靈谷公)과 관란재공(觀瀾齋公)의 후손이다. 문중의 조카 고영중(高永中)⁵²⁸이 일찍이 과거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

526) 불은면 녘성리 북성 서쪽 마을이다. 일명 뒷낭.

527) 불은면 오두리 터진개 서북쪽 안산이 마을이다.

528) 고영중(1867년 출생) 본관은 제주(濟州), 1892년 별시(別試) 병과(丙科) 48

정자(正字)가 되었으나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 영곡공은 이름이 고득종(高得宗)⁵²⁹인데 문학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문과에 합격하여 대종백·대제학까지 이르렀고, 효로써 정려문을 내려받았다.

○ 관란재공은 이름이 고회(高晦)인데 은일(隱逸)로 시직(侍直)했고, 학행으로 우암 송시열(宋時烈)·동춘당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문인이 되었다. 동춘당 선생의 무고함을 변론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냈다.

248. 오두어화(鰲頭漁火)

碧鰲頭上白鷗翻	오두리 푸른 하늘에 백구가 날아오르고,
漁火如星海色鮮	고기잡이불 별처럼 빛나니 바다색이 선명하네.
認是權公開別墅	권을 장군 세운 별장 있음을 알게 하니,
疎松晚翠舊堂前	만취당 앞에는 큰 소나무가 서있네.

○ 도원수 권율(權慄)⁵³⁰의 별장이 오두정(鰲頭亭)에 있었는데 그당의 이름을 만취당(晩翠堂)이라고 하였다.

○ 오두의 고기잡이불도 강화부 10경(景)의 하나이다.

위로 합격하였다.

529) 고득종(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자부(子傅), 호는 영곡(靈谷). 1413년 효행으로 천거받아 관직에 나간 후 예조참의 동지중추원사·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했다.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사후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530) 권율(1537~1599) 조선 중기의 문신·명장.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

249. 오두동 평양조씨(平壤趙氏)

馬峯東走更回頭 마봉이 동쪽으로 흐르다 다시 머리를 돌린 곳에,
趙友居之起小樓 조씨 친구 거기 살며 작은 누각 지었네.
松山檜谷承承業 송산 회곡의 가업을 이어받아,
倚床⁵³¹先問野登秋 상에 기대어 가을 수확 물어보네.

○ 송산(松山) 회곡(檜谷)의 후손인 평양조씨 조희봉(趙羲鳳) 형제가 조카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

250. 사복포(司僕浦)

司僕浦中水漲橋 사복포 가운데에 물넘이 다리가 있는데,
早移秋色漸抽苗 일찍이 모를 내고 뽑아 심는 곳이라네.
靜聽農老勤勞語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 노인의 말 들어보니,
早必懸槁澇守潮 가물면 용두레 걸고 큰물 지면 조수 막아야 한
다네.

○ 사복포(司僕浦)에는 돌다리가 있다. 주민들이 항상 농사에 힘써서 흉년을 면할 수가 있었다.

251. 능촌동(陵村洞)

芳花山下古楸連 방화산 아래에는 조상 무덤들 나란하여,

531) 구창서발문본에는 ‘床’이 ‘窓’으로 되어 있다.

省域三周更惕然 세 차례 둘러보자 다시금 숙연해져.
 寄語近瑩諸益友 선영 부근 벗들에게 말을 전하노니,
 同心守護萬千年 천만년 지나도록 같은 마음 지키세.

○ 방화산(芳花山)은 침령산(砧嶺山)이라고도 하는데 능촌의 뒤에 있으니 우리 집안의 선산이다. 동산인(同山人)은 모두 무덤 아래에 사는 벗인 능성 구씨(綾城具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서산 송씨(瑞山宋氏)이다.

252. 능촌(陵村)

銀杏樹前⁵³²細柳涯 은행나무 아래 버들 늘어진 물가에,
 三韓章甫舊居家 한씨 성의 세 선비가 옛집에 살고 있네.
 逢言前日同門誼 동창생의 우정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薇雨書窓爛熳花 서재 창밖 비 맞은 장미가 꽃을 만발 하였네.

○ 진사(進士) 한학수(韓學洙)⁵³³, 주사(主事) 한동수(韓東洙), 발해(發解) 한영수(韓英洙)는 내 동문의 아들들이고, 또 같이 노닐던 문인들이다. 그러므로 삼한(三韓)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모두 삼괴정 한경린의 후손들이다.

532) 구장서발문본에는 ‘前’이 ‘下’로 되어 있다.

533) 한학수(1874년 출생)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이습(而習)이다. 1894년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395위로 합격하였다.

253. 고잔동(高盞洞)

草堂村裡竹農家	초당촌 안에 있는 죽농 선생 댁에서,
話舊談新日欲斜	옛 이야기 요즘 이야기 하면서 해가 저물어가네.
早識眞工傳世世	참된 공부 일찍 알아 대대로 전하니,
滿架書香摠是花	서가에 가득한 책이 모두가 꽃이로세.

○ 능성 구씨는 강암공의 후손으로서 진사를 지낸 구심(具諶)은 효행으로써 천거되어 제릉참봉(齊陵參奉)을 지냈다. 그 아들 구창징(具昌徵)⁵³⁴은 40세에 학문을 시작해서 큰 선비가 되었으며 진사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초당촌(草堂村)이라고 하였다. 그 7대손 죽농(竹農) 구연승(具然昇)은 나와는 매우 친한 친구이기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강암공은 이름이 구강(具綱)인데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한림18결, 대각을 지냈다.

254. 지천(芝川⁵³⁵)

芝川一曲向東流	지천이 한 번 굽어 동쪽 향해 흐르는데,
羅列家基小洞幽	작은 마을 그윽한 곳에 나찌 집들 모여 있네.
三十年前書榻上	30년 전부터 있어온 책상 위에서,
慙慙月色訂前遊	은근한 달빛이 옛날 교유 일깨워주네.

534) 구창징(1585년 출생) 본관은 능성(능성)이고 자는 덕형(德亨)이다.

535) 불은면 고통리 고잔마을 지례이다.

○ 지천(芝川)은 고잔동(高盞洞)의 작은 지명이다. 주사 나진국(羅鎭國)과 정교 나홍교(羅鴻教)는 나와 매우 친한 사이로서 오랫동안 같이 노닐던 가문의 사람들이다.

○ 내가 일찍이 30년 전에 한제수(韓霽洙)와 이곳에서 노닐었다.

255. 꽃내동(串內洞⁵³⁶)

世世崔居串內洞	꽃내동에 대대로 살고 있는 최씨 가문,
童蒙教授兩旌門	동몽교수 그 집안에 정려문이 두 개 셋네.
朝耕暮讀承承業	아침 밭갈이 저녁 독서가 대를 이은 가업이라,
勉使兒孫覺有源	자손들에게 연원이 있음을 깨닫도록 면려한다네.

○ 꽃내동(串內洞)은 작은 지명으로 조정리(朝耕里)이다. 최사과(崔司果)의 가문이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 고조, 5대조는 일찍이 효행으로써 정려문을 내려받았다.

256. 두두촌(斗頭村*)

四月清風返舊居	4월의 맑은 바람 맞으며 옛집에 돌아오니,
終頭至尾擡如如	머리(頭)부터 꼬리(尾)까지 모두가 한결같네.
倚窓坐讀江都賦	창가에 기대 앉아 강도부를 읽다가,
呼覓楮毛更一書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다시 글을 쓰노라.

536) 불은면 고통리 아침가리마을이다.

○ 내가 두두촌(斗頭村)에서 시작하여 강화부의 산천과 고적을 관
람한 후에 다시 두두미(斗頭尾)로 돌아왔으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였
다고 할 수가 있다. 닥나무(楮)와 털(毛)은 곧 종이와 붓을 말한다.

○ 강화는 경기지역에 있으면서 동서로는 40리요 남북으로는 70리
이고 둘레는 280리 107보이다.

○ 예전의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였는데 고구려 때에 처음으로
군을 두었으니 혈구군(穴口郡)이라고 하였다. 신라 때에는 해구군(海
口郡)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 신라 때에는 진을 두어서 혈구진(穴口
鎭)이라고 하였다. 고려 때에는 예전의 이름을 이어서 현을 만들었
다. 천도할 때 미쳐서는 강화를 심주(沁州)라고 하였는데 군을 두고
서 강도(江都), 심도(沁都)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이 이후로는 인천
에 병합되기도 하였으며 또 부를 두어서 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우리 태종조 때에 부를 도호부로 승격시켰고 광해군 때에는 부윤으
로 승격시켰다. 인조 때에는 유수로 승격시켰고 숙종 때에는 진무영
을 두었으며 정조 때에는 통어영을 옮겨서 소속시켰으니 모두 유수
와 겸하였다. 그 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하고 둔 것이 한결같
지 않다.

○ 이민서(李敏叙)의 강도부(江都賦)는 다음과 같다. “세 강이 모
이는 곳이며, 한성 입구의 요충지라네.(三江之會 京口之衝) 하류의
형승을 건너서, 외론 섬에 걸터앉았네.(跨下流之形勝 屹孤島之峙中)
두 도읍의 보필이고, 세 곳 당겨 만나네.(聯二都而作輔 控三方而通
漕) 미리미리 준비해서, 밤의 통곡 없게 하네.(宜未雨之綢繆 備暮夜
之惕號) 겹성 쌓아 웅거하니, 열성조의 교훈이라네.(設重防而據要 有
列聖之洪規) 명을 받은 이후에는, 요새 쌓고 군대 살피네.(余受命而
來牧 撫天險而視師) 못한 재주 부끄럽고, 평이한 계획 탄식하네.(愧
才能之不副 歎籌劃之無奇) 과거지사 한탄하며, 죽은 백성 통곡하네.

(嗟往事之倉卒 痛百萬之魚肉) 저 오랑캐 벌할 것을, 조정에선 계획없네.(彼豎子之何誅 亦廟謨之不立) 후일을 경계하자니, 화란 원인 어지럽네.(孰愆後之是圖 迷禍敗之所因) 특별히 의지하련만, 이것 버리고 어찌하리?(欲憑依而負恃 又舍此而何適) 온고지신 하는 것이, 제승하는 계책이라네.(或賤舊而貴新 非制勝之善經) 결정못해 흔들리니, 그 누가 결정하리?(徒擾攘而不決 孰內斷於冥冥) 보배를 버렸으니, 어떻게 찾겠는가?(擲奇寶於道傍 更遑遑而焉索) 대책안이 원칙없어, 어떻게 보완하리?(既設備之無素 尙虛名而何益) 내 계획 못쓰지만, 책임 회피 두렵다네.(知吾謀之不用 恐不言之有責)”

○ 이정섭(李廷燮)의 시는 다음과 같다. “산하는 안팎으로 관방이 견고한데,(山河表裏壯關防) 우수부는 모든 섬의 중심이 된다네.(留守權爲列島綱) 토양은 평평하고 탁트인 형세이고,(壤土平鋪開局勢) 백성이 사는 집은 담장이 접하였네.(閭閻錯落接垣牆) 여러 지역 경작지엔 벼나락이 자라고,(良田穰稏東南畝) 연해의 어염으로 상인이 모여드네.(沿海魚鹽大小商) 나라에서 여러 나무 심기를 바라니,(寄語邦侯多種木) 못난 선비 말 못하지만 뜻만은 길다네.(腐儒言拙意還長)”

○ 신라 경덕왕 때에는 혈구(穴口)를 고쳐서 해구(海口)라고 하였다. ○ 원성왕 때에는 혈구진(穴口鎭)을 두었다.

○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병을 피하기를 의논하였는데 최우(崔瑀)가 왕을 도와 도읍을 옮겼다. ○ 20년(1233)에 외성(外城)을 쌓았다. ○ 21년(1234)에 여러 도의 병사들을 불러서 궁궐과 백사를 지었다. ○ 24년(1237)에는 승려들이 외성을 쌓았다. ○ 40년(1253)에는 갑곶강에서 수전(水戰)을 연습하였다. ○ 43년(1256)에는 몽고병이 갑곶의 강 바깥에 이르러서 깃발을 크게 벌렸다. 민전에 말을 방목하였고 통진산(通津山)에 올라서 강도를 바라보고 왔다. ○ 45년

(1258)에 몽고군대가 갑곶의 강 바깥에 이르렀다. ○ 46년(1259)에는 몽고의 사자 주라는 자가 내외성을 모두 헐었다. ○ 원종 11년(1270)에는 개경으로 도읍을 옮겨갔다. 배중손(裴仲孫)과 노영희(盧永禧)가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렸다.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숨었다. ○ 몽고의 장수 타리대(朶利代)는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성 내의 인가를 불태웠다.

○ 충렬왕 16년(1290)에 거란병을 피하여 강화로 옮겼다. ○ 18년(1292)에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공민왕 9년(1360)에 왜인이 와서 노략질을 하니 300여 명이 죽었고 쌀 4만 석을 약탈해갔다. ○ 14년(1365)에 왜구가 와서 도둑질하였다. ○ 또 왜구가 왔다. ○ 16년(1367) 왜인이 와서 약탈하였다. ○ 신우 2년(1376)에 왜인이 와서 노략질을 하였다. ○ 3년(1377)에 왜가 다시 와서 노략질을 하여 크게 살육을 일삼았다. ○ 13년(1387)에 왜가 와서 노략질하였다.

○ 본조의 광해군 무오년(1618)에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찰사 심돈(沈惇)을 파견하여 외성을 쌓고 별당을 지었으며 또 체찰사 이경전(李慶全), 우의정 조정(趙挺), 호조참판 권반(權盼)이 배를 타고 바다를 순찰하여서 보장지라고 결정하였다.

○ 인조 5년 정묘년(1627)에 강홍립(姜弘立)이 오랑캐의 군대를 따라 들어가 노략질하였으니 평산(平山)에 이르러 상이 강도로 행차하였고 또 오랑캐와 화친을 맺었을 적에 환도하였다. ○ 14년 병자년(1636)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노략질을 하자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로 삼고 이민구(李敏求)을 부사로 삼아 강도를 지키게 했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 숙의, 원손, 봉림대군, 인평대군 등도 모두 들어왔다.

○ 상이 행차하여 승례문에 이르렀는데 오랑캐가 서교(西郊)에 다다라서 그 말을 옮겨서 행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몽진하였는데 김경징 등은 그 험준함을 믿고 대비를 느슨히 하였다. 정축년(1637) 정월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작은 배를 만들고 갑곶을 건넜다. 김경징 등이 겁을 먹고 달아났고 유수 장신(張紳)도 배를 타고 도망쳤다. 오랑캐가 부성(府城)에 들어오자 종묘와 사직이 몽진되었으며 사녀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 빈궁 이하는 남한산성에 도달하였고 마침내 성의 아래에 이르렀다.

발문(跋文)

무릇 읍지(邑誌)는 예로부터 있어 왔다. 그 고을의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김으로써 무궁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물며 강도(江都)는 선비의 고향으로 고려의 도읍지였고, 학문이 번성한 곳이 아니었던가.

심덕부 선생의 충의를 좋아하고, 김상용 선생의 대의를 흠모하였는데, 그 유풍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이 고을의 선비로서 어찌 개탄해마지 않겠는가. 생각하건대 나의 할아버지뻘 되는 화남(華南) 선생은 이러한 걱정을 더욱 심하게 하셨던 것 같다.

1906년 병오년 봄에 강화부 산천을 일람하고 돌아와 그 대략을 기록하고 나에게 그것을 익히게 하였다. 내가 그것을 몇 년에 걸쳐 읽어보니 강화부 산천의 유래와 사적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하였다. 이에 책을 더럽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붓을 들어 책의 끝에 적는다.

1909년(융희3, 기유) 겨울 구장서(具彰書) 근지(謹誌)



沁都紀行

高在亨



本朝 先海戊午因北警遣撫察使沈惇等外城建
 別堂又遣體察使李慶全右議政趙挺戶曹
 弘立導虜兵入寇至平山上幸江都及與虜和還
 都○十四年丙子虜兵入寇以金慶徵為檢察使李
 敏求為副守江都命先奉廟社主蠟官淑儀元
 孫鳳林大君麟坪大君並入保○社主蠟官淑儀元
 以寇迫西郊不得達移躡南漢慶徵等特險弛備
 丁丑正月虜撤屋材造小艇渡甲串慶徵等恒恟走
 留守張仲若帥舟師退虜入府城廟社蒙塵士女
 魚肉倡壤宮以下到南漢遂至下城

重務而據要者 列聖之洪規 余受命而來 牧撫天險而視師
 愧才能之不副 敦篤舊章之無奇 嗟往事之倉卒 痛百萬之魚肉
 彼聖子之何誅 亦廟謨之不立 孰咎後之是圖 迷禍敗之所由
 嘗地理之得失 昧成敗之由人 苟成謀之不忒 猶折衝之固圉
 欲憑依而負恃 又舍此而何適 或賤舊而貴新 非制勝之善經
 徒擾攘而不決 孰內斷於冥冥 柳奇室於道傍 更違之而為索
 說設備之無素 尚虛名之何益 知吾謀之不用 恐不言之有責
 ○李廷斐語曰 山河表裏 壯關防 留守權為 列島網 壞出平鋪
 閉局勢 閭閻錯落 接垣牆 良田穰 極南東 卦沿海 漁鹽大小商
 穿給那 侯多種 木腐 儲言拙 意遠長

新羅 景德王改穴 元聖王置 高麗 高宗十九年 議避
 穴口鎮 濛兵雀 瑞廢王 遷

都○二十年 籌外城○二十一年 徵諸道兵 營官關百司○
 二十四年 增外城○四十年 習水戰 甲串江○四十二年
 蒙兵至 甲串江外 大張旗 戰牧馬 民田 登通津山 以望江都
 ○四十五年 徵兵至 甲串江外○四十六年 蒙使周者 等來
 折內外城○元宗十一年 遷都 松京 褒仲 孫盧 永禧 以三別
 抄判 大掠 江華 淳海 南道○蒙將 孫利 歹 將兵入 收掠 財
 物 焚城 內人家○忠烈 王 五十六 遷 哈丹 兵 遷 江 華○十八
 年 復 都 開 京 恭 愍 王 九 年 倭 來 寇 殺 三 百 餘 人 掠 米 四 萬 石
 ○十四年 倭來寇○又來寇○十六年 倭來掠○身禱二年
 倭來寇○三年 倭又來寇 大肆殺戮○十三年 倭來寇

洞串内

○世

崔居串内洞童蒙教授兩旌門朝耕

暮讀承之業勉使兒孫覺有源

串内洞之小地名朝耕里

也崔司果一門自作一村而其高祖五代祖曾以孝行

四月清風返舊居從頭至尾捻如倚窓

坐誦江都賦呼覓楮毛更一書

余自耳頭村塔隨一府少川故蹟

坐後返于耳頭尾故曰從頭至尾耳。楮毛。紙筆也。江華在我京畿之域東西四十里南北七十里周二百八十里一百七步。古名甲比古次高句麗始置郡則曰穴口歸新羅則曰海口新羅置鎮則曰穴口鎮高麗仍舊名而縣之及其後遷都則曰江華亦曰沁州置郡補為都江都沁都之號本此後或併於仁川又武置府為使建我。肅宗朝置鎮換營令。正廟光海時置尹。仁祖朝陞留守。肅宗朝置鎮換營令。正廟朝移統禦營屬之皆留守兼為其後至今愛置不一名。李敏叙江都賦曰三江之會京口之衝降下流之形勝屹孤島之時中稱二都而作輔控三方而通漕宜未雨之綢繆備暮夜之揚號故

陵村

近塋諸益友同心守護萬千年

茅花山或稱砧嶺山而在

陵村後即余世美之地也同山人皆墜下友後城具氏清州韓氏瑞山宋氏也

銀杏樹前細柳涯三韓章甫舊居家逢言

前日同門韻薇兩西窓爛熳花

進士韓學子洙主事韓東洙

發解韓英洙即余同門友之子也又是遊門之人也故曰三韓因逢迎詔曰耳皆是三槐亭後也

高蓋洞

○草堂村裡竹農家話舊談新日欲斜早識

真工傳世滿架書香摠是花

後城人江蒼後孫具公謀以孝

行薦授齊陸恭奉其子昌徵四十就學遂成碩儒以中進士故因名其村曰草堂村也其七代孫竹農然昇即余世交之友也因尋訪族話云○江蒼公諱綱文科翰林十八陞臺閣

芝川

芝川一曲向東流羅列家基小洞幽三十

年前書場上懸懃月色訂前遊

芝川高蓋洞之小地名也

鰲頭漁火

重開文科至大崇伯大提學。觀潤齋公詩。晦以學行。為尤。卷同春。兩先生。門人為同春。卡註上。既被適。得解。舉。九。知。板。

碧鰲頭上白鷗翮。漁火如星。海色鮮。認是

權公開別墅。疎松晚翠。舊堂前。權都元帥。慄別墅在鰲頭。

亭其堂曰晚翠堂。鰲頭漁火亦布府十景之一也。

馬峯東走更回頭。趙友居之起小樓。松山

檜谷承之業。倚床先問野。登秋。平壤人。松山檜谷之後孫。

趙義鳳兄弟從姪。皆居于此。

司僕浦

司僕浦中水漲橋。早移秋色漸抽苗。靜聽

農老勤勞語。早必懸棹滂。守潮。司僕浦有石橋。居人恒務。

早秋勤勞然後免荒故云耳。

洞陵村 ○ 芳花山下古楸連省域。三周更惕然寄語

半夜悠々語四十年來共一心
韓友即清州世
族三槐亭之後
孫也與余有知舊之誼故終宵談話耳

洞 枋城

○具門世等枋城中現使今人想古風楣上

紅旌兵判字海天星日貫貞忠
枋城人具公元一
即江卷 代孫也

兵曹奉判公信忠六世孫也世節節公有寬之高孫也當丙子難局
節事見忠烈祠註下。其子孫世襲文學多居于此

芑浪村中朴列墻勤耕餘暇對書床指言

銀杏栽之樹傍植先公小舍廊
芑浪即枋城
洞之小地在

也來溪朴氏多居而余嘗過此朴友指其家後銀杏老
樹曰此是八代祖判書公 小舍廊前植木也

洞 齋頭

○一村花樹列成庄於讀於耕日月長最愛

此中丹桂籍永承雨露放餘光
齋頭多居濟
州高水助全

同是靈岩公親瀾齋公後孫也後姪永中早登桂榜為
承文院正字尚末需用故云。靈谷公諱得宗以文學

孫將隨流矢滿岸丹楓落，霜

飛辛禍三年丁巳倭人夜

入江葦窠梁焚戰艦五十餘艘死者千餘名不
子孫光裕亦中流矢死窠梁或曰孫石項時壯
士失律冠之所遇危里第條自倭中還者語曰
賊言所可畏惟白首崔万户耳白首万户即崔
鑿也

廣城

東風東望廣城整殘牒危懸海兩昏竊想

堂，魚節制弟兄同日作忠魂

辛未四月洋寇入江葦窠

兵使在測以本府中軍守廣城力戰死之其第
在洵適來軍中同時殉義

春風來到廣城樓津吏迎吾指海洲三兔

三龍三蛇字知潮有信可行舟

孝宗戊戌留守徐元履詢

設廣城鎮今廢。以潮盈落可以行舟而候潮詩曰三
兔三蛇一馬時羊三集亦二月里後如斯

新峴

新峴來聽韓友琴高山流水自然音挑燈

緣何多變革滿江水色似前時

佛恩面在府治東南三十

里○德津洞曰有鎮館丁已計秩為留守時所創而閔丹豈撤廢其後有鎮或為僉使或為別將或為万户矣今皆廢口其居人多為漁業或必紫紫

大母山

大母一鬢氣積元諸峯羅立似兒孫昇平

世之初更燧玉燭光輝擢殿門

大母山有燧燧木府燧

燧有五處曰鎮山燧曰望山燧曰河陰燧曰南山燧○伊昔昇平之燧初更之夜必報殿門矣今皆廢

孫石項

孫石荒墳倚斷阿舟人指点酹而過年

十月寒風至知是冤魂激之波

相傳麗王為蒙兵所迫棄

舟過此見海灣迴瀾滿如無前以為蒿師給我命斬之瘞其屍海上斷崗每年廿日屬風驟如期而去蓋孫石受刑之日云舟過其下者必酌酒而去

舟寇何年到窄梁許多戰艦夜烟光可憐

早突松云所

坤陵

德庄南麓白雲深指是坤陵
屹到今短草
萋之松未老猶含舊國可憐心
麗高宗妣太
后陵也在德

庄山之南

吉祥山

吉祥山色碧如藍磅礴奇形鎮海南萬里
風濤來去舶鳧宵鴈背影兩三
吉祥山在府南
四十里即濱海
之南也東西臨船未去不絕
殊免鴈同泛在登山之勝覽也

屈串浦

屈串浦流深似淵水常不淺灌禾田白鷗
憤識漁翁面飛下前磯共借眠
孝宗丙申留
身洪重寶等

佛恩面

德津

德津三月柳如絲白首漁翁勸碧危鎮館

洞

浦水如大澤常不竭農人灌田不憂旱災釣翁多集
香翠漁棹亦一景樂也

訪我親族到山區情話遲二半日留勉爾

無忘勤儉慎一門四蔭摠是休

此地亦有金親族錄範

者余嘗或以勤儉慎三字為隆家聲也其曾祖蔭嘉其高祖蔭泰利又五代祖各議其六代祖蔭寧安院正

亭下

亭下洞連舡浦雲山低野廣路中分知君

全雅多清趣窓月時時讀古文

星州人全字聖一居此

以字葉為工故云

亭頭

亭頭洞裡李花春枝葉曾從漢水濱因遇

門生憑一問杏園餘蔭最何人

全州人光平大君後孫居此

居而其中寅協多年遊門人也其地內有登序人有蔭泰李人有蔭都正人故云

山門

山門洞倚碧山松漸覺泉聲瀉兩峯灌入

稻畦能免旱年已相賀太平容

地勢山高谷深泉流不息常無

承先徐孺子坐榻時二俯遠郊大邱人藁峯徐公消之後徑寫

居此洞故云

洞 稷下村橫馬廐川洪門最是管風烟三蓮

一蔭同時慶上下堂中次第蓮南陽人鶴谷洪公瑞風之後歷禁麻都事

居此西一門之內 經慶在麟三人皆中司馬一變陞

故云

洞 稷山○春風下馬稷山村武弁古家方一門楣上

紅旌前郡守曾年忠教鎮西藩忠臣方公軾以三水即寺當仁

其子振英曾至利城縣監次子振輝官金使振輝之子揭官高州營將。塘官白銅金使。益音府使。

稷山谷二饒烟霞柳具權金各自家薇月

憲前勤讀後冬樵夏耨淡生涯此世多苦若已

文化世族折氏倭城世族具氏安東世族權氏慶州世族金氏多居西以士農為業故云

撤入保陽城與洋一戰因獲捷甚多皇上甲戌留
守趙秉式建碑闕于鐘樓之東梁公名憲洙

艾葉江南最有名端陽時節採盈二內醫
捧供皆前事廣濟神方孰最明

昇城有艾倉
每年五月太

醫院送審藥官監捧藥艾而供洵曾有定式今
皆廢

洞 溫水 溫泉水湧入郊墟引此居人作一閭慎友

欲探源出脉積年坐讀聖賢書

此地有泉湧
出名曰溫水井
水性冰溫可灌廢屨也公居昌人居山公承善之後孫炳編
字周賢寓居此洞故研察天地之理篤崇聖賢之志故云

洞 草芝 息波亭下草芝城半是魚鹽半是耕晏翁

何年來寓此炳然楣上一紅旌

草芝洞者即古
鎮關之地也祭
未留守鄭察時陞為僉使兼監牧官公其上有息波亭今
皆廢。晉州人姜公忠臣與業殉節事見忠烈祠注下其祀孫未展于

一村左右屋連茅柿葉前庭拍海潮文學

巖史

石室深二炳有光丹書玉牒帶天香此山

閣

並列名山四太白五臺又赤蒙海山石室在傳燈寺後內

有瘡源巖史二閣奉安瘡譜及寶錄顯宗庚子留守道溪柳公滄始建

翠香堂

翠香堂鎖紫雲窓御墨煌二彩亘江十二

毫龍蟠屈勢萬年鎮我一東邦

海山石室之外館翠香堂此為

二錄權奉所○帝宗癸巳英廟以宗簿提舉奉安瘡源錄于昇足城後英廟書下粵癸巳奉安來宿辛卯夏書付一十二字指此堂中

梁公昔日據山城軍令分明破賊兵一片

碑文如彼白丙寅年後幾秋聲

丙寅難梁將軍以巡撫于

安于大成殿

寺

傳燈寺下覺心清老去竒觀在此行樹頭

鶻嘍黃金擲甃口龍噴白玉生

傳燈寺在昇足山城不知相於

何世和元至元三年凡三度重修高麗忠烈王元妃貞和宮主使僧印奇航海入來印大藏經藏于寺云佛前有玉燈亦傳為

貞和所施也牧隱詩曰鏡履登山興自清傳燈老釋導吾行際窓間速出譚天列樓下長風吹浪生星曆蒼茫伍太史雲烟縹緲三即城貞和願禮誦更植壁記塵昏傷客情伍太史

五仙

伍先宰也公東岳詩曰南指伽藍海北濟紫霞飛散碧嶙峋

三韓俗節流頭日萬卷書床刺股人舊醜刺燒消瘴毒少

鷄初及楷時瑜未能相訪徒相問符竹深漸誤此身公予亦

二十年前述此寺有詩曰三月風和日又清傳燈寺路我今行

于林樹色參天五萬里江聲拍虎生聖傳事業瘡源閣神筭形

容晁足城大雄殿上黃金佛默二無言此世情

三即對潮樓上送斜陽磬一聲中覺夜涼自有

城仙心無佛念滿山明月愛三即

即昇足山城也在府治南

吉祥面

無頭

般浦東頭問白鷗鎮雲已逐海雲收綠楊

明月誰為主李沈兩家同起樓

古有鎮將之闕而今廢矣

現今進士李建芳參奉沈宜居在此洞

本府十景之一也 浦宗丙寅留守閔公鎮遠築浦壘而東西野頭皆有水門 哲宗壬戌留守洪公遠爽又於壘中作大水門浦民賴之豎碑閔公舊堤洪公新閘

長興洞 長興烟色繞蟾巖白波如帶碧山屏松下

來逢黃衛將笑言林壑揔非凡

長興洞古之長傑洞也有蟾岩

監牧官

山後山後花開海映紅黃司馬坐管春風丙寅

往事何堪說聖廟播遷茅屋中

進士黃明鑑之祖直長黃公浩

墓嘗為本府分教官時當丙寅九月洋陷府城之日買兵而夜入大成殿負奉 五聖位安於此屋而洋退後遷

沙器洞

○沙器洞前水向東李公節義弟兄回家園

木翁○其仲茅畧議詩曰涉遠滄溟際吟蹤上岫東楓杉秋日暎樓殿夕潮通石古貞娃跡詩傳我祖風迎前三四袖能識舊玲翁○寺前有貞女石先集亦有贈本寺僧玲上人詩并及之以自註也

喬木葱籠氣兩露光中海日紅

沙磯李尚書公是遠蒼毛

在此而丙寅難公共仲茅郡守公止迹職既因飲萊僅命李罔贈上相溢忠貞其子蒙孝蔭仕累任州郡其孫建昌早登文科官至叅判朝家以觀察使之職三做不就竟卒于家

德浦洞

○韶皮山下聽黃鸝列柳家門一色齊白髮

青衫司馬老曾年詞賦動江西

全州世族柳氏多居韶皮

山下即德浦洞也柳公應曾以文學詞賦鳴于世晚年中司馬因陞都察府都正

晚稼

東到般坪聽野謳年年晚稼早登秋閨提

洪閘皆恩澤永與長江水共流

般坪即般頭浦也晚稼亦

恭形高、散置於沙坪者多而海濱有絲歸名曰小梢
魚可以為醜者之酒肴故云

遲二來坐海山亭二古人歸水不停唯有

東堤槐一樹數百年來獨自青摩尼南海山亭
參奉申光所建

亭東有大槐一樹蓋數百年之前物枝幹皮葉皆殊凡樹
亭今廢

淨水寺

淨水幽深地不凡法華金字匣中緘浮屠

前殿涵虛蹟今日猶傳閣氏巖淨水寺在摩
尼東南谷中

寺下舊有浮屠殿皇明永樂間名釋得通号涵虛子
自中土航海來法履於此有岩名閣氏或云角氏岩
傳云涵虛子住此菴久不返其妻尋到清嶼不得死化為
石故以此名之。又有金字法華十餘句傳為其書或云安平
大君筆之。東岳曰千古浮屠殿摩尼嶽麓東山回人境
隔天豁海門通蜀鯤啼斜月梨花墜暗風漸為虎竹累
一宿別仙翁。丙戌留守李殿與仲第淵聯到此寺仰
瞻東岳先祖詩板又是真翼公遺筆摩半感暮因謹交
詩曰留都能暇日冥搜嶽西東蒼磴三秋晚禪樓四
望通聯裾傳勝事題壁挹遺風更向星柁去問蹤蹤檀

何事疑漁網與爾年二共許親慶州李氏及濟州高氏多居焉以此

地濱于海多以漁鹽為業焉

興王村裡列韓基山石撐牆水拍籬書士

洞 興王村裡列韓基山石撐牆水拍籬書士

指言麗代事文宗昔日祝神釐興王村即興
皇村也清州人三槐亭後孫韓氏世族多居焉舊有
興王寺平田中礎砌至今可徵蓋高麗文宗祝釐所也或云
麗高宗四十六年從校書郎景瑜之言創准宮于此

花浦花浦舊基問在何居人尚指一雲坡大江

址 流去碑猶立到此踟躕不忍過花浦洪學士
翼漢舊址在

於興旺洞其事見忠烈祠注下金鍾厚追紀刻石而登之

東幕東幕村前水拍堤碁巖隨勢自高低年二

洞 三月南遊客小店斜陽問絡蹄此地濱海負
山有巖石如

半落青天外點々如碁一局張

登頂而望西南則本府十四島

如葉如茶枝云々十四島曰信曰矢曰茅曰媒音曰蛇無

居民山有竹曰席毛曰彌法曰西黔曰東黔曰木叱曰雷

乙音或祿望島本府鄉校蓋在今有遺址及位田曰阿此

○留守李敏叙詩曰輕颺拂送歸帆隱几超然倚甃半

隔水看山迷遠迹回橋轉舵失東南日西翔島且千百相

際漁舟時兩三賴有府中携手客令人較興得靈探曰

注文留守李敏叙詩云捨舟尋小島棹迎歷高低古井荒

山下茅茨喬木西卦深鑄土養地僻類巖棲宿昔乘桴

地臨風意更凄曰長峰留守李敏叙詩云風濤拍暗

前洲薄暮移舟夜未休已掃浮雲清海宇更留明月掛船

頭憑虛不借扶搖力得意真如汗漫遊醉卧不知星斗沒

曉來同夢有白鷗題曰賞月

長串尼嶽西停長串村鎮墩無迹海雲翻樞官

庠士朱兄弟楊柳樓臺始闢門

留守許秋所設而今廢

韓城人朱潤昂階議官弟潤鏞

如此洞開海一濱李高窓下各逢春白鷗

中司馬

天齋庵

初霜祇以蒼神祝何以自來福○長風吹我上瑤臺海關
 天遠萬里閑不用振衣仍濯足似聞笙鶴駕空來○萬丈
 玄府夜氣清綠章才奏澹忘情歸鞍蒲載長生祿拜獻
 吾君作太平○李國詩曰心精身閒骨欲仙逸思人事
 正蕊然薦蕝和席中興後疊石灵姆太古前已得眼者
 千里既起身在九重天此行無偶如相說誰值還都第
 一年○樗村李廷愛詩曰亂峯中斷石莖岷雲海橫前
 可俯摩靈浪卷趨胡王嶂風橋渺欲犯銀河遙天霧吐
 三南島支浦潮吞十里沙目力有窮心不極茲遊奇絕
 一高歌

天齋庵後一榻鬼上帝監臨下八坡首我

太宗昭事地至今御祝自京來詳見上注下

星州清眺

星州清眺遠無速東峽南湖又海西五百

里如雙眼入冥鴻歸處影高低清眺亦本府十景之一也

登新州則東南西南五百之里地皆入眼身眼是皆点焉

望島嶼

回首西南海色長浮之島嶼摠環疆列星

騷人多寓此巒花富貴又兼之

此地水石多奇
柿棗亦宜犬而

梳迎以來齊宗之宣客本鄉之吉士多寓居焉

摩尼 來坐摩尼最上頭江州一片泛如舟檀君
石迹撐天地萬億年間與水留

輦城壇在上頂
累石筭之一名

參星壇相傳檀君感生故祭天以報本此其處也東方特
郊之禮所昉云又云檀君所筭祭天于其壇云○北麓有天
齋庵麗時我太宗在潛邸時以代言齋宿于此故行山祭
○高麗高宗四十六年從校書郎景瑜之言創建宮于此山之
南云又有山川祭壇○我朝特郊之禮每以二八月空日御
御祝舟自京師至○牧隱李穡詩曰焚香清坐側跨頭一壑
虛明小似舟最愛秋光開戶入更遶山崑滿庭留身輕無垢
思騎風心靜忘機欲近鷗不用煉丹求羽化掃除六鑿更天
游○茂陵何事若米仙祇是蓬萊亦或然山與浮雲自無
際風吹紅去莫能前金人一滴盡中霞青鳥孤飛海上
天何似壘城修望幾坐令人享太平年○山河險如此
壯哉有國能頂雲氣流傾崖俯喬木臨風發長嘯餘音
振巖谷欲繼羨門遊石髓今正錄日月兩轂輪宇虛一
門屋此毋非天成不知空誰等香那昇星為依章入氣

里秋浦亭二榭有香木一樹至今蒼蔚俗傳嘉陵能頭
二榭未嘗時黃公於此維舟云

嘉陵嘉陵春水晚來生荷錦紛二灌稻坪靜聽
浦老農桑下語風調雨順際昇平嘉陵浦在上
道五洞之間

儲水常患不足必待雨順並後豐稔故云

文山○摩尼東北是文山某二家門在此間士者
洞

先知農業重時從野外勸耕還下道面在府
治南五十里

文山洞古稱博山△披平尹氏宜寧南氏清州韓氏安定
羅氏皆居於此

上坊東風吹到上坊村李柳春光闌兩門耕讀
洞 漁樵勤儉業還從物外起田園陽城人李豐川
後孫

柳氏

內洞○內洞水石最云奇柿棗千株列作籬窻客

欲問荷軒正悄然，穉蘭小屋兩三椽。真源

覺得清如許，蔽月芸風度六年。荷軒平海人

臣公之七世孫務安公之高孫也，曾以文學鳴之。余嘗有六年受學之源，而今其穉孫來居於此。

碩陵 碩陵知在鎮江，密獨閉空林。月影寒猗我

聖朝封筭謹，年二奉審地方官。麗憲宗陵，本

復時尋出改封筭，每式年還禮，即巡審。今地方官員年

場頭 場頭洞在野中間，依麓如籬四面環。列屋

洞 東南誰是主安居，樂業揔閑云。順興安氏多居

秋浦 秋浦亭墟揔，繆然一坪水。色一空烟堤頭

亭 香木人猶指，曾繫黃公釣月船。秋浦黃判書

慎宅址在上道

杜宇東風淚每向開花百感增高麗元宗地順
敬太后陵公開

花松都舊號

造山造洞來尋李石翁梅蘭菊竹屋西東四時

洞長得春風氣倚案清談老亦雄驪興人少陵後
孫李星九號石

癖居此以花草清閑自娛

場下○古木春深荷麓村權公舊第迥開門追思

洞四十年前事牖我書中自有源安東人喚懼
齊權公甲萬

其眉叟門人也隱遯南臺不仕其六世孫荷隱公瀨以文澤著世
而余嘗受學焉其孫主事炳斗炳炳炳李及諸宗祿多居否

鎮江山下列韓門認是槐亭裕後昆入室

真工司馬老至今光彩動文垣清州人三槐亭
之後孫韓氏多

居而其中亨錫皇上乙酉中司馬嘗以文學鳴之其子孫
亦承繼

霞村卜筭幾人基南望貂皮一筆奇閱朴

許同三選月桂蓮掛榜又時南有貂皮山如筆形驪興

人閱掌令膺世之後孫多居密陽人朴建士承傳居於此雍逸村玄石公孫朴建士善書亦居此洞

春風來拜默富翁世二家聲學業崇識得

箇中清意味時人浮說摠如聾默富閱載昇即以文學繼

家有聲其心趣雍容自得潔

陵內○陵內村中草結廬金申坐讀古人書蔭即

洞 庠士何歸速尤是情雲鎖舊居

江陵人睡窓後孫金進士演儀及高靈人竹堂後孫申教官鴻求即與余有親知之情皆已謝世遂歎何已其第與子姪皆居於此

嘉陵一先鎮江碧幾層白雲多處是嘉陵年二

處始和其神種云一統孝宗藩幸時得八駿於此場云一統
孝宗養一馬於內廐名曰伐大聰蓋是鎮江之種異於凡鬃有
意命名最加愛育云

霞巖西南谷二幽山中宰相古今留二公
洞宅址三公墓云是江州第一區

○陶村鄭公維城延日人圃隱公後孫解見仙源烟洞注
下 顯廟初拜右相謚忠貞墓在霞峴西麓○霞谷鄭公
齊斗陶村孫也宅址在此而攀遠逸累徵辟不就嚴修郵
園道學純樸歷五朝為國太老學耆稱為霞谷先生嘗齊
元子輔養官之命位崇祿右贊成兼成均祭酒卒謚文康
○所居草屋數架不庇風雨守留閔鎮遠素敬其人為之
營之其居室為墓在霞峴東麓今其孫參判元夏來居
焉○良齋崔相公奎瑞海州人舊宅在鎮江山西宅制甚
湫隘不似卿相家也扁其室曰睡雲軒有九言四句詩曰
雪在崗捲復舒二復捲人在欄睡復醒二復睡捲則睡雲在
崗人在欄舒則醒人在欄雪在崗令屬他人手植紫檀樹
相尚存○安東權公愷康定公轍之子也官戶曹佐郎墓
在霞谷

長池 長池春水漲東西井浦乾坪等兩堤敵笠

何翁投釣餌白鳩飛去影高低 樞則留寺徐必遠所築而

水常不淺鵝人極以為業其東西兩堤常有釣客登趣

鎮江 鎮江山色碧如屏片二歸雲錦繡形首智

山 遺墟何處是造翁筆下影丹青 此山陵巒巒依其下而盤陀

村居者甚繁厥古鎮江之縣在其下高句麗首智探遺墟在鎮江南其西五里有海寧鄉云而今陵谷遷移不可舟歸雲亦水府十景之一也

牧場 三百年前設牧場古稱此地馬多良蓋聞

伐大聰云者內厰嘶風獨異常 舊有牧場仁祖已丑留守趙啓

遠狀聞罷場許畹於民已及留守沈定賢時太僕以牧場有良馬種更令設場吉祥場是也俗傳孝宗自瀋館回駕之時清主出給一馬曰此是帝國鎮江所出汝既還國與馬同還可也 孝宗愛其馬而還將渡江馬先飛涉不知去

馬蒙於中軍廳為其子起業丁丑亂殉節死事見忠烈祠注下其後孫觀海公在鳳早登文科累經臺清出宰濟州暮年休退而其族親子孫多列居于此地也

興川○岐巖山下是興川短竹疎松繞宅邊大冶

爐頭金躍否稔高暴買若紛然此洞有鑄鐵之盆店稔高

身賈多集性未。山北岐岩

存江○存江洞口久停鞭因坐南宮舊塌筵溪柳

洞庭花分植處清風明月尚依然

九春堂後裔南宮主事公鏞居之其子澈嘗與余有膠漆之交而今作古人其子孫因居此地

乾坪○名是乾坪即水坪滿堰春波灌稻粳且畊

且讀諸君子聊得斯中一味清平海黃氏咸悅南宮氏康津安

此坡平尹氏皆居於此

外州洞

幽谷橫斜是外州門前南出一貂頭宋金

兩姓連書屋各採紅蓮玉淑秋

至外州洞南望
紹皮山一峯如

筆形亦佳賞也其居礪山人宋基皓金海人金
司馬而其家親子孫多居焉

皆中

項州

項州洞口問星田年麥春光上下連申老

閑眠桑樹下時呼穉子讀青篇

項州有星田
或云隕星之

地也平山中氏多居

樂仁洞

國賜峯前 王訪村世居全氏向陽門

丹花仙籍黃金印觀海真工自有源

樂仁洞
即項州

分洞也星州全公信以麗朝兵部尚書隨恭王入北仍
居而我太宗朝訪公至王訪里問名其村曰王訪
里也除勸農使賜山一大麓故名其山曰國賜峯
其後孫以直武進歷延日草溪慶州營將白銅食使
錄寧社原從一等功臣性甚廉直以清白著名嘗為
本府中軍時以公用綿布一疋為馬蒙及至連掃還其

赤蓮寺積石
落照

赤蓮寺在碧山南積石奇形手欲探夕照
倘沉西海否先將此理問瞿曇

晴月更多流螢依亂草暗烏集深村壯志餘孤
鈞窮愁且短歌京華有兄弟消息定如何
東岳詩曰白蓮寺前桐紫極宮裏竹萬古一秋
群夜氣爽堪掬坐誦諸賢詩異代共羈縻露冷
草虫吟林靜夜鳥宿吾亦四十九詐可問太上
老戒必大費易貴不遠後幽情采澗曠未路畏
傾覆即欲解後去湖御晚稻熟心石洲嗣孫權
摘詩曰吾祖題詩處空門歲月多高名齊北斗
往跡等南柯逆淚山僧話傷心谷鳥歌一樽湖
海酒更欲醉無何又日紗籠護旧板壁月照空
一片五川石更留雲海間△留守沈星鍊詩曰
偶出西城霽色鮮禪樓遙在最高巔葱管佳氣
喬山近浩淼烟波大海連此寺吾聞多法侶茲
遊人說是神仙輪將景物闕題品未必赤蓮勝
白蓮又曰古寺依山在浮雲闕劫多梅香供榻
佛花兩濕庭柯野客尋春興林鶯盡日歌登樓
無好句共奈石洲何又曰寺後澹々水樓前盡々
山芒鞋與竹杖終日山水間

何心來鍾鐵閣公修鑿跡猶留

高麗為府治鎮山一名五

蓮山相傳天竺異僧嘗以五色蓮花擱空而颺之隨其所墜之方各立一寺今有青蓮白蓮赤蓮三寺餘皆廢或稱麗山為五蓮山或云頽有五井泉源芒威人飲多膂力拳人見而猜之以鐵釘壓勝故泉竭而士亦不出云丹岩洞相公鍊遠為留守時就旧址各穿甃等方正始疏流泉脈復甃個古傳五池出五色蓮花天竺僧所以擱浮占寺基云

青蓮寺

青蓮寺在碧山東國淨僧尼但指空在近

龍藏今亦廢麗王玉輦過雲中

青蓮在麗山東俗稱國淨

與圓通菴通比邱尼居之其東四有龍藏寺麗恭愍王嘗來遊處云

白蓮寺

白蓮寺在碧山西法侶閑投括眼篋誰與

淵明同結社詩人徃、姓名題

白蓮寺在麗山西北

○權公石洲驛詩曰不識括提路天寒雪滿山忽着烟起處知在亂松間又曰院靜僧初定山

漢一人移居京城多年兄弟同榜進士而歸居此洞

穴山西北谷縈回巖下封瑩一土怡瞻拜

斜陽因洗淚墳聲恍惚引風來余之柏氏山所在於穴口

山之北高麗山之南午坐子向之原

遠上雲山石逕斜翳聲忽覺有人家雄詞

健筆黃司馬採得江蓮一朵花昌原世族黃文筆

著世中司馬

谷、幽溪谷、村管領春風鄭一門文詞

德行承、業是祖家中有是孫東萊人鄭公樾中司馬官

參奉其孫旻以本府教官遷西部參奉其後子孫居於此

高麗山屹鎮江州五色蓮花五井漱北虜

黃清黃清水色一千年聖運乾坤海屋連因遇

洞 權兄同場坐指言此地足風烟

蔭戶曹佐即權愷之後在

字就中自仙源烟洞來居于此

舊浦村前大海連南商北賈往來艁滿盤

魚膾盈樽酒杏店斜陽一醉眠

玉溪一曲繞青山樹色如眠白日閑有二

俞生迎我語卜居已久此中間杞漢俞氏多居而其中二

人即余親知之人也

皂漢見漢猶白碧山崑知是韓門次第開中有

洞 一家遊洛社棣華同日採蓮來

清州韓氏多居此地而其

內可面

以本府教官累經陵叅奉陵令終以負外郎故第時榮之再從有榮皇上辛未本府留守鄭收源以白衣從事薦之終國中司馬一

孤山○孤山林麓近西湖籠鶴誰家報客手最是

安韓居得趣東西籬角杞瓜紆廉津安氏清州韓氏多居于此其地多以枸杞木瓜植水塲籬之間

鳩洲○鷗洲洞在鳳山前來攬南宮石枕眠憑問

李基何處是文章德業尚今傳全州人漢城判官李公重

深号鳩州卜居此地文章學業闕於京城東岳集所謂賦頌箴銘病判官者是也九春堂之後孫南宮浹今居此洞

鳩下○鳩下村前導五川趙金相接一村烟春光

近借府中客富貴鶯花年復年

外可面

并有詳蹟。子脩官司評備之。廣道肅宗乙酉進士。登文科。歷事三朝。以司諫除鍾城府使。卒于任。所著後仍居于此。迎安人蓮峯。墓高之後。忠愍公李敦叙事蹟見志烈祠註下。其後校理公重蓮之高孫義亦居于此。

三戶。多雲里是外三街安李分居碧樹崖塔下。

洞。長坪連望月春耕夏耨養禾佳。康津安氏慶州李氏多居

望月洞開大野中。烏橋春水鵲橋通水秧。

洞。早播隨天氣。橋事年々實有豐。望月洞之西下有烏橋上

有鵲為橋蓋大坪也

內可面

山串。山串村開一樂窩。春風最是此中多。尹家

洞。文筆連鳴世。丹桂紅蓮種。科。坡平人尹公學洙曾以本

府分教官。務式有風而其孫時榮。皇上前宣本府道科。登策。歷典。堊侍其子。頃。早年中。司馬。晚年

白髮前司馬指導門庭幾後生

青松青川君之後孫忠烈

公沈親從第諷丙子亂為義兵將及寇至馳出江上戰沒不復還至今尚未蒙廢忠之典士林皆贊歎之其後孫多居此地皆以文學從古有名而其中能徹甲午式中司馬除敦宰府都正

新成洞有古人風西李門前一逕同窈窕

當時忠孝烈炳然星日海天東

李公文偉青海人

之後本府尹重老之子也仁祖甲子適亂其父重老以防禦使抗賊于江陰馬灘兵敗義不辱自赴水死賊將李守白素恨重老取屍水中街首送官軍及亂定朝廷會貸其死文偉時年其文雄有必報之志竟斬守白於大道祠中提其頭詣闕請罪上賢之特用三司議勿問以此顯名一時及至忠清兵馬使先是文偉母鄭氏穉喪相考信之女也及重老死節身履戰場收屍而改制畫仍喪不除宗遺皆斷其論禮既而二子等斬守白鄭氏聞之哭曰兒能辨此字取守白頭告重老靈屈進肉釋白至是凡十一年人始驚服文偉沒後賜祭文曰一門忠孝古今罕觀歷試川閩

韓鼎履諸族居為鼎履孝性卓異人皆稱之於余尤有切交之誼故云

梨峴洞 梨峴來尋表第家終宵情話海無涯紅蓮
幾出三槐蔭一片江州慶之花

梨峴即韓氏世居之地也韓公景麟與弟景甲景鯤共籌三槐亭同成學工而景麟擢文科歷臺侍諭判官弟景甲亦擢文科任忠清都事景鯤中進士三槐亭遺址尚在此洞而三槐韓氏名在武世為其孫守儉中進士守溫守說武進振武功臣守蒸武食正其後蓮蔭多出於江州四面韓氏皆是三槐亭之裔孫也。余之表從弟一錫字汝執即是宗派而尚居此地故云

柿陰來訪李兄居三疊清琴一架書簪紱

曾投司憲府時從野老自怡如

德水人李基永字汝邦印澤堂之後孫本府分教官奎位之從孫也曾除司憲府監察不就時從傳友以詩酒自娛

三巨洞 三巨洞中訪沈兄從前文學大家聲青杉

善設鎮卧別將已未留守尹以濟啓陞萬戶
 皇上朝啓陞權官今廢其上有渚雲野平海黃
 此多居而丁丑胡亂殉節黃公大坤之家即在
 此詳見在忠烈祠下殉節錄○南益文詩曰蕩
 開形勝岳陽樓今到斯亭八景優寅火激潮粉
 玉斗角山當汐舞鰲頭銀閣設險成天塹井浦
 為池括地取乘熱停鑿多所賞重來何日作清

良站面
別立山

別立山高石萬層盤龍蹲虎勢騰之大海

倉橋洞

環從西北注應使邀夷不可外
倉橋洞在海西濱李具書樓共是春因說

孫李氏及彼城人江卷公後孫具氏居焉地形角山濱海之有
 衰篋之利山有浮石之所石于篋高頻相傳未改云

江後洞

別立山前江後基隱居韓友老於斯侍堂
侍墓平生孝天地知之日月知

情州人西原袁
 節公碑之後孫

高翁相 指語蕉巖靴石古未傳 在府治西三十里 趙

氏高氏多居而其迎處有芭蕉巖靴子石云

橋項洞人識古風金生昔日著心紅東西

從享東西廡丙歲奉安茅屋中 丙寅九月洋撥城臨

之日黃教官陪真奉安 聖廟播遷于山後而金 致一奉安東西從享東西廡位于其家 字

松山○松林深處是松山曲之回龍曲之灣下馬

愀然仍瞻拜表家楸域此中間

松山之地勢屈曲多奇其中一域即余表家之山麓也

寅火中流石虎雄西通延海與喬桐渚雲

野屋黃忠節甲串千年海日紅 寅火石津西海中石如

虎向南方故名寅火石水路十餘里通喬桐及延安海州等處實西海要衝 肅宗丙申留守洪重

三省
洞 ○三省村名錫以嘉曾門傳業是誰家萬珠

一本璿源李鷹谷春風欲吐花

三省者曾夫子之通故因洞

去而寫歡賞也此地有鷹谷全州李氏多居焉

羣下
洞 ○花綠絮紫去無窮江北山川三月風狡浦

橋頭逢客語指云羣下洞中翁

古稱羣頭洞今稱羣下洞

近處有後祝浦橋

冷井
洞 ○長江一曲抱村流韓友居之瑤谷幽認是

三槐多積蔭蓮花隨處紫香浮

瑤谷即冷井洞之池名也三槐

亭之後孫清州世族韓氏多居而皆是進士公景銀及進士公守漢之後孫也其中相哲即余家燕門人也○其中韓斗錫進士

西寺面
洞 ○甌山之上碧生烟南繞松林北繞川趙老

陽五里村水石奇三家相接短松籬乃知

文武多無備盡是 聖朝替鼓垂

多居于此。光山世孫金命錫武以爲太權官陞陽城。字
越世族自撰後孫亦性默文科以待濟經

北寺面 山里浦前水色連漁歌一曲去來船家

揭網家：酒笑道延坪是貨泉

在府治西北三
十里居人多以
漁商致產

鐵串鐵當年設鎮閑祇今唯指一拳山居人

憤識行般法碧水聲中任去還

舊置水軍倉使
留守徐必達

德峴洞前客馬停白波縈裡碧山屏知吾

金老平安否星髮斜陽掃石庭

老山人金
字益吾居之

新村

○新村洞口樹多陰金老恒遊道德林勉使

兒孫勤講讀滿床皆是古人箴

清風世族淳友室金公混

之後孫多居于此

奉書池

雲龍直上奉哥池中有浮函出有兒年代

杳然難可攷閱留真像一巖奇

府西北奉哥池相傳龍騰於池

池中有石函浮而自出其內有兒為人收而養之仍以奉為姓蓋其奉捨之意也其年代不可攷有巖刻其像而闕之

富近

○麗山峯登赴河陰富近村閭碧繞林坐讀

農書黃主政戎令後淳守恒心

昌原黃氏多居而其中黃鳳題

在否曾怪主身似勤儉入度林海子第

長井

○西上雲山二里餘聽鷄忽覺有人居乃知

長井真仙境聳世閑翁掛短鋤

雖哥多居于此仍稱鑿村

河陰世名河陰

文士以從先生以白衣共為壬辰倭寇共具竹密陪臨音清
斬主和二相耳帶過甬瞻打人家踰垣而避之壬子誣獄中
待被禍益辱奸媒孽以致之至矣 仁廟改玉贈先生持平
錄其嗣 特恩也先生天資甚高內行甚飭清澹法書見解
通明且著道孝正版一篇抄評精切文章固其餘事而世之知
先生者徒知終訪不知意究所蘊其亦知之淺矣不肯以千秋
出茲本府未訪遠居先據廢墟循可辨認若盤桓亭櫻桃波
小有河清勝島先生法集中所載乃亦有故老指點而傳說
者至其上下兩池今作橋路各復有昔日之儲健徘徊感傷不
能自已遂於草堂舊基樹短表記李安以昭後人勸立寤某
善橋之意也繼今而來若偽或加意慎視與使剝落而洒滅
之則坐使乃子孫之私幸也而崇禎存己未夏○洪海村亦有遺
址父子仇中可馬時設楚于此故尚祿慶遂址又稱洗馬址以石
洲曾經是識也。

冬音奈縣即河陰麗代傳名尚到今屹彼

鳳頭山上石烽烟銷盡海雲沉

在府治北二十里○古河陰縣

即高句麗時冬音奈縣一云芋高新羅時改稱海口高麗時改
稱河陰其遺墟有鳳頭山有方臺石蓋羅麗舊蹟也○我朝
設烽燧今廢止

花下金韓老情話慙慙日影移

於谷山地名也亦堂山洞也

海豐君後裔大將金瑩之族孫金氏及清州人三杞亭之後孫韓氏居之

上道

○上道村前春水生洪崖琥谷近郊程李金

各倚東西隴夜織茵紋畫出耕

東有琥珀谷大興李氏居

之西有洪崖村老山金氏居之皆勤農織席以爲生植者

下道

○石洲卜宅五流川波上櫻桃幾百年讀罷

碑文如復見美牆遺意士皆然

石洲權公韓祇彌善行不存遺

取屋除不就老海時世宮抑待被禍卜居以五流川上小有洞櫻桃波盤桓亭至今傳稱副孫禍石本府留守時立遺榭

錫記之曰江麟府西五里川即權石洲先生遺址也先生諱韓字汝章以習齋先生韓學之第五子出後打孝父生負府君諱

學早批莽子業陰官皆不識謝去世份築室于斯以居遠近學子聞風爭趨樞永請承者甚家先生日以訓誨成託乃李時政職於

自遺不知表之將至居數步府官溺貨復賦久徵先生陳既正其罪遂棄韓立石以上以石洲自号月沙李公亭儼 詔使極遊

此地松汀字能退夷兵百萬彊

宣祖二十五年壬辰倭寇

未泊松汀河地名云何即發帆不入蓋其東未遇松必

三海高

敗之兆故忌之○松亭一名松汀

洞

○須到堂山披晚霞李安許朴槲比家一條

長路昇天府半是蒼松半是花

在府治西北十五里至昇天浦

○濟州世孫進士允中曾孫賢弼及廉洋世孫安比及陽川許氏權官及浦南朴進士齊衡子孫皆居於此

昇天浦

昇天浦口問歸艤或指開城或漢川念昔

高皇麾二將倭氛掃盡此律邊

麗辛禡四年戊午我

太祖高皇帝及崔蔭揚伯淵大破倭兵於昇天府○豐蔭渡此而味詩曰遼莫風清惡無如客與豪青天歌昆石白雲

泗春花一笑著鯨鯨長歌今酒醒孤檣縱失勢未嘗上天高

○圃陰金昌麟詩曰摩山收纜履昇浦上漁船落日華瀛小春風裴險高揚帆驚怒鍾散帆信飛濤縱紀垂堂戎吾行也自文豪

稔谷

稔谷來留客馬羈依迭春色舊遊時蒼薇

宿龍橋麗山水出向東流巨一橋龍駕浦頭北望

科。全義世族李氏。陽城世族李氏。全州世族李氏。康津世族安氏。皆多世居于此。為以科讀織席為恒業也。

崇陵何處是九疑雲影滿天浮

宿龍橋即松亭前浦橋也。橋之

上下左右皆大坪也。人傳橋北有高麗崇陵。故本名崇陵橋。云佛橋。鐵橋皆在此地方。

雷串洞

御來峴上渚雲垂三百年前殿坐基雷串

洞人猶仰慕至今不敢起耕蓄

雷串後有仁布丁仰

駕臨時殿坐基共南有漸來峴居民至今傳稱殿坐基不敢耕壑

崇陵洞

宿龍橋下雨來村列柳枝拂短垣曾有

年兄居此地春風歸自杏花園

雨來村小地在此。晉州世族柳

穴多居而柳公仁根共余同蓮橋故云年兄

浦村洞

在昔壬辰一劫當腥塵八路共淒涼最奇

小山

○小山叢桂管何人招隱歌中客意新唯有

村翁知務本賣綯費草未全貧

地名小山故以叢桂招隱

採寫吟而今有野人勤於稼穡冬春綯索益草多輸賦城市以為幽業者多

松亭
樂城

○神城洞口聽農歌頭着黃冠背着簑相語

今年糧道足前冬結綯受錢多

松亭向在府治北十里樂

城洞即古所云神城洞有樂城故樂城浦居人多結綯為業耳

率亭

○率亭洞裡士多居鋤罷西疇坐讀書床頭

橫張蒲席栳箇中經緯識何如

松亭謂之率亭洞也在府西

十里。濟州人高憲即余洞祖靈谷大提學公十三代孫也靈谷公之曾孫仁相文科京畿觀察使嘗知貢舉以試卷火燒李被滴于本府鎮以仍為留居墓在株音島後孫或在此洞觀察使之孫自元進士進士之曾孫尚復尚說皆武

進士株西時晚色儘夫耘林豈獨耽強社手拉庭槐教子勤

子應生官禁府都事 應生之子滑聘丁丑元節李見忠且在下德之
 滑與進士滑泉高以文藝中進士登第常身寄遠鄉 仁祖丙子難
 的傍是拒擊軍未及擊寇大老乃虜所殺李罔命旋歸都承旨
 駕之府後始強進士 聖之先豐武宣侍官 聖之七世孫大欽尚在舊
 址而武科官正尉南征濟州西屯海舟今好鄉 滑聘之身滑載
 臨沈船監女子身狗猜疑影監 東岳李安訥題姜正字習之
 壁上詩曰香陽才子任江城河字常勞鼓酒行本向庭閣四地三散遞詞
 賦號門生乙卯茅一侍衣鉢庚庚後初統牙兒奔食忽思遭亂日西家
 於姓百年情 其二憶昨驚鴻避虜老孤臣徒步此江濱青苗
 白飯打尋地紫馬朱衣再起身 鄉使考生今日放猿程雷被火
 家喧討君高後真振乞一少人間 夢李新 小窗山半膝世密
 出鳥琴中半睡漂野影江光明一曲山回樹影滿千壺東階露浥
 新裁竹北塢瓜生日拉松官器見君野臥德生勝花笈趁曉鐘

仙鶴谷 谷鳥翻之仙鶴村曾是金公卜居爰府留

瓊齋双詩板收得風烟入此軒

江陵人 鍾憲金 公曾孫 命浩 宥

仙鶴洞指扁鶴谷出居 留守沈星鎮題板詩曰為見岡庚
 友未尋鶴洞家石田芳屋下白髮淡生涯 留守金尚翼題鶴
 村精舍德以八景照之人族先詩云山氣微索錦作文天閣展
 岳媚斜曠牙橋倚暎整頭月畫角橫吹鶯尾墜東陌塞琴

大廟洞

○荏武祠傳大廟村在前列屋抱雲孫枝

一也三南清運之般一時濟連皆由亭前果是一景也今見亭猶在而清皆廢故云

葉之春風氣盡帶皇天雨露天

大廟洞者即麗時建廟之地也

○荏村荏武公祠在此而其子孫多居焉○荏武公之子琛以武進能世家學官歷漢城判尹琛之弟琦之科官至京獻觀察使琦之子致敬為陞後文科全羅監司致敬之子隨文科呂州牧使作鎮海樓上撰文作本府鄉余文隨之子床号漫浪文科官至大司成有文集行於世○今其子孫世之文武科宦及進士荏實連辭鳴於世

高聖堂洞

○高聖堂前近海門黃翁白髮坐松軒開言

此其風好曾是林溪學士村

白竹尹府休除其二弟真柔卜居此地

尹學士宅址有遺碣

而白竹以本府科為兩陽府使而子元節第其以校理任和子元節之弟見於忠烈誌下今富原世族黃氏多居焉

襄陽

姜公舊第地襄陽帽上紅旌玉署香荷

國寵光今正尉南征西守晚歸鄉

襄州人姜進士公德之

範圍里內是安居栉葉柔枝左右廬老翁
富晚投鋤坐戎兒勤讀古人書

康休世族安比多居于此

範圍甲邑五浦小地名也

月中

○鷺尾亭前鎮月移黃公舊屋別成規一苞

奇竹千松樹認是當年種德基

咸中二宗之際昌原人芝村黃

判書公以武進累立戰功歷官工曹判書尙書退居江華築在月
亭鷺尾亭下棵傍種松至屬千株人或論之曰何用哉為芝
村。後自嘗初之及壬辰難。天兵異旅多人保江都舟楫皆柁
就辦。云云。缺人。服其遠識。○月亭設鎮後以黃舊宅因作鎮
街。今已數百年。棟宇。儀。堪。鞏。固。以。初。相。傳。歿。有。以。易。輒。致。災
異。階。下。有。黃。竹。亦。芝。村。手。植。黃。馬。岳。旋。軍。時。移。之。者。云。
謹註此

鷺尾情帆

鷺尾亭高二水中三南漕路檻前通浮

千帆今何在想是我朝淳古風

鷺尾情帆亦十景之

國之學也 邑之學也 邑之學也 邑之學也

五浦洞

紫紋村裡卜居閑物外田園倚水山白髮

青衫黃上舍暮年詞賦動江關

東汶里所五浦洞小地名也

村後孫黃公諷精水藝文中司馬

玉浦東邊海屋深黃公昔日炳丹心務安

後裔今司果不遇於懷寓酒斟

黃公居身丁丑忠和詳見忠

御堂廳
在此

忠和詳見忠
登文科歷務安縣監艾六代孫時 武科不調以隔自嫌耳

險克著節為大為華表所服官至第戶常判書體魯使先臨
時有有瞻所派去元僅免穿冕津以後 仁宿改玉 踏石打
溢文敏 公之子一誥字芝所 仁宿乙亥以郎身登文科至義
州府尹許孝風玉趙寺倫以宗周之義被索清虜 仁宿欲以千
金贖之而不得 特舉恤典 賜左贊成 溢忠烈合亭于扶餘長
烈祠及重孝龍庵去院。打庵宋時烈作碑銘。又享本府忠
烈祠。芝所之曾孫士用号拾信堂工於書有文世
留書黃茶依作情作室記。芝所之玄孫景祚即承旨院之曾孫以
長身殿奉奉階宋初都季。續述堂魂即季尤卷同春專心性陞之各
騰號昌徒奉奉不就後贈持平。以松堂夏民魂之子也兄夏巨於印羅格禍
因此而卷入海歸矣不復甲申時居五浦洞其門謝客士及除敬寧殿奉旨至積山縣監

節制使頊之子啓周武至金海府使
凡四代通津府使也

洞 霖

○復齋書胡向東城矜式吾鄉是弟兄若使

國家收德器先庸此老播璜聲 復齋南宮滿興

其弟謀共居此洞皆陞節使行著於一鄉尚未需用即副提學公璜之代孫大司成谷忱之代孫也文科假之曾孫也進士籍之從徑也

旺林寺古在何邊秋浦影堂獨崑然想是

雲仍文蔭武鳴吾東 國博淵泉 旺林寺創麗朝寺也

留音舞室
備村造俗
影堂其後
慶金漢方
因未暇拜

今廢老形而只留洞名焉○秋浦黃公影堂在此洞而遂慶權公尚夏撰畫像贊曰烟如冰臺貞若霜符百年洞氣一幅精神
康烈之節正大之操斯為取斯考亭之學子○芝村桂武公黃衡之子瓊之子大受文科宣朝承統時以泣書性運潛印處李國統卓有所守物論後居將期顯用之以兵中正即奉命歲南道卒大慶之子慎号秋浦早歸根灘吳允誼野李牛溪成渾世孫成門是黃以進士魁文科入莖者自持凡載見忤羣小後以天將據伴使久在蓮川任營丙中以通信使入日本作契誼文丁酉按湖南備給報

登本府道科陞承政院承旨即牛溪門人冀之後後孫也

黃公白髮坐江東矜式吾鄉凜有風歸思

倘如陶令否放鵬明月亦開籠秋浦黃公慎之後孫浩錫

以本府分教官累任陵令合年以都察都正歸者此地其世休舉見於秋浦影堂註下

長承洞 杏園端坐郭先生侍立彩衣三品榮認是

風聲傳世一門孝烈兩紅旌清州人 一松郭宣傳 官至從三品

其父達鍾中司馬陞教序初正其祖致五以孝 旌閭共 高祖林道中司馬其 祖母任氏以烈旌閭

昇 井星光彩耀姜門銀杏樹前成一村世

簪櫻承結業至今高築讀書軒星井一名星泉 甜寒相倚星頂

而泉傍曰晉州人姜公世瑋以蔭任禮賓主簿始寓長嶺此地而共 孫與績官食五次孫與業見忠臣真績樞尚武錫武兄弟皆進士又 其弟却武厲侯之艾牙授武判官 錫武之子聖佐武字遠府使聖佐 之子頊武盧岩區安和等以通津府使陞慶高左道水使又艾牙瑛歷

三惠冊

國事蒼黃昔丙丁諸公義烈釘頭汀表忠

壇上青苔石點々如斑月日星

表忠冊在甲津上壘垣南岡即

黃善身具元一姜與棠殉節之地故初名三忠冊後配同時死事人如奈之把松岳參祥李卷哨官李嗣後族牌官李先遠出身徐彦吉教師高義強正兵車命世鐵串僉使金得男水軍朱榮春等凡九人。留守李瑜募用諸人殉義之月日合祭之立石記其事更名奉忠冊。留守鄭宗樞祝曰一時殉節千古樹綱益以夫日散薦腥。夫日禮記云死之日也。

龍井○萬壽山南洞保明崑然古廟赫然名李公

去後雲仍在世々唯彈享祀誠

壬辰難皇明朝抱兵李如梅及

其父成樞寧遠伯督奉命東來其子孫或留在我東有名茲者來居萬壽山南麓小洞稱艾洞為保明。英宗聞之就艾地祀寧遠伯父子艾祀孫至今世居念。代孫基赫武科經兵使官。交漢城判尹又其子。曾經定平府使。

杏亭春色想南宮積累餘功折桂紅諫藁

猶存承政院愛君一念始而終

南宮公鉉世襲文學哲宗癸

鎮海寺

鎮海寺前綠草肥曇雲慧月
空塌無人掃惟有山禽帶暮歸
甲津西舊鎮海寺舊有佛像

今廢

濟勝寺

濟勝串中多水聲朝宗東入漢陽城昔時

何作無情物不濟朝鮮濟彼清
甲串上流舊名濟清串仁祖

丁丑水漲滿江垂處行船於此水忽截間以濟清兵後人謂之識以濟勝易其稱云

吳宗道碑

甲串津西石立崇壬辰天將紀吳公哉

浩之山河氣永世同傳撫饒切
宣祖壬辰難浙江紹興府人吳宗

道以欽差官承宣命東來及丁酉倭再擧屬郡珣軍門使水兵住江華梅能係家園挽賴安及女悼沁人思之立石于甲津之上以寓去思女辭曰於鍊王師幸導必滋顯允其公實守其族仁涵義愛誰諒歌頌禁彼青廳是以是敢撰我渣瀟措之社席懈膝下賴親取笑及嶸嶸臣表云遠踰尼嶽哉之河水洪浩黎公之烈萬世之恭

甲城列題

似有怒蛟翻。澤國新年起早鴻。故襄善亦潮東不城邊野
馬吹春動渡口冰漸卷。海空世李天枝徒舟。物情人意也
融。身移背指樓臺。花芬化時問梵宮。鄭尚按察之
子也。以安山郡。春赴本府公部會。試官時。頗此有感。作詩曰。江都
形勝冠東州。旌使胡鞭。此新流甲子。重回傷蒼恨。山河不復
深。屬城壕自七。融。燔築。鎖鑰。水今。更有時地利。人和。鄭聖詠
各。王務。願細推究。李安。納。治。日。鎮。樓。遠。迎。壓。梁。鐵。鎖。進
門。五。界。長。濠。水。此。才。分。一。派。海。天。西。直。接。三。方。地。勢。自。若。金。陽
藏。王。通。如。今。玉。特。先。唯。隋。曲。欄。湖。陽。港。飯。帳。無。數。雜。魚。商
○甲津一兵童津

長城一面水平鋪。列立誰樓畫盡圖。人去

人來多指點。玲瓏額月耀江都。甲城列題甲本府十景之一也

畫並錯。蔞粉。煤。膜。帶。極。印。上。下。不。但。金。湯。之。固。甲。於。東。方。亦。近。歲。佳。麗。之。勝。地。也。

漢水臨津合。祖江別流南。圻泛蓬窓祇今

利涉亭前月。猶照李臺梅。樹。襲。利涉亭在甲串津。遼今廢。

洪武伐。寅。李。侯。最。營。建。○。雙。梅。臺。李。唐。作。記。其。記。有。曰。漢。江。臨。津。合。流。為。祖。江。西。迤。赴。池。而。別。流。為。甲。串。

利涉亭

最是權居久 芸月書窓倚短床

長洞距府東南 一里大路之傍也

自古於園多集 其中安東世族權氏多居焉

墨洞來尋博士居 藉以教語以經書 知應

此道光千古一變何難古寺壩

墨寺洞借傳麗 朝建寺之址也

咸悅人牛漢門人南宮公奠之後 孫承旨鉞之任 謚山 博士濼以徑街乃紫晚居此地故尋訪云

甲串○鎮海樓臨甲串 津春風起浪拍城闌如噴

洞 如激千秋恨 猶帶丁年代 北塵

府治二十里○昔李愬未侵者之語曰積甲可瀆也蓋少之也李唐 記以在津以是垂考之麗史已先此有甲串之秋矣江華古稱甲 比古次則津之名安勿亦甲古串字後者如連必有說矣

仁祖丁丑清瀆之時忠臣烈士戰沒之地也○金昌協涉曰靈裡 悲歌顯甲津北及以馬到城闌險未洗英雄眼涉海空瀉

戰代慶今日胡廷甥設險古來天擊更瀆人時平卧穩樓船 惜寄語臨危莫愛身○又二日天險以都府不竭後海門橋高 出樓外潮滿到城根地穰丁年恨若傷甲水魂悲歌和孽沐

津上有 伏波樓

右崇義 有儲倉 津還有 旗萬戶 濟物錄

津盛者

有操兵協蓋內宣後設而今皆歸虛收云

環城終日感懷多五十年間變幾何官吏

武文多少式摠如一劫夢中過

余嘗五十年前遊於本府而官

吏防禦之策文武待養之方及廳廡倉庫可謂密如矣

皇上丙寅九月洋寇來泊甲申津師入城府且時留守李寅

被亦官金在敵中軍李皆馳備逃走吏校士民自相

奔逃云云形言彼寇以官舍為窟巢近之則彼徒數百

人恣至昇足山城適墜九果靈殊先橋之林而被砲死者甚

衆彼見此士之有備即焚燒官舍公廳各督庫而出去後自

朝家更設三衙官閣及公廳近於壯固如設吏校又益荆武士三

千人輪餉軍餉米三千石以乃防禦之策若壯夫官則文武交派而

金衛樞使武三通通使使女下判官中軍皆以去望三精選英士副校

有分教官節初代之階也每季都會每及旬題或百日愴以為崇教兵

武則者林都試每月械射以為奮武夫甲千伍武都府尹一衙

長嶺面

長洞○亭子山東大路傍柿樓茨園各成庄箇中

麗宮址

麗王何事昔移都 延慶康安極虛無埋地

洪鍾誰敢發滿天雷兩印時驅

麗高宗十九年壬辰崔瑀薨王

遷都江華元宗十一年庚午遷蕭京忠烈王十六年庚寅又都江華十八年壬辰遷開京今其城址宮壘皆在府治東南亭子山外康安殿在延慶殿內而俗傳遺墟有古鐘埋在若欲發輒雷雨云宮址四五里之內周牆列礎壞瓦破甃隨處堆積於畝隴之間。即今長嶺之城門岷仙源之大門觀仁政之西門洞及大廟洞都監洞之地。今猶不廢。移亭李穀詩曰海山深處一扁舟行到華山真未休自古金湯能寄德移都此地是誰謀。麗代許錚詩曰樓榭猶說舊天京王蒙嶠岷幸此城洞室怪快凝穿色宮樹淚淚咽蕭聲。睿斬李友詩曰愴程函臨島去錦倚摩茶夜靜老嗔息麗虛月色侵床不消細細庭樹綠陰。龍僧居民詭昇平正位今。咸停霖詩曰海近宜猶濕山園日易陰。安崇柔詩曰連尚落連翠銜桃起層崖。權孟孫詩曰故園深處掩空城列翠岑。

東門

望漢樓前望漢陽 圓紅朝旭自東方 操兵

塲上菲之草 舍得光輝未吐芳

望漢即沁府東門之額門之東

沈府尹未按此城迎儒昔日大開黌千秋

尚有文翁化處相聞講讀聲

本府舊崇儒館未嘗如講學焉

漢時沈公德符兄弟府尹大開黌堂迎風師儒集鄉子弟教以詩書禮義蔚然有文翁化蜀之風一鄉文學至今彬彬

崔判書曾此土生海東夫子特審名天

朝亦是稱楊震兩國江山共著明

崔公刑曹判書龍嶺

本江華人孝世宗文宗卒謚齊貞嘗賜号海東夫子天朝亦稱東方楊震

金孝子居此府城海東黔婁一紅旌水魚

山虎徒何出知有天翁著此誠

孝子金昌九江華人孝父甚孝

冬月之水鯉及侍墓時山虎之護等事無所不至英宗聞之援崔龍嶺故事旌之曰海東黔婁金昌九之門

城隍祠

亭子山頭有一坵城隍祭所構如盤雉頭

獸角環周勢賴使江州保泰安

城隍祠在東門內亭子山

市場

閱武堂前一市場日之二七列屢商朝來

暮去紛之慶殖貨何人辨出歲市場在閱武堂之前緱泉之後

每月二日七日設場交市

龍興宮

龍興宮裡五雲多庚戌元年海內歌江水

益深山益重昇平日月聿中和龍興宮在閱武堂之東東

城內即哲宗之潛邸也庚戌益極。端宗元年癸酉竄安平大君璿及其子友直於江華。安平大君世宗第三子也

六宮

六宮昔日做京師空逐飛灰但有基到此

行人皆指点飛花殘草幾多時內需司在東門內。明忠宮在內

需司東後為毓祥宮。於義宮在內需北。龍洞宮在內需南。南越遠。明禮宮在龍洞宮南。壽進宮在軍器庫西。兩宮漢宮廢

敬辛糾義旅督湖西南兵在後為以址君父之惡找不可復又言
 南漢消息斷絕宜亟著死士起居官守十往必有一達匡子之義
 望忍束手世現廣微相與詆之曰自有權此者非避亂大臣所得與
 一垂所聽施或謂先生季去夫盡具身備後息先生歎曰主上在
 國安危不可知崇社元孫皆在此第一不幸有死而已矣所偷生
 居數日有報賊夫至紳廣微等猶不信曰嘆怯夫江水派漸賊在能
 無渡詰朝賊黑匪甲岸渡江我兵望之不敵自潰廣微等一時棄軀
 遁去賊遂平行至城下先生顧笑家人挾登城門樓積積蓋樓上上
 解衣授他人度左右使去放火自燒死孫壽全時年十三在側合僕擁
 髀挽衣泣不去嘗疑將死尚何縣僕亦不去皆因死別望權順長
 進士金益強先自請分隸城門協官軍為死守計於是竟與先生
 俱死矣丁丑正月二十二日也蓋先生既沒而國家旌其闕忠臣之門
 又立祠府城七里賜額忠烈權公金公及他死義者李公尚吉以下十
 一人皆附殿食崇報之典備矣上之二十四年戊寅我伯承命為本
 府至則首謁廟下既登南樓唱越太息曰夫以魏公子之能下士也
 而大異東門人猶志之不倦太史云至古子策說以先生忠節為百世
 人紀所賴而此可以若微乎於是代石為碑高四丈大書以篆之樹守門
 之側俾昂協記其事末品勳竊雅忠義之盛人也深美自丁丑至今六十
 餘年矣遠志蓋天而此南門者人猶指而相語曰某乙死於此也漢說
 其時乎如昨日而士大夫往來通此府者亦必先問南門何在為之感歎
 嚴敬而不能去自足而玄則雖安碑宜亦可也而要以表揚遺跡使
 人之若一倍瞻視而確百世之遠也或忘失則碑之安可也概前政未

鎮營
閱武堂

閱武堂高大將筵試才月：又年：萬是

春秋操鍊日麾下軍容萬六千

鎮營在鎮西即閱武

查肅宗甲子留守尹楷營建高田閱武一名承天堂。鎮營在鎮西即閱武。武時必遊的也。每月試射慶給每年設考試取武科。每春秋操鍊整軍兵而管下水軍軍令為一萬六千二百人。美今皆廢。

仙源碑閣

舊南門址閣丹青一石崑然紀丙丁硝火

聲中金相國萬古貞忠貫日星

舊南門樓即仙源金相國殉義

之地後建碑閣在鎮檢營外三門東。農歲金昌協撫殉義碑。祀曰鳴呼以爲江華府南門故右攝政文忠公仙源金先生殉義之地。先生諱尚容安東人。萬曆十八年庚寅登第。歷李思朝。位宰相。以忠厚正立。居士類。崇禎丙子北虜入寇。上將幸江都。先生時已去。相且走。命從宿社主先行。於是張仲孫本府留守。而檢察使全廣徵副使李敏。未受命。任軍李天既而大駕迫虜。先歸倉卒入南漢城。賊署長圍守之內外不通。諸通勤王師至者。輒皆潰賊。又分兵窺江都。仲廣徵等恃有天塹險。不以爲意。虜徵尤勝。遂人有以軍事諫者。輒盛瓦逆折。先生奮而謂曰。行在受圍日久。鄭世規敗道。語傳言已死。湖西身主李。勳副使宜急。繼收。

舉從原數伊昔江州蔚士風

公都會每年擬設製述詩賦各一人

考諸四書小學各一人會取四人為留學權稱因小學無速查加取製述一人具由狀聞。皇上留學李戴元。修建

加取合八人以詩賦三揚卦查出榜即宗陞補例也。試官留學主試長穿殿別檢為卷副試歲內文官守令察訪為卷副試

○試取初試出榜之日主試設案觀候共參榜人共與寫其貢士之新待士之蓋蓋極有備名故漢學士是蔚有可觀焉

貳附

敬愛堂中太守開時，挂笏對西山最是

李公循良政十七碑傳里巷間

敬愛堂在客舍南稍低處即土

地本官德治之東軒其北有挂笏堂今皆廢為鄉廳矣。昔肅宗乙未李侯世晟為徑歷多惠政留守李公台佐稀噴。治人曰居古所稱循良吏者近之庶事悉委焉既去十七里之民皆登碑紀之故云

中營

挽河軒上甲兵收曾是昇平累百秋今日

惟餘房一二教負課字此中留

挽河軒即中軍所住東軒名

正廟丁亥中軍金相台修改扁額曰。皇上丙寅後改建而三門扁曰副帥營今皆廢惟有一二餘構而教負辰之勸強故云

我忠愛壽千萬春 右椒艾一章

通科

文武道科別 典審通喬豐邑亦無遺紅

牌丹桂春風客盡是朝廷稷高夔

文武道科因特命亦恒

變。仁祖五年丁卯正月清人以降帥姜弘立為導大舉深至
平山 上幸江都三月遠詣率臣接胡差批鎮地樓上講和 親
臨試士命題舞子羽子兩階碩取許穉 鄭維城南振溷尹榮等
四人中通洋喬桐各一人亦在其中焉 脚駕還京師。英宗二
年丙子遣大提學李東常試士 命題地利不知人和賦取或有以趙
挺李善泰黃沈黃泰彬等五人中通喬各一人泰其中為武取具澈等
一百八十五人。二十年甲子遣御史尹得載試武才。二十七年辛未遣
御史成天杜試武才。四十年甲申遣大提學金陽澤試士 命題抑
為保障賦取抑宅夏閔膺世李恩祿全光瑞等四人中通喬各一人
泰為武取趙琦等五十七人。哲廟四年癸丑遣大臣鄭元容試士
命題保障賦取取居首人南官鉉 賜第餘初試賞榜武取 等
人。皇上三年丙寅遣重臣趙東昌試士取命題天時不知地
利地利不知人和賦取李漢壽李建昌尹時榮李晚奎劉元植權綠
奎等六人中通喬豐德各一人泰為武取劉未去等

公都會

都會古規陞補同三場詩賦擇精工年三貢

右土修一章。海水漲。亦既于田。視以為權。四郊皆悲。沁濱斤鹵。
 罕有。年卑有。年厄食准。難。右鹵田一章。鎮江之墟。孔沃。其
 土。何不鑿。牧園之故。虎不渡。行馬。摩。治。空。蒼。民。之。議。著。口。後。阿。
 右牧園一章。水以高。折。鷗。有。春。聲。理。再。理。構。特。實。行。行。實。實。水。
 神。代。鼓。湖。之。七。山。之。陰。將。日。慎。海。右。維。高。一章。春日。載。陽。農。侯。始。
 至。言。朝。我。牛。同。我。子。池。定。致。雪。于。以。孔。趾。當。已。爭。矣。香。未。花。天。
 右春耕一章。戴勝初下。登。李。起。天。有。女。執。筐。博。博。運。彼。嫩。綠。者。葉。
 茂。未。相。合。未。不。盈。胸。桑。不。宜。土。右。登。桑。一章。體。彼。郊。桐。麥。苗。青。
 青。瓶。粟。既。登。室。也。懸。祭。日。逐。之。何。以。報。飢。言。林。槐。葉。以。烹。以。盛。
 右儲畝一章。五月。其。曠。三。農。息。期。歲。將。益。秋。民。其。殿。屎。屨。心。如。快。
 登。誰。察。局。字。法。如。樹。中。僕。有。估。右。早。曠。一章。秋。稼。載。獲。有。穀。
 其。空。秋。既。不。粒。租。稅。何。從。賣。德。黃。獲。言。輸。其。粟。區。亦。云。急。奪。何。窮。獨。
 右秋獲一章。相。彼。金。實。維。著。其。數。若。何。盈。矣。今。何。耗。矣。車。餘。在。貸。
 瓶。壘。之。醜。歲。其。大。侵。我。特。否。特。右。倉。儲。一章。浦。口。有。隄。海。中。有。
 蝦。度。畧。度。採。以。負。以。戴。就。食。稻。鄉。借。我。妻。孥。林。南。春。北。鴻。雁。興。
 俱。右漁利一章。滄。湖。初。退。離。花。浮。地。澆。以。熬。之。淮。沙。豈。水。搗。白。
 出。素。積。膏。艾。似。取。以。為。紫。牢。益。之。利。右。奏。藍。一章。子。田。有。柿。有。
 烟。艾。顯。通。摘。迺。訓。于。筐。于。筐。矣。赴。墟。市。藥。以。補。雜。乃。生。及。地。艾。利。孔。
 博。右。販。柿。一章。少。年。合。不。德。解。在。壁。田。地。訖。可。飭。可。債。士。曰。微。奔。女。
 曰。微。序。人。生。在。勤。不。努。力。右。微。田。一章。天。降。恩。言。子。視。之。故。傭。者。返。未。
 迺。復。其。姓。風。者。還。土。迺。安。艾。姑。伊。誰。之。賜。推。我。誰。后。右。安。集。一章。
 迺。復。有。艾。協。駒。分。食。川。上。有。椒。沙。舍。勿。啄。艾。以。獻。公。椒。以。頌。君。寓。

民風詩

金公昔日汝江鄉詩誦民風二十章耕織

漁鹽多少字最先保障海西方

英宗乙酉金公尚翼庭本府民

風詩二十章其落辭曰洪惟我 聖上以唐堯勤儉之午體衛武
 聽管之規憂民一念夙宵靡懈十行無倫渙發九重禮七月章
 之日如傷之仁若保之德丁字懇惻有可以感魚版而透金石矣
 本府以累百亦保濟之地偏被 列聖相優恤之典幽究必咨密瑛
 必鑒况今 聖念益恭於暇改株隱求由靡不用極 德音之下環島
 敲澗亦莫不歡欣踴舞待暇休哉吾民茫茫安字居祇奉 聖旨若
 就土風謹修及民生產業之期略加採訪發此撰准○裁彼尼敷
 若德邦深似大洋百里其方物形樂則繫于蒼桑農墾之式俾也
 可忘若保濟一章○穆 其殿有儼祀家准謂天遠尺五之近敷
 曠歡依日視 朕先庶民推是北枝之誠 右其殿一章○空閣崇
 三節左廟識 儲藏史有煌玉軸未天尊嚴孰不起飲胡雅建藏
 后光階 右史閣一章○有廟斯夾十二貞忠成仁之祀百世艾風
 似商志士愈微粗豆于斯乃我於式 右忠烈祠一章○海之口矣振
 皇之弓馬其七士也三之文教不振遂群下俚習尚固生風 真所使

。修城庫。付料庫。冰庫。兵隊廳。二所 獄。以上儲廳房或
丙寅洋火中燒

疫而或再設或加設甲午改正後盡廢異有丙三卷名故之耳

客舍

風烟顧瞻山海管領全岳之於帶矣揭嘉号用資勦寇伏字倣
 旁全夫向來之溢塞不侈不酒苟完以府之規模念仁化之當先
 庶民同樂討軍實之中傲暴客何憂易俗移風冰在琴閣之教
 化發号宛念自有茶府之襟徽不出庭戶笑談之間可措江流
 字讓之內要佳一帶理協永息揚塵之漢世鎮萬里風濤傾思
 命堂之意竹樞將孔善頌且陳兒新偉拋樵來漢江而接海門
 通丹心日夜隨湘水未往神涼咫尺中兒新偉拋樵南極浦微
 茫積瓦涵蒼斜委翰紅艦屬宜停紅葉跨山為史新偉拋樵
 摩尼立北個山齊山而列島如茶且使平翰魚次茅期兒新
 偉拋樵此巖岑左轉為松嶽移都借日趨而相百萬胡兵窺
 不得兒新偉拋樵上皓月長凡天字眠全畫戰清香符領閑相
 未爽氣更堪賞兒新偉拋樵下感概孤吟和者致破常人之
 若柳赤底寒兵得千問屢伏頭上樵之後問蒼云和水陸清吳
 邦鐵根中河滄陸百湖之頭領綸綸防有泰山四維之勢聖年安
 去長問形頌之頌暇日華堂不改尊俎之與姜田有奕稊字各虧
 乙巳仲春吉

海口館前官道橫廳房倉庫昔盈乙丙寅

甲午何堪託十有三仍舊名

海口保障之館
即容舍也舊在

長字殿之下今在上衛之西。舊殿大廳殿牌香祀奉安于此舖
 以廢故号覺大廳。望閣柱每月初望留寺院應檢律中軍各報

似履未頭似雪傳錢空愧荷恩私。又歲飢苦術流民既春夏
年之日夜甚 嚴謹幸藉三考過移 恩虛翻一冬留護傳父
老侶相賀祥對山河益自羞世李轉艱身大志未酬 陰委恐
招尤。

靜海堂

在寬堂南 顯宗乙巳留守趙侯陽建上有樓文曰

山石嶺移父老政規顧惟沁靜是謂天塹長江巨浸深四面而
清池列峰高牙聳半堂而作鎮居兩道下既之門戶當大路沿海
之衝要震宮避胡之官往蹟可紀樓居祭天之所古祠猶存在其
展西塞之播遷 因命由此而古固至甲午北兵之搶掠 仙蹕於
星乎少留人淋不滅慘矣而丁之墜炭形勝在依此表裡之全
湯猴以凡庸怪者委身爾後偶降和職越身之似竟棄土倘
終本肉肉結之初通才跡并淺雖之一長之可言誠竭智殫益
微百席之皆萃理在見術之連連管在去現之初年庶廟崇軒
不咸官府之融制小庭深闊難吞吏民之周旋歐陽子滑州署
東可立新構猶長云扶凡堂此宜有僧法曉彼南頂之曲亭乃
在前而之房側結構以從佛見瓦戶之潤慶凌壓如如皆言地
脈之表絕况是有祀石為界之祀突存忘事不當慎之心去矣
為無生之終避之理撤撤攸措此且得居止之宜水石交輸象情越
李斧斤并作匠手爭能遂聞中匠之疾甚移作上衛之東荃因地
之勝何旁心上經營不日而成即見眼前突兀庭除爽愷長廊
門扁堂迴茂竹冬夏曲楹共階鳩德繞手怡潤井吐納階城之

奎章閣

奎章閣在古宮傍一視 天恩最我鄉

玉牒丹書真寶氣海西夜：巨缸光

正廟辛丑命留守徐

浩修建奎章閣于行宮東奉列朝譜牒丹室御製及御定諸書命閣臣書額揭之蓋同文一視之意

上衙

以寬堂上覺新晴伊昔保登文武營畫角

時：簾外起平臨六十六州城以寬堂一曰顯允觀為留守德治

東岳以香府使性為唐文為留守

正衙也文武宰來治之外三门曰鎮梁保登管内三门曰虎賁門沁營管亦截三十五邑黃海十七邑忠清十三邑○東岳詩曰人說官梁我慮深深夜無眠睡盡呻吟春天下霽偏憂早夏日仍霽旋懼寒炎見野松嶺廣厦凍聞村鐵棍重余老身却記林居味飯煮山蔬
一渡甲津多感慨無人不說丙丁年○東岳題東軒壁上詩曰畿內閑防急上州海門江口勢深淵○國相並鎮三千戶王侯移都四十秋○異狩全齊走日吾陽方屬趙野港龍鍾恐負明時寄手換青萍倚北樓○又太守初陞尹而初舊使都地形留險因廷撤備難虞廣區增租賦軍興減版圖心慚殊懶性走寄荷恩殊○又十年重接故城池坐度星霜屆一著○車駕曾騰在亂日里閑侶散早策時才微只念琴衣換改拙元忘惠愛遠心

軒燕超

超軒遺石壓山深過客緣何獨坐吟却
憶當時賢太守燕居無累一清心

滋華然廣主意漫與五言詩○悔軒詩曰營內猶深聖齋
前有小池托襟林鳥語留蹟壯鶴枝老法自故重者朱意
味滋農潤吾所仰追揚卷中詩

留守權公楠詩曰綠樹陰○或問深遠間清趣共君吟為
乍自愧經年滯留客何妨竟夕露暇日梅軒頻對酌幾時
蘭室更聯余山亭射罷仍揮翰別後容華在洗心○退漁
金公鎮商詩曰樓臺樹木重○深燕坐起然可嘯吟咫尺
營門無俗事深圍海水絕氣靈主人多意置酒客子逐
思移枕余揮翰射帷珠未了松風澗雨更清心○梅軒詩
曰強病分司此為深矣民務劇廢闕吟歸山何待秋蔬爽
滯海難經暑而靈遺愛庚寅徒不序餘憂丁丑被安余一
方利客剡肝疏將退猶懷衛國心

洗心齋
春風三月客登臨山有寒泉可洗心物累
都將隨爾去清閑世界廣披襟

洗心齋在行宮北有泉水清潔

西河李公敏叙詩曰閑步到池亭兩餘山色青
幽花開戶噴惟鳥隔簾聽正好披書卷端宜養
性靈蕭然坐終日松影轉空庭悔軒趙公觀
彬詩曰河翁所營亭閣切宛丹青廉節清泉見
仁聲老樹聽無能今海帥有愧以山靈只喜詩
添料花天兩過庭西何詩曰筠室兩崖洞前
有清泉流水石媚潤始松亦倚雖非隱避
居宛似山林幽居留聯事簡公琅時佈遊和風
入簾惟明月桐林印蕭然愜清賞却忘羈務履
遇地便自得收何所求又曰秋蟬送客兩三
薛兩後寒泉決鳴着處冥鴻留指爪小塘明月
獨閑情滋露岩金昌協請曰莫以官留瀾洗心
在茲春陰滋露井夜雨滴苔池隱几窈天近扶藜
速登幾逢君成伴宿詩興蒹床惟心恸軒詩曰世
路危如彼官齋靜若茲雜花園接砌活水井通池
滯跡窮想逃身絕峽洗心無物累閑僻教書
惟三湖全公昌翁詩曰海國茫兩晴未港一池
閑齋有白日好身自高枝事外遙山綠眠中細草

六所皆如此庶免人間旱滂嘆

六所一在高

麗山一在花山一在摩尼殿一在松嶺山一在穴口山一在甲申洋

行宮

相

祇今寥落古行宮後苑叢林細雨中唯有

層岫山與屹年之春色杜鵑紅

行宮在府衙北松嶺山丁丑難

陪城堂、人間房室爭相繼北行宮後苑樹林中 英宗特命守臣設棚於地而祭每以重日數月日賜祭

尺天亭

北山下有尺天亭花自粧紅草自青憶昔

朱公扁額字周旋一念侍長寧

行宮北舊有山亭無名 英宗

戊申留守朱公成明扁其額曰尺天亭有清祀之未旬日周旋不遠凡五天歌之巨心丹一尼蓋密通長寧殿之意也

長寧殿

長寧殿古草菲々 兩廟曾臨咫尺威白

首丹心崔別檢丙寅九月 奉安歸

長寧殿奉安

丙寅英宗御真 皇上丙寅九月洋寇陷城殿別檢崔 聖憤間行入京還安于大內殿

特異也有一壯斯尚不可以妄闕况既盡之乎按婦闕之以授前人之執轅石亦可乎咸曰養伐石樹材此徑沈營不日而勿告於是扁其棧曰鏡板仍記其大異以是皆鑿介社夏下滄也留身全喜

厲祭冊

門外指云厲祭冊沉之烟霧鬼難着導迎

和氣年之祝庶使州人得一安 厲冊在北門外

唐州洞

○北望唐州一谷深世云舊邑址傳今後人

結搆東西密耕織生涯淡泊心 舊邑在府內境內北門外

北將臺

石築崑然北將臺滿山草木有風來誰能

先據宣威武軍令分明數舉杯 松嶽絕頂可通望築石為臺

北嶽臺

松嶽山北草色齊三之雨之馬牛蹄春風

一葉聲之笛吹送江天日影西 松嶽山北下牛馬協亦一景也

祈雨晴冊

祈雨祈晴築有冊神靈恍若鎮峯巒推着

謹堂
安藝齋

不足材瓦管儀畢役蓋五月初三日也後夫則全徑歷城助後軍
二百三十五名柳都李扶助後軍一百九十五名西德備林三百三
負各出茶頭三名通計千三百三十九名昭倫堂重新振拓四隅正
踏立南面勢敵鬆鑿望尊嚴倚巖伴狀

數仞墻東一講堂古來絃誦振江鄉笙篳

金石鏗鏘處拾五諸生共濟陰

今贊安藝齋
在正殿內墻
之東外墻之內

北門

鎮松門下久徘徊山自高麗屈曲來眼下

一十茅瓦屋烟花影裡半磨埃

門。正右於印留字橫曰沁之治懷山而為城者且十里凡
設四門而東西南皆有樓獨北無樓山為北之不見于蓋有所未
遑名耳矣不佞既奉受是御閱殿殿于松亭路由于是見禿
樛徑壯翳迤荒蕪之間乃談質佐曰噫若星者尚可保障云乎
哉是門也據松嶽而其松嶽對峙別取都之控也臨松亭不俯
矚則戰艦之蔽也軍之如人之旅行墻外而見雲巖也者登臺
望岳巖也傑紛特妙翼是出乎林木之上為鷲尾之亭也西南隋船
之所徑由千耦構托之了觀者別求塔而可以暇日也銀鑪之可以

都學校位田別萬曆二十年壬辰倭亂之後為興復肇盜責又
 麗朝為江都避兵三十九年之時有青島移安學校位當剛五
 結之數在江中島等行帳至今流來而壬辰大亂之後亦為島民
 被占故去大等累度呈文未有盡其得決故先以還推牆外被
 奪之田次以還推南音島被占之指乃以還安行祭之日都有
 司等三十五員上書于留相閔公等辭曰伏以設為學校則必
 有地位有地位然後必有位者有位者然後乃成禮與而本府
 文廟則牆底四面而自古殿殿婢等子一初一世相傳有同
 己始耕獲泰士之賦之少兵連禍後終於甲之年飢饉為隆殿
 僅軍以軍食斗粟互相盜賣以全後守一再三轉賣以成文
 券累易其主其流之契不可尋草以明倫堂為儲蓄地庭
 不容生徒之構門不由正路直入或病之破敗而誰其力矣今者
 文廟既建又欲正路之直南使牆外被奪之地還屬校位恢拓四
 隅而勢必正明倫校位瞻望必尊非徒多士之幸也抑亦國家之幸
 甚也文廟地地結數載在法典因伏願閣下特垂不世之啟而後
 就訟文券推納明辨決於先王之跡直正後德以明倫校建
 本任齋沐以陳題曰漫令校田錯入於民田幸在方守守以正到
 今還推殊涉未安任應致於他田相換可謂公私兩便相考
 施行云故即日以其本佔之半相換使首收廷生名還屬校
 位明文既成且後正路直南外大門三間新創明倫堂重儲蓄
 堂備裝始役明年春二月十三日始有司及磨任仍察督其使
 材局質買之米布齊中每儲教授軍器始教授居第破毀以補

府尹為留身故前留身遊任後廟議方難其人擬以李公首薦而
 未嘗收叙為終 上曰李安祠前有學積予其嘉之今女再信
 可夫公乃齋被視事曰 上者甚重其故不力一日膏竭 夫子
 廟退而進諸生曰府而陞焉而孔廟忘明倫堂音韻人材放失
 而佛教潤跡也迺嘗 在之南命儒生安宗道等董其役殿墜堂
 房各借其度為葺聲飛瓦而不修士既有舍危廡有以凡為閭
 聚四十有八度成飲而答之士有執舞而言者曰自生此以來
 未有盡打夫子則仰夫子遠及不在云乎况營達不贊官財不
 借民力縮節奉飪多兮措辦非公幹敏何以致此完山李堂
 深矣于象曰今代遠 聖明此府得我公俾多士由此堂踐五典
 之教明五綱之通世治則得禮樂以陶吾民不幸則子死孝而臣
 死忠嗟我蓋亦自易皆吾拜稽首曰是鳴呼 聖上之擇賢授能
 我公之建堂立教皆已矣問則多士之為公暨碑者為 聖上也
 為夫子也多士愛公之誠吁亦可尚也已公德水人為人之虛懷
 有志操翰李文章老徒蒼勁作人與教尤所乎日所蓄積也
 至以以銘之曰有覺女樞君子敬崇于以于公有職其冥多
 士收步吁嘆乎公於斯厥庶亦如德德歌于嘆乎公顧名思
 義作我身生于嘆乎公。明倫堂堂傳錄曰前臨監石教授
 之珩未身學官之任西非五十步所創建展屏移舊講堂亦似
 連進講堂齋內老講堂而適有聖殿退瓦材故 聖殿無華仍
 舉工匠講堂為蒼壁柱徒根後地陳傳後是時 亦有司應位
 皆相繼曰各毛歸校位田以色之大小徒數之多宏齋載在法典江

西廡四間

文昌公崔致遠 文惠公鄭夢周 文獻公鄭汝昌 文元公李茂地
文成公李珣 文元公金長生 文正公宋汲吉

○祭器庫 神門明倫堂醴房 講堂典祀廳 佛堂 東西齋 中門庀

所 碑閣 紅箭門外三門 鑄器器蓋 龍龕 將 香臺 香爐 香盆

得 燭臺 盆 沙器 木豆 和選木燭臺 木爵臺 祝版 香床 祝床 俎床

盥洗床 幣管 簠子 榘子 袞 祭服 祭服 簠 簠 食卓

校生元案二百人 別案五十四人 童蒙一百七十人 齋五十二名 奴四名 婢七名

位田壹畝一百三十斗 各面水苗一百二十九斗 旱田五十五斗 穀○復戶

米一百斗 蒙學米每名各二斗 按糧米一百五十五石 兩子留寺進菜園

創備三百石 屬庖廩 餼散每年十二石 耗為儒生居棧之糧 位處存耗糧

只存此數 釋奠用二八月上丁○黍稷稻粱羊牲代牛一豕 豕牲 幣行秩有數焉

明倫堂

萬古明倫屹一堂 槐風杏雨入清涼 敬推

東岳經營意 肅我青衿趣 向方

東岳李公安 詩曰 邠邑明倫

次三原 創寫

例有堂江都廟學 獨荒涼 禮樂詩書 遺四術 君臣父子 樹
三綱 捐貲敬愛 鳩材用 樞蓋 養士方 白頭老 守徑 營意 說
與青衿 戎或忘 明倫堂 創建 碑銘 判官李重源 撰曰 今
上第 位之五年 天啓七年 丁卯 大駕幸江都 省士人沈敬 等陳
疏以本府尹李公安 納為府尹 時其律身也 處其德 茂也 將其校
事也 於其作事也 勤為 辭 上願 奏 納 為 是 時 本 府 保 障 重 地 隴

文廟

仰止樓前肅々然大成殿屹 聖師筵三

綱五典明々教天地同流萬億年

聖廟在府西城內

外三門額曰仰止樓內正殿曰大成殿。相傳蒙古撤城時移奉位板於甫音岳雖無文獻可徵舊墟位田皆在當中想舊址矣遷移年時及基址皆無可稽。仁祖甲子留守沈悅管建于小東門外松嶽東麓下越七年庚午留守李安訥始奉位板而建明倫堂有詩揭板李重深刻石記其李庚午又陞板為學始稱學官蓋以招都陞為新館故亦号靈堂制度學官稱号自此一新焉。顯宗癸丑留守閔蒼重移建城內南山下。英宗辛亥留守俞拓基以為衙居俯臨非所以崇敬也就此移建齋宇庀屬自是秩然丙戌留守東岳五代孫李儼重修增飾之又移豎祀身碑于校門外丙戌刻而閣之。

大成殿 十間奉安 五聖位

東從享 費公閔損 薛公丹雍 孫公端本 賜衛公仲由 魏公上高

道國公周教順 洛國公程順

西從享 鄭公丹粹 齊公宰子 徐公丹求 吳公言偃 穎川侯顯孫師

豫國公程顯 微國公朱肱

東廡四間 弘儒侯薛聰 文成侯安裕 文敬公金宏弼 文正趙先祖 文純公李滉

文簡公成渾 文正公朱賡烈 文純公朴世朱

古有西將
其臺

操協有錄武堂即古西將臺之側也今廢

園洞○府內西連國淨村辛韓兩姓闢山門桃李

柿栗幽、谷耕讀生涯永不讓穿越世族辛氏及清州世族韓

公察監相阜曾孫聖蒼始寓此洞其子孫列居焉

麥塊
祭壇

麥峴壇前不忍馳丙丁往事自然思妖氛

未散愁雲黑一氣東天巨日維在西域內社稷
在城南岡丁丑城

陷時軍民士女陷沒之地每以重迎歲月日賜祭兄殺三
姆六位有職人無職人同姆分位有職婦女無職婦女同姆
分位庶人軍民庶人女人同姆分位、各有牌

菽稷

一府城中社稷姆萬千家戶賴而安蒸民

乃粒無非極尊德元來氣鬱盤社稷祠在府城
北門內校宮之

東為復息亭國社之所英宗甲子留寺金始煇建○府社稷祠
在城南稍低處。社稷姆在府城小西門內

西門洞
西門樓

瞻萃樓頭倚夕陽
山腰川帶共蒙蒼
鍊武堂前草幾度
春秋大探場

瞻萃樓即沁西門額也其內有大

洛照登頭漁大日鷺尾清帆日甲城列難日普門疊清日
經坪晚稼日星柙清眺。零月十景之最先故仍咏之。
丈人登留守黃景源有詩曰鹿尼山影拖孤城百丈屏
甯生盡戰日昇三角近錦籠雲擁五冠平欄高障犯星河氣
墨靜唯聞鳥雀聲且待秋風隨大閱散云能增七州兵又曰
鳴。盡角。卸江城岩險。離。夕。烟。生。洲。繞。齊。後。青。草。近。湖。
迴。漢。水。白。雲。平。危。樓。誰。慰。忠。臣。親。古。渡。循。思。戰。士。聲。拊。初。日。
歌。多。感。慨。滋。蒼。不。忍。更。論。兵。長。壽。殿。別。檢。全。定。洙。以。初。日。
一。島。閑。防。十。里。城。峯。巔。扇。樹。夏。生。推。放。迥。歷。三。方。闕。各。鉞。
高。臨。七。鎮。平。乙。亥。措。揮。宣。將。異。史。如。号。令。肅。軍。琴。瑟。藎。不。是。
遊。观。所。元。財。年。此。閱。兵。萬。壽。殿。別。檢。在。頭。玳。玳。初。日。千。尺。
層。崖。壓。卡。城。海。門。閑。處。瘴。烟。生。飛。簷。遠。控。摩。山。立。危。檻。高。臨。
列。鼓。平。萬。里。風。聲。倏。變。化。一。邦。保。障。振。威。聲。登。云。頓。覺。氣。恢。
絕。上。將。訂。談。勝。讀。兵。右。次。詩。二。手。留。相。與。向。殿。所。登。丈。人。登。
有。酬。唱。之。節。翌。日。授。示。諸。作。要。余。債。郭。故。忘。拙。奉。賡。以。備。一。晒。
。佐。即。初。宅。夏。次。初。日。半。空。飛。閣。駕。層。城。世。虛。輕。隨。西。廩。生。
百。里。桑。麻。田。野。閑。三。方。舟。楫。海。南。平。晴。雷。查。德。輪。砲。響。列。柵。
宵。傳。木。柝。聲。墨。墨。胡。恒。哈。赤。職。將。軍。筮。統。五。營。兵。

倉曰望海曰制勝曰奕珠曰甲申曰加里曰左岡曰龍臺曰花
 岳曰蒼頭曰廣城曰孫石項曰德津曰草堂曰長者河曰鑿岩
 曰宅只曰東掖曰後崖曰陽岩曰葛津曰分五里曰松串曰齋
 串曰北一串曰長串曰鷗岩曰松岡曰屈岩曰乾坪曰望洋曰
 三三岩曰石角曰魁龍曰望月曰蟻頭曰鐵北曰天津曰石湯
 曰水峴曰疎雨曰宿龍曰桑城日無殆日寅大日廣岩曰龜登日
 諸城曰槓樓曰佛藏此皆一州閔防也槓樓四望慨然有思乎前
 日設險故云

粵在丙寅失此門鑰魚喋雉帶羞痕大呼

叛劔忠臣李泉下應歸不死魂皇上下寅九月 洋匪之難留

李李寅夔判官金世獻中軍李 等不設守備及寇至 皆棄城遁走伊時南門守門將李春一見寇至因拔劔大呼 日汝何敢入此乎竟被其害而死事聞 贈工曹參議 旌閭

南臺霽月

南山臺上久踟躕霽月浮來太極圖流峙

如着金鏡裡昭々十景一江都府之南山曰花山 上有憐臺

英宗密印留亭黃景源閣曰夫人其室 正宗祭印留亭金魯鎮 作本府十景託曰南臺霽月曰光協春牧曰鎮江驛雲曰積石

南山洞
舊村洞
新村洞
鐘閣洞
紅門洞
府司後洞
府司下洞
東門洞
板井洞
西門洞
劉中洞
唐州洞

府南城下近郊壘沈雅聯床坐讀書道德
門前春月色令人和悅駐征車

青松人青城君
後孫洗馬沈公

孫

兄弟居焉愛人婚友

○權東坡集曰秋月色令人憐憫春月色令人和悅

晏波樓上坐停杯滿眼繁華次第開桃李

杏花三萬樹影中無處不樓臺

晏波樓即沁
府南門額也

○辛巳菊秋光山人金松相福以禮堂奉命未過危思
五十前居留時作要主人洪台子安刻而遷之昨曰詩也以滿
行焉其詩曰登樓欲問蒼南樓倚鈎高夜海日秋五十里城
一半毀而丁年亭在合看空留字宿仙踪宿堂夫闕防甲
事流聖世分司恩未報可能衰堪作遊遊

百里封疆地勢雄山青水白四環中十三

鎮與諸墩堡制勝當年凜々風

沁有十三鎮曰
月串曰濟物曰

龍津曰廣城曰德津曰草芝曰銀頭曰長串曰井浦曰鐵串曰賣大
曰昇天曰文珠有五十三墩臺曰赤北曰備岩曰月串曰玉

公賡之後孫世襲其休
除長寧殿奉李至刑曹佐即懷德縣監○其子鑑官至仁同府使
以孝行 其宗祭百命 雅聞其子激中司馬又 孫嘉善鑑
及謝父子僅為一鄉班首豈非壽祿之徵乎

九春堂後幾經春碧桃紅杏尚一新東岳

先生題壁韻有心嘗許叩君親

九春堂南宮公
楷天司成忱之

孫早廢學業卜築于府南山外壽祿蒼多植花草詩酒
自娛深有隱居之趣與東岳李公安訥最相友善題詩
九首作揭板以傳東岳集所謂南宮子久草堂者是也
其一曰崖開園夜蹊鑿池草堂真典主人宜赤楓黃菊
九秋日紅杏碧桃三月時去歲曾嘗置清醪今晨却要
賦清詩凡派岳登有如此六十醉翁添一奇其二曰江府
荒村荒林少如華獨情春滿印君家自從二月及三月新
發開一花仍百花素葉壓雜晴擁雪紅葩映鳩晚蒸霞老夫
乘輿輒相訪索自不知山日斜

九春堂之子爽武科官都守○又其子煊中司馬官奉奉○爽
之子鏡中司馬以行誼鄉薦除長寧縣丞李官至刑曹佐即懷德
縣監○鏡之子鑑以孝行 雅聞其子激中司馬○激之子贊
其科宦傳官
○東岳與九春堂有兄弟之約故以叩君稱之

疏常撰江都誌曰其先定榮所墾宅獨宅五冠第先居長嶺
後居此洞

倉洞○還榆花麓洞云倉大路東西列短塋春種

秋收儲幾斛知應穡事比豐穰

此地土漆在大路左右

梨井洞○梨井一村對府城殷々窓外午鍾鳴高司

馬去兒孫儲淡泊生涯讀且耕

濟州世族高祖士亨奎兒孫

居之。非府三里許鐘聲如隔一窓而聞。地名又曰固植里

一平廣潤造山坪農老紛々聽水聲最是

江都膏沃地府城富客擲金爭

造山坪膏沃之地邑留倉庫云

在府城南水門外一州之豐歟市金之高下專在此地云

府內面

南山洞○壽祿巖前壽祿增南宮世々卜居仍乃知

壽祿者

壽祿由心德一鑑東天水月澄

咸悅人副卷副提學南宮

園城

禪源古寺問阿誰流水桃花處、疑寂矣

半千龕月影黃金銷盡碧蘿垂禪源寺在今仙源里麗高崇時

從衛士言建寺崔瑞極其壯麗所謂半千禪龕是也改禪為仙仍為地名斯可見時尚汚陰矣今廢尚傳遺址但見薜蘿蔽

杏村老相築山臺息隱禪師共往來果是

當年明哲計海雲堂上絕浮埃麗恭愍時李文貞品号杏村官

政承寓居仙杏村與息隱老人者結社同慈以避時亂禪源寺中有海雲堂

丹霞深鎖碧茅家鄭是山中有桂花之下

有人來拾馥介然一路石間斜慶州世族鄭公持平代

孫居之世以文學教授諸生成就者多故以介然或路言之

古宅江山柳色連烟然文藻尚今傳欲知

沁府由来蹟先着宜蔬誌一篇晉州世族柳公佐詩宅夏号

約買二棺掘而坎而自經侍講院弼善尹公焜罵賊不屈而被
 官原任義府都事權公順長城均館生員金公益謙自編行
 行伍守南門堞及相公自焚麾之不去遂與之同死本府中
 軍黃公善身千總參公興業提殘兵截江津力戰而死千總
 具公元一覽慶徽等義憤赴水亂已 朝家嘉其義 贈議
 政公益文忠判書公左議政忠甫都正公吏曹判書忠學公
 恭贊忠穆王傳公恭贊忠顯弼善公都承旨都事公生負公並
 持平具公黃公並泰泰議歲壬午京外章甫合議建祠于府南
 七里仙原村寔文忠少時所寓也文忠王享忠甫忠烈忠穆忠顯暨
 具公配享 闕賜諱忠烈速 孝廟朝以黃姜二公及尹權金三公
 先後追享今 上丁丑以其殉義月日遣承旨致祭于是乎 聖
 朝所以褒忠顯烈者靡有餘憾矣嗚呼士大夫平居談道理真
 若有辨於死生義理之分一朝遭大難其能不肯國偷生辱
 身敗名者鮮矣惟茲文忠諸公當天地翻覆之日引義自請
 從容純死以至一名散僚布衣正士同衛一社稷以身殉國又
 如下邑禰禔真所謂不識何狀而亡皆忠義奮發視死如歸
 蓋其樹立之赫烈雖謂之日月爭光可也嗟呼天降喪亂舉
 國淪胥而使東表士民知有天地之常經不失為三百年禮
 義之邦者伊誰之功也前留守孝侯關命哀粹諸公事實
 及建祠始末又為具黃姜並傳藏于祠金侯君集繼而後
 祇謁祠庭慨然興懷曰廟有碑古也不有此何以示今其後
 遂伐石以付諸生諸生樂趨事誓治訖以李侯所錄一通授尚

且而記其文而反生感歎 激行想像名救濟者又未之及也

妻權同日自縊 **張氏** 都正權順昌妻故徑歷過漢女隨父于官城

死并沉閩 **李氏** 權順正妻張氏甥也 **李氏** 獻納洪命一妻避兵甲隊舟中

傍與其夫之甥朴世相妻羅氏相與 **李氏** 冠迫姑黃氏自刺仆李氏時在

投水死其二子一儀子全亦赴海死并推閩 **二韓氏** 長谷判呂有微妻次春

王后婢也城陷自縊死鄭之子司 **某妻** 失其姓城陷將自殺願語其

僕正善與妻權氏亦死并推閩 **某妻** 婢曰我死輒焚之母令虜近

吾屍也遂死鄉中 **忠烈祠** 殉節碑文遂庵權公尚夏撰曰崇禎丙子冬建虜大

舉入寇 上將幸江赫命先奉 廟社王行嬪官元孫大君

及聲 老病者皆從之 大駕進發至南門則虜騎已迫西

邦遂 回駕入南漢城檢察使金慶徵副使李敏求留守張

紳寶篋江都事謂天墜足特盃酒恬嬉弛放戰守備人有

言者輒折辱之丁丑正月二十二日賊渡甲申津慶徽等惶

怯失措奪舸而走江赫遂陷于時原任議政府右議政仙源

金先生尚憲知必不濟歎曰 宗社元孫在此吾死地也事

既悉上南城樓樓據確黃白焚原任工曹判書李公尚吉寓

城外十里地馳入哭於 廟社而殉為原任敦寧都正沈公

親家人具舟楫泣請入海而不聽四拜手跪夫婦併命原任司

憲府掌令李公時傑作遺詞授僕人與司僕寺王傳宋公時榮

孝宗以鳳林大君人此都養人能往返南漢山城者汝宗以書吏應募得達于南漢 仁右嘉其忠勇特內資主簿及還本府後為草

芝葛 朱海壽 私奴事母至孝丁丑亂自縊死 乙亥以孝 旌門庚辰又以忠旌門

丁年二月一州空烈婦爭投水火中北虜

亦驚相願語海東不似漢南風 其時烈女節婦不可勝數也樂

錄其所聞者曰 帶閨清悍之是役歸 鄭氏 武寧李春男妻 者活其人曰東方多節婦不似漢南風云

軍窮獨與姑居及城克賊殲寇未掘之筋負穉兒將出避又值虜果知不可免乃東向四拜曰妾女子不能殉國之志徒死甚恨

願主上平亂享國萬歲 遂引剪刀自刎死 程閔 安氏 學生劉仁立妻也丁亂虜兵倖

無死庸植立終不僵 李氏 執義尹宣妻也丁亂自縊死時

外虜異之遂擄去 宣寧在衛士任未歸子拯年方几

少手整衣余殯屏處置石四隅中施炭灰坐後哭聲負婢將

而出李尚書欲叙之于 上曰李化之從密引決此危危親身尤可

尚也蓋其死最先是 權氏 領相李聖求妻城陷與子尚揆之妻具

云耳特命旌閔 柳氏 昇平府院君金婆妻城陷與其子慶徽之妻

妻者同日自縊 柳氏 昇平府院君金婆妻城陷與其子慶徽之妻

死并 旌閔 柳氏 昇平府院君金婆妻城陷與其子慶徽之妻

沈叔

忠烈公從父身也為義兵將及冠至馳出戰後不復還

李嘉相

及第元

李士達

驗經死於兵

李參

把總守甲津終始力戰而死壬辰因其孫時翊上言命贈工曹參議 莊潤 留守李激臨其後孫成英推給着信

田城其婿娶基表陰祀亦改刻而堅之 基表追祀曰嗚呼丁世忠臣李公墓也舊有表中綴坊人新之誤用彼號紀年忠魂必一倍羞憤遂削而改刻如此 崇市捲主之靈其始安於宋丞相三字否公五代孫奉龍殘甚可憐留後李激請黃

運祿者 安步祥 把總守李奎同死甲津初無嫡嗣留守李激

于石

安步祥

時特以旁孫世恭立後每年殉節之日自官屢給

發物為定式李

全起業

以直子年二十三當丁丑亂父在庭日任所參家亦同此例 起業獨在家欲募兵禦敵其母曰汝父

方在外任吾翁又在喬相 國恩同極今汝死國吾復何報仍取剪刀截取額髮許遂令赴戰起業手無寸刃削木為兵

器後以身殉丙戌留守閔公鎮遠攻其事蹟先文 勳殺壬申留守趙觀彬因士論狀聞給復五十負 黃大坤 科

以把總防賊甲津冒刃而死 丙午留守朴 李嗣後 官 李光元 旌牌 師益狀聞 贈工參議 旌閔 皇上丁丑 贈兵判 李嗣後 官 李光元 旌牌

徐彥吉

身

高義謙

師

車光世

正兵以上五人同死

金得男

鐵甲金使

宋榮春

水軍賊到其村憤擊而死 以上二人亦附表忠悃

李菊華

私奴自縊

韓汝宗

出戰力竭

廟社西來萬姓啼守臣何事醉眠迷雖歸地

丙子雖同其子之針之鉤之鉞屬君義亦做將陶與之針之鉤之鉞妻李氏之劬妻金氏之鉞妻柳氏其長女為崔汝峻妻者其次女未笄者三人及其庶姊及其妻烏劬士室靜潔履整冠服序進乃謂其庶姊曰姊年老未必見辱負此孩可去也既去謂妾曰如汝亦未必死也可隨去妾請假命於是皆自縊而死庶姊至仙源里聞此事托其所負孩於婢亦自縊死。者凡十三人後命督程閱龍岩贈戶判程忠愍配本祠。先正尤蒼作傳紀其蹟。祝曰一門忠孝於于晉下無如公純先正有傳

下應多愧猶見賢兒又義妻丙子難本府檢察使金慶徽副使李

敏求等恃險驕侈杯酒怙嬉馳放戲守及虜渡江慶徽被劫等套洞遁走慶徽妻朴氏妾權皆自縊死并推問敏求子元揆重揆遇賊奪罵不屈而死其從子尚揆亦死亂定慶徽賜死敏求錮。

嗚呼慘矣丙丁羞崖海淮城此一州義魄

忠魂難可數蕭條閭里盡霜秋丁丑韓殉節未康者畧記于下

鄭百亨摩令故留守孝成子也沈之諧士人城陷其母所殺之妻故自縊死閩門死者九人之不得翼蔽同死其妻亦死

老山人

婦女避兵者時咸聚松亭村舍聞公死同日自縊死奴宜男婢
宜禮亦死○青湖祝曰望蔚賢闕迹因泥塗同時取義德則孤

詩禮家中上舍金南城孤守朔雲侵捐生

殉節堂：語火裡江樓共一心金公進士益謙與
權別坐順長守南

門既兵逼借宿金仙源：麾之使去公笑曰相公欲獨判規事
予遂同燒死事聞 贈領議政謚忠正配本祠○青湖祝曰
家傳詩禮名擅布韋指生殉節丑：光輝

金佐郎隨 廟社來南樓火裡一聲雷以

身殉國男兒事寄內書中臆腑開金公佐郎秀
南從 廟社

未城將陷與洪承旨命亨偕詣金仙源語曰職有大小義無異同
下官獨不得為忠臣乎乃出身內書托家僕其書曰以身殉國
男兒素定國事到此身以苟生為幸所望猶在兩兒：在慰母勿
恨吾死遂燒死事聞 贈承旨配本祠○ 祝曰湖濱之報身死吾道
遺書八字前定者早

念昔閔公入海濱忠貞孝烈十三人床頭

敬讀龍巖傳知我東方砥礪身龍巖閔公埤故
宰臣仁伯之子

號學人

晉文

肥赴甲津虜已臨江而陣時檢察使全慶劉俊故求秦何走留身
張帥下碗江口娶餽無戰意具公概坐雪涕循定大呼曰虜
兵渡江豈 布社何地大將不戰請先斬大將而後戰帥大
志度其下收之公推劍大罵曰豎子忘名負國罪通于天吾
恨不以此劍斬汝萬段豈肯以身為豎子所殺死守向南漢
痛哭四拜振劍投江死事贈兵議配本祠 皇上丁丑
贈兵曹判書。 澤堂祝曰跡居禍裨義薄雲天丹心一尼怒
清十年

姜公當敵鎮天君甲串津頭射朔雲此虜

見之猶噴之丹心白首兩將軍姜公興業以十
松與黃中軍善

身出戰江上見黃中軍已死其戰益力不一顧虜志其不屈擲
屍海中猶歎噴之不已曰壯哉白首兩將軍蓋謂姜公黃公也李
開 贈兵議配本祠。 皇上丁丑 贈兵曹判書。 青湖祝曰挺身
當敵死不旋踵委然義烈名與山齊

晉宋人

望蔚賢闕權別坐南樓共對積硝楚可憐

是日松亭舍婦女奴婢抱九泉權公別坐順長
倡義孫守南城

及甲津失舟連其二弟故老母避兵與金龜士益強詣金仙源同
燒死事贈左贊武猛忠烈配本祠。 妻李氏及女等諸宗族

平海人

謹世子繪未及城陷虜逼煇趙南讓公不勝悲憤奮罵不絕口遂與尹尹河善怡姜湖衛渭聘同死事同 贈左贊成德忠顯其弟懷叙亦為虜執數日吾家忠孝以及壯者苟吾無死與衆矣異哉行至鎮江之泓自投死事同 贈史判僉忠愍并享本祠 倉身公祝曰德尊經禮

黃公白髮立江皋浪圻軍中一柱高弦衝

矢虛當日節 先王親見特加褒 黃公訓正善身以本

府中罕見王將既備練之甚力及虜至顧姜千掩輿業曰季去矣吾輩報國唯有一死耳幸若干老殘兵身甲甲津及虜渡江兵皆潰散獨立射賊弦斷矢盡為賊所執不屈而死 孝宗目見其危嘗臨筵歎曰予見黃善身客負甚異人年且老矣乃能獨辦此事特加褒諭 贈兵議配本祠 皇上丁丑 贈兵曹判書 青湖祝曰三軍浪圻一柱捍流視死如歸遺烈千秋

續城人

具公自有一心丹甲串千年怒激湍雲薄

天高剛正氣手中如雪釵光寒 具公元一以千掩聞愛遂

墨洋人

野隱宋公自漢城下儵大義篤 宗務惟

魚其捨惟熊取永訣書中字之明 野隱宋公時榮以司

僕主簿陪禮未及城陷乃書與家人訣遂自縊死其書從密審詳如無季人必奉問 贈左春贊誦忠顯配本祠 澤堂祝日身居下僚義篤 宗務捨魚取熊之死如生

晉州人

姜公陪護到江潯白刃斃中炳赤心斷舌

斷頭雙立膝擎天撐地永如今 姜公謂聘以

陪元孫未及城陷被執虜以白刃臨之使跪公憤罵曰頭可斷膝不可屈虜竟截其舌而殺之李閔 賜吏判謚忠烈配本祠 祝曰穀耻昏朝義殉 天王厄忠卓

在安人

陪護西來李弟兄一門節義任垂名鎮江

泓水流無極忠孝家聲益著明 李公博五以分廣與金守

御扶樹倫帝

南原人

高聖鄉中尹弟兄春秋大義講平生南州

北塞堂之節同立常山萬古名白竹尹公府使除與二弟

集柔卜居長嶺高聖鄉後為南陽府使西子難身節死之弟集以校理斥和虜及丁丑仁廟出城之時

虜索斥和巨廟堂以集及其學士建濟洪淳士翼漢應之入瀋陽不屈同被害此是三學士也後贈祭左

贊成溢忠簡贈集領議政愷忠貞并享本祠府使祀曰天降表亂士奮囊肝一殊孤忠義同常山校理祀曰忠正為隣忠簡在右贊義文權永重宿廟也

昌原人

念昔黃公按義州胡雲常入鉤頭秋雀車

二士同心逝鴨水空如易水流芝所黃公府尹一皓封書

慎之子睿尹義州裝送在車二力士將以復明朝而雪下城之耻事覺所虜所索死仁廟欲以千金贖之不得贈左贊成溢忠烈祀本祠

殉國素志稠慘燕市烈之大義祀曰尊周一念

定安人

質直好人李太常若柔心法是居剛從容

一决秋霜凜遺子書中掩義方竹窓李公時稷以奉常寺

南史

常行直道是洪公殉節初心到海中南樓

坐對仙源哭一死同歸萬古忠

無疆慶洪公承旨命身罷

官居御璽急有飛語云大駕移幸江華洪公遂跋涉
同走入江華大駕實未西幸也乃歎曰命矣夫此必
敗之兆及城陷詣金仙源公相持痛哭同燒死李瓘贈
左贊成謚義烈配本祠。震谷鄭公齊斗作祝曰直道
常行殉節初心大義以貞百世惟欽

南史

洪學士居尼嶽幽尊周大義炳春秋瀋陽

寒雪何堪說赤日東方盪海流

花浦洪公寮去翼漢書呈

官署批就江華摩尼南山谷中峰確僻處居之及虜
之僭號公會為基官上既請斥絕斯其使辭甚激切
丙子難虜大至公出為平據庶尹將送置家於麓
居既而江都城陷其妻許氏二子暉元暉寅許元妻
李氏皆死公亦赴死於虜庭朝廷聽之廉其忠終身
贈領議政文正配本祠。亦享南漢顯節祠
祀曰魯蹈顏厲千古義烈綱樹宇宙忠炳日月

青於人

坡又

沈公大義篤宗祊一語從容婦效貞萬古
綱常由是賴疏中字之淚縱橫沈公都正觀亦在本邑及

城陷其從子東龜備舟泣請出避沈公曰國破家亡生復何兩吾之死決矣妻宋氏在傍歛容曰妾亦請效從容當故事死忠死貞潔身同歸沈公喜曰知子乃能帶於是俱朝服向行朝四拜書遺疏曰臣觀東向四拜上書南漢山城主上殿下臣與妻來同日自決以報國恩書已投外孫朴長遠遂與妻相對繼死事聞贈吏判謚忠烈配本祠○澤堂作祝曰身無官守志篤宗祊一家忠貞萬古綱常

歷教臺閣尹公心曾以風裁動有箴最恨
短刀難刺虜臨危性命海天陰後村尹公焄

及城陷中官以元孫出呼於象曰行不可無從從者從李太常時櫻謂尹公曰子可行矣吾受命護墳今有難不死雖從元孫行亦苟免不去無何虜盡驅城中人出尹公引佩刀自刺不殊虜罵曰恨無短刀豈從汝也連殺我遂被客事問贈吏判謚忠烈配本祠○青湖李公一相作祝曰歷教臺閣風裁自持臨危殺身竹帛名垂

業

陝青蒼一色無冬夏伏願上樑之後神人協慶岳瀆炳靈士
知向方不昧義理之辨鄉推善俗各勵忠孝之倫庶垂愧光
前脩將有辭於來許也
板上海曰午、冠蓋向
何之萬古江都只此祠棟樑實慈恩雨剝乾坤蹟大亦撐支

捐身殉國金相公百世風聲鎮華東硝火
南樓雷霆起穉孫微僕亦丹忠
丙子難仙源
金相尚容徒

廟社主來及城陷與家人訣登南門樓積硝黃據其上
自燒死時孫壽今年十三在側命僕使掖去見挽衣不居
曰當從翁死僕亦不去皆死事聞 旌忠烈 謚文忠建祠
舊址而祀之。澤慶李公植作祝曰廟廟文雅邦家老或捐
身殉國百世風聲

勇

金石貞心李晚沙耆英宿望著朝家西風
一哭先王廟手劍光中海日紅
晚沙李公判書
亦隨 廟社

來寓仙源村舍聞甲津失守命家人俱身擢出避日
宗祀不可殄我國之正所國破當死於社惟馭入府
城就廟社痛哭再拜自劍死事聞 贈左承旨謚忠肅
配本祠。澤慶作祝曰心貞金石望耆英引義自靖震聞仲明

八路控抗之要會不虞海壘般城之防俄成去崩瓦解之
 勢賣國偷命前史所絕希遺君侯親人理之所不忍時惟
 三台舊弼共夫八座卷英止水誓心江承相之素定基城
 赴難下尚書之丹誠或陳既謝君父而夫婦偕止或折簡
 斥圃帥而親戚是訣或促散僚而荷墓畫邑或倡義旅
 而禍慘常山迹穿虎吻定取舍於熊魚命規鴻毛陋冠
 索之倉牘此貞於歲暮岩空回春接燭龍於荒朔冥
 昏如查靡幾國其有賴匪直死而不止旋門贈官雖已
 昭揭于拜典立祠存位尤宜永祀於鄉閭詢食議而大
 同稽禮制而允愜昨陽豐街開廟宇於當時虛海三忠
 享芬芬於異代直治城之近甸適仙源之遺墟茲闢敷
 甸之宮檣式薦一辨之香火役無煩於程督可謂不自
 成之事者閱於激揚亦多聞風起者燥熱眼前之災兀
 儼若地中之精靈日星潛輝江山動色豈但州里鄉黨
 瞻像發而長懷抑亦大夫國人想英烈而於式祖巨之事
 斯在絕誦之聲可與茲消吉而萃樹用假辭而紀美拋標
 一臥長江京口通襟帶兩都增屏衛凝清千古颯英風拋標
 西海成源村落日低不用三千強弩手潮頭只到德虹堤
 拋標南天半瓊瑤上蔚藍莫遠烟嵐翳空碧丹心白日正
 相參拋標北依蒼城坪嚴鎖鑰靈風甘雨洗腥塵芳草年
 年表遺迹拋標上夜精光動星像奪孤疾之指天狼聞
 闔浮雲欲開朗拋標下恨紫愁紅滿平野者取於杉檉廟

十一公無限恨鴨江西北即燕支

在仙杏洞

是乃金相公宅址。仁祖壬午建名顯忠祠。孝宗戊戌賜額曰忠烈祠。祀丁丑殉義諸公二十一位。祭專用二月八月中丁或值國忌則終丁退行。各位皆用簪梁表襪。衣裝則只一口。正廟祭未歸案加定羔牲一口。殿宇士林中差出。正堂七間。前楹三間。內三門三間。成敗堂即講堂。東西齋房。與祀廳。研閣。院生身立房。庫間。外二門。祭器蓋蓋。鑄爵木豆。柶簋香爐。香盒。祭床幣箱。院生別案五十人。元案七十人。童蒙一百人。位田四十八負。童蒙米每名各二斗。復戶米七十五斗。仙源相國金公。工曹判書李公。教宰府都正沈公。奉常寺正李公司僕寺主簿宋公。千摠具公以上六人。孝宗壬午建祠。中軍黃公。千摠姜公以上二人。丁酉建享。侍講院賜善尹公。別室權公。成興金公以上三人。戊戌建享。承旨若承旨洪公。正廟戊申建享。義州府尹黃公。南陽府使尹公司憲府守令。洪公弘文館校理尹公。朔衛司朔衛姜公。刑曹正印金公。廣興倉奇李公。學生李公。學生閔公。進享。澤堂李公。植模正堂。上樞文曰。兪。帝傳捐軀殉義。人臣之大。閱旋烈而賢。禮俗之懿。範益為揭。虞之地。罔非秉彝。之天。一方俱瞻三綱。永賴祖茲。丙丁之變。慘矣。百六之災。南漢重圍。危甚。白登七日。江州保障。僅同。長淮之一隅。以五廟遷。浙之陪都。為

大門洞○大門峴下路東西有屋相連傍碧溪最是

具公登桂籍暮年緜玉謝雲梯大門峴即麗高宗遷都於

亭子山下時以此為南大門云峴之南路之東西洞人多居焉被城人江蒼後孫石村具公星喜改名喜早年登文科累經臺清暮年以緜玉休退耳

廡氏山茔野水邊短松鬱、草芊、瑞雲

北入龍興殿世、宜承雨露天廡氏山即我哲宗外家

基所也 龍興殿在府城內即 哲宗潛邸也

冷井洞○壽嶺東南冷井流居人於此闢田疇鄭金

二雅知幽趣時莫前村野老遊嶺之路邊有井甚冷故因

為洞名耳慶州人秋密後孫參議鄭公孫及安東人仙源後孫全居焉

仙杏洞 忠烈祠 ○環州百水盡東之砥柱屹然 忠烈祠二

距府七里

而願是名者後必有同余志而志之者矣。今皆廢故
寓歎耳。

加里浦頭驚欲眠背簑何老釣城邊李公

亭築君知否一小峯前四水田加里浦在龍
津西北陽城

人李公 嘗經豐川解替退居此地因築亭於此
浦之上今廢但見一小峯四面水田故云

神堂神堂村口立移時柿葉桃花左右籬知我

禹翁今白髮十年面目却生疑神堂即麗朝
祝釐神堂墟

也丹陽世族禹氏多居焉

神智洞。今之神智古神泥麗事如雲月影迷都監

又何經劫火行人下馬意淒淒麗元宗從術
士自勝賢之

古營假闕於神泥洞移設大日王道場于即今之
神智洞又亭于山下移都時置都監故地名通稱都

監我朝亦設副錄都監倉於此而西廣洋火中燒
蕩故寫歎耳

斬鯨樓下水聲多操習千軍揔去何申使
關防誰不憶斜陽撫鈎一高歌

物兩津前洋每年春秋一操也斬鯨樓在龍津鎮

南 肅宗辛未留守金鎮撫使申公厚載始建

為大將坐起所 正廟朝癸卯留寺金公魯鎮有

祀曰樓以斬鯨名將以志之也志之也者天曩

人極所由立也當西丁之難彼豎子債國事者

究厥原則志在無志也惟其無志也故始於偷

惰終以勦勦按丸不放套舸能走則是其志何

鯨之足斬也樓在府之南九里即龍津之墩也

夫有墩必有堞必有門必有樓所以備戰

守不可闕一者也而歲既久樓則廢矣余乃鳩

財僱工又撤旁近廢寺之材以贖之於是不開旬

而聲廷復舊觀美顧今昇平數百年大海之波不

揚吞舟之魚不動可謂廓無事而然必以是而

為務者亦所以擬其志也况 朝家移統崇營於

此以龍壑前洋為水軍操練之所夫建天將之旗

鼓領三道之舸繼乘風揚帆既法有擊楫破浪之

志則於是地而無是樓也噫環一境公浦靠崖凡

墩幾墩幾門幾樓幾而其志於斬鯨則一也登是樓

白髮欣迎我云是遊人少往來

延日人園隱後孫鄉公維

城即康定公權轍外裔也以遺腹生於烟洞獨政村而於黃監司致敬亦為外孫故塔居巖尾亭丁卯本都科與表弟尹榮登第拜右相 謚忠貞字陶村。今其地平壤世族趙義龜居之此地出峯低谷回勢甚狹人所罕到焉。

南山洞○欲尋花樹到南山、下列茅流水間沈益

安兄須共酌舒談終日却忘還

南山洞云者即麗朝創假

闕於神智洞時以此謂南山也余之族宗多居此地故以花樹言之也。豐山人聽泉後孫沈氏及康津世族安氏在其比隣故尋訪舒懷云耳

龍堂寺北即龍津地古人稀草自新却憶

當時桑下夢已過三十七年春

龍堂寺在仙源之東城洋

遠而其北有龍津鎮龍津墩皆古防禦之設而今皆廢焉余嘗已巳春遊宿此寺故未句云耳

緋細因問宋公村古木斜陽鳥自喧唯有

墳塋知舊蹟短碑半卧綠蕪原瑞山人宋公

號畏菴宣廟朝拜持平至自川郡守自其高祖執義公稚始寓此烟洞畏菴之子淵号菴文章德行克繼家聲蔚為一世名儒同時東岳李公安納諸文舉皆相推許與石洲權公韓從遊以詩酒自娛官至珍山郡守烟谷有舊墓今其子孫或在他洞或在他邑唯見舊墓碑碼耳

獨政村幽一谷回鄭公去後孰為墓趙翁

輓中廟朝登文科曾以翰林見許於金安老棄官野卿卜居于烟洞以本府為妻鄉故也官至領相謚康定其子懋登文科壬辰以先州收使起兵大破倭賊於懿時以監司領兵北上又破倭賊於高陽率州陞為都元帥為中興名將官至子判晚年來寓仙源而佛恩整頭作晚翠堂以休進策宣武元勲封永嘉府院君 繼忠莊其子益慶以承旨 孫泰亨曾經龍川未居此地 ○康定公之子愷之後孫多居於此洞 ○樓官戶曾世師

又可知也始役在丙戌四月十三日告訖在六月十日
役之岳畢乃會監董將校工匠等設樂大饗於役處噫
趙公之設始也數十里長堤與三水門同時并舉則其
費之煩可知也門之不用石材者蓋力不贍也余之所慕
是舊堤之隨毀隨補所修者只一門而已用功甚省而
又見其已敗之迹故得為石虹霓而南二門則始未地
傷故仍其蓋石之制後之改修者若用此制并三門而
成純不虹霓則海防與民業可以永久無憂記此非
但告成將以告後人焉

仙源

巨末洞

○巨末洞前野水橫拍崖列屋夕烟生南望

雲谷西廡坂一浦農謳即大清巨末洞者在仙源面

即府治南十五里南有白雲谷李公之址西有廡氏之山坂即我哲宗朝外家墓所也皆同大清浦農作故云耳

烟洞○烟洞村中最一門權都元帥奉祠孫楣前

敬讀丹旌字世之風聲海岳尊木府公勅之子

安東人

於民其初斷嚴為廢也若用是乎重矣當其設
 施之度何其壯也而功雖是門門之世內規外模
 制無奔放之衝撞水而勢則險而生門用之旁又
 於地二去某年不為鱗則此將至門破又
 告於地二去某年不為鱗則此將至門破又
 遠未復為全浩大者潮濕後審其形便累而
 不但功至則可乘此者潮濕後審其形便累而
 一六至則可乘此者潮濕後審其形便累而
 父未復者蓋宜於此者潮濕後審其形便累而
 民業所保蓋宜於此者潮濕後審其形便累而
 財與城役時俱舉而蓋其故肆乃壺之
 崇實由於北旁土饒之衝故肆乃壺之
 撤舊築既拓水道多取石材新舊并壺之
 左布舞妙堦石以制為根長濶厚者橫巨
 疏且稍廣其濶以制為根長濶厚者橫巨
 後備稍廣其濶以制為根長濶厚者橫巨
 未備者只許一日之役民改之切意自

一

坪渚水潤年之稿事奏豐謠
 大渚橋與花島開之滿浦相以而不居人盡以南
 水芙蓉極為大清浦一墩名曰花島數
 早花島開之上有浮水也顯宗甲辰留
 以共形如花梁浮水門其後留寺李
 寺趙復陽有祀花梁水門在沁府之南
 重餘水門有祀花梁水門在沁府之南
 二其在許廣城之北門外有花梁頭
 以十在許廣城之北門外有花梁頭
 洋門之內有大會清浦一島中眾水數
 不從此浦而有大會清浦一島中眾水數
 百結田而會清浦一島中眾水數
 面居民所賴也謂清浦一島中眾水數
 居時沿等大堤橫亘十辰趙公復備
 颶風出沒之憂以防水患之患
 者即浦之口而置三壘門水內不
 所謂浦也門之設壘門水內不
 至於破內之壘則衝海防之患
 雨之慮有堤壘則衝海防之患
 厥又將莽此為斤者蓋彼之三場於
 命

草色閑空地認是當年習陣塲在穴口山南也麗高

榮遷都於亭子山下時以此為西門混焉習陣原係麗朝習陣塲古來看盆店以為生活者多此以下三洞多傷水土下居乍移故皆不詳焉

馬塲洞○馬城西北馬塲村隔水居人各樹藩野霧

山雲簷影裡咳嘶何老戲兒孫即穴口山南也鎮江

馬城之西北溪水之兩邊有村曰馬塲者想必取近得名也此地居人多傷水土咳嘶之聲老少皆然雖有寓居之知已皆欲速移之意故不詳焉

石城洞○穴口山南號石城長原草色一郊程居人

誇說田之廣豆麥相連上下平亦穴口山南也俗傳

麗朝欲奪城於此而輸石尚埋土原中云耳其地多田居人以此生活者多

大清橋 溪沅東走大清橋十里相通花鳥潮滿月

承、猶不墜曾年皆是上庠家

江卷後孫具公進士孫老奉後孫驥與入

元永之孫及從弟族居焉

閔公昌顯之孫及曾孫居焉

三巖○三巖同立德庄東谷、幽居與野通因遇

洞 諸君終日語誦傳一峴朴公風三巖同立

故謂之三同巖也朴公不知何時人而

睿居此地多有行檢故地衣謂之朴公

峴此地居人多有古風故云耳○南陽

人洪鶴谷後孫佐即公應恒之子景文

與其弟景翼來寓此地沈洗馬仍居焉

居焉○青松人青城君後孫沈洗馬仍居焉

之後孫九春堂九代孫喜○與弟綾城人江

卷後孫具公庭士得孫韓俊錫居焉○因

情州人三杞亭之後孫韓俊錫居焉○因

西門洞○地 古西門倚路傍盆烟點、繞耕庄一平

嶺谷嶽瑞鳳
尾村諸考
松卷詳錄

沁都紀行

仁政面
斗頭尾

斗頭我步帶春風一府山川兩眼中明月

洞部著

綠楊諸具塌滿杯麵味使人雄在斗頭尾南

二十里即仁政面也余之世居而西午

春病癩此身欲尋覽一府山川畧探古

蹟遂引斗步之古說而自斗頭步起至

同開世交之具友家因飲數杯而西遊

具友即綾城世族江菴公綱文科翰林十

八登蔓閣之後孫也判安東公成亮後孫也

白雲洞西指白雲山上橫居人尚說李先生漠然

舊址今何辨數谷桃花數谷櫻麗高宋時

學士李公奎報宅址在此洞而常號白

雲居士其後居人因為洞號今其宅址

辨辨。或云李公宅址在長嶺旺林洞云

矣辨。李公驥與人文章鳴世判於書者李文順公

遲々夏向水南涯具閱庭前列植花文學

萃南集

萃南集

佛鬼面

牛頭